개 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문화편

자료제공 (가나다순)

강원문화재연구소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국강고고학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복천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중앙박물관
삼강문화재연구원
삼성미술관 리움
상주박물관
성림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대학교박물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박물관
울산발전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한빛문화재연구원
한신대박물관
박광열
안병찬
최응천
함순섭

일러두기

1. 본 개요서는 신라의 태동에서 고려에 복속된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총서의 내용을 정리 · 보완하여 역사편과 문화편으로 구분, 서술하였다.
3.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서의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4. 집필자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집필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5. 원고는 집필, 편집 후 실무진의 교열과 감수를 거쳤다.
6. 외국어 번역판은 국문 원고를 토대로 번역하였고, 외국인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7. 사진자료는 연구총서 및 자료집의 것을 사용하였다.
8. 외국어 표기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정리하였고,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로마자표기법을 따랐다.

경상북도

발 간 사

천년왕국 신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유의 개방성과 진취성으로 실크로드를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세계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역사서가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터전인 경상북도가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뿌리찾기 사업을 펼친다는 역사적 소명도 함께 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는 가장 큰 규모의 신라사 편찬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로국의 출현에서부터 고대국가체제로의 발전, 한민족을 아우른 삼국통일의 완성, 고려로 이어진 신라의 전체 역사를 시대적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해를 높였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연구총서를 집필하고 발간한다는 것은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라가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 문화의 원류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2011년 '신라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를 시점으로 완성되기까지 장장 5년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국내의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힘을 모은 역작으로 총 30권, 1만 2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는 오로지 편찬위원, 편집위원, 집필진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편찬의 성과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세계와 교류했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신화와 전설, 문화유산은 우리에게는 문화콘텐츠의 바탕이 되어 문화 관광산업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암울한 중세를 종식시켰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를 형성하였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문화혁명의 시기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이 첨단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이야말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가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변치않는 역사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미래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미 신라는 오래전 사라진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찾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경북시대의 힘찬 출발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시기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완성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북의 여정에 정신적·문화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편찬이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기를 바라며,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에 길이 남을 대중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서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경상북도지사

편 찬 사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700년 이상은 삼한 열국列國 중의 한 나라인 사로국斯盧國으로 출발, 일전一轉하여 왕국으로 비약한 뒤 선진 고구려·백제와 더불어 정립鼎立의 형세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삼국통일 이전의 장구長久한 한국고대사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삼한 및 삼국 전체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파악할 때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이해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半世紀 동안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문에서 눈부신 연구상의 진전을 보았으므로, 그 풍성한 성과를 편의상 각 나라 별로 총정리·집대성하는 노력이 줄곧 시도되어 왔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북한 당국이 일찍부터 고구려를 삼국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백제와 신라를 그 부용附庸국가로 폄하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에 온갖 힘을 쏟아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쪽에서도 가야사와 백제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야심찬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를 임시로 두어 가야문화권 개발과 정비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수년 간 김해지역의 가야 사적史蹟정비와 더불어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추진기관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아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3년 간에 걸쳐 연구총서 15권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고고학자료를 수록한 『백제문화사대계大系』 25권을 발간하여 학계에 비익裨益한 바 매우 컸습니다.

이같은 추세와 동향에 비춰볼 때 경상북도가 2011년 12월 경북문화재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사업에 착수한 것은 좁게 보면 경북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사의 근간根幹이 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현단계에서 총정리함으로써 그 빛나는 전통을 재정립再定立하려는 뜻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라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대사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사 연구 자료의 쌍벽雙璧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개 신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보조사료인 비문碑文 등 금석문金石文자료도 신라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며 또한 신라사회의 내부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목간木簡만 하더라도 백제에 못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들은 삼국 중 신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신라는 성장 과정에서 정치·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습니다. 이는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신라의 문물이나 사회제도를 갖고서 자료가 없어 잘 알기 어려운 고구려·백제의 그것을 유추類推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신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구려·백제·가야 세 나라 역사 이해의 기초를 잡아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본 편찬위원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 그 밖에 전체 개요概要 2권의 한국어판과 그에 대한 3종의 외국어판을 펴냄에 있어 그것이 한낱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시켜 애향심愛鄕心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랄까 사명감에서 편찬에 임했습니다. 다만 140인 가까운 전문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270편의 글을 모은 대부서大部書를 엮는 거창한 사업인 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난관에 부딛쳤으며, 이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移轉사업과 연계되어 있던 본 총서의 출간이 예정보다 2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끝까지 인내忍耐해 준 경상북도 당국의 넓은 양해諒解에 감사하며 특히 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한 이주석·주낙영·김현기·김장주 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편찬위원회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반 편찬실무를 훌륭하게 집행한 편집위원회의 노중국·주보돈·이희준 교수와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이동철 선생의 헌신적인 노고에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기 동

개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문화편

목 차

들어가면서

이 책은 천년에 걸친 신라의 문화를 서술 대상으로 한다. 자연히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구성 항목을 나누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문화란 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도록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문화라는 단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마다 뜻하는 바가 다를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상들을 포괄한다. 그만큼 지구 위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 조건이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데다 그런 사실들 자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서로에게 널리 알려진 탓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문화를 한 마디로 알기 쉽게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기란 무척 어렵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인간 집단의 여러 현상을 몇 개의 분야로 나눌 때 흔히 정치·경제·사회·문화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앞의 세 부문을 제외한 현상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네 분야가 지칭하는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단어들처럼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 인간 집단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힘 또는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정치 부문과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경제 부문 그리고 집단의 구조와 관련된 사회 부문을 제외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에게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일러주지는 않는다. 그 구체적 내용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인간과 관련된 여러 현상 가운데 특히 문화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류학에서의 논의에 기대어 볼 수 있겠다.

인류학에서는 그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드워드 타일러가 일찍이 1871년에 문화를 정의한 적이 있어서 널리 인용된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능력 및 습성들"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문화가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이 잡힌다. 다만, 인류학의 이런 정의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의 문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 등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문헌 기록은 거의 대부분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문화를 직접 서

술한 사례는 별로 없다. 이는 특히 신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신라의 문화를 서술하는 데서는 고고학자들이 문화라고 부르는 이른바 물질문화가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고고학에서 흔히 쓰이는 문화 개념은 1929년 고든 차일드가 정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각 잔존물—토기, 도구, 장식구, 무덤 유구, 가옥 형태—의 특정 유형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됨을 발견한다. 그처럼 규칙적으로 공반되는 특성들의 복합체를 우리는 '문화집단' 혹은 그냥 '문화'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바로 여기서 거론한 토기 등 물품과 무덤, 주거의 잔적은 신라의 문화를 서술하는 데서도 주요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두가 길어졌지만 이상으로 이 책에서 신라의 문화를 다루면서 서술할 세부 항목을 뽑을 때 어쩔 수 없이 고고학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분야나 물질 잔적 혹은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상당 부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해 꼽을 수 있는 문화의 항목으로는 취락과 주거, 무덤과 장송의례, 복식, 물품 그리고 대외 문물교류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해낼 수 있는 항목들로는 종교와 제의, 학문과 문학, 생활문화, 예술, 과학과 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서술 항목들을 설정하고 나면 이제 서술 방식이 과제로 떠오른다. 가장 바람직한 서술 방식이야 물론 위에 든 항목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이 될 터이다. 그래야만 각 문화 분야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별로 잘 남아 있는 해당 항목 물질 자료와 역사 기록의 편차가 심할 뿐더러 특히 물질 자료인 경우 고루 확보되어 있지도 못하다. 이를테면 물질문화는 역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다양성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분야도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관련 문헌 기록의 차이도 시대에 따라 너무 커서 항목별 서술을 그대로 지키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신라사를 몇 개의 시기로 나누고 시기별로 각 항목의 흐름을 되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통시간적 관점에서 서술할 수밖에 없겠다. 시대별 전체 문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 방식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도 하다.

신라 천년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변동과 굴곡을 거쳐 전개되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신라사 자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몇 시기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이미 신라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본 사실이 확인된다. 두 역사서 각각이 내세운 시기 구분의 기준이나 강조점이 달라서 설정된 시점에서도 자연히 차이가 난다. 양자 사이의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로 합쳐 정리하면 신라의 역사는 크게 상고上古, 중고中古, 중대中代, 하대下代의 네 시기로 나뉜다. 그런데 이 네 시기 가운데 상고는 유난히 길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전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두 시기, 즉 사로국 시기와 마립간기로 나뉨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라 천년의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 즉 사로국 시기(BC57-AD356), 마립간기(356-514), 중고기(514-654), 중대기(654-780), 하대기(780-935)로 구분되는 셈이다.

이 다섯 시기 각각은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아야 마땅하다. 다만,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기와 하대기는 서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구분이 그다지 선명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통일신라라는 하나의 시기로 잡는 편이 나을 듯하다. 그리고 문화를 알려주는 자료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통일신라 시기는 앞 시기들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자세하다. 특히 문화 관련 문헌 기록은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통일신라 이전 신라와 통일신라의 두 편篇으로 나누고 전편은 사로국 시기, 마립간기, 중고기로 세분하기로 한다.

이른바 고古신라기와 통일신라기라는 큰 구분은 실제로 각각 문화의 세부 항목 설정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사로국 시기와 마립간기의 문화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서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연히 고고학 자료로 알려진 물질문화가 중심이 된다. 이 두 시기는 취락과 주거, 무덤과 장송의례, 복식, 물품 그리고 대외 문물교류를 항목으로 서술하기로 하되 취락 관련 자료가 그다지 없어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가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마립간기의 취락 관련 자료는 조사 사례가 없어서 왕경의 도성과 관방 유적, 지방 각지의 성곽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림 1 사로국의 발전에 철문화가 토대가 되었음을 생생히 증언하는 철기 다량 부장 무덤(경주 사라리 130호묘)

그림 2 마립간기의 황금문화를 대표하는 금관(서봉총 출토)

중고기는 고고학 조사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무척 활발한 마립간기와 통일신라 시기 사이에 낀 사각지대에 가깝다. 특히 취락 관련 자료는 전무하다시피해서 이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고신라기 내의 일관성 견지라는 관점에서 무덤과 장송의례, 복식, 물품, 대외 문물교류 항목은 그대로 설정한다. 다만, 이 시기에 들어 개시된 불교미술 항목을 별도로 다루고 또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금석문 항목을 따로 설정하되 다음 시기인 통일신라 시기의 금석문도 거기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이는 되도록 각 문화 항목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무덤과 장송의례 항목에서도 통일신라 시기는 중고기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역시 그 시기의 것까지 여기서 함께 서술한다.

통일신라 시기는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하되 물질문화를 보조 자료로 하는 서술을 할 터인데, 먼저 왕경과 지방 도시에 대해 다룬다. 이에서는 앞 시

그림 3 중고기에 본격 도입된 금석문과 유교문화를 잘 보여주는 임신서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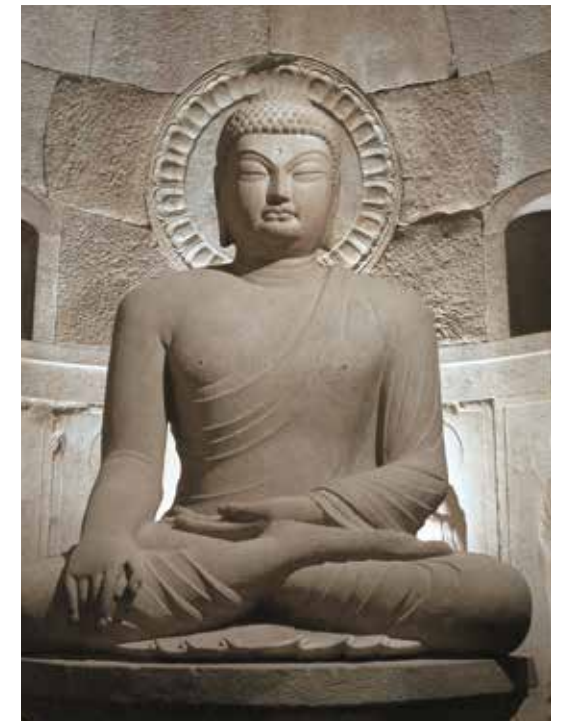
그림 4 통일신라기 불교문화의 정수인 석굴암의 본존불

기, 특히 중고기에서 해당 내용이 많지 않아 다루지 않고 넘긴 왕경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무덤에 관해서는 앞의 중고기에서 일괄해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왕릉 항목을 따로 설정해 사로국 시기부터 전체적으로 다룬다. 이어서 토착종교와 국가제의 그리고 불교를 내용으로 하는 종교 항목을 서술하고, 불교미술을 별도 항목으로 좀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는 불교와 관련된 조각·건축·공예가 유형적 신라문화의 중요한 특징이자 성취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학과 문학 항목, 음악 항목, 과학과 기술 항목을 서술한다. 과학과 기술에서는 천문과 역법, 도량형, 의약, 물품제작기술, 목판인쇄술을 다룬다. 나머지 항목으로는 통일신라 시기의 복식과 신라 전全 시기의 음식문화 및 주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문화 항목과 통일신라 시기의 농경과 물품 항목 그리고 대외 문물교류 항목이 있다. 대외문물 교류에서는 이 시기의 문헌 기록으로 알려진 인적 교류 사항도 포함한다.

제 I 편

신라

제 1 장

신라문화의 태동

사로국 시기

6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가야의 주 무대였던 영남지방은 전체적으로는 낙동강 본류 및 대소 지류들의 유역에 해당한다. 그 수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크게 보아 동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 일부뿐이다. 이런 가운데 신라의 모태인 사로국의 무대이자 마립간기 이후 신라의 중앙이었던 경주지역은 아주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주지역은 낙동강 유역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동해안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분지이다. 이 지역은 태백산맥 줄기의 아래 끝부분에 해당하면서 동해로 흘러드는 작은 강인 형산강의 중, 상류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

경주지역은 이런 입지 때문에 낙동강 본류를 낀 대구에서 그 지류인 금호강을 거슬러 동으로 나아가 영천을 거쳐 동해안, 특히 동남해안 그리고 낙동강 하구 쪽으로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된다. 거꾸로 동남부의 해안 쪽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여러 교통로의 결절점인 동시에 관문과 같은 입지이다. 그런 입지는 철의 수출 같은 대외 교역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진·변한 시기에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하여 사로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무덤 등의 고고학 자료로 보건대 사로국이 초기국가로서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서기전 2세기 말 1세기 초이며, 그 즈음 군을 이루고 조성되는 목관묘들이 중요한 증거이다. 사로국이 성립하는 과정은 문헌 기록에서 신화나 설화적 형태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경주 일원에는 서기전 1세기 전반에 이른바 6촌村을 이룬 정치집단이 정착하였고, 뒤이어 박朴, 석昔, 김金의 세 족단이 잇달아 이주해 서로 정치적 우위를 다투었다. 이들이 보유한 성씨 자체는 당연히 후대에 부회된 것이지만 그것은 경주 분지에 다양한 집단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주·정착하였음을 반영해준다. 이들은 각기 사로국을 구성하는 읍락을 이루었다.

이후 사로국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기본 구조는 정치적 중심지라 할 국읍國邑과 다수의 읍락邑落으로 구성된 형태였다. 시기가 내려가면서 읍락의 수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그 요인은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이주민의 유입에 의한 인구의 증가였다. 다만, 그것이 진행된 구체적 과정과 내부 실상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사로 6촌이 읍락의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를 후대의 부회라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확정적이지는 않다.

사로국은 차츰 진한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 점은 무덤에 부장된 유물 가운데 당시 생활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철기가 특히 경주 일대에서 가장 다양하고 집중적인 양상을 보이는 데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사로국은 2세기 중반에 이르러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한조韓條에서 한예韓濊가 강성해 한漢 군현에 위협적 세력이 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현상은 2세기 중엽에 기존 목관묘를 대신해 목곽묘라는 새로운 묘제가 도입된 사실이다. 목곽묘는 자체의 규모나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앞 시기 목관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배경은 제철 기술의 발전이었다. 철제의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 등의 제작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으로써 생산력이 향상되고 사회 분화가 가속화된 결과였다.

3세기 말엽에는 사로국이 여전히 진한의 이름으로였지만 적지 않은 동료 국가와 함께 여러 차례 한반도 내의 낙랑·대방군 등 군현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까지 나아가 교섭을 하면서 선진문물을 입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13년과 314년 고구려가 남하해 낙랑군과 대방군을 복속시키는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야기된 파동은 곧장 남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유이민이 남쪽으로 이주하였고 그처럼 바깥에서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한사회 내부에서는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구체적 과정은 사로국이 이웃하는 나라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나간 것이었다. 그 결과로 진한의 기반을 대부분 승계 흡수해 성립한 것이 바로 신라였다.

1

취락과 주거

취락 분포 정형

경주지역 자체의 지형을 보면 형산강의 지류들이 사방에서 곡간지대들을 형성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이웃 영천의 금호강 상류 수계와 분수계로서 대천大川이 동으로 흘러나오면서 하나의 단위 곡간지대를 형성한다. 남쪽으로는 이웃하는 언양의 낙동강 하구 수계와 분수계로서 형산강 상류인 인천麟川이 북으로 흘러나오면서 곡간지대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형산강 하류의 지류들이 곳곳에 곡간지대를 형성한다. 그 가운데 특히 동서로 발달한 곡간지대는 동북쪽 동해안 지역에서 태백산맥 남쪽 끝자락을 돌아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유역의 영천으로 넘어가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동남쪽에서는 남천이 흘러나와 형산강에 합류하는데 이 남천과 수계를 나누는 동천은 동일한 곡간지대를 따라 동남으로 흘러 동해 바다 태화강 강구로 이어진다. 이렇게 상호 구분되는 경주지역의 주요 곡간지대들은 자연스럽게 각각 읍락의 무대가 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한 데 모여 사로국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읍락들 자체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문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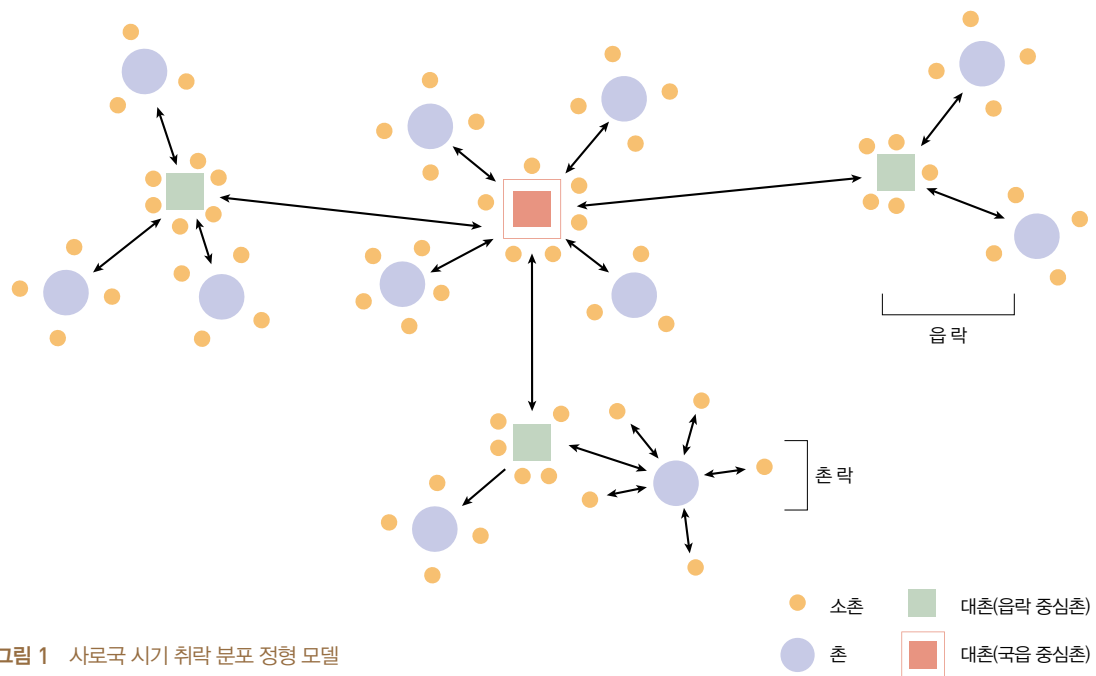
그림 1 사로국 시기 취락 분포 정형 모델

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변한 시기 각국의 취락 구조를 알려줄 수 있는 주거 유적들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다. 이런 까닭에 취락 근처에 조영되면서 인간 집단의 거주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당시 고분군의 분포로써 취락들의 분포와 그 구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로국 시기의 각 고분군이 복수의 취락에 대응한다고 보면 사로국 시기 취락 분포 정형은 〈그림 1〉처럼 모델화해볼 수 있다.

서기전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를 전후해서는 경주 분지 곳곳의 곡간지대에 목관묘들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또 이 목관묘군에 이어 대개 같은 지점에 목곽묘군을 비롯한 나중 시기의 무덤들도 조성됨으로써 오랜 기간 일종의 공동묘지로 계속 쓰인다. 뒤의 〈그림 2〉에서 보듯이 목관묘군의 분포가 경주 분지 곳곳에서 널리 확인된다는 점은 곧 그것을 영조한 사람들의 취락은 물론 그 이후 시기의 취락도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고 대체로 각 공동묘지 인근에 고정, 유지되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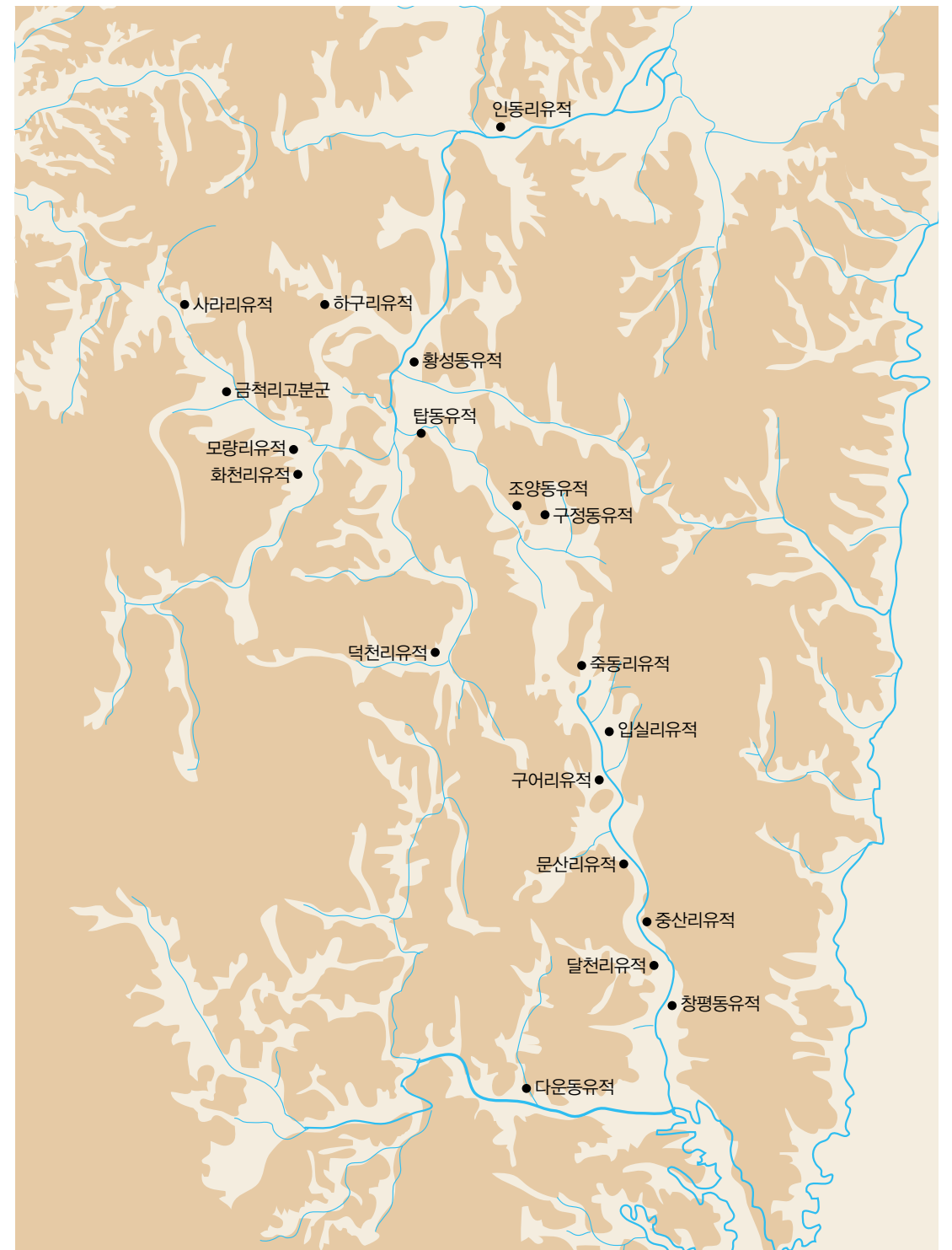
그림 2 경주지역 사로국 시기 유적 분포도

비슷한 시기에 영남 각지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관찰되고 또 경주에서 안강 인동리 같은 교통의 요지이되 옹색한 지점에도 목관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으로 추정하건대 목관묘들은 앞 시대의 읍락집단 사회가 모종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결집한 상황을 암시한다. 이는 읍락들의 연합체로서 출발한 사로국의 성립을 가리킨다고 해석되며 위에서 말한 경주의 곡간지대들 중심으로 한 자연 환경으로 보건대 사로국에 5~6개의 읍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발굴된 취락과 생산 유적

이제까지 경주 일대에서 확인된 생활유적으로는 황성동 취락유적과 월성 인근 주거유적을 들 수 있고, 생산유적으로는 황성동 철기 제작 관련 유적이 대표적이다.

황성동유적은 주거지로 대표되는 생활유구와 목관묘·목곽묘 중심의 매장유구, 그리고 철기생산과 관련된 생산유구 등이 한 데 모여 있되 구역을 달리하면서 조성된 복합 유적이다. 이 유적은 경주 분지 북서쪽 형산강 변의 해발 30m 내외 충적대지에 강의 방향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쪽 구역은 분묘유적이고, 남쪽 구역은 생활 및 생산유적이다. 황성동 생활유적에서는 사로국 시기의 주거지가 모두 47동 확인되었는데, 크게 보아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주거지는 전체 유적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모두 17기가 발굴되었으며 대개 평면이 원형이다. 지름 4~5m로 넓이가 20m² 정도인 소형이 주류이며 땅을 아주 얕게 팠다.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얕은 수혈 벽면에 치우쳐 소규모 단야 작업 및 취사와 관련된 화덕이 있다. 이 화덕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주거지 바닥을 오목하게 약간 판 형태와 부뚜막 형태이다. 일부 주거지의 화덕 근처에 모룻돌로 사용한 흔적이 뚜렷한 큰 돌이 놓여 있고, 또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에서는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작은 철 덩어리들이 출토되었다. 이 철 덩어리들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해본 결과 사철을 원료로 하였음이 밝혀졌다. 유적의 연대는 서기전 1세기 후엽에서 서기 1세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로 비정된다. 이 이른 시기의 주거지는 철기 제작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면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야 공방의 성격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늦은 시기의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말각장방형이 주류로서 앞 시기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대체로 땅을 아주 얕게 파거나 아예 땅위에 바로 집을 세운 구조이며, 벽체는 점토에 짚을 섞어 만든 흙벽으로 보인다. 크기는 앞 시기에 비해 커져 30m² 이상인 것들이 많다. 내부에는 화덕이 1개 정도 확인되며, 한쪽 벽면에 고래 시설 같은 난방시설이 붙어 있다.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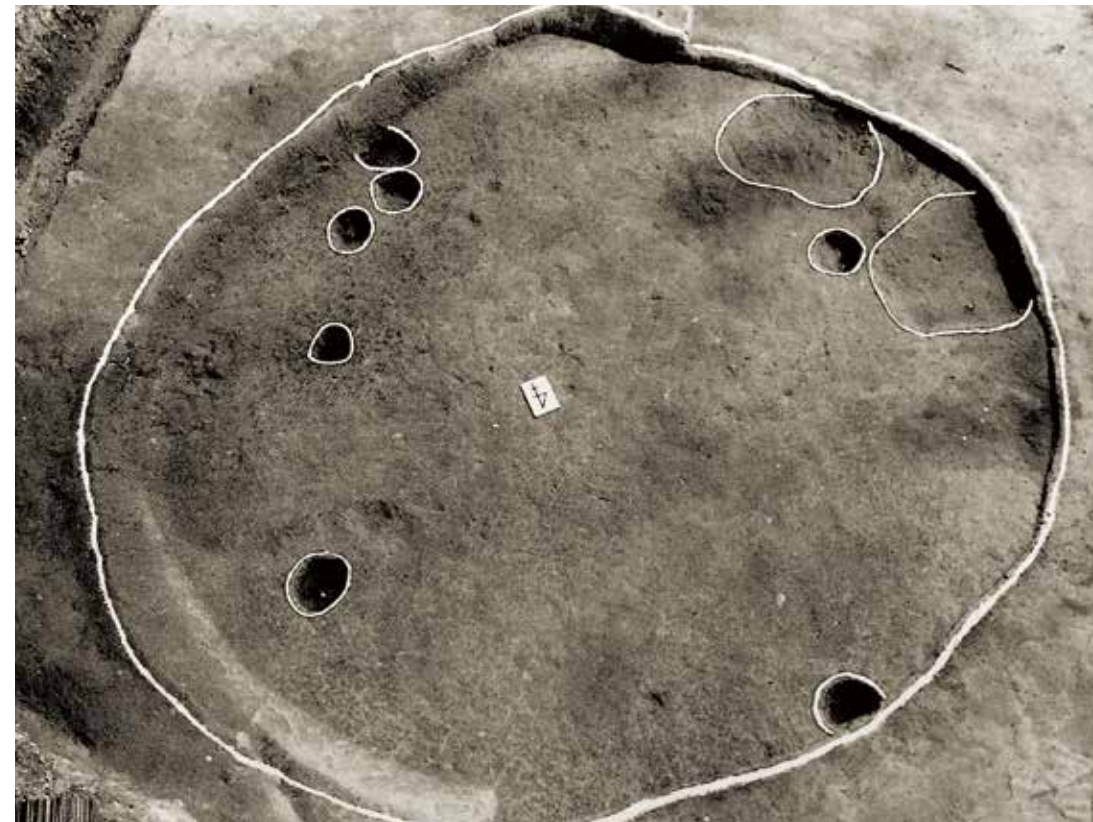
그림 3 경주 황성동유적 I-다-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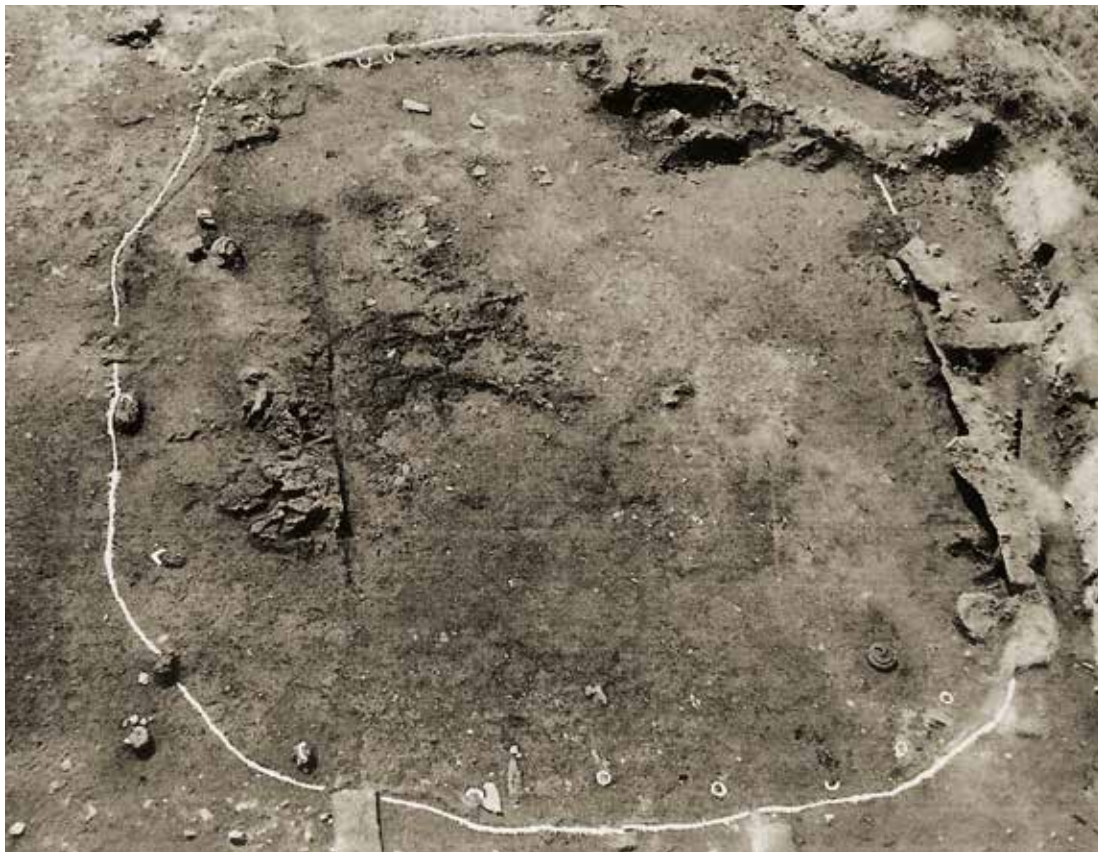
그림 4 황성동유적 I-나-6호 주거지

류이다. 주거지의 연대는 3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한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앞 시기의 단야공방을 겸한 주거지와는 달리 철기제작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장인들의 주거지가 많은 듯하다. 즉 이 시기로 오면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공정은 야외의 독립된 단야로, 용해로 등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주거지는 장인들의 거주 공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월성 인근 주거유적은 월성과 계림 사이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수혈유구로 당시 이 일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로국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2동과 수혈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1호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말각장방형이고, 규모는 700cm×340~400cm로 추정할 수 있다. 주거지와 수혈에서 출토된 유물은 3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그림 5 경주 월성 부근 생활 유적 1호 주거지

편년된다. 이 주거지들은 월성해자가 만들어지면서 파괴되었다. 이로 보아 월성과 그 해자가 설치되기 전에 이곳 일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월성 북편의 평탄지뿐만 아니라 월성 내부에도 취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이로부터 멀지 않은 '쪽샘지구'에서 이 시기에 평행하는 목곽묘들이 발굴되었다. 묘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일부밖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일대에 다수의 목곽묘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곽묘들은 월성 인근 취락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위치해서 생활공간과 매장공간이 격리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에 황성동의 분묘군과 주거군, 제철공방군 등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되 인접 분포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황성동 취락집단은 월성

일대에 기반을 둔 집단의 통제를 받은 하위 생산취락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성동의 철기 제작 관련 구역에서는 선철을 생산한 제련공정 유구는 없고 제품 생산 단계의 시설로서 주조철기 생산과 관련된 용해로와 단조철기 생산과 관련된 단야로가 중심을 이룬다. 이른 시기의 단야공정 유구는 앞서 말한 사로국 시기 초기의 원형 주거지들 내부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 생활유적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생활공간인 주거지와 생산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늦은 시기의 유구로는 야외에서 조업한 단야로와 소규모의 독립된 용해로가 조사되었다. 이는 황성동에서 철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로 시간이 지날수록 철을 다루는 기술력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2세기 후반 이후 3세기에 이르러 철 소재를 녹여 철기를 제작하는 용해, 정련, 단련의 철기제작 공정으로 분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늦은 시기의 단야로는 타원상의 얕은 수혈을 파고 그 내부 중앙에 50~100cm 크기의 타원형으로 설치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바닥에는 목탄이 깔려 있고 주변에는 모룻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큰 돌덩이와 단조박편鍛造剝片이 흩어져 있다. 용해로는 직경 100cm 전후의 타원형 수혈을 파고 노벽편 등을 섞은 흙으로 바닥을 채운 후 다시 지름 50cm 정도의 크기로 구덩이를 굴착하고 짚을 섞은 점토를 이용해 그 벽체를 만든 구조이다. 이런 용해로의 주변에서는 모루돌과 단조박편, 슬래그 등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슬래그 중에는 물방울 모양으로 고착된 것도 있어서 소규모의 용해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정련로, 제강로도 확인되었다.

황성동 철기 제작 유적의 발굴조사로 사로국에서는 늦어도 3세기에 이미 다양하고 분업화된 형태의 발전된 대규모 철기 제작 산업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의 황성동유적에서 쓰인 지름이 큰 송풍관 형태는 훨씬 나중의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졌다.

2 무덤과 장송의례

사로국 시기 전기의 대표 묘제인 목관묘

사로국 시기의 전기前期, 즉 대략 서기전 1세기 초부터 서기 2세기 전엽에 걸친 시기의 주된 묘제는 목관묘이다. 이는 요즈음처럼 무덤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 관을 안치한 다음 그 위를 흙으로 얕게 쌓아 덮은 형태이다. 이 시기의 무덤을 목관묘라고 부르기는 하나 경주지역에서 목관의 실물이 출토된 적은 없다. 다만, 1988년 창원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목관 실물과 여타 고고학적 증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목관이 쓰였음을 말해 준다. 한 가지는 사람의 키보다 약간 긴 길이의 통나무를 세로로 반절하여 안을 파낸 후 다시 맞춘 이른바 통나무 관이다. 다른 한 가지는 판재로 짠 상자 모양 관이다.

이런 두 가지 목관의 형태 차이는 계통, 혹은 전통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고 대개 각각을 사용한 주민의 출자가 달랐을 것으로 본다. 통나무 관에 관련해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속하는 화순 대곡리 묘에서 발견된 목관 조각이 원래 통나무 관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연결시킨다.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면 통나무 관은 앞 시대와 연결이 되므로 자연히 토착민의 관 형태가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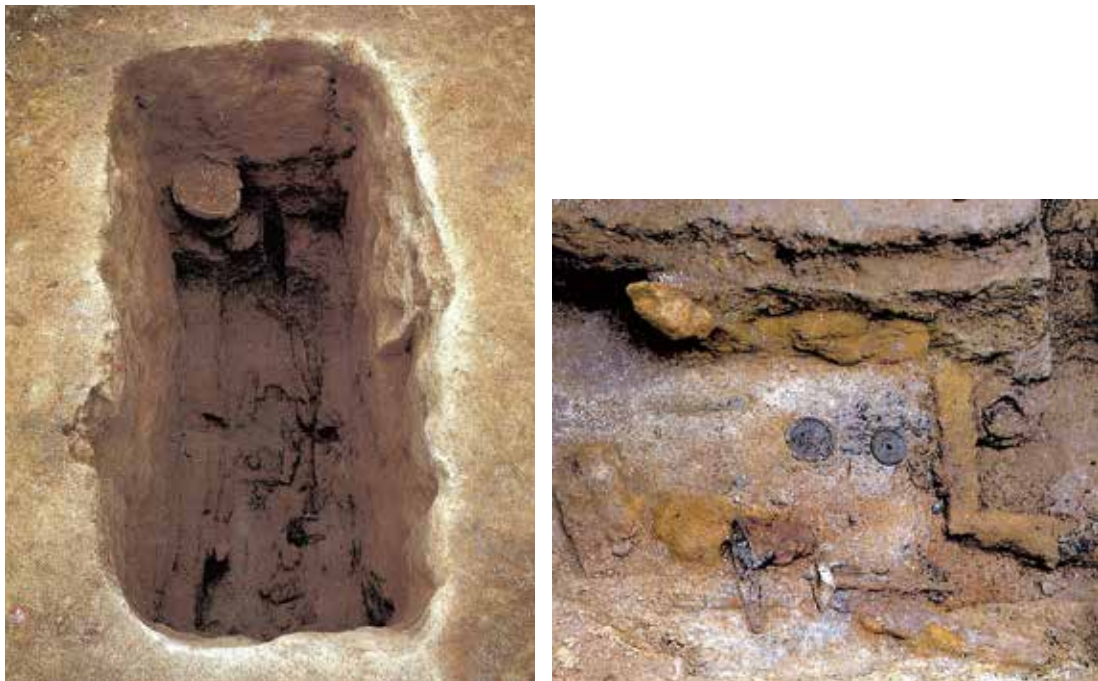
그림 6 경주 조양동 38호묘(좌)와 세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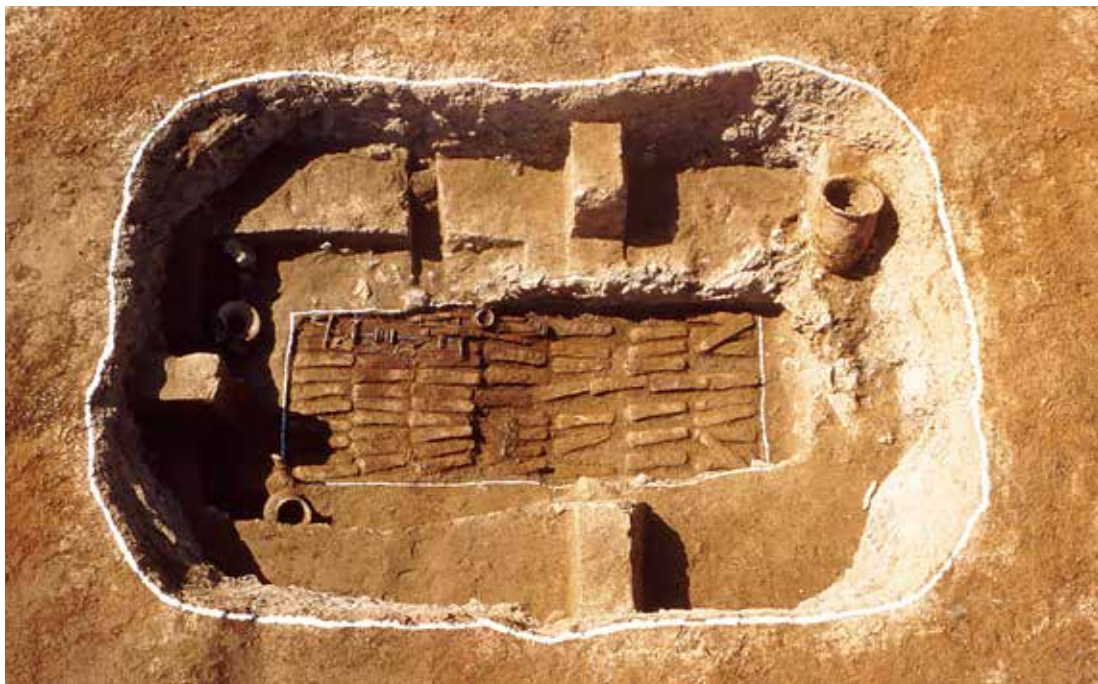
그림 7 경주 사라리 130호묘

다. 반면 판재 관은 그 기원에 대해 딱히 어디라고 연결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반도 서북지방의 목관묘 형태를 염두에 두어 그곳으로부터 온 이주민과 연결 짓는다.

사로국 시기 전기의 대표 묘로 흔히 드는 조양동 38호묘의 묘광은 길이 258cm, 너비 128cm, 깊이 150cm 내외이고 목관은 길이 190cm, 너비 65cm, 높이 30~40cm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깊은 묘광은 시신 공간을 밀폐하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얕아지는 추세가 분명하다.

묘광의 주축 방향은 대개 동서향이고 머리를 둔 방향은 동쪽이다. 이는 적어도 마립간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목관묘의 봉분이 어떤 형태이고 크기였는지를 직접 일러주는 사례는 없다. 약간의 간접적 증거는 목관묘의 묘광 둘레에서 발견된 도랑[周溝]이다. 덕천리유적 목관묘 16기 가운데 대형묘 4기의 주구는 평면이 '一'자형, 'ㄷ'자형, 'ㅁ'자형인데 뒤의 두 가지는 모두 묘광의 긴 변을 따른 주구 부분이 길어서 봉분의 평면 형태는 긴 타원형이었거나 긴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구로 추정되는 봉분의 최대 규모는 길이 800~900cm, 너비 600~700cm이다. 이런 수치는 최대한으로 보았을 때의 규모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상당히 작았을 수도 있다. 봉분의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으나, 요즈음의 무덤 봉분처럼 불룩하게 솟아오르지는 않았고 위가 평평하지 않았나 싶다.

사로국 전기에서도 늦은 단계를 대표하는 목관묘로 사라리 130호묘를 들 수 있다. 이것의 묘광은 평면 형태가 말각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332cm, 너비 230cm, 깊이 100cm이다. 그 안에 놓인 목관은 길이 205cm, 너비 80cm로 추정된다. 목관은 토층과 묘광 바닥면에 나타난 흔적에 의하면 평면 형태가 'ㅍ'형이고 판재로 짠 것이다. 피장자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길이 74cm, 너비 60cm, 깊이 15cm의 요갱[腰坑]이 설치되었다. 특히 목관과 묘광 사이에 많은 유물이 공헌된 점은 의례의 정교화를 잘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만약 이 사라리 130호묘의 묘광 평면을 따라 그 유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틀로서 외피 구조가 설치된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단계의 목곽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

라리 130호묘를 목곽묘의 선구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목관묘와 더불어 사로국 시기 전기에 쓰인 묘제인 옹관묘는 목관묘들 사이사이에 설치되었다. 유아 및 소아의 묘인 옹관묘는 사실 주류 묘제는 아니라서 여기서는 목곽묘 단계의 것까지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옹관의 구조는 사로국 시기 전기에는 황성동 강변로 1호 옹관묘처럼 단옹식單甕式도 있으나 대개 같은 기종의 토기를 두 개 결합한 합구식合口式이 많다〈그림 8〉. 그러나 후기로 가면 다른 기종간의 조합이 증가하면서 양뉴부호兩紐附壺에 반구완盤口盌 혹은 파수부완을 결합한 사례가 많고 또 그에다 시루 등을 가운데에 더한 삼옹식三甕式도 쓰인다. 사로국 시기 옹관의 규모는 대개 길이 1m 전후이며 장축 방향은 등고선의 방향과 평행한 동서향이다. 묘광은 옹관의 규모보다 약간 크게 굴착하였다. 아마도 지상에 무덤 표시가 있었을 터이지만 그에 관한 증거가 남은 사례는 없다.

그림 8 합구식 옹관묘(경주 화천리 1호 옹관묘)

사로국 시기 후기의 대표 묘제인 목곽묘

목곽묘는 목관묘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와 유물 부장 양상을 띤다. 이는 결국 여러 지역 수장의 정치 권력 증대와 그에 따른 매장 의례의 강화를 위해 부장 공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앞에서 사로국 전기의 대표 묘로 든 조양동 38호 목관묘와 사로국 후기의 대표 묘로 황성동 강변로 1호 목곽묘(묘광 길이 414cm, 너비 338cm, 깊이 39cm, 목곽의 추정 길이 275cm, 너비 206cm)〈그림 9〉를 상호 비교하면 둘의 규모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그래서 2세기 중엽에 이런 목곽묘가 등장한 사실은 이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사회를 반영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의 사라리 130호묘 같은 목곽형 목관묘에서 보았듯이 이전부터 내적으로 꾸준히 축적된 일련의 변화가 그 즈음에 이르러 한꺼번에 분출한 결과였다.

목곽묘가 묘제로서 지닌 특징을 들어보면 우선 묘광 및 목곽의 장단비가

그림 9 경주 황성동 강변로 1호 목곽묘

이전에 비해 아주 작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또 목곽묘로 오면서 일어난 현저한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묘광의 깊이가 크게 얕아진 것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목곽 자체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에 그것을 덮은 봉분의 외양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목곽묘는 평면을 기준으로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은 초기 형태인 반면 뒤의 둘은 대체로 그에 이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어떻든 장방형과 세장방형은 시간이 흐르면 주인공을 묻은 주곽과 부장품만 따로 넣은 부곽으로 이루어진 주·부곽식이 된다.

목곽묘의 봉분 형태와 규모를 추정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울산 중산리유적에서 호석을 두른 사례가 확인되었다. 묘광의 길이가 840cm인 세장방형 주부곽식 위석목곽묘인 울산 중산리 ⅠA-26호에서는 길이 1480cm,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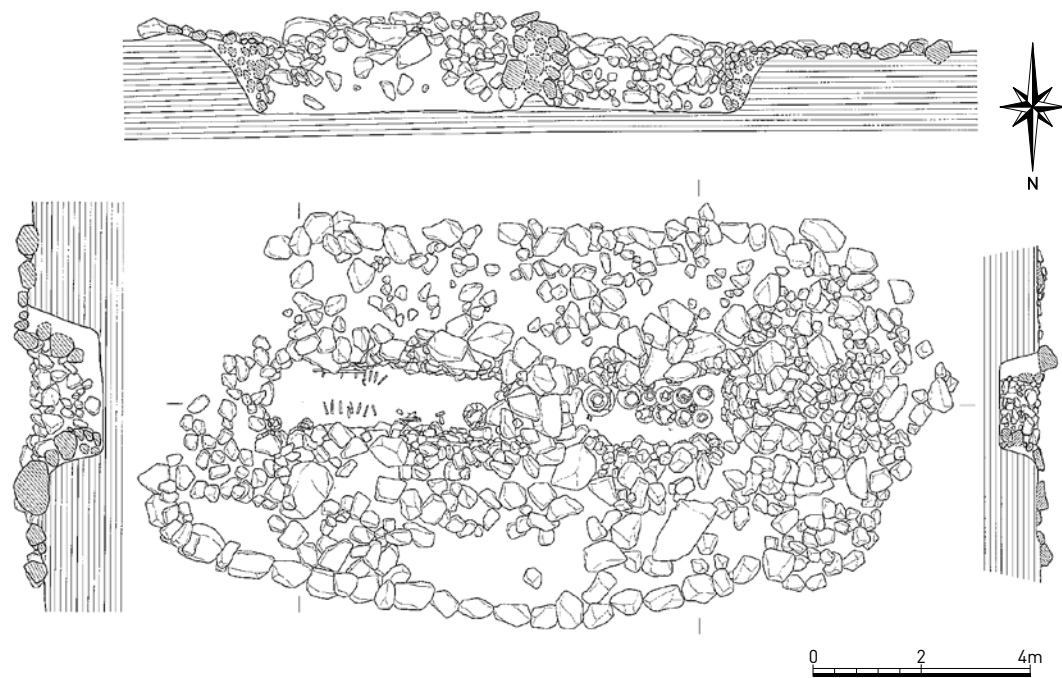
그림 10 울산 중산리 ⅠA-26호 주부곽식 세장방형 목곽묘와 호석

760cm 정도 규모이며 평면이 긴 말각장방형인 호석이 확인되었다〈그림 10〉. 이른 시기인 데도 이런 호석이 있다는 점은 봉토를 높이 쌓으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지녔음을 말해준다.

목곽묘로부터 적석목곽묘로

적석목곽묘라고 부르는 묘제가 마립간기 경주 지배층의 묘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대로이다. 그 구조가 워낙 독특하기에 기원 문제가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다. 돌만으로 무덤을 만든 고구려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보는 등 종래에는 외래 기원의 묘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적석목곽묘가 경주지역의 목곽묘에서 서서히 진화한 묘제라는 사실은 발굴 사례로 거의 입증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목곽묘로부터 적석목곽묘로' 서서히 진화하였다는 자체 발생설의 입장에서 볼 때 적석목곽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목곽 주위 묘광 사이와 목곽 위에 적석을 한 형태는 목곽묘로부터 하루아침에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다. 적석이라는 요소에만 주목하면 묘광과 목곽 사이의 둘레에 적석을 한 형태(사방적석식 : 최근에는 이를 위석식목곽묘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맨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목곽 위에도 적석을 한 형태가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목곽이 지상에 놓이고 그를 적석부가 덮은 형태의 지상 적석식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가운데 적어도 맨 앞의 형태는 사로국 말기의 무덤 형태이므로 여기서 언급해 둔다.

목곽묘가 처음 축조되는 2세기 중엽부터 세장방형 주부곽식 목곽묘가 출현하는 3세기 중엽까지는 평지에 위치한 고분군에서만 일부 위석식목곽묘가 등장한다. 그러나 3세기 후엽부터는 상대적으로 돌을 구하기 어려운 구릉에 위치한 고분군에서도 이들이 나타나면서 적석목곽묘로서의 면모를 점점 더 분명하게 갖추어 나간다. 포항 흥해읍 마산리 적석목곽묘는 이에 해당하는 이른 사례로서 목곽 바닥에 잔자갈을 깔고 목곽 둘레에 적석을 한 사방적석식 적석

그림 11 포항 마산리유적 사방적석식 적석목곽묘(왼쪽이 동쪽)

목곽묘마저도 그냥 위석식목곽묘로 한 데 묶어서는 곤란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적석목곽묘는 작은 구릉 정상부에 동서 방향 주축으로 먼저 축조된 주부곽식 목곽묘에서 불과 3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마치 표형분처럼 나란히 자리 잡은 사방적석식이다. 이는 정황으로 볼 때 목곽묘를 묘제로 꾸준히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일약 적석목곽묘로 바뀐 초기, 늦어도 4세기 초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묘의 구조를 보면 묘광 중앙에 주곽을 배치하고 양쪽 단벽 쪽에 부곽 혹은 부장 궤를 설치한 형태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800cm, 너비 320cm, 깊이 50cm이다. 묘광 안의 서쪽 부곽 자리 및 동쪽 부장 궤가 놓인 동벽 바로 밑을 제외한 전면에 길이 10~20cm 내외의 잔자갈을 깔아 바닥면을 마련한 후 주곽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천석을 너비 60cm 내외로 4~5단 정도 쌓았다. 다시 묘광과 주·부곽 사이에는 길이 15~30cm 내외의 천석과 할석을 이용해 너비 60cm 내외로 충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부곽 내부 함몰 토층의 양상으로 볼 때 목곽 상부에는 적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에 설치된 주곽의 범위는 길이 290cm, 너비 110cm 정도로 추정되며, 금제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두향은 동쪽이다.

주곽과 동쪽 부장 궤 사이에는 폭 80cm, 높이 20cm 내외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쪽 단벽 아래 유물 부장 공간에는 바닥에 잔자갈을 깔지 않았다. 서쪽 부곽과 주곽 사이에서는 격벽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서쪽 부곽의 바닥면은 기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서쪽 부곽의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195cm 내외로 주곽의 내부 폭보다 약 85cm 정도 넓다. 이런 유물 배치는 두부 쪽에는 부장 궤, 발치 쪽에는 부곽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로국 시기의 장송의례

신라의 상장의례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 『수서隋書』에 신라는 일년상이었다는 기록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상장의례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인 장송의례를 일러주는 증거로는 고분이 있다. 고분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통과의례인 장송의례나 장사지내는 방법인 장법을 알아낼 수 있는 자료이다. 과거의 장례 과정에서 벌어진 정확한 행위는 찾아낼 방법이 없으나 장송의례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무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표지로 그것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다.

사로국 시기의 이른 단계 묘제인 목관묘의 축조 과정을 복원하면 묘지의 선정과 정지 - 묘광의 굴착 - (요갱의 굴착) - 목관의 안치 - 목관 사주四周와 위에 보강토 설치 - 매토 - 봉토의 축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고대 중국의 목관묘나 목곽묘의 축조 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조선시대의 유교식 장제에서 목관묘를 축조한 양상과도 다르지 않다. 다만, 사로국 시기의 경주 지역 목관묘 가운데 각 단계에서 벌어진 의례를 엿볼 수 있는 양호한 사례가

드물어 여기서는 인근 영천지역의 용전리 목관묘 발굴 사례를 들어 살피기로 한다.

영천 용전리 목관묘에서 유물이 부장된 곳은 ①요갱, ②목관의 하부 묘광 바닥, ③목관의 내부, ④목관의 외부 묘광 바닥, ⑤보강토 속, ⑥목관을 봉한 보강토 위, ⑦매토 속, ⑧봉분 축조 이전 묘광의 어깨선 밖 봉분 내부로 나뉜다. 따라서 ①과 ②는 요갱을 파서 묘광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다음 벌어진 의례와 관련된 유물, ③은 주검의 성복유물, ④와 ⑤는 목관을 안치한 후 벌인 의례와 관련된 공헌유물, ⑤는 보강토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의례와 관련된 유물, ⑥은 목관을 보강토로 완전히 봉한 후 벌어진 의례와 관련된 유물, ⑦은 묘광 내 매토 과정의 의례와 관련된 유물, ⑧은 매토 완료 후 봉분 축조 이전의 의례와 관련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⑥은 취토聚土와 관련된 제의, ⑧은 봉분 완료 후의 평토제와 관련된 제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의례와 관련된 유물 이외에 사후생활용품을 부장한다는 의식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이 출토되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 등 토기의 경우 함께 줄지어 매납되어 혹시 사후생활용으로 부장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부식되어 별로 남아 있지 않는 의례용기인 칠기의 존재까지 고려하면 이것들은 결국 공헌유물로 성격 지을 수 있다.

다음 사로국 후기의 목곽묘들을 축조한 과정을 복원해 보면 묘지의 선정과 정지 – 묘광의 굴착 – 주검의 안치 – 목곽 둘레의 보강토 설치 – 봉분의 축조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목관묘와 달리 매토의 과정이 생략되었다. 전기의 목곽묘는 목곽의 사주에만 보강토를 설치하고 지상 위로 올라온 목곽을 두고 봉분을 쌓아 올라갔거나 목곽을 별도의 흙으로 밀봉하면서 봉토를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기의 목곽묘는 목곽의 위에도 보강토와 같은 흙으로 밀봉을 하고 봉토를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계마다 목관묘에서와 같은 의례 행위가 있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묘광 선정 시, 묘광 굴착 후, 목곽 설치 중, 주검의 안치와 유물의 부장 시, 목곽의 복개 후, 봉토의 조성 시, 봉토의 완성 후 등의 제의나 의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목곽묘 단계에는 후기로 가면서 피장자의 성복유물, 의례와 관련된

그림 12 영천 용전리 목관묘와 출토유물

유물과 피장자를 위한 공헌유물 이외에 사후생활용 유물이 별도로 부장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후기 목곽묘에서는 목곽 내부에 칸막이를 해 구분한 부곽이나 별도로 설치한 부곽이 나타난다. 거기에는 사후생활용 유물이 부장되며, 부곽이 없는 경우에는 피장자의 발치 공간에 그것들이 부장된다. 또 주곽 내부의 유물 배치가 갈수록 정형화해서 피장자 머리측에 고배를 비롯한 공헌유물이 자리 잡는다. 이는 결국 마립간기 무덤의 신라식 유물 배치 정형으로 이어진다.

3 복식

옷은 먹는 음식 및 사는 집과 더불어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되는 세 가지 품목 가운데 하나이다. 옷은 이런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개인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류 초기의 옷은 그저 추운 날씨에 대응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차츰 이 옷과 더불어 장신구 등을 갖춤으로써 멋을 부림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개인적 개성 혹은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런 옷의 꾸밈새 또는 옷과 장신구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 곧 복식이다. 동아시아 고대 사회의 복식에는 그것을 착용한 인물과 그 시대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당시 사회에서 지배층은 자신들이 지닌 정치,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지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고급 소재로 만든 화려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또 국가는 율령제도 하에서 사회 신분의 귀하고 천함, 높고 낮음을 복식의 재질이나 색깔 차이로 구분하였다. 신라 흥덕왕興德王 9년(834)에 반포된 금령禁令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기록상의 복식

신라의 복식에 대한 문헌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삼국사기』 잡지 색복色服조의 기록이나 중국 정사에 실려 있는 단편적 기록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고고학 자료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아무리 잘 보존된 유적을 발굴하더라도 의복류가 온전하게 출토된 사례는 없고 거의 모두 장신구로 국한되기에 신라의 복식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로국의 복식을 직접 전하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3세기 중엽에 편찬된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는 사로국이 속한 삼한의 복식을 포괄적으로 일러주는 다음과 같은 단편적 기록들이 있다.

ⓐ 그 풍속은 의책衣幘을 좋아한다. 하호下戶가 (낙랑)군에 가서 조알할 때는 모두 의책을 빌린다. 스스로 인수印綬와 의책을 착용하는 자가 천여 명이다.〈한韓 조〉

ⓑ 구슬을 가치 있는 보배로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에 걸거나 귀에 매달기도 한다. 금은과 수놓은 비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한韓 조〉

ⓒ 그 사람들은 … 관을 쓰지 않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빛나는 병기와도 같다. 베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 신발로는 가죽신과 짚신을 신는다.〈한韓 조〉

ⓓ 잠상蠶桑에 밝아 비단포를 만든다.〈변진弁辰 조〉

ⓔ 또 넓은 폭의 고운 베를 만든다.〈변진弁辰 조〉

ⓐⓑ는 사회 상층부 사람들의 복식을 보여준다. 삼한에 속한 나라가 78개국 정도였는데 중국풍의 인수와 의책을 사용하는 사람이 천 명가량이었다고 하므로 산술적으로 보아 나라별로 10여명 가량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국의 지배층에 속했을 것이다. 이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하호는 한나라의 군현에 입조할 때 비로소 의책을 빌려 입었던 것이다. ⓑ는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로 그대로 입증된 사실이다.

ⓒ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상층의 사람들은 가죽신을, 나머지는 짚신을 신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는 변한의 직조기술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 실을 뽑아내 비단포를 만들었다고 하며, 올이 곱고 폭이 넓은 포를 산출하였다고 한다. 누에를 쳐 비단을 만드는 기술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에 삼한지역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삼한 사회에서 비단은 교역품으로 활용되었거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단을 제작할 정도로 직조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의복 재료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직물의 품질 및 종류가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발굴된 복식 관련 유물

사로국 시기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복식 관련 자료로는 유리구슬이나 옥을 꿰어 만든 목걸이, 청동제 팔찌, 동물 모양 청동제 띠고리[帶鉤] 같은 장신구와 의복 장식용 청동제 단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후대인 마립간기와 달리 금속기에 눌러 붙은 상태로 남은 직물의 사례가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다.

그림 13 사로국의 장신구(①⑦경주 덕천리 127호 목관묘, ②경주 덕천리 18호 목곽묘, ③⑥경주 탑동 목관묘, ④경주 덕천리124호 목관묘, ⑤경주 조양동 60호묘)

무엇보다도 유리제 목걸이가 문헌 기록이 말하는 것처럼 기본 되는 장신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유리의 원료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박金箔 유리옥처럼 완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있다. 이른 시기에는 황성동 2호 목관묘 출토품처럼 다양한 색조의 유리구슬을 엮어 만든 것이, 늦은 시기에는 울산 하대 44호 목곽묘 출토품처럼 수정을 가공해 만든 것이 대형 무덤을 중심으로 출토된다.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문화라고 하면 으레 머리에 떠올리듯 황금 물품으로 의복이나 신체를 장식하는 복식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팔찌는 귀걸이나 반지와 마찬가지로 장신구로서 오랜 역사를 지녔다. 머리에 쓰는 관이나 귀걸이, 목걸이에 비해 가시성은 떨어지지만 다량의 팔찌를 착용함으로써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 했다. 청동제 팔찌는 경주 탑동 목관묘에서 4점, 황성동 15호 목관묘(575번지)에서 2점, 사라리 130호묘에서 12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청동을 주조하여 만든 것이며 단면이 둥근 것과 납작한 것으로 구분된다. 탑동 목관묘 출토품 가운데 1점은 표면에 8개의 돌기가 있고 사라리와 경산 신대리 출토품 가운데는 여러 줄의 선분을 무늬로 새긴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수입품인지 현지 제작품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동제 동물형 띠고리는 주로 허리띠의 부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갈고리모양으로 걸게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금속제 허리띠 장식이 춘추시대 이래 크게 유행하였고 다양한 동물형상으로 제작되었다. 그와 같은 전통은 전국시대를 거쳐 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 중원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만주 일원으로도 전해졌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진한과 변한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

경주에서는 탑동 목관묘, 사라리 130호묘, 덕천리 127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호랑이 모양 띠고리 장식이 가장 이른 단계의 자료이며 이웃하는 지역인 영천의 어은동유적, 경산의 신대리 1호 목관묘, 동 94호 목관묘 출토품 역시 유사한 사례이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휘현輝縣 유리각琉璃閣 152호묘, 평양 중화군 마장리馬場里 목곽묘에 비슷한 예가 있으므로 이런 이른 시기 자료를 외래품으로 볼 여지가 많다.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이 함께 출토되기도 하고 별개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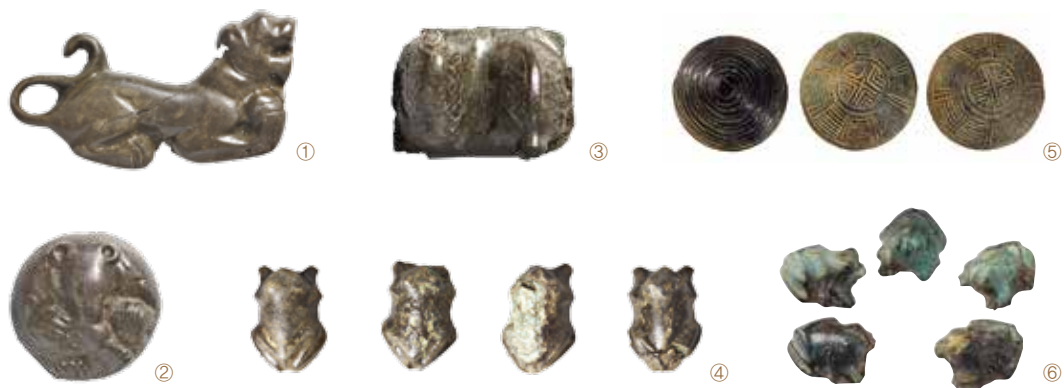
그림 14 경주 탑동 목관묘(①~④)와 영천 어은동유적(⑤~⑥) 출토 청동제 단추

토되기도 하는데 3세기대의 무덤 등에서는 말 모양이 주로 출토된다. 그밖에 경산 신대리 55호 목관묘에서는 중국 전국~한대에 유행한 구부린 막대 모양 띠고리[曲棒形 帶鉤] 1점이 출토되었다. 이런 띠고리는 평양 남정리 116호분(채협총) 등 다수의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1918년 영천 어은동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붕괴되면서 중국 한나라 청동 거울 및 본뜬거울, 청동제 대구 등과 더불어 많은 청동제 단추[銅泡]가 출토되었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이 단추를 막연히 북방 시베리아 및 만주 지역 청동기문화의 산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북방지역에서 그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단추에 표현된 여러 줄 무늬는 한국식 동검문화기의 청동기나 원삼국시대 청동제 팔찌에 표현된 문양과 유사하므로 그것들이 출토된 영남지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어은동유적과 탑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개구리 모양 단추는 유사한 사례가 중국 요령성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크기가 훨씬 커서 차이가 있다. 탑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호랑이 모양, 곰 모양 무늬 장식품은 중국 춘추~서한유적 출토품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4 물품

발굴 자료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로국 시기의 물품은 토기와 철기가 대표한다. 이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 무덤에서 나온 것들이다. 물론 토기와 철기 이외에 주로 장신구로 기능한 청동기와 칠기도 있다. 그런데 칠기는 사실 형태가 제대로 남은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아직 따로 설명을 할 정도는 못된다. 경주 시내 탑동 목관묘에서 네 다리가 붙은 둥근 칠반[漆盤]과 뚜껑을 갖춘 원통 모양 칠기 다수와 칠을 한 부채자루가 출토된 사실만 일러둔다. 청동기는 거의 모두 복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서 다루었다.

토기

1977년 경주 조양동의 한 유적에서 당시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모양의 토기가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 무덤 유적이 1980년대 초반까지 발굴되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의 토기군이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 이 토기들은 기와의 질처럼 무르다는 의미에서 '와질토기[瓦質土器]'라 명명하였는데 이

그림 15 초기철기시대 토기류(경주 하구리 목관묘)

것이 바로 사로국 시기 가운데 대략 3세기 중반까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이 토기는 앞 시기인 초기철기시대의 무문토기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면서도 중국 전국 토기의 제작 전통을 이어받은 한대漢代 토기의 영향을 받았다. 토기를 만들면서 회전판을 사용하였고 적갈색을 띠는 종전의 산화염 소성 토기와는 달리 반쯤 밀폐된 가마라는 환원염 분위기에서 여전히 섭씨 1000° 이하의 온도로 구웠기에 토기 색이 회백색 혹은 회황색이다. 이런 토기를 사용한 기간은 사로국 시기 묘제의 흐름과 궤를 같이해 목관묘 단계와 목곽묘 단계로 대별된다. 그리고 목곽묘 단계에서 부곽이 등장하는 시점인 3세기 중반 즈음에 이르면 섭씨 1000°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아주 단단한 도질토기陶質土器로 점차 발전해 마립간기의 본격적 신라토기가 등장하는 4세기 중반까지 사용된다. 이는 마립간기의 신라토기와 구별해 흔히 고식도질토기라 부른다.

와질토기는 나중의 고식도질토기나 신라토기에 비해 그릇의 종류가 단순하고 토기 질이 매우 무른 점이 특징이다. 또 앞 단계 초기철기시대의 토기인

그림 16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경주 조양동 38호묘)

그림 17 주머니호(경주 조양동 38호묘)

구연부 단면이 원형 혹은 삼각형인 점토대토기에 비해 태토가 아주 정선되었음이 중요한 특징이다. 일부 기종에서는 타날문 기법이 채용되었다.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각각 고식古式과 신식新式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식와질토기는 사로국이 성립하는 서기전 10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서기전 1세기 전엽 말 즈음이 되면 등장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 기종은 소뿔 두 개의 끝부분을 한데 모아 붙인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된 목긴 항아리[組合牛角形把手附長頸壺]와 입면으로 복주머니 모양인 작은 단지(그래서 주머니호라 부름)가 있고 그 외에 타날(승문)단경호와 외반구연단경호, 보시기 같은 작은 그릇이 있다. 고식와질토기는 목관묘와 더불어 옹관묘에서 출토되며, 경주지역에서는 조양동유적을 비롯한 모든 목관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고식와질토기의 제작 기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 신식와질토기는 고배,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타날(격자문)단경호, 광구소옹, 노형토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 토기군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두 대臺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기종이 전 단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에 이어지는 고식도질토기의 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신식와질토기 양식군의 중심 시기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2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3세기 중반에 고식도질토기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이다.

그림 18 고배(상 : 경주 조양동 3호묘, 하 : 경주 덕천리 14호묘)

그림 19 대부광구호(경주 덕천리 19호 목곽묘)

그림 20 대부직구호(경주 덕천리 16호 목곽묘)

그림 21 신선로 모양 토기(경주 덕천리 120호 목곽묘)

신식와질토기의 제작 특성을 살펴보면, 고식와질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소성했으며, 그릇 표면을 조정하는 데 평행 타날 도구를 사용하였고, 대각을 부착하고 투공을 하기도 하며, 뚜껑을 만들어 덮는 등 앞 단계에 비해 진일보한 제작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성도는 900℃ 이하로 흡수율이 강해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특히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 그리고 그것의 변형인 신선로 모양 토기〈그림 21〉 등은 일종의 위세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제작에 공을 많이 들인 데 다 실제로 무덤에 부장되는 데서 한정성을 보인다.

그리고 특히 사로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한 권역에서 이른바 오리 모양 토기〈그림 22~23〉가 집중 출토되는 점도 들어두어야 하겠다. 이름은 오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오리 모양은 드물고 오히려 몸체는 오리 모양이기는 해도 머리에 벼슬이 붙은 형태가 전형이라서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오리과의 새 종류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오리 모양 이외에 특이하게 머리가 부엉이 모양을 한 것〈그림 24〉도 나왔다.

이상과 같이 신식와질토기는 제작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 즉 토기를 성형하는 데 회전판을 사용해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기벽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표준화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정면을 하는 데서 격자문이나 승문을 새긴 타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토기의 균열과 터짐을 방지하고 미적 효과를 거두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성 온도가 높은 토기들을 구워내었다. 이런 제작 기술의 변화는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고식도질토기의 생산에서도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고식도질토기는 신식와질토기의 제작 기술과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술을 받아들여 성립한 것으로 신라·가야토기 양식 분화 이전 약 백년간 사용된 토기군이다.

사실 도질토기는 앞 단계의 와질토기와는 달리 섭씨 1000° 이상이라는 고온에서 구워낸 것으로 요업 기술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해도 좋다. 가마는 완전히 밀폐된 구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토기군이 제대로 자리 잡는 데 다소간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그동안 이 새로운 토기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일정 기간

그림 22 오리 모양 토기(경주 덕천리 80호 목곽묘)

그림 23 오리 모양 토기(경주 덕천리 120호 목곽묘)

그림 24 부엉이 모양 토기(경주 황성동 575번지 20호 목곽묘)

그림 25 초기 고식도질토기 단경호(경주 구어리 1호 목곽묘)

동안 부곽을 갖춘 목곽묘에서 와질토기와 더불어 주로 도질 단경호가 공반되는 점을 보면 그것을 대상으로 그런 제작 실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단경호는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제작술이 아직 완전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고식도질토기 노형토기 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고식도질토기 제작 기술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으되 기존의 토기 제작 전통을 기반으로 생산 체계가 점차 갖추어져 나갔음을 일러준다. 도질토기는 소성하는 데 와질토기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의 생산과 더불어 토기 생산 체계도 점차 전업 체계로 바뀌었을 것이다.

철기

사로국 시기는 고고학의 시대 구분에서 원삼국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기의 전면 사용이다. 사로국의 무대인 경주지역 무덤들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양의 철기가 부장된다. 사라리 130호묘에 판상철부가 70매나 부장된 사실〈그림 26〉이 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철은 사로국의 성립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동력이었다.

앞 시기 초기철기시대의 끝 무렵인 서기전 2세기에는 철기가 기존의 청동기들을 어느 정도 대체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영남지방에 기왕에 생각하던 것보다 일찍이 철기문화가 들어와 발전을 해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부銎部의 단면이 장방형인 주조철부 이외에 철제 단검 등 단조 철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다가 서기전 1세기 초에는 조양동 5호묘에서 출토된 철기들이 보여주듯이 이미 주조 및 단조제의 각종 철기들이 자리를 굳건히 잡는다. 주조철부는 공부 단면이 사다리꼴(〈그림 27〉 아래)이라는 영남지방 특유의 형태로 바뀐다. 이는 이름은 철부라고 붙였지만 용도는 괭이 또는 철소재로 여겨지며 이제 철기가 본격 생산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물증이다.

그림 26 경주 사라리 130호묘와 그 세부

그림 27 경주 판상철부(상)와 주조철부(하)

그와 더불어 이 시기의 영남지방 철기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적 종류인 판상철부(〈그림 27〉 위)도 본격적으로 무덤에 부장된다. 이 판상철부는 앞 단계의 그것보다 한층 표준화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그 자체로 날을 세우는 등 가공해서 도끼로 쓰이기도 했겠지만 주로 다른 단조 철기를 만드는 데 쓰인 소재의 역할을 한 철기로 여기고 있다. 이외에 농구로서 쇠낫[鐵鎌]과 다양한 크기의 단조철부들도 부장되며 끝에 둥근 고리가 달린 환두도자[環頭刀子]들은

그림 28 철겸[쇠낫](상 : 울산 창평동 810번지 2호묘, 하 : 경주 황성동 575번지 64호 목곽묘)

서사용의 삭도削刀로 쓰였던 것 같다.

무기류로는 철검이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서 초기철기시대부터 쓰였고 그 외에 철모가 있었다. 이것들은 기왕의 청동기를 대체한 것인데 모두 단조 제품이었다. 사로국 시기에 들어오면 철촉이 널리 부장되기에 이른다.

철검은 줄곧 단검이 쓰이다가 2세기 중엽에 장검이 일시적으로 유행한 후 2세기 말 즈음에 대도大刀가 출현하였다. 이 대도에는 환두를 갖춘 것들이 널리 쓰였는데 대형의 목곽묘에만 부장되는 특징을 지닌다. 철모는 영남 지방 특유의 이단관식철모가 유행한다. 이는 나무 자루를 꽂는 공부에 관부關部 1단이 추가된 형태이다(〈그림 29〉의 ④).

철촉은 화살대에 꽂는 슴베가 없는 무경역자식無莖逆刺式이 처음부터 계속 유행하다 나중에 목곽묘에 가면 유경식으로 바뀐다. 무경식 철촉은 처음에는 전체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특징을 지니나 이후 전체 길이가 길어지고 촉신부의 폭도 좁아진다. 선사시대에 이미 유경식 화살촉이 쓰였는 데도 이처럼 원삼국시대 초기에 다시 무경식 철촉이 쓰인 이유는 아마도 제작의 용이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철기의 소유는 사로국 시기의 초기부터 앞 시기의 청동기 소유와 비슷하게 유력한 개인에 집중된 듯하다. 그 점은 사라리 130호묘가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에 무경식 철촉과 함께 관부돌출형 철모가 다수 부장되는 현상은 경주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인다. 이는 이제 영남지방 진·변한 지

그림 29 경주 철검(①~③)과 철모(④~⑬)

그림 30 무경식 철촉(울산 창평동 810번지 2호묘)

배층의 무력 기반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목곽묘가 쓰이기 시작하는 서기 2세기경에는 철기의 양상에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다. 개인 무기로서의 환두대도가 기왕의 따비 이외에 쇠스랑, 삽날 같은 기경용 농구와 더불어 대형목곽묘에 한 세트로 부장되는 경향이 보인다. 철제 삽날과 쇠스랑의 출현은 농업생산력의 증가를 말하며 그런 농구가 대형 무덤에만 부장되는 현상은 농구의 독점 상태를 암시한다. 또 이런 무덤에는 으레 장신구로서 대형의 수정제 옥이 부장되어서 이제 정치·경제적으로 권력을 한층 강화한 지배층이 등장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덕천리 목곽묘에서 보이듯이 3세기 중엽부터 아주 긴 몸체에 철봉을 둥글게 말아 붙여 표현한 고사리모양[蕨手形] 장식을 덧붙인 철모를 목곽묘 바닥에 마치 철도 침목처럼 깐 매장 풍습〈그림 37〉이 경주지역에 나타난다. 이는 사로국 지배층 매장의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런 철모의 장식 자체는 그즈음 철기 제작 기술이 한층 발전했음을 일러주는 현상이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무구인 갑옷이나 곧이어 등장하는 투구 또한 철기 제작 기술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갑옷은 세로로 긴 판들을 이어 붙인 판갑[縱長板甲] 형태이다. 이런 갑옷은 몸통 상체뿐만 아니라 목을 보호하는 경갑을 수반하기도 한다. 철기 제작 기술의 발전은 이미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활발하게 조업한 황성동 철기 제작 유적에서 용해·정련 단야의 공정이 모두 확인된 사

그림 33 유자이기(경주 구어리 1호 목곽묘)

그림 31 환두대도(경주 황성동 강변로1호 목곽묘)

그림 32 궐수형 장식 철모(경주 구어리 1호 목곽묘)

그림 34 따비(좌 : 경주 덕천리 19호 목곽묘, 우 : 경주 구어리 1호 목곽묘)

그림 35 삽날(포항 옥성리 나-101호 목곽묘)

그림 36 쇠스랑(좌 : 포항 옥성리 나-101호 목곽묘, 우 : 경주 황성동 575번지 64호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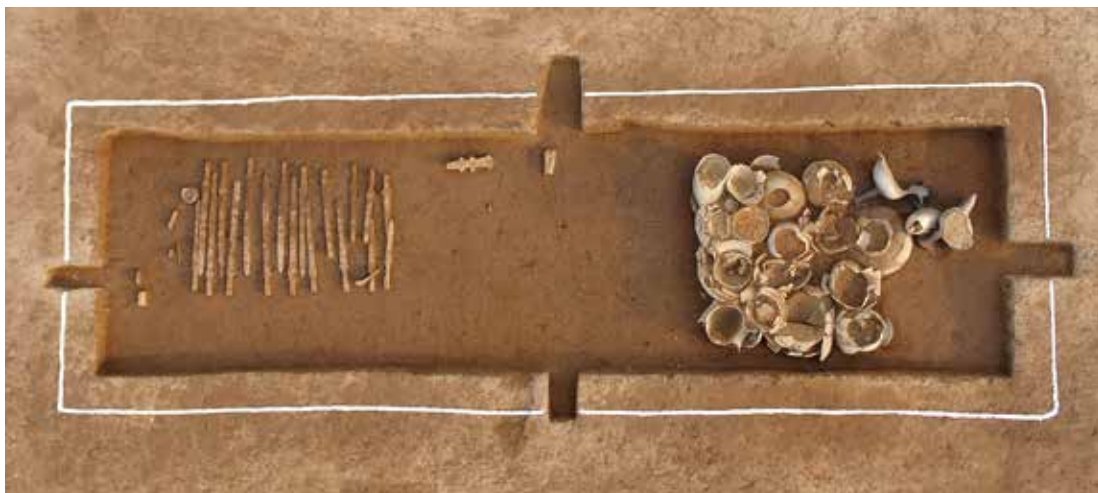
그림 37 경주 덕천리 120호 목곽묘

그림 38 목갑옷[경갑]을 수반한 종장판갑

실로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기와 무기 이외의 철기로는 마구가 있다. 사로국 시기의 마구는 그 성립기인 서기전 1세기대에 무덤의 부장품으로 처음 등장한다. 말을 제어하는 데 가장 기본되는 용구인 재갈[轡]이 주로 확인되며, 재갈을 말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8자형이나 고리 형태의 굴레연결구 등이 공반되기도 한다. 재갈은 말 입에 물려 그 혀를 자극하는 함銜과 그것이 말 입에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재갈멈치로 구성된다. 서기전 1세기대 마구에서는 긴 막대형의 재갈멈치를 채용한 표비鑣轡만이 쓰인다. 철봉을 꼬아 만든 두 마디 함에 끝이 둥근 프로펠러 형이나 끝이 각진 I자형의 재갈멈치가 연결된 것이다. 재갈멈치의 끝 부분이 납작한 반면, 그 중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두껍게 제작되어 굴레에 연결하는 2개의 구멍이 측면에 뚫려 있다.

그림 39 경주 사라리 130호묘 표비

그림 40 경주 황성동 강변로 1호 목곽묘 표비

1세기~2세기 전반의 마구는 앞 시기의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I자형 표비의 출토 예가 증가한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현상은 재갈멈치가 S자형이고 그 끝을 말아 고사리문양처럼 장식한 표비의 등장이다. 사라리 130호묘 출토품 〈그림 39〉이 가장 대표적이며, 최근 탑동 목관묘에서도 출토되었다. 재갈멈치에 장식된 고사리문양은 마구뿐만 아니라 철모 등 무기류 등에도 곧이어 채용된다. 이는 특히 진·변한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적 문양이다.

2세기 중반~3세기대의 마구는 목곽묘라는 새로운 묘제의 출현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부장된 재갈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형태와 크기라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고사리문양 장식이 다양하게 베풀어진 S자형 표비가 대부분인데, 표, 즉 재갈멈치의 크기가 30cm 이상으로 커지는 등 거대화함으로써 오히려 말의 제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재갈멈치 정면에 1개의 구멍만이 뚫린 점도 그러하다. 이 구멍으로는 굴레를 연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갈을 연결한다고 해도 재갈멈치의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또 재갈이 말의 입에 물리기에는 너무 길거나 두께가 얇아 그 기능을 상실한 것도 확인되는 등 재갈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덤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 황성동 강변로 1호 목곽묘 출토품〈그림 40〉 등이 대표적이다.

5 유물로 본 대외교류

사로국 시기의 대외교류를 반영하는 물품은 금속품과 유리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금속품으로는 중국제의 청동거울[銅鏡]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청동제 장신구들 가운데 일부가 있다. 유리제품 가운데 구슬은 그 원료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 만든 것이라서 대외교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박유리옥金箔琉璃玉은 낙랑 혹은 중원지역 제품이 마한 지역을 거쳐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금속품

사로국 시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외래유물 중 제작지의 판별이 용이한 것으로 동경을 들 수 있다. 이 동경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한경漢鏡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1982년에 발굴된 경주 조양동 38호묘 출토 서한경西漢鏡 일괄품이다. 4점의 완형과 1점의 재가공품이 출토되었다. 모두 이체자명대경異體字銘帶鏡이다. 명문 내용에 따라 가상귀부경家常貴富鏡, 소명경昭

그림 41 진한 무덤 출토 한경(①②경주 조양동 38호묘, ③경산 신대리 75호 목관묘, ④포항 성곡리 13호 옹관묘)

明鏡, 일광경日光鏡으로 구분된다〈그림 41〉. 복수의 서한경이 조합을 이루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무덤의 축조연대는 서기전 1세기 후반까지 올려보는 견해가 많다.

2010년에는 조양동 38호묘보다는 1세기 가량 늦은 서기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는 목관묘가 월성 남쪽에 인접한 탑동에서 발굴되었다. 무덤 내부에서 와질토기와 함께 세형동검, 호랑이모양 대구, 동물모양 청동단추, 청동제 팔찌, 철제 재갈, 철검, 철도, 철촉, 철모, 철복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경주 분지 한 가운데서 외래물품이 부장된 목관묘가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42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외래계 유물과 방제품

동경은 2점이 출토되었다. 그 중 1점은 전형적 일광경이지만, 다른 1점은 하나의 글자를 반복적으로 배치해 문양을 구성한 본뜬거울[倣製鏡]이다. 이 탑동 목관묘와 비슷한 시기의 무덤으로 보이는 사라리 130호묘에서는 4점의 방제경이 출토되었다.

한경의 제작지는 중원지역이다. 이 거울들은 서북한지역의 낙랑 등 한군현을 거쳐 영남지방으로 들여온 물품으로 당시 진·변한과 낙랑 사이의 교역을 실증해준다. 사로국의 무대인 경주지역에서는 낙랑이 설치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들어온 물품들밖에 출토되지 않았지만 인근의 포항, 영천, 경산 등지에서 그보다 이른 성운문경星雲文鏡이나 그 재가공품이 출토되어서 영남지방과 서북한 사이에 교역체계가 일찍부터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본뜬거울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진·변한 지역 제작품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신구

이 시기의 사로국 지역에서 출토된 금속제 장신구로는 청동 팔찌와 청동제 동물형 띠고리가 있다. 금속 장신구를 사용하는 관습은 이 시기에 들어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초현기의 자료 가운데 외래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느 것까지를 외래물품으로 볼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탑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4점의 청동팔찌 가운데 1점에는 나발형螺髮形 돌기 8개가 돌출되어 있다. 3점은 착장품일 가능성이 있다. 또 사라리 130호묘에서는 피장자의 팔목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두 곳에서 각각 6점, 총 1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6점에는 능형문과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낙랑유적에서 유사한 동제 팔찌가 출토되었으므로 일부 유물은 외래품일 가능성이 있다.

동물 모양 띠고리 역시 앞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요소이다. 경주에서는 탑동 목관묘, 사라리 130호묘, 덕천리 127호 목관묘 출토 호랑이 모양 대구가 가장 이른 단계의 자료이다. 중국 하남성 휘현 유리각 152호묘, 평양 중화군 마장리 목곽묘에 비슷한 예가 있으므로 외래품일 가능성이 크다.

북방 청동기문화에서 흔히 보이는 장식품 가운데 하나로 청동 단추[銅泡]가 있는데 각종 동물 문양이 주조로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탑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동포는 모두 청동제이며 형태는 호랑이 모양, 곰 모양, 개구리 모양, 원형圓形, 거북[龜] 장식 방형方形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개구리 모양을 띤 단추는 그 계보를 북방 청동기문화에서 찾는 주장이 많다. 호랑이 모양, 곰 모양 단추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며 중국 전국시대 만기~한대의 유적 출토품에 비견되는 자료이다. 육안으로 볼 때 통상의 청동기와 동질도 달라서 외래품일 가능성이 크다.

사로국~마립간기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금속제 그릇은 대체로 중국 중원의 예기禮器에서 기원한 것이 많으나 동복銅鍑처럼 유목민족들이 선호하던 생활용기도 있다. 경주에서는 탑동 목관묘와 사라리 130호묘에서 철복鐵鍑이 출토되었다. 탑동 출토품은 파손이 심해 동체 일부와 저부만 남아 있으나 기형으로

보면 사라리 출토품과 유사도가 높다. 이런 철복은 현재로서는 제작지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 동복을 원형으로 한 듯하므로 외래품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리와 옥석제품

사로국 시기가 되면 유리의 활용도가 커지고 제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진다. 유리에 대해 자연과학적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시기에도 앞 시대인 초기철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납-바륨계 유리가 여전히 사용되었지만 칼리유리[potash glass]와 소다유리[soda glass]가 차례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유리 원료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사라리 130호묘에서 수정구슬과 남색 유리구슬을 엮어 만든 목걸이가 출토되었고, 덕천리고분군이나 포항 옥성리고분군에서도 여러 가지 색조의 유리구슬로 만든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유리옥 가운데 금박유리옥으로 불리는 중층유리옥의 존재가 주목된다. 덕천리 15호묘에서 1점, 24호묘에서 4점(6알) 등 3세기대 목곽묘 2기에서 이 특수한 구슬이 출토되었다. 진·변한지역 전체로는 이외에 김해 양동리 462호묘에서만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마한지역의 경우 19기의 무덤에서 123점이나 출토되었다. 그래서 덕천리 출토품은 마한지역을 거쳐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옥석을 선호하는 전통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다. 그 가운데 청동기시대에는 천하석天河石, 원삼국시대에는 수정과 마노瑪瑙, 삼국시대에는 경옥硬玉이 대표적이다. 옥석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진귀한 물품으로 취급되었으며, 귀천에 따라 소유에 제한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덕천리 18호와 19호 목곽묘, 조양동 3호묘 등에서는 아주 우수한 질의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多面玉이 출토되었다. 이 수정 제품들은 영남지방 전체로는 목곽묘 단계에 들어서 주류를 이루는 장신구이다. 그러나 사라리 130호묘에서 보았듯이 경주지역에서는 목관묘 단계에 이미 등장해 사로국의 선진성을 나타낸다. 아직 그 소재의 산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아 서북한지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밖에 마노제품 역시 선호되었다. 덕천리 36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마노는 완제품이 수입되었을 수도 있고 수입한 원석을 현지에서 가공해 완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43 경주 덕천리 19호 목곽묘 출토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

제 2 장

황금문화의 융성

마립간기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 이래 독립성을 유지하며 낙동강 동쪽 각지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던 소국小國들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무렵 사로국에 복속되어 이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정치체를 이루니 이것이 신라 마립간기의 시작이다. 경주지역이 이제는 왕도가 되고 독립 소국으로서 대등한 관계였던 각 지역이 신라의 지방이 된 것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소국 복속 기사와 마립간기 동안 줄곧 각 지역의 무덤에 부장되는 신라양식 물품의 분포를 볼 때 신라의 영역은 낙동강 동안의 부산, 양산, 밀양, 창녕, 대구 그리고 그 이북의 경북 내륙 여러 지역이었다고 추정된다. 동해안의 영덕, 울진은 물론 삼척과 강릉 그리고 양양 또한 신라의 영역에 속하였다. 이외에 충북 보은 삼년산성 인근의 고분에서도 5세기 이후로 동일한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므로 당시 신라의 영역이 소백산맥을 넘어 충북 일대까지 뻗쳤음을 알 수 있다.

350년대부터 6세기 초까지에 걸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 방식을 흔히 간접지배라고 부른다. 이는 국가가 지방에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착적 기반을 갖춘 각 지역의 지배세력을 그대로 둔 채 그들에게 공납 수취 등을 대행시키며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이다. 각지의 여러 정치체들을 복속시켰다고는 하나 중앙집권력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 각 지역을 직접 다스릴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기존 세력을 적절히 이용해 통치한 것이었다. 물론 그런 상호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각 지역이 서로 연계를 하거나 대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군관 등을 파견하였다.

마립간기의 개시와 더불어 공납 형태로 들어오는 지방의 온갖 물산들이 왕도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지방에 대한 인력 징발이 가능해지자 경주에는 왕성인 월성이 축조되었으며 그 둘레의 산지에는 방어 및 대피용 산성들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시내 평지에 마립간을 비롯한 6부장部長들의 무덤인 거대한 고총들을 축조할 때에도 지방의 물자와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월성은 그로부터 600년 뒤 신라 멸망 때까지 줄곧 궁성으로 쓰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립간기는 신라의 토대가 굳건하게 놓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여러 곳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일정하게 위임받은 '간干'을 비

롯한 지배층이 민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강력하게 물적, 인적 공납을 강요하면서 지배 기반을 다지려 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후 거주지로서 축조한 거대한 고총은 이런 간접지배의 양면성을 말해주는 물적 증거이다. 이 고총은 그 자체로는 각 지역 지배층의 권력이 해당 지역 안에서 이전보다 강화되었음을 말해주지만 부장된 물품들이 중앙으로부터 사여된 각종 복식품과 통일된 양식의 신라토기라는 점은 그 주인공들이 분명하게 신라국가에 예속된 상태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 마립간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 무덤 속에 망자를 위해 부장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부장품들은 토기, 금속장신구, 무기, 무구, 마구, 농공구, 금속용기, 옥석제품, 칠기, 직물, 회화, 외래품 등 생활의 모든 부분을 망라한다. 이런 다종다양한 물품들은 막대한 양이 부장품으로 무덤에 들어간 만큼 당시의 경제 및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선미가 강조되며, 특히 토우 등이 붙거나 말 그림 등을 새겨 장식한 토기의 존재는 신라토기만의 특색이다. 고대 세계에서 신라라고 하면 '황금의 나라'라고 했을 만치 금은 세공의 장신구들은 지배층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무덤에서는 최소한 귀걸이라도 한 쌍은 꼭 나오는 것 또한 신라문화의 특징이다. 산山자 모양 입식으로 통일된 금·금동제 대관, 다종다양한 금제 귀걸이, 유리제 경·흉식, 금·은제 허리띠 장식과 대도 등은 신라고분의 등록상표이다. 그 외에 금은제의 용기, 고구려에 연원을 두는 청동제 용기, 동로마나 페르시아산 유리용기, 그리고 경옥제 곡옥이 달린 장식구도 특유한 요소들이다. 또 천마총의 천마도에서 보듯 그림을 그린 백화수피제품도 삼국시대의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다. 특히 멀리 실크로드를 거쳐 고구려를 통해 들여왔을 중앙아시아 계통의 독특한 보검 등은 한반도의 동남 구석에 자리 잡아 대외 교섭이 용이하지 않았던 신라에게 대외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운 물품들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1 도시와 성곽

왕도의 형성과 방어체계

마립간기 왕도의 도시구획과 방어시설은 3세기 말 이후의 유구와 유물 분포, 그리고 기록을 통해 개략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간의 조사 결과로 볼 때 늦어도 4세기의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현 경주 시내의 공간이 지배집단의 왕궁과 분묘군, 그리고 전문 생산 지구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성과 그 주변은 지배층의 거주구역 및 행정중심지로, 황남동과 황오동 일대는 지배층의 묘역으로, 황성동 일대는 전문적 생산 공방과 제철집단의 취락·묘역이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평지인 중심지를 약간 벗어난 주변 지구에서는 일상용품을 생산하던 토기 요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 구역들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상정하면 적어도 장축 3.5~4.0km의 중심생활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권역을 도시로 인정하는 데는 아직 더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하지만 늦어도 4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라라는 광역 정치체의 중심지인 왕경으로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궁인 월성은 경주 분지의 중앙에 자리하였다. 늦어도 4세기 무렵에는 완

그림 1 하늘에서 본 월성과 그 주변

그림 2 발굴된 경주 명활산성

성되었을 월성은 신라가 멸망하기까지 왕을 비롯한 왕족이 거주하며 정무를 보던 공간이었다. 월성 내부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부족하여 아직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문헌기록이나 주변의 분묘군 등 유적 현황은 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월성 주변은 3세기까지 일반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4세기를 지나면서는 일반 주거지와 일정한 거리를 둔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월성은 5세기 후반에 개축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소지마립간 9년(485)에 월성을 수즙修葺했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월성 수즙 기사는 명활산성 수즙 기록과 연결된다. 5세기 후반 고구려의 공격 위협이 한층 고조되어 가자 신라는 6부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도 자체의 방어를 목적으로 명활성을 수리하였다. 명활성은 이미 그 이전에 존재했는데 이 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이다. 아마 토성을 석성石城으로 고쳐 쌓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명활산성은 경주의 동쪽에 위치하며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 경주에서 토함산 자락인 추령을 거쳐 동해안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 방면으로 침입하는 왜병을 막는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것을 수리한 것은 왜병뿐만 아니라 미구에 닥칠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한 피난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475년 백제의 한성 함락 소식을 접하자마자 왕의 거소를 곧바로 명활산성으로 옮겼다. 이후 488년 월성을 수리하여 되돌아올 때까지 명활산성은 10여 년 동안 신라의 왕성으로 기능하였다.

신라 도성 일원 관방유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명활산성, 남쪽으로 남산신성, 서쪽으로 서형산성을 잇는 선을 1차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어 북쪽으로 북형산성, 남동쪽으로 관문성, 서쪽으로 부산성으로 이어지는 선을 2차 권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이러한 방어선이 완성되는 것은 중대 이후이다. 다만, 중고기와 중대에 축조된 것으로 기록된 성터에서도 마립간기의 토기편이 채집되는 현상에 주목해 본다면, 위의 축성 시점 이전에도 토성 혹은 그에 준하는 방어시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당 성지가 위치한 곳이 신라의 왕도를 방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어거점이기 때문이다. 경주 일원에 분포하는 성지의

축조 순서는 월성→1차 권역→2차 권역으로 확장되어 나갔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복수의 토성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석성으로 대체되면서 도성의 관방체계에 편제되었을 것이다.

전국 단위의 방어체계 구축

신라는 왕도의 정비와 병행해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마립간기의 지방지배는 축성사업을 통해 크게 진전을 이루었다. 470년 삼년산성을 시발로 전국에 걸쳐 축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삼년산성이라는 성의 이름이 3년에 걸치는 역역동원으로 이루어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 것은 축성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음을 반영한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공격에 대비하는 데 얼마나 고심하였던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471년에는 모로성芼老城, 474년에는 일모一牟, 사시沙尸 등 여러 곳에 성을 쌓았다. 이 성들의 구체적 위치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나 대체로 전국 교통로상의 군사적 요충지였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지방 곳곳의 축성을 위한 역역 동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보이는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468년 니하泥河 축성 기사로 미루어 15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주된 동원 대상이었다. 역역 동원의 필요성이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연령별, 성별 인력 파악을 위한 기초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를 현지에서 관리할 조직도 당연히 갖추어졌다. 이때 지역별 최고 우두머리인 촌간村干이 그런 역할을 총괄하였을 것이지만 역시 하위에서 실무를 담당한 조직도 당연히 운영되었을 것이다.

현재 영남 곳곳에 남아 있는 성지들 가운데 이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낙동강 중하류지역, 경북 북부지역, 충북지역 그리고 동해안에 존재한다. 낙동강 중하류지역에서는 경주로 향하는 교통로의 주요 거점들에 위치한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인 대구와 경산, 영천으로 이어지는 거점에 위치하는 성지들은 상호간에 연계되어 일련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추

그림 3 보은 삼년산성 성벽

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양산, 언양, 울산으로 이어지는 선에도 다수의 성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북 북부지역 가운데는 김천, 상주, 문경, 영주에 특히 성지가 많다. 그러나 마립간기에 처음 축조된 것인지의 여부는 향후 발굴조사 등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문경 고모산성은 발굴조사에서 초축 연대가 마립간기까지 소급됨이 밝혀졌다. 이 산성은 두 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축조되어 있으며 성곽 둘레의 길이는 1,300m이다. 가공한 석재를 이용해 성벽을 쌓아올렸다. 발굴조사로 확인된 외벽의 높이는 7~13.8m에 달한다. 내부 시설로는 성문, 곡성, 치성, 저수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지하식 목조 집수지는 가로 12.3m, 세로 6.6~6.9m의 대규모이다. 고모산성은 소백산맥 너머에서 문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면서 그와 상주를 잇는 주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문경 고모산성 목조 집수지 추정 유구

충북지역에는 당시 백제·고구려와의 접경지대에 쌓았던 산성들이 있으며 보은 삼년산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성은 보은 읍내의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오정산烏頂山에 쌓은 포곡식의 석축 산성이다. 세 개의 봉우리와 서쪽 골짜기를 잇는 성곽의 둘레는 1680m이다.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다르나 13~20m이며 납작한 돌을 가로 세로로 엇물리게 쌓았고, 하중이 집중되는 모퉁이의 아랫부분을 계단식으로 들여쌓았다. 동서남북 4곳에 성문이 있으며,

그림 5 강릉 강문동토성 원경(사구에 입지)

옹성 7개소를 비롯하여 우물터 5개소와 배수구 등이 확인되었다.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처음 쌓았는데 소지마립간 8년(486)에 개축되었다고 한다. 현존 성곽은 구조로 볼 때 마립간기 성곽을 토대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축 및 개축된 것이다.

동해안에서는 근년에 발굴된 강릉 강문동토성이 있다. 이 성은 강릉 경포대, 동해바다에 연접해 있으며 해발 8~26m 높이의 죽도봉을 기반으로 축조된 토성이다. 규모는 동서 404m, 남북 165m, 전체 둘레 1,000m 내외이다. 성벽 외측 기저부에는 강돌과 다듬은 석재로 최대 4단 정도 쌓고 그 위는 판축기법으로 성토하였다. 내부에서 방형 수혈유구, 집수시설과 함께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5세기 후반까지 소급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토성은 『삼국사기』의 소지마립간 11년(486) 니하泥河 축성 기사, 지증왕 13년(512) 하슬라주何瑟羅州 설치 기사와 연결지울 수 있는 자료이다.

2

무덤과 장송의례

무덤

영남지방의 무덤 변천 과정을 통관할 때 마립간기의 무덤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높고 거대한 봉분이다. 그래서 이들을 고총이라고 부른다. 고대한 봉분을 쌓은 목적은 피장자 혹은 그와 깊은 친연관계를 지녔기에 그 무덤을 축조한 이들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다. 이 고총은 지금까지도 기념물처럼 거의 원래대로 남아 주목을 끌고 있다. 고총은 경주지역을 필두로 해서 지어지기 시작해 신라의 지방 각지에서 지어졌다. 그 내부 구조는 이전 시기의 무덤과 달리 돌을 활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인데 크게 보아 두 종류이다.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 나머지 지역의 수혈식석곽묘 혹은 횡구식석실묘이다. 각지의 수혈식석곽묘는 묘광을 파고 돌을 쌓아 석곽을 만든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평면형이나 석축 방식에서 다양성을 보인다.

마립간기에 들어서면 경주에서는 앞의 사로국 시기에 무덤이 조영되던 분지 주변의 곡간지대 곳곳에 계속해서 고분들이 조영되는 한편으로 시내 중심의 왕경지구에 새로이 대소 고총들이 결집된 양상을 띠면서 축조된다. 월성 북쪽에

그림 6 경주 황남동고분군 전경

그림 7 경주 금척리고분군 근경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남아 있는 크고 작은 봉토분들, 즉 고총군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고분군은 주로 황남동에 위치한다고 해서 황남동고분군이라 불렀지만 최근에는 월성북고분군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에서 서쪽으로 다소 떨어진 금척리에도 고총군이 조영되어 있다. 그래서 경주지역에는 이른바 중대형의 고총들이 두 곳에만 군집해 존재하는 셈이다.

이 두 군집의 고총들은 그간 이루어진 발굴로 그 내부 구조가 적석목곽묘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적석목곽묘 가운데 재래의 목곽묘에서 묘광과 목곽 사이를 채웠던 흙 대신에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냇돌들로 채우고 또 목곽 위에도 적석을 한 것을 전형이라고 본다. 하지만, 적석의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적석목곽묘 가운데 초기 형태는 앞 시대 목곽묘 축조방식을 계승한 것이며 묘광과 목곽 사이에 충전토를 대신해 적석이 더해진 형태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흙과 돌을 섞어 채우다가 점차 묘광이 깊어지고 적석 양도 증가해 마침내 목곽 둘레 모두를 돌로 채우는 위석묘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목곽 상부에도 적석을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윽고 목곽이 지상에 설치되고 그 둘레에 목제 가구를 설치하면서 적석을 하는 형태도 등장한다.

적석목곽묘가 주류를 점하는 이유는 사로국에서 신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주 분지의 각 곡간지대에 거주하던 읍락 지배층의 상층부가 시내 왕경지구로 집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묘제로 적석목곽묘를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바꾸어 말해 신라 육부가 형성되면서 그에 속한 지배층들이 적석목곽을 내부 주체로 하는 고총을 계속 조영한 결과인 것이다.

경주 시내의 고총들 사이사이에는 적석목곽묘 이외에 소형의 수혈식석곽묘들도 있다. 규모면에서나 출토유물에서나 적석목곽묘에 미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들보다 사회적 위계가 낮은 계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혈식석곽묘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는 앞 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남은 목곽묘들이 존재한다. 이 목곽묘의 주인공들 또한 적석목곽묘의 주인공보다 하위의 인물들로 여겨진다. 사라리유적처럼 적석목곽묘와 목곽묘 그리고 수혈식석곽묘가 같은 지점에 조영된 곳의 양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시내 왕경지구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주부곽식 묘에서 마갑과 갑옷 일습이 출토되어 주목을 끈 쪽샘지구 C-10호묘가 목곽묘라는 점은 이를 상징한다. 옹관묘는 이전 시대부터 그랬듯이 유아 혹은 소아의 묘로서 대개 다른 묘제에 부수되어 축조된다.

경주 시내 왕경지구에서 규모가 아주 큰 고분들은 모두 지상식의 묘곽 구조를 가진 적석목곽분들이다. 이런 대형분을 비롯한 고총들은 일제시기에 155기가 잔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이외에도 지하에는 무수하게 많은 대소의 묘들이 있다. 그것들 역시 마립간기 및 중고기 초기의 무덤들로서 크게 보아 신라 육부의 지배층을 구성하였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이해된다.

왕경지구 마립간기 고총은 전체적으로 월성 쪽에서 서북쪽으로 가면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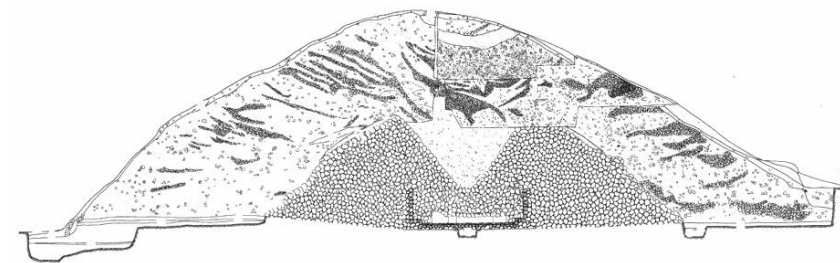
그림 8 천마총의 발굴 단면도

그림 9 경주 황남대총 남분 봉토 제거 후 적석부 모습

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런 추세가 일률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명확하게 무리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마립간기의 정치가 육부 체제로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그 부별로 묘역이 구분되어 있었고 각 묘역에 크고 작은 고총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군집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묘곽 형태는 시간 흐름과 더불어 변화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주곽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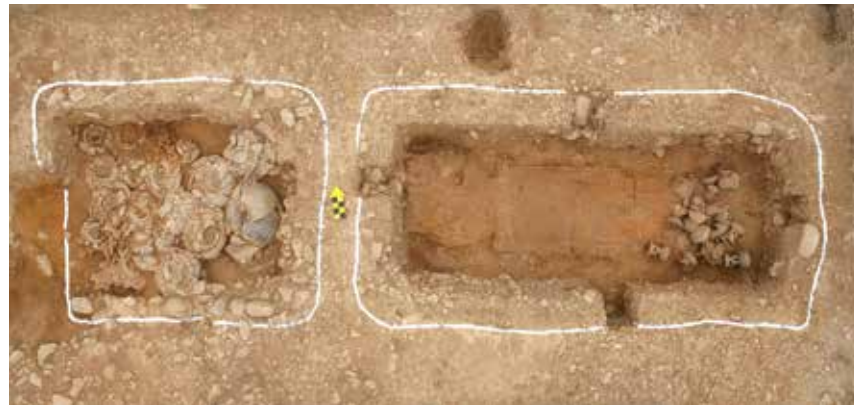
그림 10 경주 쪽샘지구 C-10호묘 조사 전경

그림 11 경주 천마총 목관 내 유물 노출 모습

곽이 전대 목곽묘의 형태를 이은 창昌자 혹은 일日자 모양의 배치를 한 주·부곽 별도 묘광의 묘곽 형태가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그에 이어 단곽식의 묘곽에 두부 및 족부 양쪽에 부장을 하는 형태, 주곽과 부곽이 명明자형으로 나란히 배치된 주·부곽 동일 묘광의 묘곽 형태가 나타났으며 그에 이어 두부 부장의 묘곽 형태, 마지막으로 족부 부장의 묘곽 형태가 나타났다.

분형은 단장분, 양장분, 다장분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단장분, 즉 단일원분 이외에 표형분, 즉 양장분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3기 이상의 묘곽을 연접한 분형이 있다는 점은 경주지역 적석목곽묘가 지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봉분을 연접해서 축조할 때는 연접 횟수와 방식에 따라 최종 봉분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연접 방식 가운데 가장 흔한 기본형은 선축 묘의 호석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연접할 무덤의 묘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표형분이 된다. 다장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3기 이상 계속 연접해 나간 것인데 표형분과 달리 선축 묘의 호석을 파괴하지 않고 그에 붙여 후축 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선축된 두 단일분 사이에 각각의 호석 일부를 제거하고 자리 잡은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림 12 황남대총 전경

그림 13 쪽샘 B지구 고분군(B1~4, 6호분)

경주에서 적석목곽묘가 고총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즈음 신라의 지방 곳곳에서도 고총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크게 보아 진한 시기에 각 지역 소국을 구성한 읍락들이 자리 잡았던 지구의 중심지마다 고총군이 조영되어 있다. 그 내부 주체는 수혈식석곽묘나 횡구식석실묘이다. 이런 고총의 내부 구조물인 석곽묘는 부산이나 경산처럼 앞 시기 목곽묘 형태를 계승, 발전시킨 곳도 있으나 앞 시기 목곽묘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채택된 곳도 많은 듯하다. 대구나 창녕처럼 한 지역 안의 지구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립간기 신라 지방의 묘제는 각 지역 및 지구에서 수혈식석곽 혹은 횡구식석실이라는 기본 묘형은 공유하면서도 각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목곽묘나 적석목곽묘와 달리 묘의 외형이 크게 변형된 상태로 발굴되는 것은 아니어서 석곽의 구조 자체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는 편이다.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개석의 존재이다. 이는 앞 단계의 목곽묘와 확실하게 다른 점이고 또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도 다른 점이다. 목곽묘로부터 수혈식석곽묘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부산 복천동고분군이다. 먼저 목곽의 외곽을 석곽이 대신하는 식으로 바뀌

그림 14 부산 복천동고분군 원경

었다가 최종적으로 그에 개석이 덮이는 식으로 바뀜으로써 수혈식석곽묘라는 묘제는 완성된다.

신라의 지방 가운데 부산지역에는 복천동고분군이라는 고총 이전 단계 무덤들과 고총군인 연산동고분군이 별개 지점에 조영되어 있다. 연산동고분군의 묘형은 기본적으로 복천동고분군의 묘형을 이어 지하식의 장방형 수혈식석곽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와 달리 양산지역의 북정리고분군에서는 지금까지 반지상식의 이른바 수혈계 횡구식석실만이 발굴되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시기에 발굴되어 양산 부부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북정리 10호분이다. 비슷한 구조의 횡구식석실분은 경주 시내 황남동 151호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창녕지역에서는 지구별로 다른 묘형이 쓰였다. 계성 계남리고분군의 내부 주체는 목곽묘 둘레에 석축을 한 과도적 형태의 묘제인데 목개 석곽묘로 파악하기도 한다. 반면 교동고분군에는 이른 시기부터 긴 묘도를 붙인 횡구식석곽묘가 쓰였고, 그 가까이에서 별개 고총군을 형성한 송현동고분군은 전형적인 지상식 횡구식석실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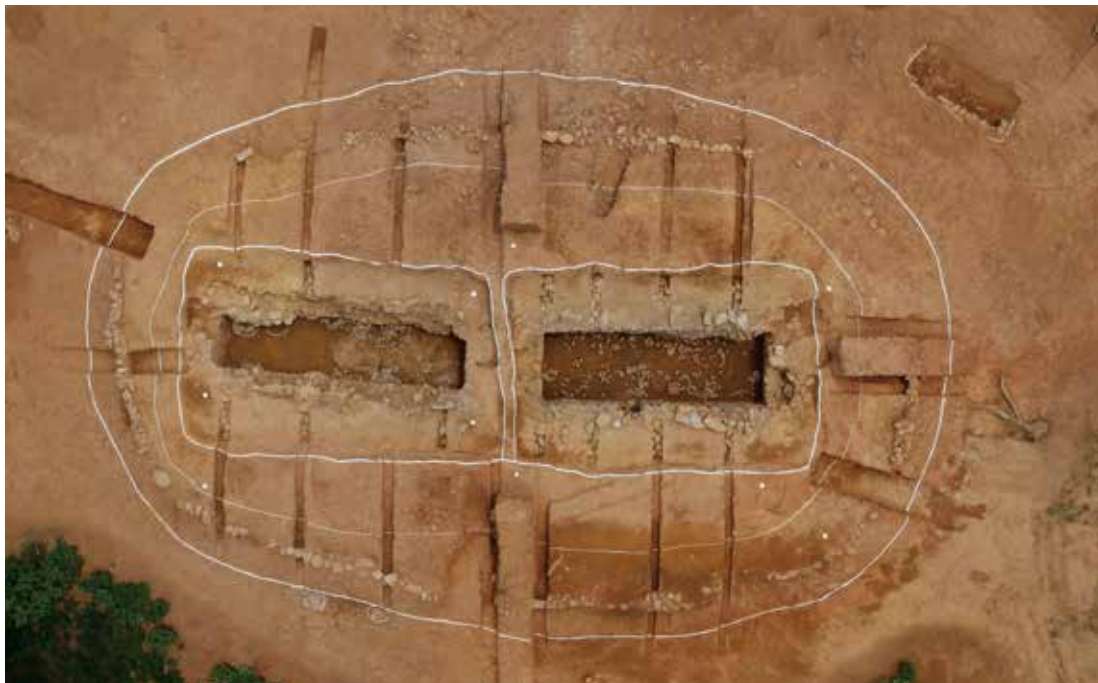
그림 15 부산 연산동 M3호분 조사 전경

그림 16 양산 북정리고분군 원경

그림 17 창녕 교동고분군 전경

대구지역에서도 지구별로 다른 묘제가 쓰였다. 화원 성산동고분군은 반지상식 수혈식석곽묘가 내부 주체인 반면 달성 주변에 조영된 대구지역 최대 고분군인 달성고분군은 할석조 석곽묘와 더불어 특징적인 판석조 석곽묘가 쓰였다. 후자의 구조를 일제강점기 이래 횡구식석실묘로 보아왔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를 가진 성주 성산동고분군을 비롯해 구미 황상동고분군 등 낙동강 중류역 곳곳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수혈식임이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역의 칠곡 구암동고분군에서는 아주 긴 세장방형의 수혈식묘곽을 갖되 봉분을 주로 돌을 이용해 쌓은 석곽봉석분이 확인된 바 있다.

경산지역에는 임당유적 고총이 있다. 이 고총은 독특하게도 암반을 곽 모양으로 파낸 묘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안에 목곽 구조를 설치하였기에 암광목곽묘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개석을 갖고 있는 데다 복천동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 안에 목곽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목곽묘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같은 지역의 북사리고분군에서는 통

례의 수혈식석곽묘가 쓰였지만, 신상리고분군에서는 특이하게도 적석목곽묘가 주로 쓰였음이 확인되어 주목되었다.

의성지역의 탑리 일대 금성산고분군에는 적석목곽묘와 그것을 어느 정도 변형한 변형적석목곽묘가 쓰이고 있다. 이는 유례가 별로 없다. 의성지역은 경주를 중심으로 볼 때 신라의 지방 가운데 서북 내륙지역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만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그런 묘제를 채택한 듯하다. 성주 지역에서는 성산동고분군의 묘제가 대구 달성고분군과 아주 흡사하게 할석조와 판석조의 수혈식석곽묘였다. 선산지역의 낙산동고분군에서는 석실 단면이 사다리꼴이고 아주 긴 지상식의 횡구식석실이 내부 주체로 드러났다. 또 고분군 형성이 상대적으로 늦은 상주 병성동고분군에서는 길이가 아주 긴 횡구식석실이 내부 주체였다.

한편 동해안 강릉지역의 경우 이 지역 중심 고분군인 초당동고분군에 수혈식석곽묘와 목곽묘가 공존한다. 이 가운데 A지구 1호분은 거대한 개석을 갖춘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인데, 크고 작은 할석을 쌓아 네 벽을 만들고 바닥의 약

그림 18　경산 임당고분군 조사 전경

2/3 가량은 자갈과 회를 다져 깔았으며 일부분은 격벽을 쌓았다. 그리고 석곽 내부 공간에는 석곽 바닥보다 조금 더 낮게 할석으로 네 벽을 쌓고 판석으로 뚜껑을 덮은 석관을 시설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라 지방의 고총은 그 내부 구조가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역을 구성한 지구마다 다를 정도이다. 그처럼 고총 내부에 각기 독특한 묘 구조

그림 19　의성 대리리 2호분 A-1호 주부곽 조사 전경

그림 20　성주 성산동 38호분 조사 전경

그림 21 강릉 초당동A-1호분 조사 전경

를 가진 배경은 각 지역 혹은 지구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묘를 당시의 계세사상繼世思想을 구현하는 내세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고총이 신라 중앙의 지방에 대한 간접지배가 진전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이런 다양성은 각 지역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독자성을 향한 염원을 묘에 투영한 결과물일 수 있다.

장송의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현세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저승의 세계를 창출하기도 했다. 세상에 남겨진 이가 부모나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지극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 사회마다 달랐겠으나 고대사회의 지배층은 상장의례를 성대히 거행하는 데서 찾기도 했다. 그들은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고 생전에 쓰던 물건, 사후에 쓸 물건, 그리고 시중 들 사람까지 함께 묻어주기도 했다.

상喪이란 죽음 자체를 의미하지만 '죽은 이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장葬이란 '죽은 이를 매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람이 죽은 후 바로 사체를 처리하여 매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애도의 기간을 가지며 매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 기간에 시신을 관에 넣어 안치해 둔다. 이를 빈殯이라 한다.

고구려 및 백제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경우도 상장의례와 관련된 기록이 매우 적다. 다만, 『수서隋書』에 신라에서는 상복을 1년 동안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시기가 늦어 마립간기까지 소급시켜 적용하기는 어렵다. 마립간기의 신라 고분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주인공이 평소 사용하였거나 사후에 사용하라는 용도로 묻어준 물품이 다량 묻혀 있기도 한다. 또 사후에 시중 들 사람까지 함께 죽임을 당한 채 묻혀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의 성과를 되짚어

보면 신라인들이 가졌던 장송의례 혹은 내세관념의 한 단면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

후장厚葬을 한 마립간기의 신라고분에서는 비록 나무, 천, 종이 등 유기물로 제작된 유물은 대부분 썩어버리고 남아있지 않으나 토제나 금속제 유물이 정말로 많이 출토되기에 애초에 얼마나 많은 유물이 부장되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유물 모두를 무조건 사후생활을 위해 부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유물들이 뚜렷이 구분되는 무덤 내 각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그 공간에 따라 유물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재질에 따라 금속(청동기, 철기), 옥석기, 도기, 골각기, 죽목칠기 등으로, 용도에 따라 장신구, 마구, 무기, 농공구, 의기, 토기, 금속용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유물 자체를 나누기 위한 분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덤에 매납되는 의미로서의 기능별 분류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는 한漢 대를 중심으로 예악기, 생활실용품, 위신 의장 용구, 진묘 벽사품, 공헌 제사품, 명기라는 6종으로 구분하였다.

신라고분에서 예악기와 진묘 벽사품, 명기 등은 비록 출토되기는 하나 아주 드물어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참고해 마립간기 무덤 속의 유물들을 생활용품, 위세품(주로 복식품), 공헌유물(의례용 유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엄격한 기능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고분을 축조하면서 유물들은 일시에 부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 22〉에서 보는 축조 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나뉘어 부장되는 점이 관찰된다. 예컨대 황남대총 남분의 유물 출토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물은 크게 목곽의 외부에 부장된 것과 내부에 부장된 것, 그리고 부곽에 부장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부곽에 부장된 유물은 전체가 일시에 부장된 사후생활 유물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목곽 외부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각각에서도 세부 위치별로 다시 구분이 된다. 목곽 외부의 유물은 위치에 따라 ①봉분 정상에 매납된 유물, ②봉분 속에 부장된 유물, ③적석부 피복층에 부장된 유물, ④목곽 상부에 부장된 유물로 나눌 수 있다. 목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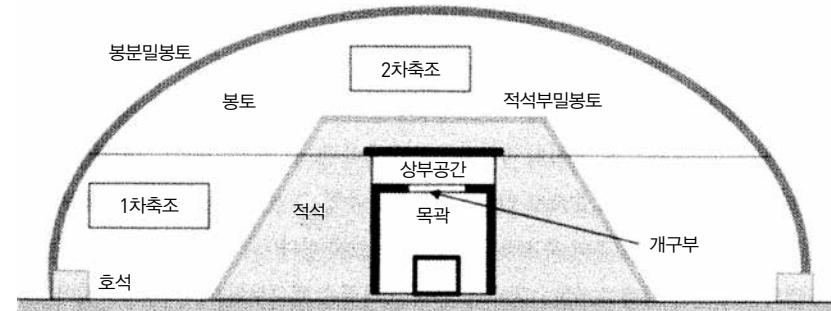
그림 22 적석봉토분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 단계 개념도

(주곽) 내부에 부장된 유물은 ⑤내곽과 중곽 둘레의 석단 위에 부장된 유물, ⑥내곽 위에 부장된 유물, ⑦부장칸에 부장된 유물, ⑧목관에 부장된 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유물의 부장 위치와 고분의 축조 과정을 연계해 부장 유물의 의미를 분석하면 당시 장송의례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황남대총 남분의 축조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13개의 단계가 상정된다. 다만, 이는 더 세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축조 순서가 서로 바뀔 수도 있다.

(가) 묘지의 선정 : 선대의 묘와 근접하여 묘지를 선정한다.

(나) 묘지의 정지 : 주곽과 부곽이 설치될 지면을 고른다.

(다) 묘광의 굴착 : 주곽과 부곽이 축조될 공간을 굴착한다.

(라) 외곽의 설치 : 주곽과 부곽에 각각 목곽을 설치한다(주곽 외곽은 천장부까지 축조하고 거기에 개구부開口部를 두어 출입구로 사용한다). 주곽 외곽과 부곽 주위에 그 상면까지 적석부를 마련하면서 측면 봉토를 축조한다(호석 등의 외부시설도 함께 축조한다).

(마) 중곽의 설치 : 주곽 외곽의 내부에 중곽을 설치하고 중곽과 외곽 사이에 적석단을 설치한다.

(바) 내곽의 설치 : 주곽의 중곽 내부에 주검칸과 부장칸이 칸막이로 구분된 내곽을 설치하고 내곽과 중곽 사이에 적석단을 설치한다.

(사) 시신의 안치 : 내곽 주검칸 내부에 시신이 든 목관 또는 시신을 안치한다.

(아) 내곽의 복개 : 내곽인 목곽의 뚜껑을 덮는다.

(자) 중곽의 복개 : 중곽의 뚜껑을 덮는다.

(차) 주곽과 부곽의 복개 : 주곽의 개구부를 닫고, 부곽에 목개를 한다.

(카) 상부적석부의 축조 : 주곽과 부곽 위로 일정한 높이까지 적석을 하여 적석부를 완공하고 이를 점토로 밀봉한다.

(타) 상부 봉분 축조 : 이 상부 적석 위에 흙으로 봉분을 쌓아 올라간다(호석이 이때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파) 봉분의 밀봉 : 봉분 표면 전체를 진흙으로 덮어 밀봉한다.

이런 각 단계에 앞의 유물 출토위치를 연결시키면 ⑧은 목관에 시신이 안치될 때 착장된 상태로나 그 내부에 부장된 유물로 (사)의 과정 또는 그 이전에 주검의 입관 시 성복하면서 부장된 유물이며 ⑦은 (사)의 과정과 함께 부장된 유물, ⑥은 (아)의 과정 이후 부장된 유물, ⑤는 (아)와 (자)의 단계와 관련된 유물, ④는 (차)의 과정 이후 부장된 유물, ③은 (카)의 과정 이후 부장된 유물, ②는 (타)의 과정과 관련된 유물, ①은 (파)의 과정이나 그 이후 부장된 유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곽의 유물은 (차)의 과정 이전에 부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주검을 안치하면서부터 봉분을 완성할 때까지 단계별로 각종 의례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로 각종 유물이 부장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전체 과정을 주검이 고분에 안치된 이후의 장송의례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인들은 정말로 많은 물품을 무덤 속에 묻었다. 고분에 별도의 부곽을 축조하고 거기에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많은 유물을 부장한 것은 신라인의 사후관과 관련된다. 이 사후관을 계세사상이라고 한다. 계세사상은 죽은 후의 세계에서 현재의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관념체계로 볼 수 있다. 즉 현생에서의 지위나 권력이 사후에도 유지되며 사후세계의 생활이 현생의 일상생활과 다르지 않다고 여긴 사상이다. 따라서 죽은 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삶을 위해 많은 생활 유물을 저승으로 가져가도록 한 결과가 곧 이런 후장이다.

순장 또한 그러하다. 순장이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림 23 경산 조영EⅢ-2호분 부곽

을 함께 죽여 무덤 속에 껴묻는 장송의례를 말한다. 잔혹해 보이는 이 풍습은 세계 곳곳의 고대국가 형성기 및 초기에 존재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에서 확인된다. 부여나 고구려의 경우 『삼국지』, 『삼국사기』 등의 문헌기록에 보이며, 부여에서는 왕이 죽으면 백 명 단위로 순장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경우 지증왕대에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황남대총, 천마총을 비롯한 초대형 적석목곽묘의 발굴에서 순장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순장 풍습이 신라 성립 이전부터 자체에 존재했는지 혹은 외래적 요소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신라의 순장은 시기로 보면 부여나 고구려에 비해 늦고 가야와 비슷한데 고총의 축조 및 황금문화의 도입과 겹친다. 신라와 가야의 지배층은 화려한 황금장신구와 거대 고총으로 자신들의 생전 지위를 장엄하면서 현세의 삶이 내세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계세관념을 지녔던 것이다. 무덤 속에 수많은 물품을 부장하면서 산 사람까지 죽여 껴묻는 순장 풍습이 유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복식

기록에 보이는 복식

마립간기의 복식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에도 없다. 신라는 4세기 후반 전진前秦으로 사신을 보낸 바 있으나 그 후 마립간기 동안 중국으로의 사신 파견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남조와의 외교관계는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양서梁書』 신라전에 '양 보통 2년(521) 신라 법흥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백제 사신을 따라와 방물을 봉헌했다'라는 기록이 당시의 사정을 보여준다.

『주서周書』에는 고구려에 대해 '벼슬이 있는 사람은 관冠 위에 새의 깃 2개를 꽂아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백제에 대해 '조회나 제사지낼 때는 관의 양쪽 곁에 새의 깃을 덧달았다'고 기록했다. 『수서隋書』에는 '신라의 의복이 고구려나 백제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주서』와 『수서』의 기록에 보이는 조우관鳥羽冠이 마립간기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유물에서 조우관이 확인되므로 이들을 마립간기까지 소급시켜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의 신라 지배층 남성은 평소 혹은 중요한 행사에서 조우관을 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의 전면前面에는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 제위에게 교하여 상하의 의복을 내려주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서 주목된다. 이 비의 건립연대에 대해 5세기 전반설과 후반설이 있으나 어느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비문은 고구려 태자가 신라왕과 그 수종자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중국, 특히 북위北魏가 고구려에 의복을 하사했던 것처럼 고구려가 신라의 지배층에게 그것을 사여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의복은 일상복이 아니라 고구려의 관복일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관복이 신라 관복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황금장신구

문헌기록이 없는 대신 신라고분 속에서는 수많은 복식 구성품이 출토된다. 무덤 주인공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였던 각종 장신구가 그것이다. 아쉬운 것은 의복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약간의 직물 조각만 검출되는 점이다.

신라 금속 장신구 문화의 전형은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갖추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황금장신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한층 많은 사람이 황금장신구를 소유하고 그 장식들이 신라적 디자인으로 탈바꿈하는 시기는 황남대총 북분이 축조되는 시점이다. 금동관을 대신해 새로이 금관을 만들어 죽은 왕이나 왕족의 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 금제 팔찌를 만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식구, 이식, 경식, 지환, 식리 등 각종 장신구의 종류가 많아지고 장식 또한 화려해진다.

신라의 장신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관이다. 금관은 천년의 신라사 가운데 마립간기의 왕족 무덤에서만 출토된다. 이처럼 금관의 소유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은 곧 당시 신라사회에서 금관이 왕족들의 지위를 장엄莊嚴해주

그림 24 황남대총 북분 금관

그림 25 금관총 금관

는 대표적 위세품이었음을 보여준다. 신라 관은 대륜 위에 수지형樹枝形 입식 3개와 녹각형鹿角形 입식 2개가 덧붙여 세워져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래서 이를 대관帶冠이라 부른다. 이 대관은 일상용이었기보다는 의례용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수지형 입식은 나뭇가지가 산山자 혹은 출出자 모양의 도안으로 완전히 양식화된 것이고 녹각형 입식이라 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런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어떻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지형 입식의 형태와 그에 부착된 곡옥 및 영락의 수량이 변화하기도 하며 대륜과 입식에 새겨진 무늬 또한 한층 복잡해진다.

마립간기 신라의 대관은 재질에 따라 금관, 금동관, 은관으로 나누어진다. 현재까지 발굴된 금관은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 출토품으로 모두 5점이고 경주에서만 출토되었다. 은관은 출토예가 적어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 1점에 불과하다. 금동제 대관은 지방의 고총에서 출토된 것까지 포함하면 수십 점이다. 금관의 대륜에 세워 붙인 입식들은 지상과 천상을 잇는 매개체로서의 나무와 사슴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금동관은 경주의 왕족, 귀족묘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수장급 인물의 무덤에서도 많이 출토된다. 금동관의 외형은 금관과 대동소이하지만 출자형 입식 3개만을 갖춘 것이 대부분이고, 금관처럼 녹각형 입식 2개까지 갖춘 것은 소수이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관 가운데 대관과 달리 고깔 모양의 쓰개[冠帽]에 새의 날개 혹은 깃털 모양 관장식[冠飾]이 결합된 것이 있다. 이 고깔 모양 쓰개 혹은 그와 더불어 관장식을 '모관帽冠'이라 부르고 있다. 때로는 쓰개 없이 관장식만 출토되는 경우도 있는데 백화수피나 비단 같은 옷감으로 만든 모관이 썩어 없어지고 그 장식만 남은 것이다. 이 모관은 신라 지배층의 일상용 관으로서 남자의 상투 같은 것을 가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관은 그간 상당히 많은 수가 출토되었으며 금·은·금동·백화수피제로 구분된다. 모관을 구성하는 관모와 관식 가운데 모의 경우 백화수피 같은 유기물질 제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은제품이며 금·금동 제품도 일부 있다. 관모에 끼우는 관식의 경우 경주에서는 금·금동·은제가 출토되나 지방에서는 은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금동제품은 극히 드물다. 금제품이 조합된 사례는 금관총과 천마총 출토품으로 한정되며 은제와 금동제품은 경주 이외의 지방에도 넓게 분포한다. 형태적으로 보면 얼핏 새 날개 모양[鳥翼形]을 띠는 것이 많다.

경주지역에서는 웬만한 규모의 무덤을 발굴하면 예외 없이 금제이식이 출토된다. 신라의 이식에는 신라인의 미감과 최고조에 이른 금속공예 기술이 녹아 있다. 신라의 지배층에 속한 남녀 모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 착용한 장신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식이었다. 이식은 신분이나 지위가 평민과 다름을 시각적으로 구별 짓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발굴을 해보면 이식만이 나오는 무덤은 있어도 이식 없이 관모나 허리띠 장식이 나오는 무덤은 없다. 지배층 내에서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식에다 관이나 허리띠 등을 더해가는 식으로 저마다 복식을 차렸음을 보여준다.

신라 이식은 귀에 직접 닿는 부분인 주환主環과 그에 매단 중간식 그리고

그림 26 천마총 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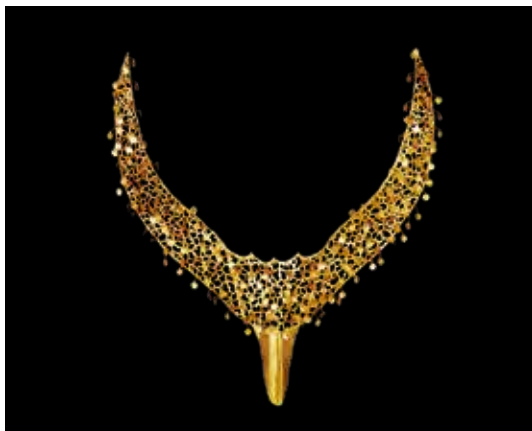
그림 27 금관총 금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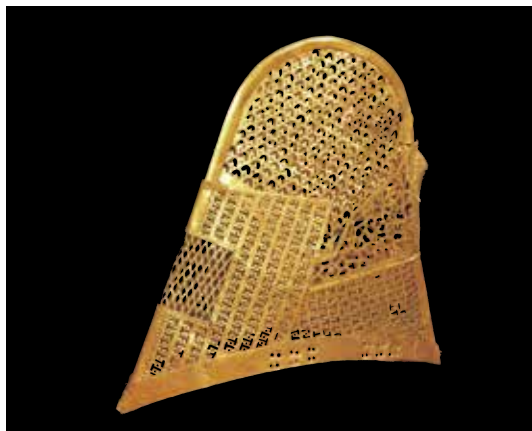
그림 28 천마총 금제관모

그림 29 황오리고분 금제태환이식

그림 30 보문리고분 금제세환이식

그에서 늘어뜨린 수하식의 세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계보는 고구려 이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간식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띤 점이 신라 이식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식은 주환의 형태에 따라 굵은 테로 속이 빈 태환이식과 가는 테인 세환이식으로 나뉜다. 태환이식은 종류가 단순한 편임에 비해 세환이식은 여러 종류가 존재했다. 그런데 무덤에서 출토되는 장신구의 조합을 잘 살펴보면 세환이식을 착용한 경우에만 허리에 대도를 차고 있다. 이는 세환이식의 착용자가 남성이고 태환이식의 착용자는 여성이었음을 말해 준다.

태환이식은 황남대총 북분 단계에 이르면 주환이 커지면서 그 제작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숫자가 늘어난다. 중간식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세환이식도 초기에는 태환이식과 비슷한 중간식과 수하식을 가진 유형이 유행했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이후로 다채로운 모습을 띠고 화려한 장식을 자랑한다.

신라고분 출토 장신구 가운데 목걸이[頸飾]과 가슴걸이[胸飾]도 이식 못지않게 화려하다. 경주의 큰 무덤에서는 남색 유리구슬을 엮어 만든 경식이 종종

그림 31 노서리215번지고분 금제경식

출토되며, 금 사슬과 금 구슬을 엮어 만든 것도 간혹 있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천마총에 묻힌 주인공의 가슴 부근에서는 수천 개의 유리구슬과 금막대기를 엮어 만든 화려한 가슴걸이가 출토되었다.

대장식구란 허리띠에 장식한 금속부품을 말한다. 고대사회에서 허리띠는 관복의 부품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허리띠의 표면을 때때로 금은보화로 장식하였다. 이것이 대장식구이다. 금제품은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이라는 경주 소재 적석목곽묘 6기에서만 출토되었다. 이중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면 모두 금관과 함께 출토되었다. 금관이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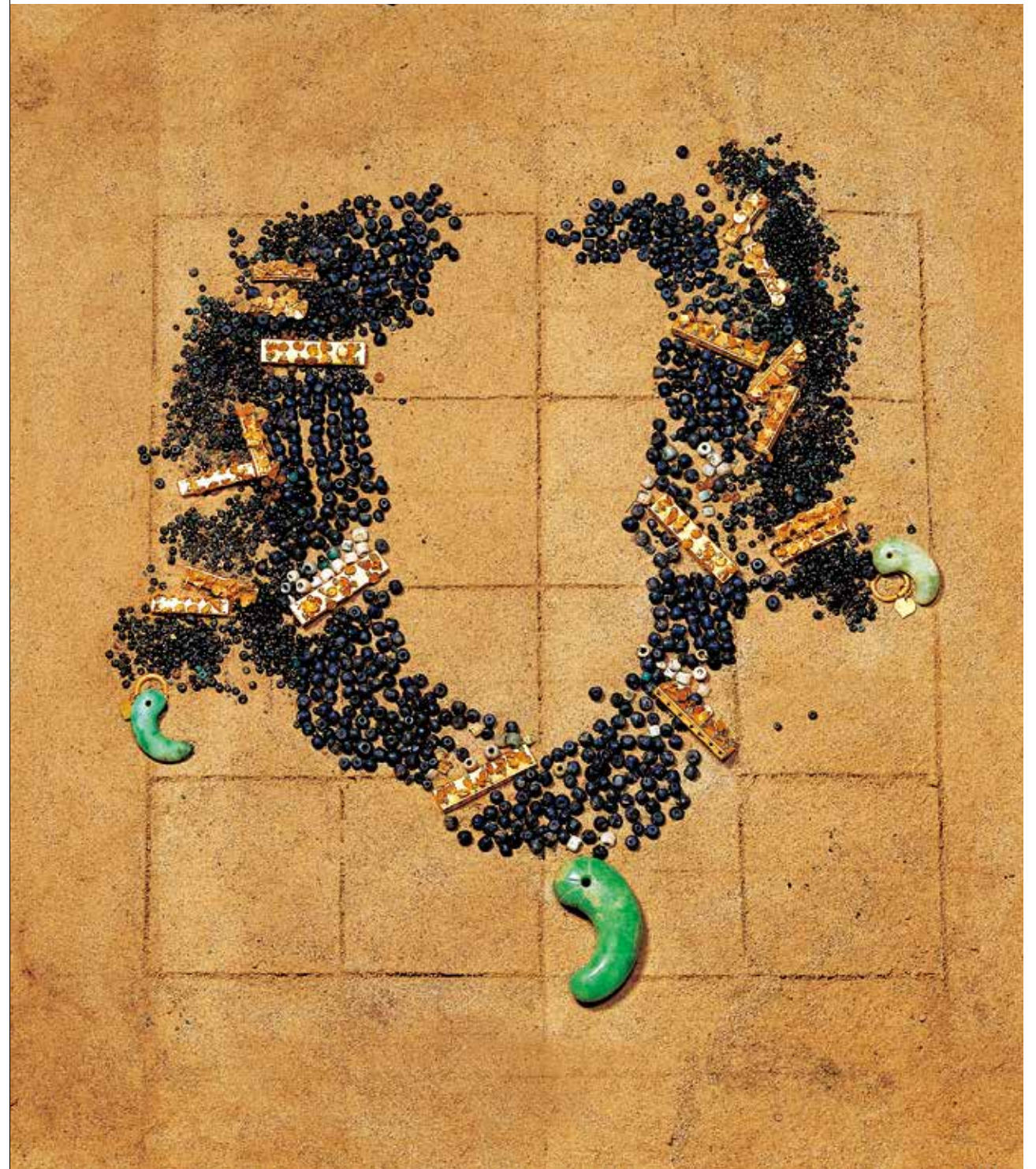
그림 32 황남대총 남분 흉식

만이 아니라 왕족도 소유한 물품이었듯이, 금제 대장식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라 대장식구 가운데 금제품 전부와 은제품 일부에는 요패가 부착되어 있다. 요패는 향낭, 약통, 물고기, 숫돌, 집게, 곡옥, 도자 등을 형상화한 장식물로 구성된다.

그림 33 천마총 금제대장식구

그림 34 황남대총 남분 금반지

그림 35 천마총 금팔찌

팔찌는 금제와 은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시기가 빠른 예로는 황남대총 북분의 팔찌를 들 수 있다. 이 팔찌는 표면에 아무런 장식 없이 속이 찬 금봉金棒을 구부려 만든 것이다. 이와 달리 부분적으로 파이프처럼 속이 빈 것도 있다. 6세기대 팔찌는 금령총 출토품처럼 표면의 돌기에 유리를 끼워 장식하거나 천마총 출토품처럼 돌기만 표현하기도 한다. 반지는 6세기대 제작품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인다. 반지 윗부분은 마름모꼴이나 꽃잎 모양으로 넓게 만들어졌다. 그 표면에는 금판을 붙여 돌기를 만들거나 수십 개의 금알갱이를 촘촘히 붙여 장식하는 한편 남색이나 녹색 유리구슬을 끼워 넣기도 했다.

장식 신발인 식리飾履는 백제 식리에 비해 문양이 간소한 편이다. 황남대총 남분, 의성 탑리고분Ⅱ곽 출토 식리처럼 철凸자 문양을 투조로 표현한 것이 있는 반면 금령총, 양산 부부총 출토품처럼 문양이 없는 것도 있다. 신라 식리는 백제 식리와 마찬가지로 금속판 3매를 조립해 완성한 것이지만 측판의 결합 위치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즉 백제의 식리는 바닥판 위에 좌우 측판의 양단을 신발의 앞뒤에서 결합하지만, 신라의 식리는 신발의 앞부분을 감싸는

그림 36 황남대총 남분 금동식리

판과 뒷부분을 감싸는 판을 좌우에서 겹친 다음, 세로로 금동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신라의 식리는 모두 금동제인데 그것이 비실용적이라는 점은 바닥 장식을 보면 분명하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신발의 바닥에는 달개가 여러 개 있고, 금관총 신발에는 여러 송이의 연꽃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식리는 평소 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승을 떠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각종 장신구는 왕족묘와 귀족묘, 그리고 지방 수장의 묘에서 출토되는데 물품의 재질이나 수준, 수량에서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지위의

그림 37 황남대총 북분 금관 출토 모습

차를 크게 반영하는 물품은 관과 금동신발이며 반지 역시 비중 있는 물품이다. 금동신발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팔찌와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금속제 장신구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가 가장 출토 예가 많아서 귀족들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소유한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릉급 대형분에서는 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팔찌, 반지, 금동신발이 모두 출토된다. 주목되는 것은 피장자의 머리장식이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 피장자는 모두 금제 대관을 쓰고 매장되었다. 출토 상황이 명확한 황남대총 북분과 금령총, 천마총의 경우 금관이 얼굴 전체를 덮은 모습으로 출토되었다.

지방은 경주에 비해 정형화된 모습이 덜하다. 지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제 장신구는 역시 관이었다. 관을 중심으로 보면 대관을 부장한 경우와 모관을 부장한 경우로 나뉜다. 모관을 부장한 예는 황남대총 북분과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고 대관과 모관을 함께 부장한 예는 양산 부부총 남성 유해부와 창녕 계남리 1호분뿐이다. 그 외에는 대관과 모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부장하고 있다. 지방의 무덤에서 금속 장신구가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5세기 전반 경부터이다. 그러나 관, 귀걸이, 허리띠, 금동신발의 한 세트가 부장되는 것은 5세기 후반 이후이다.

기마인물형토기와 채화판에 보이는 복식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는 신라인의 얼굴이나 옷매무새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어 주목된다. 주인상主人像은 오뚝한 콧날에 뾰족한 턱 때문인지 인상은 다소 날카로워 보이지만 살짝 감은 두 눈과 평퍼짐한 말을 보면 금세 친근감이 느껴진다.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활기에 찬 '정중동靜中動'의 매력을 물씬 풍긴다. 토기를 옆에서 살펴보면 앞쪽의 주구注口, 주인공의 얼굴, 뒤쪽의 꼬리가 호선으로 이어진다. 주인이 타고 있는 말을 살찌게 표현한 것은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그림 38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

그림 39 기마인물형토기 인물상 세부

그림 40 천마총 채화판 인물상 세부

이 인물상의 표현 가운데 그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머리에 쓴 관이다. 토기이므로 재질은 알 수 없지만 직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하변 곳곳에 귀금속을 붙였던 것 같다. 관의 기본형은 고깔모양이다. 고깔 전면에도 무엇인가 부착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관의 하변에는 한층 두툼한 장식을 덧붙였고 뒤쪽은 위로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관을 푹 눌러쓴 것이 아니라 머리에 얹은 듯이 표현하였고 좌우측에 부착된 두 가닥씩의 끈을 귀 앞뒤로 내려 턱 밑에서 당겨 묶은 모습이다.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마립간기 신라 지배층이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관, 즉 모관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한편 천마총에서는 유명한 천마도와 함께 기마인물상, 서조瑞鳥, 초화문草花紋과 능형문菱形紋이 그려진 채화판彩畵板 1점이 발굴되었다. 이 유물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으나 마구의 일종이거나 관모의 챙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둥근 팔찌 모양의 백화수피白樺樹皮 2매를 겹쳐 실로 누빈 다음 그 앞뒤면에 그림을 그렸다.

여러 장면의 그림 가운데 말을 탄 인물의 머리와 옷이 주목된다. 머리는 상투를 틀지 않았고 장발이다. 상의는 저고리, 하의는 통이 큰 바지여서 기록에 나오는 삼국시대 복식의 기본형을 띠고 있다. 상의와 하의는 색깔이 다르다.

4

물품

토기

4세기 후반이 되면 영남지방 토기문화에 변화가 생긴다. 대개 낙동강을 경계로 그 이동지역에서는 신라양식新羅樣式, 이서지역에서는 가야양식의 토기문화가 성립한다. 이런 현상은 이 시기에 와서 양 지역의 정치체 및 토기 생산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두 지역의 중심 집단들이 성장하여 동쪽에서는 신라가 고대국가를 이루고 서쪽에서는 가야 사회가 성립하면서 각 권역 내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토기 생산체계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하게 이루어져 권역 내 토기양식의 통일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는 고구려토기나 백제토기에 비하면 기종 구성이나 기형에서 서로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고배 대각의 투창형태이다. 신라토기는 투창을 상하로 엇갈리게 뚫은 반면 가야토기는 일렬로 뚫었다. 신라의 고배는 그릇이 깊지만 가야의 고배는 비교적 납작하다. 뚜껑의 꼭지도 신라는 마치 대각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 전형인 데 비해 가야는 꼭지가 대부분 단추 모양이다. 토기 표면의

문양도 신라는 대칼을 이용해 삼각형, 그물문, 원문, 각종 동물을 새겼지만 가야는 거의 점열문으로만 장식하였다.

신라토기가 본격적으로 성립되는 시기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무덤은 경주 월성로 가-13호묘이다. 이 무덤에서는 대각에 엇갈린 투창을 뚫은 고배가 처음으로 출현하는데, 왕릉인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공을 나물왕(356~401)으로 보는 의견과 눌지왕(417~458)으로 추정하는 의견에 따라 4세기 중엽으로 보기도 하고 5세기 초엽으로 보기도 한다.

마립간기는 토기를 대량 생산하고, 또 이를 적석목곽묘와 같은 무덤에 다량

그림 41　경주 월성로 가-13호묘 유개고배

으로 묻었던 시기이다. 주요 기종은 고배와 대부장경호이다. 이외에 원통형기대와 발형기대, 대부직구호, 개배, 컵형토기, 적갈색연질발 등도 제작되었다.

토기 가운데 형태변화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이 고배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황남동 109호분 3·4곽과 월성로 가-13호묘 출토품 등의 초기형은 대각이 길쭉하고 곡선적이며 4~3단으로 구획된 것이다. 그에 비해 황남대총 남분 이후의 고배는 대각이 조금 짧아지고 직선화하며 2단으로 구획된다. 대각 끝의 형태도 변화하는데 초기에는 끝이 뾰족하다가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는 뾰족한 것과 둥근 것이 공존하며 그 이후에는 둥근 것 중심으로 바뀌어 나간다. 기벽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얇아지는 경향이 있다.

색깔 역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기 고배 가운데는 고화도 소성에 단면이 암자색을 띠는 것이 많다. 황남대총 남분 단계 이후는 회색조를 띠게 되는데 대형고총 출토품 가운데는 검은색 광택을 가지는 것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 뚜껑의 경우 초기에는 뚜껑의 꼭지가 단추형이나 보주형이지만 황남대총 남분 단계 이후에는 대각축소형 꼭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꼭지는 고배뿐만 아니라 개배, 장경호 등에도 폭넓게 채용된다.

고배만큼은 아니지만 장경호 역시 마립간기 신라토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

그림 42 황남대총 남분 토기류1

그림 43 황남대총 남분 토기류2

그림 44 황남대총 남분 고배류

그림 45 천마총 토기 일괄

는 기종이다. 장경호의 변화는 목 부위 길이와 구연 모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배는 대각이 점차 짧아지는 변화를 겪었지만 장경호는 목 부위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초기에는 목이 상대적으로 짧고 뚜껑이 공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 가운데는 뚜껑이 공반된 사례가 있지만 전형적 뚜껑받이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목이 곡선적으로 외경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뚜껑받이턱이 형성되며 천마총 단계 이후에 구연이 반구형盤口形을 띤 이른바 부가구연장경호가 출현한다.

토기 표면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장식된다. 처음에는 배신과 뚜껑에 여러 가지 문양이 유행하다가 6세기에는 삼각형과 원문을 상하로 배치하는 단순한 모양으로 바뀐다. 때로 사람이나 동물모양을 작게 빚은 토우를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경주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신라토기는 초기에는 낙동강 동쪽의 영남지방에서만 출토되다가 점차 충주, 청주 등의 충청권,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강릉 이북에서도 확인된다. 각지의 고분에서는 신라식 장신구이자 복식품들이 같이 출토된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46 황남대총 남분 기대와 장경호

그림 47 창녕 교동고분군 출토 고배

신라의 영역 확장과 함께 이 지역에 진출한 신라인이 직접 토기를 가져갔거나 현지에서 신라토기를 받아들여 자체 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토기 양상은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창녕, 성주, 의성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신라양식에 속하지만 세부 모양에서는 차이가 있어 각 지역을 하나의 소지역양식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경산, 대구, 울산, 부산의 토기는 경주의 그것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 해당 지역이 경주지역과 여러모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무기와 마구

영남지방의 4~5세기는 격변의 시대였다. 진·변한 시기 소국들 사이의 통합 전쟁이 본격화하고 또 신라와 가야 및 백제, 고구려가 서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갑주 등 방어구의 제작도 활발했다. 그 무렵 각국의 명운은 전쟁수행 능력에 달려 있었다. 신라는 일찍부터 최고 수준의 무기와 마구를 개발하는 데 매진하였다.

무기에는 도검이나 창 등 공격용의 무기, 갑주류나 방패 등 방어용의 무구가 있다. 무기는 근접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원거리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 가운데 장식대도는 최고급 물품에 속한다. 이 장식대도는 황남대총 남분 주인공의 패용도에 주목해보면 무기로서의 기능보다는 의장도儀裝刀로서의 성격이 다분하다. 그래서 장식대도는 관, 허리띠 등과 더불어 복식을 구성하는 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장식대도로는 삼엽대도, 삼루대도, 용봉문대도 등이 있다.

철제 갑옷은 판갑板甲과 찰갑札甲으로 나뉜다. 전자는 크고 작은 철판 여러 매를 만든 다음, 못이나 가죽으로 연결하여 완성한 갑옷이다. 후자는 자그마한 철판[小札] 수백 개를 가죽으로 이어 붙여서 만든 갑옷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표현된 기마무사의 갑옷이 찰갑이다.

마구에는 말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재갈, 말을 탈 때 발을 딛고 말 위에

그림 48 삼루대도(①황남대총 남분, ②금관총, ③대구 달성군 문산리 M1호분)와 삼엽대도(④부산 복천동 10·11호분, ⑤황남대총 북분, ⑥의성 학미리 1호분)

그림 49 천마총 목심철판피윤등

그림 50 황남대총 남분 옥충장식 안교

그림 51 황남대총 남분 금동제보요부운주

그림 52 황남대총 남분 편원어미형행엽

그림 53 천마총 심엽형행엽

서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등자, 말 등에 얹어 걸터앉는 안장, 말 몸을 장식한 말방울·운주·행엽 등이 포함된다. 등자로는 발 딛는 부분[踏部]이 둥근 고리처럼 생긴 윤등輪鐙이 유행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 딛는 부분의 너비가 넓어지는 변화를 보이며, 처음에는 목심에 철판을 씌운 것이 쓰이다가 나중에는 철로만 만든 것이 쓰인다. 이처럼 목심 없이 철로만 제작하는 경우 답부가 두 가닥으로 갈라진 것도 등장한다. 마구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것은 말안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앞뒤 가리개[鞍輪]만이 출토된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안륜은 전면에 걸쳐 용무늬가 표현되었는데 투조판의 내측에 비단벌레[玉蟲]의 날개를 조밀하게 붙여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운주란 말 등 위에 얹은 연계 가죽 끈들의 교차 부위를 장식하는 마구이다. 초기의 운주는 끈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간략히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성장盛裝한 말의 등이 화려해 보이도록 금과 은 등 귀금속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고구려계인 보요부운주步搖附雲珠가 대표적 사례이다. 둥근 운주의 위쪽에 보요를 매달았다하여 그리 불린다. 행엽은 말 등에 얹힌 가죽 끈의 아래쪽에 매달아 늘어뜨린 장식품이다. 신라의 행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편원어미형扁圓魚尾形 행엽이 가장 특징적이다. 행엽의 윗부분이 횡타원형이고 아래쪽이 물고기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외에 하트 모양이라 해서 심엽형이라 부르는 행엽도 특징적이다.

한편, 천마총에서는 여러 점의 장니障泥가 출토되었다. 장니는 원래 말발굽에서 튀는 흙을 막는 기능을 하는 마구이다. 장니 가운데 2매가 1조를 이룬 백화수피제품이 주목된다. 표면에 천마天馬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이 그려진 자작나무 껍질은 여러 겹이며 여러 줄로 바느질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가죽으로 덧씌워져 있다. 천마 그림은 붉게 채색된 자작나무 껍질에 흰색으로 그려졌는데, 갈기와 꼬리털을 세워 매우 힘찬 모습이고, 입에서는 서기瑞氣을 내뿜고 있다. 가장자리에는 붉은색·검은색·흰색·녹색으로 채색된 인동문이 그려졌다. 근래에 천마총 출토유물을 새롭게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나무 바탕에 천마무늬가 투조된 금동판을 덧대어 장식한 장니가 또 한 점 확인되기도 했다.

그림 54 천마총 백화수피제장니의 천마도(좌 : 적외선사진)

그림 55 천마총 죽제천마문금동장식장니

금속용기

경주 소재 중대형 고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금속용기가 출토된다. 현재까지 출토된 금속용기는 100여점 정도이다.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들거나[鑄造], 망치로 두드려 만든[鍛造] 그릇이 대부분이다. 합盒, 완盌, 울두熨斗, 초두鐎斗, 정鼎, 호壺, 세洗, 반盤, 국자, 시루가 있다. 금속용기 가운데는 왕족이나 귀족의 생활용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종 의례에 쓰이던 예기禮器가 다수를 차지한다. 금과 은 등으로 전형적 신라 양식의 고배를 만든 경우가 있고 청동으로 장경호를 만든 예도 있지만, 대다수는 중국 중원 왕조 및 고구려의 예기와 유사한 기형을 갖추고 있다.

그림 56 황남대총 북분 금제고배

금속용기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은 합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지만, 크기가 작고 좀 더 장식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뚜껑꼭지의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초기에는 고구려적인 십자 모양이 많고 6세기에는 보주 모양 꼭지나 새 모양 꼭지가 유행한다. 금관총과 식리총이 축조되는 시점, 즉 5세기 후반이 되면 금속용기에 화려한 문양이 가미된다. 금관총 출토 초두는 제작기법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표면에 새겨진 각종 문양도 매우 뛰어나다. 둥근 몸체에 달려 있는 주구注口와 자루 양끝을 각각 양각한 용머리로 표현해 양감이 두드러진다. 식리총에서 출토된 국자는 그릇의 표면에 용, 새, 인동당초문을 조금彫金기법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바닥이 편평한 작은 은잔銀盞이 출토되었는데 표면 전체에 갖가지 모양의 문양이 타출打出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은잔의 문양은 식리총에서 출토되어 그 무덤의 이름을 낳은 금동 식리의 문양과 더불어 외래적 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57 금관총 동제초두

그림 58 황남대총 남분 은합

그림 59 황남대총 북분 은잔

농공구

삼국시대가 전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철기 사용의 본격화에 있었다. 철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의 제작에도 쓰였지만 다양한 농공구의 재료가 됨으로써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사회 분화와 국가 형성을 견인해내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신라의 제철기술은 사로국 단계부터 독보적이어서 그것을 토대로 각종 철제 농공구를 일찍부터 보급할 수 있었다. 마립간기에 이르면 기경구起耕具, 마전구摩田具, 제초구, 수확구 등 농경의 전 과정을 상정해볼 수 있는 다양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이로써 전근대 사회 농기구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4세기 이후 논의 물꼬를 트는 살포와 호미가 등장하고 6세기에는 쟁기날이 사용되면서 우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철제공구로는 각종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기 위한 단야구鍛冶具, 금은세공

그림 60 천마총 출토 각종 농공구(쇠스랑, 삽날, 단조철부)

그림 61　황남대총 남분 출토 주조철부

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섬세한 공구류가 대표적이다. 철겸鐵鎌이나 철도자鐵刀子 등의 농공구류는 규모가 작은 무덤에서도 출토된다. 그러나 쇠스랑, 보습, 쟁기날 등 주요 농기구와 단야 공구류는 경주의 경우 왕족, 고위 귀족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며 지방에서도 수장급 무덤에서만 출토된다. 그것은 당시 농공구류의 소유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계의 차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립간기 신라의 지배층은 그러한 차별을 통해 당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칠기와 직물

경주 시내의 왕릉급 무덤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여러 점의 칠기가 출토되었다. 금관총, 금령총, 천마총에서 출토된 칠기에는 적색, 청색, 황색의 안료로 시문한 서조瑞鳥, 연화문, 당초문, 삼각형 화염火焰 장식이 남아 있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칠기에는 '馬朗(마랑)'이란 글자가 주서朱書되어 있고 황남대총 북분 출토 칠기에는 봉황을 비롯한 여러 형상의 새와 소, 개 등의 동물문이 남아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신라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호우총 출토 화살통 부속구에서는 검은색 바탕칠이 사용되었고, 경주 방내리고분 출토 주칠함朱漆函에서는 바탕칠에 골분骨粉이 활용된 증거가 확인되었다. 이로 볼 때 이 시기의 칠공예는 이미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2　황남대총 남분 칠기 출토 모습

신라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배타적 지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장치가 바로 복식이었다. 한국 고대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강고한 신분질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라는 일찍부터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 따라 옷감의 종류와 복식의 색조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러한 모습의 한 단면은 『삼국사기』 직관지에 실려 있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신라의 의복이나 직물의 사례가 매우 적어 구체적 실상을 알기가 어렵다. 천마총 출토 마구에는 여러 색깔을 띤 색사色絲로 문양을

표현한 비단[錦]을 사용하였다. 또 경산 임당고분군 출토 수착직물 가운데서는 마직물로 S꼬임의 실을 사용해 짠 삼베와 모시가 있었으며, 견직물은 꼬임이 없는 실로 만들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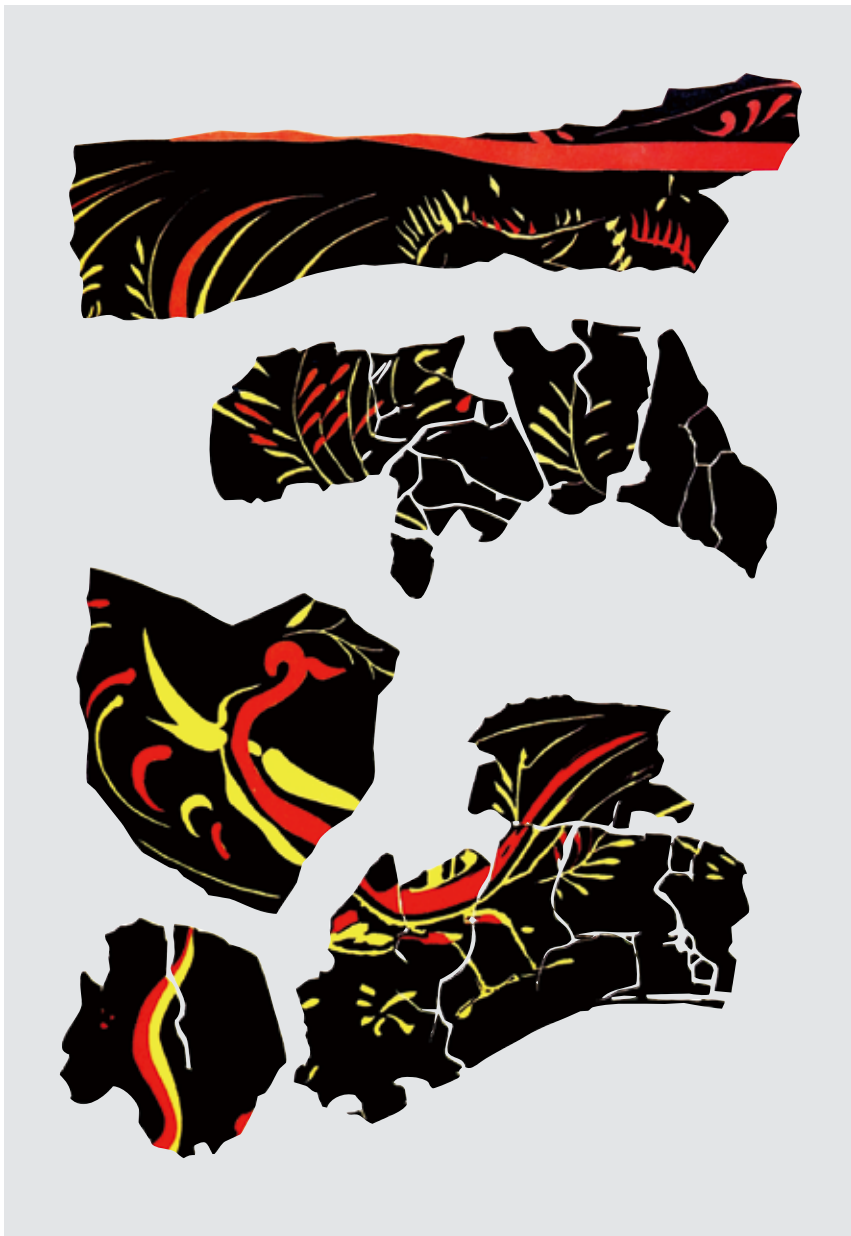
그림 63 식리총 출토 칠기 채색 실측도

5 유물로 본 대외교류

중국 여러 왕조와의 교류

적석목곽묘 축조기 초반에는 신라의 대외관계가 고구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중반 이후로는 백제, 가야와의 관계가 긴밀해진다. 문헌기록에 보이는 이와 같은 외교관계는 고고 자료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다만, 고구려를 매개로 한 북조와의 교류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마립간기 동안에 신라와 남조 간에는 직접적 외교관계가 없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는 남조 동진東晋~유송劉宋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경, 청동다리미, 흑갈유반구병黑褐釉盤口瓶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같은 시기의 백제유적에서 위진남북조시대 중국 물품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점과 433년 이후 신라와 백제가 소위 '나제동맹'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백제를 경유해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64 황남대총 북분 흑갈유반구병

고구려, 백제, 가야와의 교류

신라는 4세기 중·후반부터 주변의 여러 나라 가운데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한 외교관계를 반영하듯 신라고분에서는 고구려산 혹은 고구려계 유물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호우총 청동합, 서봉총 은합, 금관총 동제사이호銅製四耳壺를 들 수 있다. 이 세 점의 금속용기는 고구려산 완제품이다. 그에 비해 대형 고분에서 자주 출토되는 정, 반, 초두, 울두, 합, 완 등의 금속용기 조합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제기로 추정할 수 있다.

호우총 청동합은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된다. 이 합의 굽 형태 저부 표면에는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고 하는 16자의 주출된 명문이 있다. '을묘년인 415년,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을 기념해 만든) 열 번째 그릇'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이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시호이다. 글자체 역시 광개토대왕비와 같다.

서봉총 출토 은합에는 뚜껑 내면에 '연수원년 태왕치세 묘 삼월 중에 태왕께서 교시해 합우를 만들었는데 은 3근 6량을 썼다(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太王敎造合杅用三斤六兩)'라는 의미의 22자가 침각針刻으로 새겨져 있다. 바닥의 표면에도 '연수원년 태왕치세 신유 삼월 중에 태왕께서 교시해 합우를 만들면서 은 3근을 썼다(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太王敎造合杅三斤(□ : 글자 불명))' 라는 의미의 20자가 새겨져 있다. 뚜껑의 꼭지가 십자형인 점, 연수라는 연호가 신라에 존재하지 않는 점, 태왕이라는 호칭이 쓰인 점 등을 고려해 고구려산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신'자와 '묘'자로 각각 새겨진 신묘년은 아마도 451년일텐데 은합의 제작시기로 추정된다.

장신구 가운데도 고구려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남대총 북분 출토 태환이식은 굵은 고리 아래에 조롱박 모양으로 생긴 수하식을 매달았다. 이는 신라의 여타 이식과는 형태 차이가 현저한 반면 집안 마선구麻線溝 1호분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고구려산 완제품이 전해진 사례이다. 북분 출토 Y자 모양 발식髮飾 또한 마선구 1호분 출토품과 거의 같은 모양이다. 그밖에 신라고분 속에서는 고구려적 요소를 갖춘 유물이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월성로 가-5호묘에서 출토된 연유호鉛釉壺는 고구려산 완제품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고구려 유적에서 같은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외에 고분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무기, 마구에서도 고구려적 색채를 쉽게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 축조기의 신라문화 속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상당수 확인되는

그림 65 호우총 청동합

그림 66 서봉총 은합

그림 67 서봉총 은합 명문

그림 68 황남대총 북분 금제이식

그림 69 월성로 가-5호묘 연유호

이유는 4세기 후반 이후 신라가 고구려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南征을 거치면서 더욱 긴밀해진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5세기 중엽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고구려의 공예품이 경주로 다수 유입되었을 것이며 또 그것을 신라화한 물품의 제작도 활발했던 것 같다.

이처럼 신라는 고구려와 활발히 교섭과 교류를 하였지만 고구려유적에서 적석목곽묘 축조기의 신라 물품이 출토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는 중국 남북조시대 유적에서 백제와 신라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와 백제는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지만 고구려의 남진에는 공동보조를 취하며 대처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상대국에 기술자를 파견하기도 했고 국가적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 과정에는 당연히 문물교류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신라유적에서 백제산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고 거꾸로 백제유적에서 신라산 유물이 발굴되기도 한다.

식리총 금동식리는 두껍게 도금된 얇은 동판 3매를 결합해 만든 것인데, 좌우 대칭으로 금동판 1장씩을 덧대어 측판을 이루었고 바닥에는 1매의 금동판을 댔다. 이 바닥에는 귀갑문과 함께 모두 11개의 8엽 연화문이 표현되었다. 귀갑문 속에는 귀면과 쌍조문雙鳥紋이 번갈아 배치되고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새인 인면조신人面鳥身, 새, 기린, 날개 달린 물고기가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식리는 문양으로 보면 백제 한성기 후반의 자료인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식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측판이 신발의 전후에서 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바닥에 금속 못이 스파이크처럼 돌출되어 있는 점도 기본적으로 백제 금동식리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공주 송산리 구舊 1호분에서 출토된 2점의 과판은 전형적 신라 대장식구의 구성품이다. 네모난 은판에 간략화된 인동초를 투조透彫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금관총 출토 대장식구와 특히 유사하다. 금관총에서는 이와 동일한 도안을 갖춘 금제품과 은제품이 1벌씩 출토되었다. 그래서 송산리 구 1호분 출토품은 신라에서 백제로 전해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 대장식구가 백제로 전해진 계기는 430년대부터 553년까지 유지된 나제동맹에서 찾을 수 있겠다.

신라와 가야는 낙동강을 경계로 접한 까닭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가야는 신라와 달리 여러 소국이 분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가야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신라와 가야는 그 전신인 진한과 변한 시절부터 유사한 문화를 공유했으므로 오랫동안 문화적 동질성을 지녔다. 4세기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가야는 백제-왜와

그림 70 경주 식리총 금동식리(바닥판)

동맹관계를 유지했고 신라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통해 그에 대응했다. 그 절정은 400년에 벌어진 국제전이었다. 그 전쟁에서 신라를 공격했던 가야, 백제, 왜의 연합군은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해 줌으로써 대패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430년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던 신라가 백제와 화친정책을 펴면서 신라와 가야의 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평화기로 접어든다. 상대국에서 제작된 완제품이 지배층 무덤에서 출토되곤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외교관계를 보여준다.

식리총과 호우총에서는 대가야의 용봉문대도와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대도가 출토되었다. 특히 식리총 대도는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용봉문대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식리총 및 호우총 대도는 대가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리총은 금령총과 더불어 봉황대고분의 배총陪塚이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은 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중국 남조 혹은 백제와 연결지울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를 고려하면 무덤의 주인공은 왕족으로 생전에 대가야-백제-남조 사이의 교류에 관여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대가야와 신라의 국세國勢로 본다면 이 대도를 대가야가 사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혜증惠贈한 것이거나 무덤 주인공이 개인적으로 입수한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고분에서도 신라산 물품이 출토된다. 신라로부터 완제품이 수입된 사례로 지산동 45호분 삼엽대도三葉大刀를 들 수 있다. 삼엽은 삼국시대 각국 대도에 표현되는 공통 도안이다. 그러면서도 신라에서 제작된 대도의 경우 환두의 형태가 이른바 상원하방형上圓下方形이고 그 속에 삼엽문을 장식한 것이 많다. 지산동 45호분 대도는 외형 및 제작기법으로 보아 경주에서 제작한 물품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 그밖에 합천 옥전고분군 출토 이식 가운데 신라식의 특징을 갖춘 것이 있다. 다만, 경주 출토품과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신라의 영향을 받아 대가야권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기타 지산동고분군이나 옥전고분군 출토 토기 가운데 보이는 신라양식 토기는 경주에서 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낙동강 동안의 현풍이나 창녕지역 토기로 볼 수 있다.

신라와 왜의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그림 71 공주 송산리 구1호분 은제과판(신라산)

그림 72 고령 지산동 45호분 삼엽대도 (신라산)

400년의 국제전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보다는 갈등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4세기를 전후한 경주 월성로 가-29호묘에서 왜산 돌팔찌[石釧]가, 가-31호묘에서 하지키계[土師器系]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 금령총에서 출토된 동경은 소위 '백유경百乳鏡'으로 왜에서 유행한 거울이므로 왜에서 들여온 물품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5세기 전반 이후 각지에서 신라유물이 산발적으로 출토된다.

신라와 왜의 교류는 특히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왜와의 화친정책을 펼친 43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일본열도의 5세기 중엽 고분에서 출토되는 삼연三燕 혹은 신라계 마구류, 그리고 장신구류는 이 시기 양국 간의 교류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라 고분에서는 '황금의 나라 신라'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수많은 황금장식품이 출토된다. 그 가운데 디자인과 제작기법이 특이한 유물이 몇 점 있다. 황남대총 북분 감옥嵌玉팔찌와 계림로 14호분 장식보검裝飾寶劍이 대표적 사례이다.

감옥팔찌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여러 점의 팔찌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으로 주인공의 왼팔 부위에서 출토되었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시대

그림 73 경주 월성로 가-29호묘 돌팔찌

그림 74 월성로 가-31호묘 하지키계 토기

그림 75 황남대총 북분 감옥팔찌

의 팔찌는 고리가 가늘고 단면이 둥글거나 네모난 것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 팔찌는 금판이 넓고 길쭉하며 세선細線과 세립세공細粒細工이 베풀어져 있고 터키석 등 보석이 끼워져 있다. 팔찌의 몸체도 금구슬과 보석이 끼워진 판의 뒤쪽에 금판 1매를 덧대고 위와 아래로 둥글게 감아 씌웠다.

이런 기법은 동아시아 팔찌에서는 유례가 없고, 페르시아 팔찌에서 단면의 형태는 다르지만 외형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 팔찌의 제작지를 동로마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서역 공예품 중에서 동일한 제작기법으로 만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북위北魏의 공예품인 내몽고 서하자향西河子鄕 출토 보요관步搖冠은 감옥에 사용된 부품, 감옥기법, 중공中空의 권사捲絲가 사용된 점 등에서 북분 출토 감옥팔찌와 공통점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위에 거주하던 서역계 장인이 이 팔찌의 제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식보검은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출토된 특이한 보검이다. 철검의 칼집과 손잡이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칼집의 표면에 윤곽을 만들고 그 속에 맑고 검붉은 석류석을 끼워 넣어 장식하였다. 장식의 중간과 외곽에 금 알갱이를 붙여 넣어 화려함을 더하였다. 손잡이 끝은 반원형이고 손잡이장식은 세로로 가

그림 76 계림로14호묘 장식보검

늘면서 길쭉하다. 칼집 입구의 장식은 옆으로 길쭉한 장방형 장식과 그 아래쪽에 받침모양의 장식이 부가되어 있고 칼집 끝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측면에는 벨트에 걸 수 있도록 2개의 돌출부를 만들었는데, 위쪽의 장식은 P자 모양이고 아래쪽의 장식은 반원모양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의장을 지닌 칼의 실물 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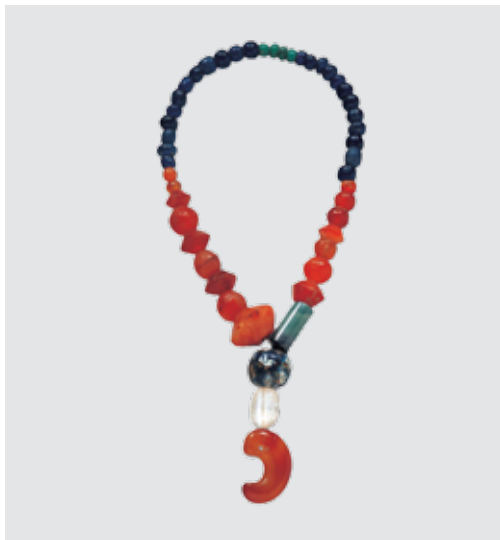
그림 77　미추왕릉지구 경식(상감유리옥 포함)(우 : 상감유리옥 세부)

그림 78　천마총 유리배

그림 79　황남대총 남분 봉수형유리병

에 소장중인 카자흐스탄 보로보에 출토품이 있는데 5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 계림로 보검의 제작지는 이란 혹은 중앙아시아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리제품 가운데 유리용기와 상감유리옥은 모두 외래물품이다. 상감유리옥은 미추왕릉지구의 C지구 4호묘에서 출토되었다. 파란 바탕에 하얀 얼굴, 그리고 빨간 입술을 가진 4명의 사람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정교하게 표현된 사람들 사이에 새와 구름도 배치하였다. 자그마한 유리구슬에 작고 정교한 도안을 여럿 상감함으로써 유리공예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유리옥 역시 서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지는 인도네시아 자바(Java)섬으로 보기도 한다.

경주의 무덤에서는 모두 24점 이상의 유리용기가 출토되었다. 경주 외곽의 안계리 4호분 출토품을 제외하면 전부 금관을 비롯한 황금유물과 함께 왕족의 묘에서만 나왔다. 즉 유리용기는 왕과 그 일족의 무덤에 한정되어 부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점은 당시 신라사회에서 유리용기가 최상의 물품으로 대접받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유리용기는 소다유리 계통이며 대롱불기 기법으로 성형되었다. 대부분 로만글라스의 제작 중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시리아-팔레스티나 지역의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 한다. 유사한 용기류의 분포로 본다면 실크로드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스텝지대를 지나는 이른바 '초원의 길'을 거쳐 신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마립간기까지의 신라 유적에서는 서역, 중국 남조, 고구려, 백제, 가야, 왜에서 제작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서역이나 남조에서 만들어진 물품은 고구려 혹은 백제를 경유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백제, 가야, 왜의 유적에서는 신라산 물품이 출토되었지만 고구려와 남조에는 신라산 물품이 보이지 않는다. 신라는 외교관계에 수반해 수입한 외래품을 왕실이 독점하면서 왕족, 고위귀족들에게까지는 사여한 것 같으나 지방 수장들에게 사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창녕처럼 신라의 변경지역에는 인접한 대가야산 물품이 전해지기도 했다.

제 3 장

외래 문물의 수용과 발전

중고기

금석문
무덤과 장송의례
불교미술
복식
농경과 물품 생산
유물로 본 대외교류

중고기는 23대 법흥왕法興王이 즉위한 514년부터 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이 사망하고 무열왕武烈王이 즉위한 654년까지를 말한다. 꼭 140년간에 달하는 이 기간은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비약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시기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기존의 공동체적 성격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라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고기는 삼국 가운데 고대국가로서의 출발이 가장 뒤늦은 신라가 정치사회적 후진성을 극복하면서 선진의 두 나라를 따라잡아 나가 마침내는 통합까지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이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크게 성숙한 기간이었음을 뜻한다. 이런 모습은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새로 출현한 6세기의 몇몇 금석문 자료들 및 유적과 유물 등 여러 고고 자료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6세기 초 왕위에 오른 지증왕智證王(500-514)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주목할 만한 개혁적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직전까지의 이른바 6부部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질서를 국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예비적 조치였다.

지증왕을 이은 법흥왕(514-540)은 아버지가 실시한 여러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517년에는 신라 최초의 관부로서 병부兵部를 설치하였다. 군사력의 강화가 크게 요청되던 시기에 부응한 조치였다. 520년에는 율령을 반포해 새로이 정비된 신라 국가의 운영 방향을 담았다. 이에는 17등으로 최종 정리된 관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국가 관련 기본 사항이 편목으로 설정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근자에 발견된 여러 금석문에 보이는 전사법佃舍法이나 노인법奴人法 등은 그런 사정을 증명해 준다. 528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공인하였다. 불교는 이미 5세기 전반 눌지왕대 무렵에 전래되었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마찰을 겪었다. 법흥왕대에도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興輪寺 창건을 놓고서 이를 추진한 귀족과 반대한 쪽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크게 빚어졌다. 법흥왕 중심의 추진세력이 이김으로써 마침내 불교는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되었다.

불교 공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라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제도 정비로 정립되어 가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이념적으로 지원하는 이데올로기

로 기능한 점, 사후세계에 대한 이념적 변화를 가져와 경주 분지의 경우 무덤의 구조(횡혈식석실) 및 무덤군의 위치(주변 산지) 변화까지 낳은 점, 문자사용 수준을 급속하게 향상시킨 점, 기타 불교와 연계된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신라문화 전반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536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고, 왕호를 기존의 매금왕寐錦王 대신 대왕이라 부르는 등으로 신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런 정비된 지배체제를 발판으로 이후 대외적 영역 확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진흥왕眞興王(540-576)은 551년 성년이 되어 친정親政을 하면서 개국開國이란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였다. 바로 그해에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 진출에 성공하고 나아가 553년에는 그 일대를 독차지하였다. 554년 백제의 성왕이 보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전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신라는 그 여세를 몰아 562년에는 드디어 가야 세력 전체를 복속시키는 오랜 숙원을 푸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인적, 물적 토대를 크게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직접 독자적으로 통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영역 확장으로 인구와 토지가 늘어나면서 지방지배를 새롭게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진흥왕은 이 복속민들을 신라의 주민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영토는 왕토王土이며 그 주민은 모두 왕민王民이란 이념을 지닌 왕도정치의 실현을 표방하였다.

짧게 재위한 진지왕眞智王(576-579)의 뒤를 이은 진평왕眞平王(579-632)은 법흥왕과 진흥왕을 거치면서 성립된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신라는 그동안 뿌리내린 고유한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의 남북 양조와 직접 통교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체제를 보완 정비해 이른바 율령에 기반을 둔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신라사회는 통일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다져 나갔다. 중고기의 마지막 시기는 전대미문의 여왕 통치기로서 중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1 금석문

비문의 세기

6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를 정비해 나간 모습의 대강은 문헌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세부 사항까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면서 실상을 생생하게 재구성해 낼 수 있는 실마리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세워진 여러 석비의 명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의 영역 안에서는 6세기의 석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6세기는 비문의 세기라고 일컬을 만하다. 물론 이 시기에는 목간들도 점차 많이 출토되고는 있다. 하지만 목간은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석비는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자료이다. 6세기 초반의 금석문으로는 포항중성리신라비(501), 영일냉수리신라비(503), 울진봉평리신라비(524)가 있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비인 중성리비는 높이가 105.6cm인데 비문이 전체 12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행 첫머리의 신사辛巳를 근거로 50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본다. 전체 글자 수는 대충 203자 내외로 추정된다. 글자의 크기는 일정하

그림 1 포항중성리신라비

그림 2 포항냉수리신라비

지가 않아 작은 것은 2cm, 큰 것은 5cm로서 차이가 난다. 글씨는 해서체이지만 예서의 흔적이 많아 남아 있다. 비문의 내용은 중앙의 6부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지방 유력자까지 연루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까닭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그것을 평결하고 집행한 것이다. 말미에 결정 사항을 어기면 중죄重罪를 준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성문법으로서의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에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던 모습을 보인다.

냉수리비는 폭이 70cm인데 비문이 앞면, 뒷면, 윗면에 새겨진 특이한 형태의 3면비이다. 비문은 앞면 12행 125자 등 전체 231자이다. 대개 3행 첫머리의 계미癸未를 근거로 503년 세워진 것으로 본다. 비가 발견된 일대로 여겨지는 진이마촌의 유력자 절거리節居利란 사람이 보유한 재산을 두고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재산 분쟁을 중앙에서 해결한 뒤 집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일종의 판결문이다. 지증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갈문왕을 역임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었고 그밖에 당시 정치사회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몇몇 단서가 나온다.

봉평비는 높이 204cm이고 너비는 비문이 새겨진 부분은 32~36cm이나 하단부는 54.5cm로서 부정형이다. 서체는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서체이다. 비문은 전체 10행이며 글자 수는 398자(혹은 399자)로 추정된다. 524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에는 직전 해에 중앙에서 대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사태가 이 지역에서 발발하자, 중앙정부가 그 사태를 해결한 뒤 국왕을 비롯한 14인의 중앙 귀족이 모여 회의를 열고 처리 결과를 포고하고 집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비에서는 율령으로 추정되는 법의 명칭들이 보이는 점 등 기왕에 알지 못하던 내용이 많이 보여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상의 비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동해안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오래도록 북쪽의 주민과 문화가 남하해 온 중요 통로여서 신라가 이른 시기부터 매우 중시하였다. 또 5세기 중반 이래로 고구려가 이 통로로 세력을 확장해오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신라가 점차 북진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와 영역 경계를 접속하게 되자 충돌이 시작되었다. 524년에 세워진 울진봉평신라비는 그런 측면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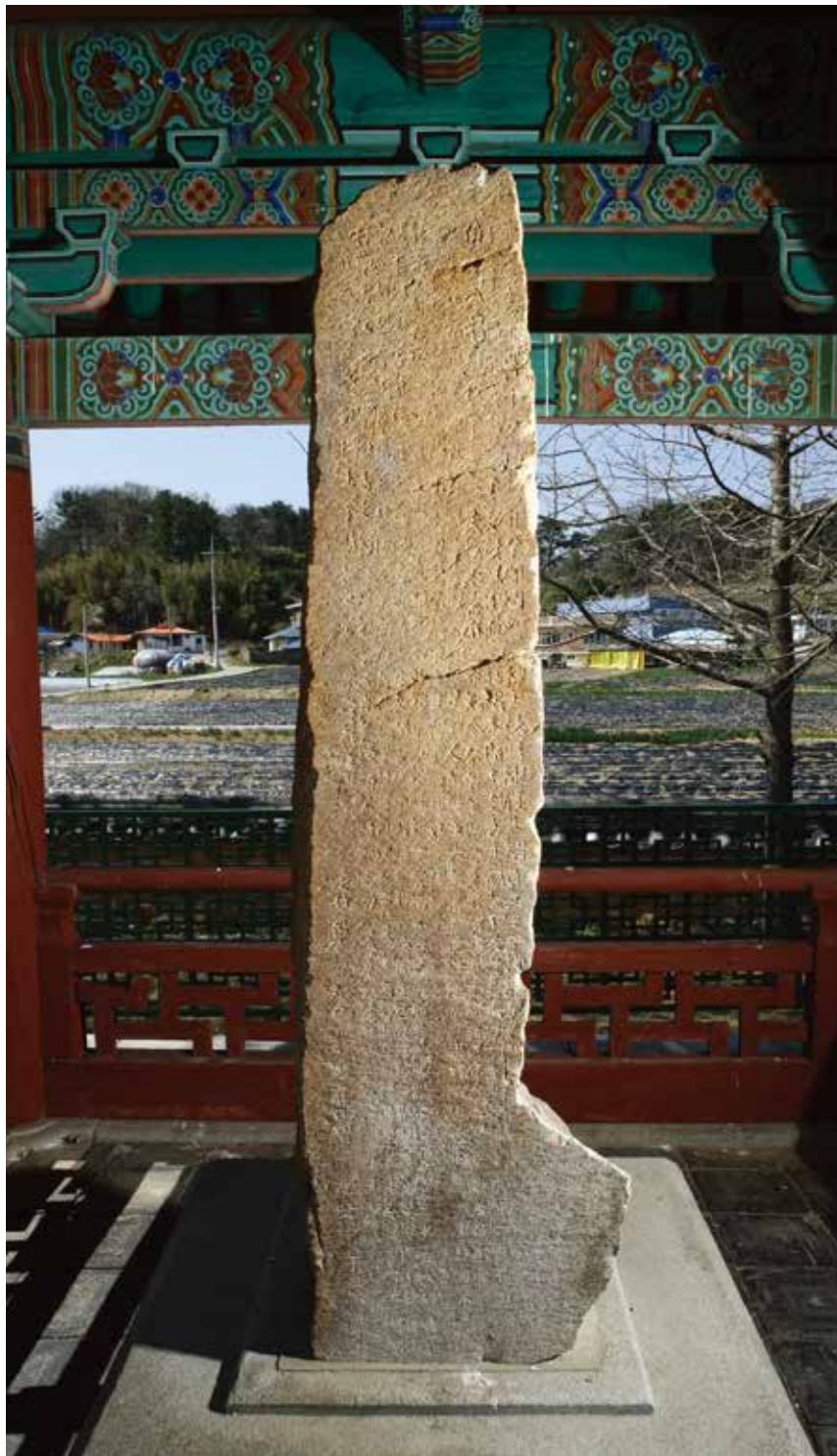
그림 3 울진봉평리신라비

6세기 중반 신라의 영역 확대와 관련된 아래 비들은 때로는 포고문이나 일종의 기념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단양신라적성비는 남한강 상류역에 위치한다. 높이는 93cm인데 위 끝부분이 일부 파손되었다. 한 면만을 갈아서 글자를 새긴 1면비이며 글씨는 해서체이고 각 글자는 2cm 남짓이다. 비문은 22행이며 전체는 430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 있는 글자는 288자이다. 제1행의 첫머리가 파손되어 분명하지 않지만 건비의 연대는 545년~551년경으로 본다.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신라의 한강 하류역 진출에 앞서 진흥왕의 명을 받은 명장 이사부異斯夫가 군사 작전을 주도해 이곳 고구려의 적성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새로운 사실을 적고 있다. 이 비에는 관등제와 율령제가 도달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4 단양신라적성비

창녕 진흥왕비는 561년 건립되었다. 높이는 대략 176cm, 너비는 175cm이며, 커다란 자연석 한쪽 면만을 갈고 가장자리에 직선 테두리를 둘러쳐 그 안에 글을 새긴 1면비이다. 예서가 남은 해서로 쓰였으며 전체 27행이고 1행 당 26자를 기본으로 삼았다. 비문의 앞부분에는 진흥왕이 어려서 즉위한 뒤에 행한 정치의 기본 방향과 함께 사방으로의 영역 확장과 주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뒷부분은 진흥왕을 따라 왕경에서 내려온 중앙의 고위귀족 및 다른 지방의 근무지로부터 참여한 지방관 및 군관, 그리고 지방 유력자 촌주 등의 인명이 열거되어 있다. 이 비는 바로 다음해에 대가야를 비롯한 여타 가야 세력이 신라에 병합된 사실을 고려하면 신라의 낙동강 이서지역 진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창녕 진흥왕비

한강 하류역으로의 진출을 보여주는 비로는 북한산 진흥왕순수비가 있다. 이 비는 원래 북한산의 비봉碑峰에 서 있었으나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다. 이 비는 일찍이 1816년에 추사 김정희가 비봉에 올라 진흥왕순수비임을 알아내었으며, 그가 이후에도 다시 비를 찾아 조사를 한 사실을 옆면에 자신의 필치로 새겨 놓았다〈그림 7〉.

비의 재질은 단단한 화강암이며 최근 석질을 조사해 경주에서 가져간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도 제기되었다. 비봉 꼭대기의 바위에 비좌를 만든 후 거기에 꽂았는데, 원래 비신 위에 개석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비신은 높이 155cm인데, 4면을 잘 다듬었으나 한 면에만 글씨를 새긴 1면비이다. 글씨는 해서체이며, 12행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라서 전체 글자 수는 잘 알 수가 없

그림 6 북한산 진흥왕순수비(복원비 전경)

그림 7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와 김정희 글 부분 탁본

다. 건비 시점은 555년 무렵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568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비는 신라가 한강을 건너 북상하였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물증이다. 또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까다로운 비봉의 꼭대기에다 세운 이유는 거기까지가 국경으로서 진흥왕 자신의 영토임을 하늘에 알리고 선언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신라가 동해안으로도 북진하였음을 일러주는 비가 황초령 및 마운령 진흥왕순수비이다. 황초령비는 원래 함경남도 장진군의 황초령에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함흥시 사포구의 함흥본궁으로 옮겨 관리하고 있다. 1행의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렸으나 원래 높이는 151cm로 추정되며 전체 12행이고 매 행의 글자수는 35자로 추정된다.

그림 8 이원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그림 9 경주 남산신성비

마운령비는 원래 함경남도 이원군의 운시산 마운령에 있던 것을 함흥시의 함흥본궁에 옮겨 황초령비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비의 재질은 황초령비와 같이 화강암이다. 높이는 136cm, 너비 45cm, 두께 30cm이며, 비부와 비개까지 완벽하게 갖춘 정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황초령비와는 달리 앞면과 뒷면에 글씨를 새긴 2면비이다. 앞면은 10행에 각 행 26자, 뒷면은 8행에 각 행 25자로 맞추었다. 비문은 진흥왕이 순수하게 된 사실, 목적, 그리고 따라간 승려 2인과 신하들의 이름을 열거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비는 진흥왕이 568년 8월 신료들을 거느리고 북쪽의 국경지대를 순행하면서 경계를 확인하고 민심을 살펴 위무함으로써 신라의 주민으로 적극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중고기 동안에는 이러한 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격의 명문을 담은 비와 각석들이 작성되었다. 먼저 수도의 방어를 위한 성들을 지으면서 세운 명활산성 작성비(551)와 남산신성비(591)를 들 수 있다. 남산신성비는 1934년 이래로 2000년까지 10기가 발견되었다. 비문은 남산성 축성에 관련된 사실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비문들은 대개 "신해년에 남산신성을 법에 따라 쌓되 3년 이내에 허물어지면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록한 다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출신지·관등·성명 등을 기록하였다. 모든 비문의 첫 부분은 같으나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다른 점으로 보아 축성할 때에 각기 맡은 구간별로 새겨 세웠던 것 같다.

다음으로, 불교 관련 기록이 있는 대표적 비로 대구무술명오작비(578)가 있다. 무동리촌另冬里村에 오塢, 곧 저수지를 축조하고 이에 관여한 책임자의 직책과 이름, 저수지의 규모, 동원된 인원수, 작업 기간 등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들을 적었다. 공사 책임자가 지방관이 아닌 승려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저수지가 사찰과 관련될 뿐 아니라 승려들이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불교의 공인과 더불어 승려들이 선진적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층으로 국가 통치의 여러 부문에서 역할을 하였음을 일러준다. 승려의 이름은 울산 천전리각석(535년)과 황초령비 및 마운령비에도 나온다. 마운령비에서는 두 승려가 왕을 수행한 신하들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되었다. 이외에 못을 만들고 세운 비

로는 영천 청제비(병진명 536)가 있다.

한편 유학 관련 기록이 나타나는 대표적 예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 있다. 이 비의 이름은 첫머리에 '임신'이라는 간지가 새겨져 있고 내용 중에 충성을 서약하는 글귀가 자주 등장해 붙여졌다. 그 해는 확실치 않지만 대개 612년경으로 추정한다. 특히 그 앞 해 7월 22일에 『시경詩經』·『상서尙書』·『예기禮記』·『춘추좌전春秋左傳』 등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으로 한다고 한 것은 신라 중고기 청소년들이 열렬하게 유교 도덕을 실천한 사실을 보여준다.

유교 관련 기록은 앞선 시기의 봉평비와 황초령비 및 마운령비에서도 이미 보인다. 봉평리비에서는 '획죄어천獲罪於天'이라는 구절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늘에 대해 죄를 짓는다는 뜻으로 『논어』 팔일편八佾篇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므로 당시 사회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 쓰인 순수巡狩, 짐朕 등의 표현과 『논어』 헌문편憲問

그림 10 대구 무술명오작비

그림 11 임신서기석

篇에서 인용한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이란 구절은 진흥왕대의 유교적 통치이념과 그 수준을 말해 준다.

울주 천전리각석은 높이 약 2.7m, 폭 9.5m의 큰 암면에 기하문, 동식물문, 인물문, 행렬도 등 다양한 문양의 조각과 여러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의 각석 시기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말까지 매우 다양하다. 승려의 이름은 535년으로 추정하는 을묘명乙卯銘에 등장한다. 이 각석에는 화랑들의 이름도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천 점말동굴 각석에서도 화랑과 낭도 관련 글자가 확인된다.

그림 12 울주 천전리각석

통일신라의 금석문

삼국통일과 더불어 한문 사용의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불교나 유학의 경전이 널리 보급되고 한문자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장을 짓는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도 교육을 통해 조직적으로 한문자 능력을 함양시킨 결과 7세기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배경 아래에 원효元曉나 강수强首와 같은 뛰어난 문장가들이 출현함으로써 그 수준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8세기에 이르러 당나라에서 신라의 문자 수준이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군자국君子國이라 불렀다는 사실은 그런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 13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함 명문

그림 14　무진사종 탁본

처음에 한문자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재료는 돌이나 나무 등에 국한되었다. 즉 비문이나 각석刻石 아니면 목간이나 죽간이었다. 그러다가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그 수준이 향상되면서 행정문서나 서적은 종이로 차츰 대체되어 나갔다. 그 밖의 목적에는 각종 형태의 재료가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토기에 글자를 새기거나 묵서한 것, 기와에다 도장 형태로 찍은 것, 다양한 종류의 인장과 금속그릇 등에다 글을 새긴 것, 사리기와 탑지 등에 명문을 새긴 것, 불상과 동종에다 주물로 표기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금석문은 통일기에도 여전히 널리 쓰였다. 특히 중고기에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그림 15　철원 도피안사철불 등의 명문

그림 16 무열왕릉비 이수의 제액

그림 17 무열왕릉비 이수의 제액 탁본

현상은 '금문'의 성행이다. 금동판에 글씨를 새겨 사리기 안에 봉안한 예들과 동종銅鐘의 명문들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706)과 탑을 세운 내력을 적은 창림사지 탑지(855), 그리고 '함통육년'명 금고金鼓 등이 있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성덕대왕신종(771)이 있다. 상원사종도 마찬가지인데 725년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이다. 일본에 옮겨가 파괴되거나 남아 있는 명문 주출鑄出 신라 종으로는 무진사종(745), 연지사종(833) 등이 있다. 명문이 주조된 철불도 있다. 불신 왼팔 뒷면에 명문이 주출된 전남 장흥군 보림사철불은 명문의 첫 머리에 불상 조성 시점을 석가여래 입멸 후 1808년이며 당시 국왕(헌안왕) 재위 3년(858)임을 명기하였다. 한편 높이 91cm인 불상의 등에 해서체 명문이 주출된 강원 철원 도피안사철불(865)도 있다. 그 외에 월지(안압지)에서 '동궁아일東宮衙鎰' 이라 새겨진 자물쇠가 출토되었으며, 국립경주박물관 남쪽 확장부지에서는 '신심동궁세택辛審東宮洗宅'이라 새긴 청동접시 1점이 발굴되었다.

그림 19 경주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그림 18 연기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그림 20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비

그림 21 합천 해인사묘길상탑기

그림 22 대구 동화사 민애대왕석탑 사리호

석문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비명으로는 새로이 능비들이 등장한다. 무열왕릉비 자체는 없어졌으나 그 이수螭首의 가운데 부분에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는 제액이 있다. 또 문무왕릉비와 김인문비가 있으며 이외에는 거의 잔편뿐인데 성덕왕릉비편, 흥덕왕릉비편 등이 있다. 그 밖의 석

그림 23 서울 사당동 출토 기촌명토기편

문은 불교와 관련된 기물에 새겨진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9세기 것이 많아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룬다. 사실 능비 명문 이외의 석문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우선 특이한 사례로서 돌을 비석 형태로 다듬어 앞면이나 4면에 걸쳐 불상을 조각하고 명문을 새겨 넣은 불비상이 있으니 석비 형태와 광배 형태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로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673), 후자로는 기축명아미타불비상(689)이 있다. 이 불비상들은 제작 당시에 아미타 정토 신앙이 유행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720)과 미륵보살상의 뒷면에 각각 조상기가 새겨져 있어서 나중의 한문학 항에서 언급하듯이 당시 도달했던 높은 수준의 한문 구사 능력을 웅변한다.

화상비는 뚜렷한 하나의 전통으로서 신라 말 고려 초까지 이어진다. 그 가운데 애장왕대(800~808)에 세워져 원효가 686년 3월 30일 7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인 고선사 서당화상비는 신라 지방군인 10정停 가운데 하나인 음리화音里火정의 존재를 보여주어서 사료 가치가 대단히 높다. 그 밖의 화상비는 선종과 관련이 있는 9세기 것들로 충남 보령 성주사聖住寺 터에 남아 있는 낭혜화상비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그 비문은 최치원이 작성한 4산비명 가운데 하나이다. 낭혜화상은 무열왕의 8대손으로 애장왕 원년(800)에 태어나 진성왕 2년(888) 89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불교 공부 과정과 국왕에 대한 자문 내용, 골품제 등 신라사 연구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들어 있다. 비문은 890년 무렵 지어졌으며, 비의 건립 연대는 그 얼마 뒤로 추정된다. 유사한 성격의 비로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탑비,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등이 있다. 이 비들은 하대에 선종이 흥성했음을 일러주는 물증들이다.

탑지들 가운데는 명문을 벽돌[塼]에다 새긴 해인사묘길상탑기海印寺妙吉祥塔記가 두드러진다. 이는 최치원이 895년 글을 지은 것인데 당시 극심했던 전란 때문에 사망한 많은 승려의 넋을 위로하려는 뜻에서 탑을 세운 일의 시말을 적었다. 이 외에 법광사탑지(846), 보림사탑지(869 등)가 있다.

납석제 사리호에 새긴 명문들도 적지 않다. 8세기 것도 있으나 대개 9세기 것이다. 이를테면 대구 동화사의 비로암 삼층석탑 내부에 봉안되었던 민애대왕敏哀大王 사리호는 흑칠을 한 납석제(높이 8.3cm)로서 비명에 간 민애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863년에 석탑을 조성하고 거기에 안치하였다. 명문에는 탑을 세우는 일의 공덕과 민애대왕의 생애 및 석탑 건립의 경위, 발원문과 관계된 사람들의 직함과 인명이 새겨져 있다. 동화사가 신라 왕실의 원당 기능을 하였음을 실증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 '영태이년(766)'명 사리호, '함통육년(865)'명 사리호 등이 있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827)와 담양 개선사 석등(868)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함안 군북면 방어산 마애불의 아래에도 명문(801)이 새겨져 있다. 8세기 초에 수도를 일본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쌓은 신대리성의 성석에는 일정한 축성 거리마다 역역을 동원한 지역과 거리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金京'이 주목된다. 이 금경은 경주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한편 토기 명문의 대표격으로는 서울 사당동 가마터 출토된 '△縣器村何支爲(△현기촌하지위)'라는 명문이 새겨진 토기 조각이 있다. 기촌은 앞의 △현에 소속한 촌명으로서 가마터가 소재한 바로 그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세기에 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촌락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희귀한 자료이다.

2

무덤과 장송의례

6세기 중엽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묘제

6세기 중엽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묘제는 횡혈식석실분과 화장묘가 주를 이루며 그밖에 소형 석곽묘 등도 있다. 횡혈식석실분의 분형은 내부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상식인 특성상 마립간기 고총처럼 높고 큰데, 내부 주체인 석실을 내호석 같은 구조와 함께 먼저 구축한 다음 봉분 전체를 외호석과 함께 덮은 형태이다. 대개 6세기 중엽에야 비로소 경주 도심 주변 산지에 조영이 개시된다.

횡혈식석실분은 추가 매장을 전제로 한 묘제이다.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인 석실과 외부에서 석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천장을 갖춘 복도와 같은 연도, 그 연도의 바깥 끝에서 무덤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인 묘도(〈그림 24〉의 ④ 참조) 그리고 봉분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물론 묘도는 각 매장이 끝난 후 봉토로 메워진다.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장례에서는 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시대屍臺〈그림 24〉를 갖춘 점 또한 주요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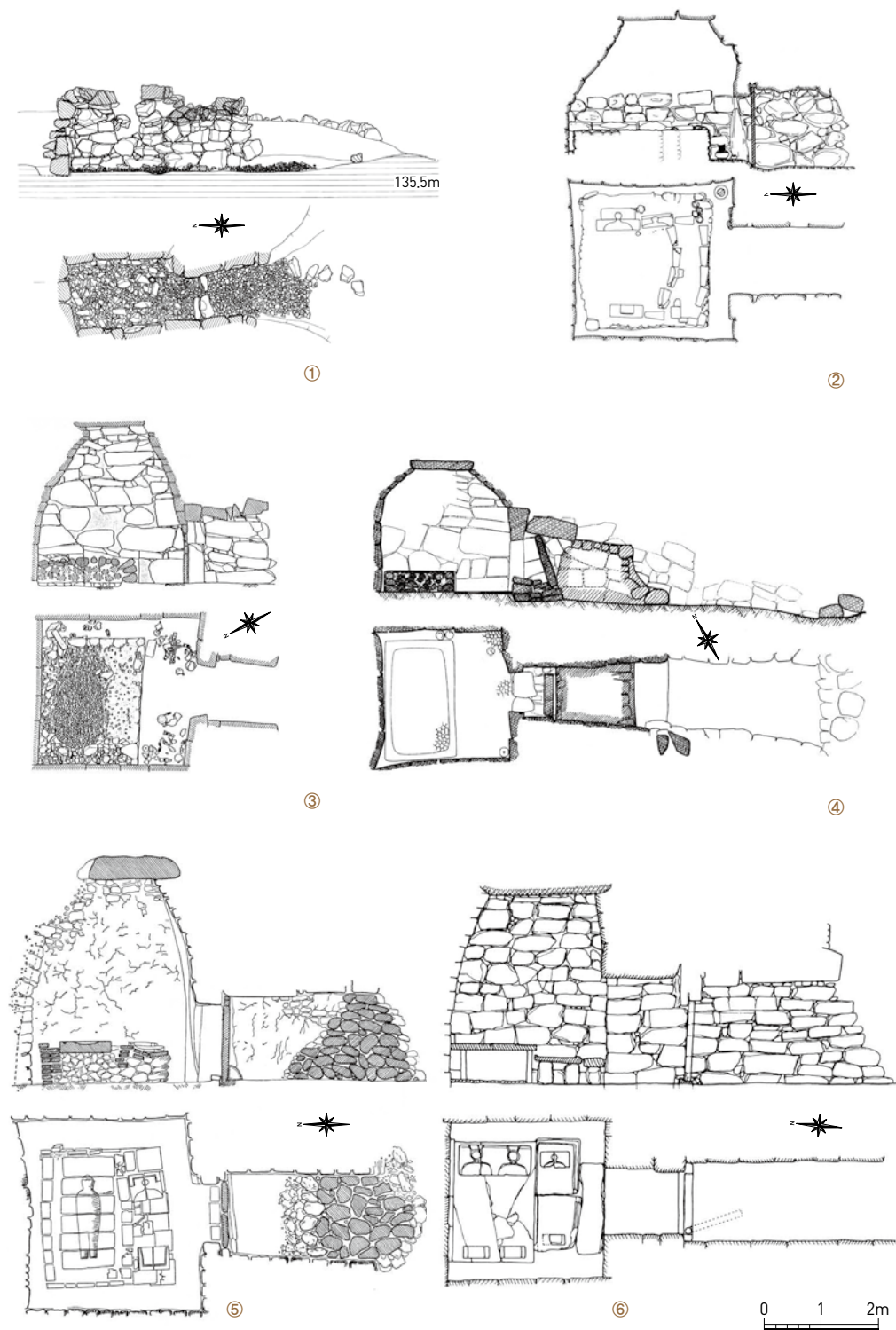
그림 24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분 평면도와 입면도

석실은 그냥 세로로 높은 직육면체가 되어서는 천장을 짜기 어려우므로 네 벽을 위로 쌓아 올라가면서 좁혀 천장석을 얹는데 거의 대부분 연도의 현문 위 높이부터 본격적으로 좁힌다. 그래서 자연히 연도의 천장은 석실의 천장보다 낮으면서 단차가 진다.

횡혈식석실분은 대개 석실의 평면 형태와 연도의 위치라는 속성들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연도의 위치는 중앙연도형, 좌편재연도형, 우편재연도형으로 나뉜다. 석실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석실과 방형석실로 나뉜다. 이 가운데 도입기 초기의 횡혈식석실묘는 일단 평면 장방형일 가능성이 크다. 그에 이어 방형 평면의 것이 도입되었다. 방형 석실 가운데 시기가 내려오는 것은 석실 높이가 높다. 그리고 현문과 연도의 문비 사이에 이른바 비도扉道(〈그림 24〉의 ⑥)를 갖춘 것도 있다.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대屍臺에 있다. 이 시대는 시신을 관 없이 안치하기 위한 것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는 대개 큰 할석으로 테두리를 두른 다음 안을 작은 돌들로 채운 형태가 많지만, 장산 토우총의 예(〈그림 24〉의 ⑤와 〈그림 28〉)처럼 아주 큰 판석으로 침대처럼 짜 맞춘 것도 있다. 시대 위에는 장산 토우총처럼 시신의 머리·상체·발을 올리는 두침·견대·족좌를 갖춘 것과 쌍상총처럼 시신의 전신을 그대로 받치는 대를 마련한 것(〈그림 24〉의 ⑥) 등이 있다. 이런 시신 받침에는 응회암을 가공해 썼다.

화장묘는 화장한 뼈를 담은 골호라 흔히 불리는 장골기를 그대로 구덩이 안에 묻은 묘와 그 장골기를 보호하는 별도 시설 혹은 용기가 있는 묘로 나뉜다. 지방의 경우 전자가 대부분이다. 후자는 왕경지역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시설 혹은 용기로는 석관, 석함, 석혈, 다른 토기 등이 있다. 장골기로서는 화려한 도장 무늬가 장식된 토기 혹은 중국 자기 등이 쓰였다. 특히 8세기대부터 뚜껑과 몸통에 결박용 고리가 달린 화장 전용 장골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화장묘의 외부 형상을 말해주는 증거는 그간 거의 없었는데 경주 석장동에서 발굴된 61호 화장묘는 봉분의 존재를 거의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묘의 축조 과정을 복원해보면 먼저 지름 200cm, 깊이 50cm 정도의 평면 원형 구덩

그림 25 경주 일원 출토 신라 장골기

이를 판 후 그 한 가운데에 평평한 천석을 깔고 그 둘레 위에 할석과 천석 네 개를 서로 맞물리도록 세워 방형 석곽을 설치하였다. 그 둘레 일부를 다른 돌로 받치면서 처음에 팠던 구덩이를 전부 흙으로 평평하게 메웠다. 석곽 안에 뚜껑을 갖춘 인화문골호를 안치한 다음 석곽 둘레에 다시 돌을 두른 후 아마도 그 위에 개석을 놓아 덮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처음에 팠던 구덩이의 둘레에 크기 20cm 내외의 할석으로 지름 200cm 크기의 평면 원형 호석을 설치하면서 그 안쪽으로 작은 봉분을 쌓았을 것이다. 이 봉분의 남동쪽에 붙여 장방형 구역을 돌로 두르고 안을 흙으로 채운 단 위에는 상석床石 같은 것을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 화장묘인 동천동 화장묘는 소금강산 남단의 구릉에 위치한 한 횡혈식석실분의 봉분 자락에 축조되었는데, 석실분과 연대차가 그다지 없다는 점에서 작은 봉분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형 석곽 안에 장골기와 부장품이 들어 있었다. 그 연대는 6세기 3/4분기 후반 즈음으로 비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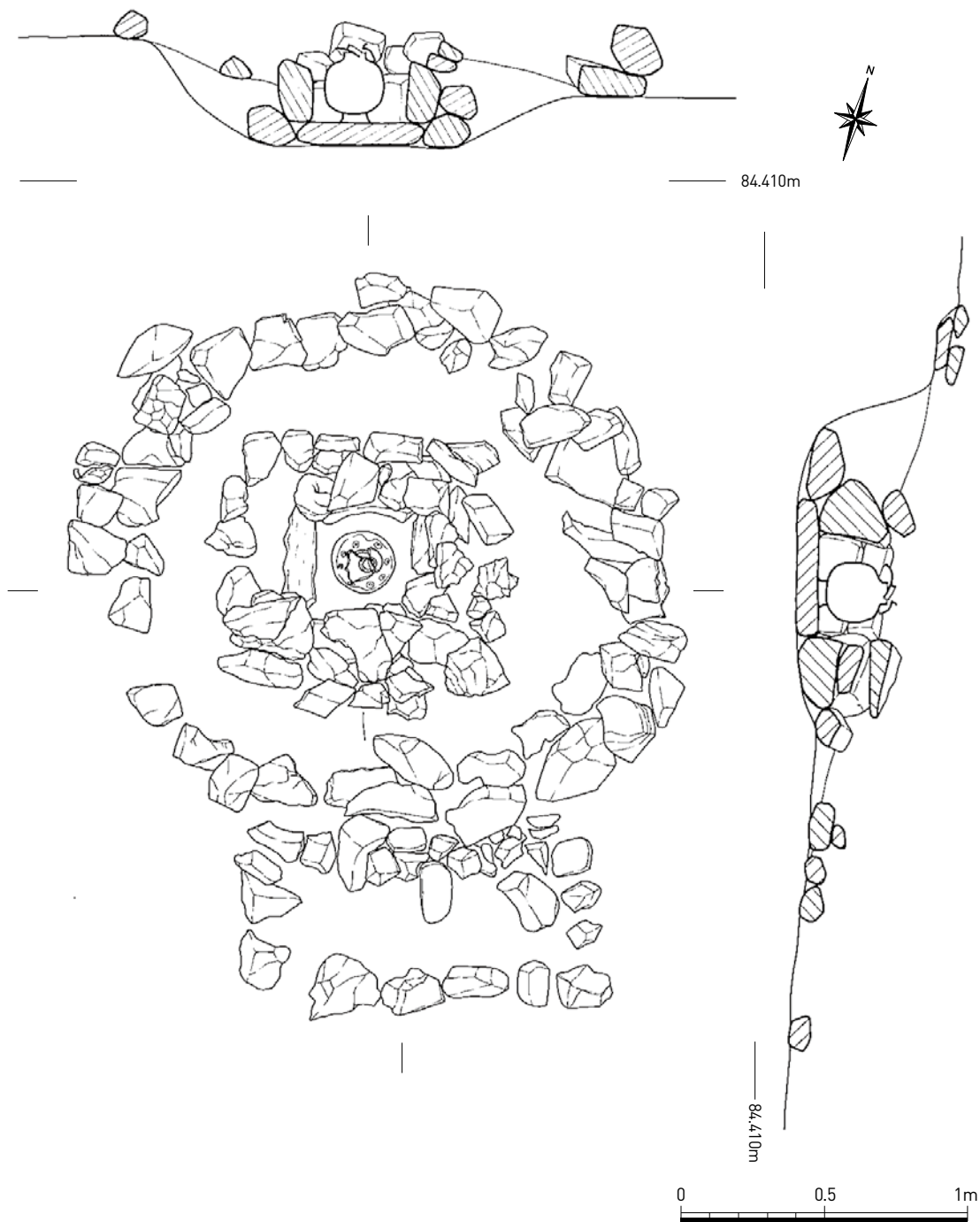
그림 26 경주 석장동 화장묘

그림 27 경주 석장동 화장묘 발굴 모습과 장골기

중고기 이후의 장송의례

석실묘는 무덤방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갖춘 횡혈식 혹은 횡구식 구조이다. 이는 마립간기까지의 수혈식 묘제가 폐쇄식인 점과 달리 개방식이다. 이에 따라 장제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개방식 묘제에서는 주검을 무덤의 축조가 거의 완료된 다음 안치할 수 있다. 추가 매장이 가능하며 주검을 안치한 이후 묘실 내부의 공간에서 제사를 거행할 수 있다. 이런 변혁은 주변국인 고구려, 백제, 중국 남북조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와 연관된 장제의 변화는 중고기에 석실이 유행한 점으로 미루어 중국 남북조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석실묘에서는 마립간기의 후장에서 박장으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 부장품이 극히 간소해진다. 부장품으로는 사후생활용 물품이 사라지고 성복 유물 일부와 마립간기 피장자의 머리맡에 놓였던 공헌 유물 일부만 남는다. 또 일부 무덤에서는 실용품을 본 떠 만들어 장례에 사용한 모형 유물과 인물을 축소해 만든 도용 등의 명기나 십이지용 등의 벽사품辟邪品이 새롭게 등장한다. 장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석실의 한쪽에 시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두침, 견대, 족좌 등을 시설하고 직접 주검을 안치하는 직장直葬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석실 내부의 유물 출토 상태를 살펴보면, 주검의 머리맡에 간단한 공헌유물이 놓이고, 주검에는 허리띠 장식을 비롯한 성복 유물이 채워졌다. 공헌유물

그림 28 경주 장산 토우총의 묘도 및 연도(상)와 현실 내부(하)

은 현실 내부 시대의 전면이나 모서리에 군집되어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렇게 한쪽에 군집된 공헌 유물은 대부분 고배, 장경호, 병 등 토기로 피장자를 위한 공헌제사에 사용된 것이다.

이상을 참고할 때 중고기 이후 석실묘의 장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묘도 부위가 트인 상태의 봉분이 갖추어진 무덤의 축조를 완료하고 나서 장지로 운구된 시신을 묘도와 연도를 통해 석실 내부의 시대에 안치하면서 성복 유물과 공헌 유물을 부장한다. 다음으로는 제대나 제상에 공헌 유물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하직제사를 올린 후 퇴실하고 연도와 묘도를 폐쇄하였다. 추가 매장의 경우 앞선 매장 시에 메운 묘도를 다시 파내고 연도를 통해 입실해서 필요한 경우 시대를 증축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시신을 안치하고 역시 같은 방식의 의례를 행하고는 퇴실하면서 다시 연도와 묘도를 폐쇄하였다.

이런 장례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석실분의 장송의례는 묘지 선정 – 부장품 준비 – (후토제) – 묘지 정지 – 천광穿壙 – 석실 축조 – (방상시) – (영구 입치) – 시신 납입 – 성복 – (폐백) – 유물 부장 – (평토제) – 석실 폐쇄의 순으로 거행되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봉분의 주변이나 주구 등에서 제사에 사용되었음직한 유물이 출토되고 대형의 능묘급 고분인 경우에는 분전에서 상석과 배례 공간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건대 묘제墓祭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퇴실 시에 제대나 제상에 공헌제물을 차린 제사는 이전의 전통적 평토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앞 시기에 중요시되었던 주검 머리 측의 공헌 유물보다는 이 평토제에서의 공헌 유물이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사후생활용 유물의 소멸과 더불어 사후관의 변화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무덤이 사후에 거주하는 음택이고, 거기서의 삶은 현재의 삶과는 다른 상징적 세계에서의 삶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명기의 등장, 주검을 귀신으로 인식한 점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장제의 역사에서 근본적 변혁이라고 부르는 곽묘에서 실묘로의 전환과 더불어 묘실 내 제사공간이 확보되면서 일어났다.

3 불교미술

528년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였다.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온 지 150여년이나 지난 후이다. 이 사건은 신라의 문화와 미술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시작은 왕경에 사찰이 건립되면서부터이다. 544년 진흥왕(재위 540~576) 5년에 신라 최초의 절인 흥륜사가 창건되었고, 이어서 황룡사, 분황사 등 왕실 사찰들이 세워졌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찰은 바로 황룡사이다. 황룡사는 총면적 약 2만평(약 7만m²)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553년에 터를 닦기 시작하여 584년에는 거대한 금동석가삼존상을 갖춘 중금당이 완성되었다. 현재 황룡사 중금당 터에 남아있는 대좌받침을 살펴보면, 석가불입상을 비롯해 모두 19구에 달하는 다양한 상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의 석가불입상은 높이가 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라 삼보三寶 가운데 하나로 오랫동안 신라인들에게 존숭되었다. 이 기념비적 작품은 1238년 몽골의 병화로 소실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76년부터 8년 동안 진행된 황룡사지 발굴 과정에서 석가불입상의 원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의 발견을 기대하였으나, 출토된 불상 관련 유물은 고작 47점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중금당에 안치된 거대한 석가불입상의 일부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유물은 머리 부분 파편 단 한 점뿐이다. 그렇더라도 나발螺髮 4개의 무게만 6.2kg에 달해 석가불입상의 크기가 엄청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9 경주 황룡사지 중금당터

석가불입상 이외에도 높이 17.5c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불입상이 출토되었다. 목탑지의 동편에서 수습된 작은 상이다. 왼쪽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내민 삼곡三曲자세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얇은 편단우견의 가사를 걸치고 오른손을 내려 보주寶珠를 쥔 흥미로운 불입상이다. 삼곡자세, 편단우견, 그리고 보주가 조합을 이룬 이런 불상은 영주 숙수사지에서 출토된 3점을 비롯해 신라에서만 15점 가량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상은 현재 고구려, 백제에는 없고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중고기의 이색적 불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그림 30 황룡사지 출토 청동 나발편

그림 31 황룡사지 출토 불입상

그림 32 황룡사지 출토 치미

그림 33 전 영묘사지 출토 인면문 기와

강당지 근처에서 발견된 치미鴟尾는 높이가 무려 182cm에 달한다. 치미는 통상 건물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기 때문에 그 크기만으로도 건물의 크기가 대단하였음을 알려준다. 치미는 다른 말로 망와望瓦라고도 하며, 건물의 용마루 양끝에 배치되어 벽사의 기능과 함께 건물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치미 뒷면에는 남녀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 거칠지만 표정이 살아있어 영묘사지 출토 인면문 와당과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얼굴로 손꼽는다.

60여년이 흐른 뒤인 645년 황룡사 금당 앞에는 높이가 80m에 이르는 거대한 구층목탑이 세워졌다. 황룡사 구층목탑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내력이 소상히 적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자장법사의 건의에 따라 선덕여왕(재위 632-647)이 백제 아비지阿非知를 데려와 200여명의 장인과 함께 세웠다고 한다. 황룡사의 구층목탑 역시 1238년 몽골 침입으로 전소되었고 그 터만 남아 오늘에 이른다.

그림 34 황룡사지 구층목탑터

그림 35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그림 36 분황사 모전석탑 금강역사상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재위 3년인 634년에 창건하였으며, 안산암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模塼石塔이 특이하다. 이 탑은 지금 남아있는 신라 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래 9층이었으나 현재 3층만 남아 있다. 여러 번 보수와 복원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의 탑이 창건기 탑의 모습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백제 미륵사 석탑과 비교할 때 서로 완전히 다른 형식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분황사 모전석탑의 1층에는 면마다 문을 조성하고, 그 입구 좌우에는 금강역사상을 배치하였다. 금강역사상은 4등신의 신체 비례에 X자형 천의天衣를 걸치고 있어서 7세기 전반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 3차에 걸쳐 분황사 경내를 발굴 조사한 결과, 창건 당시는 모전석탑 뒤로 세 개의 금당이 품品자 형태로 배치된 3금당 형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전석탑과 보광전普光殿으로 구성된 지금의 가람 배치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 번째 중건된 결과로 밝혀졌다.

분황사 모전석탑을 수리하는 과정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석함과 그 속의 사리기 및 공양구가 발견되었다. 이 사리기와 공양구는 신라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예여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아쉽게도 발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자세하지 않으며 일부 출토 유물도 없어진 상태이다. 은제 합을 비롯해 일본 오키나와산 조개껍질이나 은제 침통, 금은제 바늘, 은제 원판형 귀걸이, 금동제 장식판, 다양한 유리 및 옥석제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품은 주로 여성의 실생활용품으로 선덕여왕과 관련된 봉헌물임을 알 수 있다.

중고기 불교미술의 압권은 물론 반가사유상이다. 반가사유상은 의자에 앉아 오른발을 왼다리 위에 올린 반가부좌 자세로 오른손가락을 뺨에 대고 사색에 잠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기 신라에서는 적지 않은 수량의 반가사유상이 제작되었다. 그 중 단연 으뜸은 국보 제83호이다. 금동으로 상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반가사유상처럼 손가락을 뺨에 대고 한쪽 다리를 올린 복잡한 자세의 상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은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조형을 갖추어서 석굴암 조각과 함께 신라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림 37 분황사 석탑 사리갖춤

그림 38 분황사 석탑 사리장엄구(은제침통)

머리에는 세 개의 산이 연이은 모양의 관을 쓰고 있고, 머리 뒤쪽에는 광배를 꽂았던 촉이 남아 있다. 고요한 눈매에 입가의 온화한 미소가 특징이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상체에는 천의天衣를 걸치지 않고 두 줄의 간결한 목걸이만 표현되어 있다. 하체는 군裙이라고 부르는 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왼쪽 무릎 위에 올린 오른 다리 밑으로 흘러내리는 치마 주름이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다. 왼발이 딛고 있는 연꽃 모양 발받침은 없어진 신라시대의 것을 추정해 새로 만든 것이다.

일본 교토 고류지[廣隆寺]의 목조반가사유상은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과 재질과 크기만 다를 뿐 그 모습이 정말 닮았다. 머리에 역시 삼산보관을 쓰고

그림 39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그림 40 고류지 반가사유상

그림 41 봉화 북지리 반가사유상

있으며, 돈자墩子의 형태와 양 다리 위의 옷주름도 같다. 근본 차이점은 재료이다. 국보 제83호는 금동이지만, 고류지상은 붉은 소나무[赤松]이다. 이는 통상의 일본 목조불이 녹나무[樟木]를 재료로 하고 있는 점과도 다르다.

이 두 상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작품으로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반가사유상이 있다. 유려한 3단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오른 발목을 지그시 잡고 있는 왼손 표현이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과 매우 유사하다. 상반신은 깨져 없어지고 하반신만 남아있는데, 그 하반신의 높이만 해도 175cm에 달하는 거대한 작품이다. 상반신까지 잘 남아 있었다면 3m에 이르는 기념비적 신라 반가사유상이 되었을 것이다. 반가사유상들은 600년을 전후한 시기에만 유행하다 사라졌으며, 또 3m에 달했을 거대한 석조반가사유상이 있는 데다 금동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 반가사유상도 있다. 따라서 반가사유상들이 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하겠다.

중고기 불교미술을 이야기하면서 경주 남산의 불상들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산은 60여 계곡에서 150여 곳의 절터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107구의 석불과 마애불이 남아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중고기에 조성되었을 뿐 대부분은 통일신라기에 만들어졌다. 중고기에 제작된 불상으로는 배동 삼존석불, 장창골 미륵삼존불, 불곡 감실불상이 있다.

남산의 중고기 불상들은 대부분 그 서쪽에 모여 있어서, 이곳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조각된 상은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한 배동 삼존석불상과 장창골 삼존석불이다. 이들은 신라 최초의 원각불상이기도 하다. 배동 삼존석불상은 경주 남산 서쪽 기슭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 세운 것이다. 삼존석불 인근에서 선방사禪房寺라는 이름이 적힌 탑지석이 발견되어서 한때 선방사 삼존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탑지석이 발견된 유구는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라서 7세기 불상인 이 삼존불과는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 세 구가 나란히 있다고 해서 '삼체三體 석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가운데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삼존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중앙의 본

그림 42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그림 43 경주 남산 장창골 석조삼존불상

존 불상을 아미타불상으로 추정해 아미타삼존으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배동 삼존불입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예로 장창골 삼존불상이 있다. 1925년 남산 장창골 길목에 위치한 한 석실에서 발견되었지만, 지금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중앙 본존불이 의자에 앉은 모습인 점과 『삼국유사』 생의사석미륵조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작품을 『삼국유사』에 기록된 삼화령 미륵삼존불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중앙 본존불이 의자에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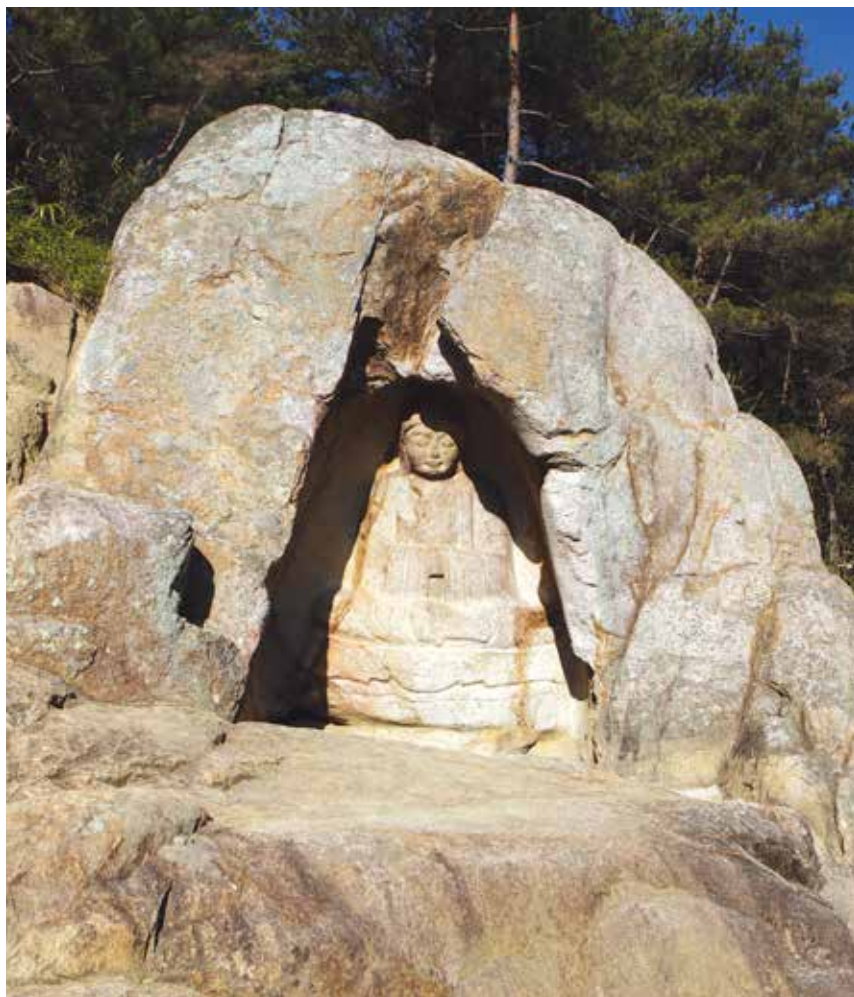
그림 44 경주 남산 불곡 감실불좌상 얼굴

있는 모습은 한국 조각에서 그 예가 아주 드문 특별한 경우이다. 아기 같은 얼굴 모습, 커다란 머리, 굴곡 없이 통통한 신체표현이 특징인 데다 불상의 몸 위에 표현된 띠 모양 주름과 무릎 위의 소용돌이 주름은 중국의 6세기 후반 조각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이를 근거로 이 작품의 제작 시기를 중고기 말인 7세기 전~중엽이라고 추정한다. '애기부처'로 불리는 귀여운 모습의 협시보살은 쌍둥이처럼 닮았지만 보관과 목걸이, 양손의 위치, 천의 자락의 흐름이 서로 달라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한 조형 의지가 엿보인다. 어린아이 몸 같은 신체 비례와 천진난만한 웃음 때문에 차가운 화강암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신라의 화강암 석불을 대표하는 두 삼존석불 가운데 배동 삼존석불이 장창골 삼존석불보다 앞서 조각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는 배동 삼존석불에 비해 장창골 삼존석불이 상대적으로 조각이 정제되었기 때문이다. 두 삼존석불은 굴곡이 없는 신체 모델링과 어린아이 몸 같은 신체 비례로 중고기 특유의 조형 감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남산 동북쪽 기슭에 자리한 불곡 감실불좌상은 석굴에 대한 신라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낸다. 1m 깊이의 감실 속에 명상에 잠긴 듯 다소곳한 모습으로 조각된 불좌상이다. 얼굴은 원각에 가까운 고부조로 조각하였지만 신체와 대좌는 얕게 조각해서 단순화하였다. 양손은 옷자락에 가려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 선정인禪定印과는 달리 손을 소맷자락 속에서 서로 맞잡고 있어 공수拱手 자세를 연상시킨다. 부은 듯한 눈과 도톰한 입술에다 전체 자세가 부드럽고 여성적이어서 마치 바위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 모든 중생의 고민을 들어줄 것 같다. 둥글고 부드러운 볼륨의 얼굴이 마치 여인의 모습 같지만, 평면적 신체 조형과 선으로만 표현한 옷 주름으로 보아 7세기 중엽에 조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석굴을 향한 바람이 모이고 모여 결국 나중에 석굴암이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경주의 남산뿐 아니라 단석산에도 거대한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다.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은 단석산 중턱의 ㄷ자 모양 암벽 네 면에 불·보살·인물상 10구를 새겨 넣은 것이다. 암벽 위에는 원래 지붕을 덮어 예배공간으로 이용하

였을 것이다. 동북쪽 면에 불입상을, 동쪽 면에 보살입상을, 남쪽 면에 보살상을 각각 배치하였다. 북쪽 면에는 모두 7구의 불상·보살상·인물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모두 동북면의 불입상을 향하고 있어서 단석산 마애불상군의 주존이 바로 동북면 불입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쪽 면에 남아 있는 200여 자의 명문 중에서 '신선사神仙寺에 미륵석일구彌勒石一區와 보살이구菩薩二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미륵삼존상을 새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의 미륵삼존상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곳에도 반가사유상이 있다. 이 상은 신라의 반가사유상 중 가장 이른 예이다. 동북면 불입상 옆에 새겨져 있으며 미륵도량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가사유상이 미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왕경의 서쪽에 위치한 선도산에도 정상 근처 암벽에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였다. 중앙의 본존불은 암벽에 직접 새긴 마애불이고, 좌우의 협시보살상은 별도의 석재로 제작해 삼존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마애불과 단독의 입상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경우는 아주 드문 예인데, 아마도 잘 쪼개지는 선도산의 특이한 석질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선도산 마애삼존상은 왕경의 서쪽에 위치한 점과 왼쪽 보살상이 정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바라보는 아미타삼존상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아미타신앙은 대략 7세기 후반 무렵부터 나타난다. 이는 아미타신앙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원효(617-686)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사상 속에서 미타정토신앙을 주창했던 의상의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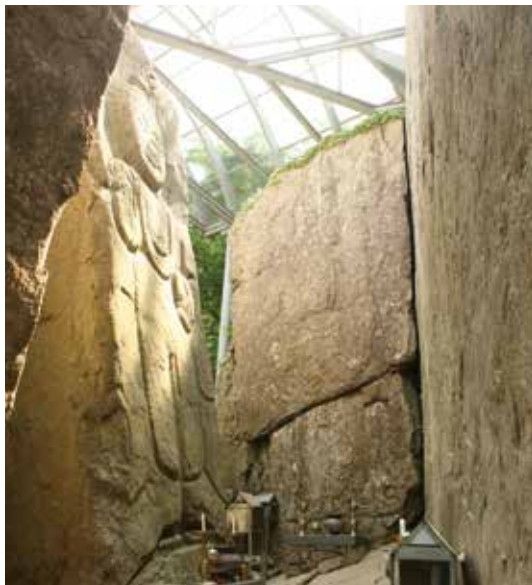
그림 45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그림 46 단석산 신선사 반가사유상

그림 47 경주 선도산 마애여래삼존입상

4 복식

법흥왕대의 복제 정비와 관련 유물

중고기 이후가 되면 마립간기와는 달리 신라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많아진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에 수반된 복제의 정비이다. 『삼국사기』와 중국 정사, 그리고 『일본서기』에 6세기대 신라의 복식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주지하듯 법흥왕 재위 7년(520)은 율령이 반포된 해이다. 율령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한 것인데, 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紫, 비緋, 청靑, 황黃 순의 복색을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신라본기에서는 이를 '주자지질朱紫之秩'이라 표현했다. 또 『삼국사기』의 찬자 김부식은 당송唐宋을 비롯한 중국 중원 왕조의 복식을 화華로 생각하고 법흥왕대의 복식을 이夷의 복식으로 여겨 '유시이속猶是夷俗'이라 평가했다.

이 복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색복 존비제 시행의 대상이 6부 주민이라는 점이다. 6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지방민에 대한 차별 인식이 매우 강했고 왕경의 6부 주민들이 신라를 이끌어가는 주체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관리가 선발되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당연한 조치였다. 그래서 6부민을 대상으로 복색 이외에 홀笏 같은 지물持物, 관의 재질까지 규정하였다.

6세기 초 『양서梁書』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관을 유자례라 하고 저고리를 위해, 바지를 가반, 신을 세라 불렀다. 『수서隋書』에서는 신라의 복색은 흰빛을 숭상하고 부인들은 머리를 땋아 머리 뒤에서 묶은 다음 여러 색조의 비단과 구슬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그림 48 퇴화기 신라의 관(①전 상주, ②지동 2호묘, ③추암동 가-21호묘, ④하리)

한편 『일본서기』 계체기 23년(529)조에 의하면 대가야왕은 신라와의 관계 개선책으로 그 왕녀와 결혼하였다. 신라가 왕녀를 보낼 때 시종 백 명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에게 신라의관을 입혔는데 대가야왕은 그들에게 그것을 입도록 했다고 한다. '신라의관'이란 표현은 신라와 대가야의 의관이 외견상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유물 가운데 복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부 자료가 있다. 첫째, 관이다. 6세기 중엽이 되면 경주 무덤에서 금관이 사라진다. 금동관이나 동관이 발굴되긴 하나 지방의 중소형 무덤에서 출토되며 형태나 제작기법이 일변한 것이다. 즉 대륜臺輪의 너비가 매우 넓어진다. 또 곁가지의 단수는 6세기 전반의 금동관처럼 4단이지만 입식이 상하로 길쭉해진다. 녹각형 입식이 없어지고 입식의 숫자가 4개 혹은 5개로 늘어난다. 대표적 예로 안동 지동 2호묘 금동관, 동해 추암동 가-21호묘 동관, 단양 하리유적 동관이 있다. 이 관들은 형태가 통일적이지 않고 제작수법도 조악하므로 각 지역에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이 출토된 추암동 동관의 경우 여성의 소유물이며 소형묘에서 출토된 것이므로 샤먼과 같은 종교적 직능자의 소유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6세기 후반 이후로 들어가면 수식을 갖춘 귀걸이[垂飾附耳飾]가 출토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적석목곽분에서 빈번하게 출토되는 기본 장신구였던 금귀걸이가 여타 금속제 장신구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태환이식, 경주 동천동 승삼마을 37호묘에서 출토된 금동제 세환이식이 있을 뿐이다. 황룡사지 귀걸이는 7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6세기에 크게 유행하던 태환이식이 '간략화, 형식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까지 계속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가 되면 누암리형 대장식구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대장식구가 유행한다. 이 대장식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교구, 과판, 대단장식帶端裝飾 등 간단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7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새로운 유형의 대장식구가 등장한다. 645년에 완성된 경주 황룡사 목탑 심초석 하부 출토품이 전형이므로 이를 황룡사형 대장식구라 부른다. 즉 황룡사지의 일괄 유물 가운데는 누암리형 대장식구

그림 49 누암리형 대장식구(좌 : 상주 청리 A-나19호묘, 우 : 대구 달성 종합스포츠파크부지 1-B-165호 석실묘)

도 있지만 이처럼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다. 양자는 형식 변화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다. 이 새로운 대장식구는 중국 수나라 혹은 당나라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그를 받아들여 만든 듯하다.

당 의관제의 도입과 관련 유물

7세기 전반은 삼국간의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적극적 대중국 외교로 자국의 안위를 지키는 한편 통합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 무렵의 복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진덕여왕 3년(재위 647~654)에 당식唐式 의관제衣冠制를 도입한 일이다.

그림 50 경주 황성동석실분 토용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덕여왕 2년(648)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서 당 의례 도입을 청하였고, 태종 황제가 조서를 내려 허가함과 아울러 의복과 관대를 내려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3년(649) 봄 정월에 처음으로 중국 의관을 착용했으며 4년(650) 여름 4월에는 교서를 내려 직위를 지닌 진골은 상아홀을 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에 백치白雉 2년인 651년에 일본을 방문한 신라사신이 당나라 의복을 입었다는 기사는 이 사실을 실증한다. 문무왕 4년인 서기 664년에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의 복식까지 바꾸었다.

김춘추가 당으로부터 받아온 의복과 관대가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7세기 후반 초에 축조된 경주 황성동석실분이나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축조된 용강동석실분에서 출토된 토용의 관복과 유사했을 것이다. 관복의 부속품 가운데 하나인 관대에는 '당식 대장식구'라 부르는 허리띠 부품이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복식은 실제로 토용에 표현되어 있다. 토용이란 당초부터 매장용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토우와 다르다. 이 시기의 무덤은 석실분이다. 그 속에 죽은 이의 가족이나 관리, 병사, 시종 등을 흙 인형으로 작게 만들어 함께 묻어준 이 풍습은 수 및 당나라로부터 전해졌다.

중고기에 해당하는 황성동석실분에서는 6점의 인물상이 출토되었다. 그 중 문관상이 3점, 무관상이 1점, 여성상이 2점이다. 남성은 머리에 복두를 썼고 몸에는 바지와 겉옷[袍]를 갖추어 입었는데 당의 복식에 해당한다. 신발은 옷에 가려 전체가 보이지 않으나 가죽신인 것 같다. 문관상과 무관상 모두 표현이 간략한 편이며 표면에는 아무런 채색이 되어 있지 않다. 인물상 가운데 완형으로 출토된 여성상은 술병 혹은 물병을 한 손에 들고서 미소 짓고 있다. 이 여성의 의복은 재래의 신라적 색채를 지니고 있고 또 머리를 뒤에서 묶은 모습이다. 그래서 부인들 역시 중국 의상을 입도록 규정한 66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토용은 관리의 부인상이 아니라 기녀와 같은 특수 신분의 인물상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남성상 가운데는 특이한 모자를 쓴 눈이 깊고 코가 큰 인물상이 있다. 그 모자를 이른바 호모胡帽로 보고 인물 자체를 호인, 즉 서역인으로 보기도 하나 겉옷의 깃이 통상의 호인 옷이 지닌 깃[翻領]과 달리 둥근 깃[團領]이라서 그렇게 보기는 곤란할 듯하다.

5 농경과 물품 생산

농경

중고기 신라의 농경에 대해 알려주는 유적의 사례로 경주 금장리 밭터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경주 분지의 서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서안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는 산곡 사이에 형성된 곡저평야의 자락에 입지한다. 고랑과 두둑이 병렬적으로 조성된 이랑 형태의 밭이며, 시기에 따라 이랑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유로 변화 때문에 바꾸었을 수도 있고 지력 회복을 위해 바꾸었을 수도 있다.

유물로는 밭의 고랑과 두둑에서 6세기대의 토기 뚜껑과 고배 배신부, 토기 대각, 단경호 구연부편, 파수, 어망추, 토구 등이 출토되었다. 토양 표본을 물 체질하는 과정에서 화본류 38점(쌀 6점, 겉보리 16점, 밀 16점), 두豆류 15점(팥 12점, 콩 1점, 종 미상 2점), 잡초 종자 27점 등 총 80점의 탄화 식물유체를 채집했다. 금장리 경작유적 출토 탄화곡류는 6세기 이후 신라 왕경 주변의 실제 경작층에서 출토됨으로써 당시 밭에서 재배된 작물의 종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이다.

그림 51 경주 금장리 밭유적

이 경작유적은 신라 왕경과 인접한 하상 범람원이라는 좋은 토양조건 속에서 왕경인들이 한시적으로 경작지를 개간해 작물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6세기 이전부터 가경지 확보 차원에서 개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였기에 왕경 지구와 구분이 된 식량 생산구역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주에서 최초로 확인된 농경 관련 생산 유구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신라사회의 밭농사 기술과 식생활 문화, 농업생산력의 문제 등 신라 농업사 및 사회경제사 연구에 좋은 기초 자료가 된다.

안정적 농경을 위해서는 관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중고기 신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언堤堰들을 축조했다. 이런 공사 덕분에 천수답 위주의 곡간평야에서 벗어나 넓은 충적평야를 경작지로 개발할 수 있었다. 영천의 청제는 그 둘레에서 발견된 '청제비'의 비문에 따르면 536년에 처음 축조되었는데 금호강 범람원을 몽리범위로 한다. 같은 비에 8세기 말에 새겨진 명문(정원명)으로 보건대 이 저수지는 당시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에도 계속 관리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관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술오작비는 대구의 신천 범람원을 관류하는 냇가

에 관개용 보를 설치했음을 기록한 비석으로 578년에 세웠다. 이 비에는 '대공척大工尺'이란 기술자가 있었고 건립책임자가 승려였음이 기록되었다. 이는 일본 오사카의 고대 저수지인 사야마이케[狹山池]를 건립한 기술감독관이 승려인 점과 비교된다. 불교 공인 이후에 승려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확산뿐만 아니라 중요 기술자 집단으로 활동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상주 공검지에서는 부엽공법敷葉工法으로 연약지반을 보강해 못 둑을 쌓았고 목통을 통해 용수를 배출하였음이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 공검지의 연대를 대개 8세기 이후로 보아왔으나 출토 목재에 대해 연륜연대를 측정한 결과 7세기 후반의 수치가 나와 중고기 후반까지 소급시켜볼 여지가 생겼다. 울산 약사동제방의 경우도 발굴조사로 중고기 후반에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림 52 영천 청제비정원명

생산시설

경주 외곽에 분포하는 토기와 기와의 제작소 가운데 중고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손곡동·물천리유적과 화곡리유적을 들 수 있다. 다만, 두 생산유적 모두 조업기간이 마립간기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로 상당히 길며 중고기는 그 중 일부 기간에 걸치는데, 토기와 기와가 어떻게 생산되어 소비지로 전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게 중고기인 7세기 전반에 조업이 이루어진 기와 요지로는 경주 화천리 요지를 들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와도瓦陶 겸업의 가마 9기와 공방유구가 조사되었다. 가마는 반지하식 구조이며 바닥의 경사도가 10도 이내이고 소성실 내부에 계단시설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규모는 길이가 426~570cm, 너비가 182~274cm 정도이다. 단판單瓣 연화문 수막새와 초대형의 단판短板 타날 평기와가 출토되었다.

소비재를 만드는 대장간을 제외한 제철 시설은 이미 마립간기에 왕경을 벗어나 지방의 철광산 인근으로 옮겨졌다. 신라 중고기의 제철유적은 낙동강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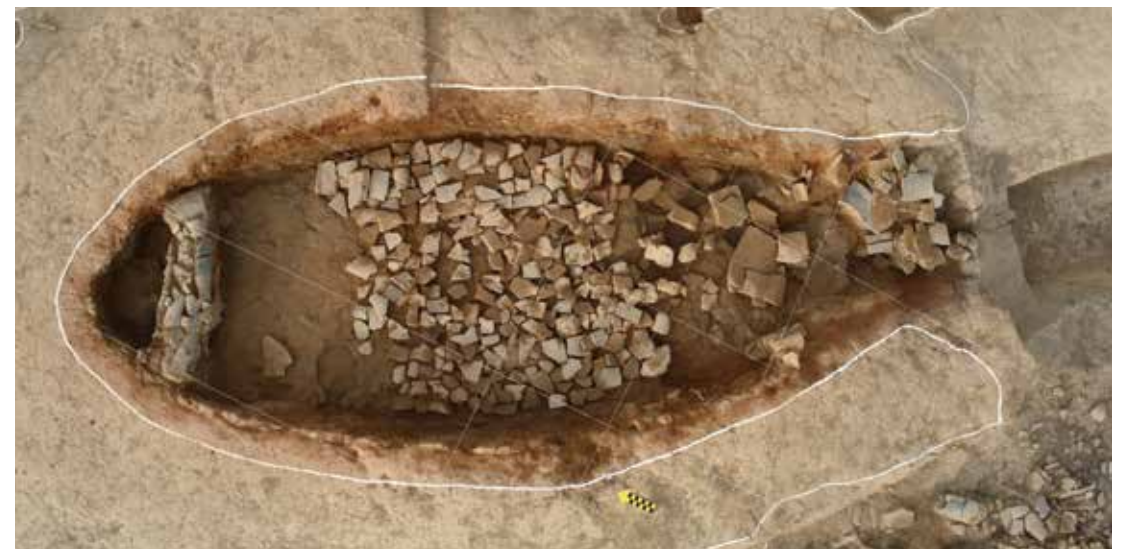
그림 53 경주 화천리유적 가마터

류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밀양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낙동강변의 곡간 곳곳에는 선광유적과 제철유적이 줄지어 있다. 양산 물금의 선광유적은 길게 판 도랑에 채굴한 철광석을 넣고 물을 흘려 광석을 크기별로 구분한 시설로 추정된다. 밀양 사촌유적은 폐기된 슬래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광석을 녹여 쇠를 만들어낸 제련시설이었다. 이 두 유적은 마립간기 말에 조업을 시작해 중고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된 생산시설이었다. 이곳이 제철생산의 주요 기지가 된 이유는 정치적으로 일찍 신라에 장악되었고 풍부한 원료와 편리한 물길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밀양 금곡유적은 그간 발굴된 신라 중고기 제철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제철로가 86기에 달하며 철 제련에서 철기 생산까지의 전 공정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제철로 가운데는 정련단야로와 용해로가 포함되며 배소시설, 폐기장, 점토 저장시설, 탄요, 수혈, 작업장 등 제철공방의 모든 구성요소가 발굴되었다. 노 주변에서 단조박편, 용범, 다양한 종류의 슬래그도 함께 출토되었다. 폐기장에는 제련과정에서 생성된 엄청난 양의 유출재流出滓와 함께 노벽체편, 송풍관편, 슬래그가 폐기되어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6세기이고 7세기 초가 하한이다.

그림 54 밀양 금곡유적 정련단야로

물품

마립간기에 경주 시내 평지와 지방 각지에 만들어지던 대형 고분은 6세기 중엽 이후 경주의 경우에는 주변 산지로 옮겨가고 지방의 경우에는 차츰 사라진다. 그 무덤의 내부 구조도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으로 통일된다. 이로써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묻는 '가족장'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내세 관념의 획기적 변화를 일러준다. 그에 따라 무덤 속에 넣어 주는 유물의 종류나 수도 급격히 줄어든다.

이 시기의 무덤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토기는 다리가 매우 짧아진 이른바 단각 고배와 입술 끝이 'L'자 모양으로 각진 부가구연장경호이다. 고배는 앞 시기에 유행했던 대각이 높은 고배의 변형 기형도 계속 존재하나 그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제 그 자리를 뚜껑과 그릇을 합친 모습이 공 모양에 가까운 합(대부완)이 대체한다. 합의 뚜껑은 안쪽에 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이다. 목이 좁은 대부병이 유행하는 것도 특징인데 병 몸통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한다. 그 문양은 처음에는 삼각문과 원문을 대칼로 그어 상하로 배치한 것이 계속 사용되다가 6세기 말이 가까워지면 그것을 도장에 새겨 찍는 방식이 나타난다. 대부병의 초기 형태는 목이 짧고 몸통은 타원형으로 양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길어지고 몸통이 납작해지는 형태가 된다.

중고기에 들면 마립간기의 중앙과 지방 토기 사이에 존재했던 양식의 차이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토기의 형태가 균일화된다. 기형은 물론이고 제작기법도 규격화된 듯한데, 이는 전국의 전업공방들이 집권화된 중앙의 통제를 받아 상호간에 기술정보를 공유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릇의 형태는 낮고 작으며 간결해졌다. 처음에는 컴퍼스와 송곳으로 새긴 무늬가 등분된 구획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었으나, 이런 무늬는 이윽고 도장에 새겨 찍어내는 기법으로 훨씬 더 규격화되었다. 축약된 기형과 규격화된 제작기법은 공정의 단순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기와는 불교 공인 이후에 국가 차원의 사찰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초기 막새는 날카로운 꽃잎을 표현한 연꽃무늬 수막새로 왕궁인 월성에

그림 55 충주 누암리 가-60호묘 토기

그림 56 경주 방내리고분군 석실분 출토 토기류

서 쓰이기 시작하여 황룡사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연화문이 주는 강건한 느낌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이라 여기기도 하는데, 미숙한 기법으로 볼 때 신라에서 창안한 것일 수도 있다. 꽃잎의 끝을 부드럽게 살짝 올린 사실적인 연꽃무늬 수막새는 월성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다. 문헌 기록에서 중고기 사원 건축을 할 때 백제의 장인집단이 참여한 사실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막새는 백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신라의 독창적 연꽃무늬 수막새는 부드러움을 살짝 감춘 듯 꽃잎에 능선을 새겨 넣었다. 6세기 후반에 완성된 이 수막새는 강건함과 온화함이 잘 조화된 신라 중고기의 미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6세기 중엽이 되면 앞 시기에 위세품으로 기능하던 관의 형태나 제작기법이 변한다. 관테의 너비가 매우 넓어지고 녹각형 입식이 없어지며 입식의 숫자

그림 57 경주 화천리 요지 막새류

그림 58 황룡사지 고식 와당

그림 59 황룡사지 백제계 와당

그림 60 황룡사지 연화문와당

가 4개 혹은 5개로 늘어난다. 단양 하리 동관은 이 시기 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대륜이 넓으며 4개의 입식을 동사로 고정하였다. 수지형 입식이 퇴화되어 있고 끌을 이용하여 둥근 구멍을 뚫어 장식한 것이다.

6세기 후반 이후의 유적에서 수식부이식垂飾附耳飾이 출토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적석목곽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신구였던 금제이식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현재까지 황룡사지 출토 태환이식, 경주 동천동 승삼마을 37호묘 출토 세환이식 두 예만이 알려져 있다.

황룡사지 목탑지 하부 다짐층에서 출토된 이식은 목탑을 축조하면서 매납한 진단구이다. 황룡사 목탑은 643년에 만들기 시작해 645년에 완성되었으므로 이 유물은 643년을 전후해 매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이식은 대략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마립간기 이식과 비교할 때 수식이 아주 간략화됨을 보여준다.

그림 61 경주 화곡리 요지 막새류

이처럼 신라고분에서 황금장신구가 사라진다고 여겨지는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가 되면 대장식구도 기존의 삼엽문 대장식구가 아니라 교구와 대단장식구가 강조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장식구가 유행한다. 중원 누암리고분군이나 상주 청리고분군 등 앞 시기와는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무덤에서 출토된다.

그러다가 7세기 전반이 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황룡사형 대장식구가 등장한다. 황룡사 목탑지 심초석 하부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과판에는 초화문草花紋이 표현되어 있다. 김해 예안리49호묘나 상주 청리 A-가-9호묘와 11호 석실, A-나-2호 석실, 남원 두락리 3호묘 등에서도 같은 유형이 출토되었다. 이 유형의 대장식구는 교구나 과판의 외형으로 보건대 중국 수 혹은 당나라 대장식구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으며 사람 얼굴, 새, 도깨비 얼굴 등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무덤에서 출토되는 철기로는 손칼刀子이 중심을 이루며 1~2점의 화살촉, 농공구가 부장되는 사례들이 있다. 장식무기나 마구의 부장 사례도 찾아보기

그림 62 황룡사지 출토 태환이식

그림 63 상주 청리 A-가-11호묘 출토 황룡사형 대장식구(우 : 문양 세부)

그림 64 황룡사형 대장식구에 표현된 문양

그림 65 안동 지동 2호묘 출토 철탁

어려워진다. 율령반포에 따른 규제, 박장薄葬이라는 장례풍습의 변화가 가져온 현상일 것이다.

신라는 중고기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왕의 무기를 개량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까지 제작하였을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특수 무기를 다루는 부대 이름들이 나온다. 주로 공성용 무기 사용 부대인데, 노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석투당石投幢이 그것이다. 그밖에 기마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마름쇠에 관한 기록도 수록되어 있다. 장차 관방시설을 활발하게 발굴하면 그에서 관련 유물들이 출토될 것이다.

이 시기의 철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철탁鐵鐸이다. 횡구식 또는 횡혈식 석실묘에서 이따금 출토되는 이 유물은 주로 6세기 제작품이다. 6세기 전반에는 주로 낙동강 이동지역으로 분포가 한정되나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고성 연당리나 사천 월성리, 합천 저포리의 사례처럼 낙동강 이서지역 가야의 고지故地로도 확대된다. 철탁이 단야구와 공반되므로 무덤 주인공을 제철 관련 장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퇴화형 금동관 혹은 동관을 착용한 샤먼과 같은 종교적 직능자의 무구巫具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6

유물로 본 대외교류

북조~당과의 교류

신라는 553년에 한강유역을 수중에 넣었다. 이로써 중국과 처음으로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삼국사기』에는 중고기에 중국 각 왕조와 본격적으로 교류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는 당과 소원한 관계였으나 곧 우호관계를 회복하였고 신문물 수입의 창구로 활용하였다. 바다 건너 일본과도 지속적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 유적 곳곳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완제품이 출토되기도 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신라양식으로 발전시킨 예도 흔히 발견된다. 대표적 유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조~당에서 들여온 완제품이다. 분황사 사리공양품 가운데 북제北齊의 상평오수전常平五銖錢〈그림 66-①〉이 포함되어 있다. 또 7세기 초에 축조된 경주 용강동고분군의 한 석실분에서는 남북조시대에 유행한 묘지석과 더불어 바둑알, 시유도기, 대구帶鉤가 출토되었다. 고분의 주인공은 생전에 중국을 다녀온 신라인으로서 그곳에 장기간 머물렀던 인물이거나 아예 중국 출신 인물일 수가 있다.

그림 66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①분황사, ②월지, ③④황룡사지)

그림 67 경주 용강동고분군 석실분 출토 중국계 유물(①묘지석, ②바둑알, ③시유도기, ④대구)

그림 68 누암리형 대장식구(①대구 설화동 5호 석실묘, ②경주 동천동 354번지 1호 석실묘)와 황룡사형 대장식구(③황룡사지, ④김해 예안리 49호묘)

한편 월지의 건물지에서는 당의 개원통보開元通寶가 출토되었다〈그림 66-②〉. 또 황룡사 목탑지 심초석 하부에서 출토된 사신경四神鏡〈그림 66-③〉은 수나라 거울의 특징을 충실히 갖춘 것이다.

둘째, 복식을 구성하는 대장식구이다.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대장식구인 누암리형 대장식구〈그림 68-①②〉가 나타난다. 그리고 7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황룡사형 대장식구'가 등장하는데〈그림 68-③④〉, 이 대장식구의 계보는 앞에서 말했듯 중국 수나라 대장식구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의 교류

울진 덕천리고분군 I구역 1지점 24호 석실묘에서 일본산 모자곡옥母子曲玉 1점이 출토되었다. 누암리형 대장식구의 교구와 함께 출토된 점으로 보면 6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일본의 경우 오키노시마[沖ノ島] 제사유적에서는 신라산 금반지가 출토되었고, 나라현 이시가미[石神]유적 출토품〈그림 69-②〉에는 신라토기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군마현 긴간즈카고분[金冠塚古墳] 출토 금동관 1점은 넓은 대륜에 모두 5개의 출자형 입식이 부착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넓은 줄기가 있고 그 좌우에 4단의 가지가 돌출된 신라 양식이다. 다만, 신라적 모티브는 지니고 있지만 세부도안이나 제작기법에서 차이가 있어 이 관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관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제작된 물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 나라현 도다이지[東大寺]의 쇼소인[正倉院]은 원래 왕실의 보물을 격납한 창고이다. 이 쇼소인에 보관된 중요한 신라 유물로 '신라금新羅琴'이 있다. 이 신라금은 나무 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안족까지 갖추었다. 이로써 대가야가 만든 가야금과는 다른 신라 고유의 현악기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는 또 다른 신라 유물로 먹도 있다. 길쭉하게 생긴 이 먹에는 신라의 양가와 무가에서 만든 고급 먹이란 의미의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 한자가 돋을새김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먹들은 신라나 일본에서 한자 문화가 크게 확산되면서 그 수요도 급증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쇼소인에는 신라산 숟가락들도 한 묶음으로 보관되어 있다.

한편 월지에서 출토된 정교한 금동제 가위 1점과 외형이 아주 닮은 금동제 가위가 역시 쇼소인에 보관되어 있다. 월지 출토품보다는 덜 정교하지만 신라에서 제작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림 69 신라와 일본(왜)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
(①울진 덕천리 I구역 1지점 24호 석실묘, ②나라현 이시가미유적, ③⑤쇼소인, ④경주 월지)

제 II 편

통일신라

삼국 문화의 융합과 신라문화의 만개
통일신라기

제 1 장

삼국 문화의 융합과 신라문화의 만개

통일신라기

신라사는 대개 몇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지만, 특히 7세기 중엽 본격화된 삼국 간의 전쟁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라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전후 두 시기로 나뉜다. 이는 신라의 발전 과정에서 통일전쟁이 갖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뜻한다. 통일 이전을 삼국시대의 신라, 혹은 고古신라라 하고 이후를 통일신라라 불러 서로 구분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당대에는 신라 대신 따로 통일신라란 국호를 사용해서 구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통일신라는 어디까지나 근대역사학이 성립한 뒤 신라사를 새롭게 해석해 보려는 입장에서 편의상 마련한 용어이다. 그렇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이미 신라사의 전개를 통일기를 기점으로 해서 두 시기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가 보이기에 이는 오랜 연원을 가진 인식이라 하겠다.

역사학적으로는 대체로 통일신라의 개시 시점을 통일 전쟁을 완료한 문무왕대가 아니라 그것을 시작한 29대 무열왕이 즉위한 654년부터로 잡고 있다. 정치 지향이 무열왕 이전과 그 이후로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이 중요한 근거이다. 하지만, 문화면에서는 아무래도 통일의 과업이 완수된 676년부터로 볼 여지가 있다. 전쟁이 완료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그를 바탕으로 삼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융합을 이루는 가운데 특유의 통일신라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신라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하면 다시 두 시기로 나뉜다. 그 가운데 전기는 무열왕으로부터 36대 혜공왕惠恭王(765~780)까지의 8대 127년간이며, 후기는 37대 선덕왕宣德王(780~785)부터 말기까지의 20대 155년간이다. 이런 시기 구분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중대中代와 하대下代의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한 것이다.

중대와 하대의 존속 기간과 국왕 재위 기간을 대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중대는 국왕의 평균 재위 기간이 16년인 반면 하대는 7.2년에 지나지 않아 그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하대가 그만큼 정치적 변란이 빈번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 심히 불안정한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국왕의 재위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겠지만 전반적 흐름은 그렇게 보아도 그리 어긋나지 않는다.

통일신라의 전반부는 신라의 정치사회가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일이 가져다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기간이었다고 하겠다. 제반 문화적 양상에서 그런 점이 표출되고 있었다. 그래서 흔히 중대를 신라 천년 역사의 최고 절정기라고 간주한다. 반면 하대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쇠락의 길을 걸어간 시기로 평가된다. 그런 모습은 각종 분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정치와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걸맞게 생활문화도 저절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영토와 인구 등 외형이 적어도 몇 배나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선진의 고구려 및 백제 문화가 수용·융합되면서 커다란 변모를 겪었다. 게다가 신라는 군사동맹국인 당의 문물과 함께 그를 매개로 해서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 중앙아시아 및 아랍, 로마제국 권역의 문물까지도 적극 수용함으로써 그 문화는 질과 양 모두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 세계성, 국제성을 띠어 나갔다. 혜초慧超를 비롯한 다수의 신라 승려가 구법활동을 목적으로 불교의 발상지 인도까지 육로 또는 해로로 갔고, 신라의 국명이 거기까지 알려졌음을 고려하면 신라인의 대외 교역 및 교류 활동은 상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심지어는 아랍상인, 소그드인들이 신라까지 들어와 살았던 듯한 흔적도 보인다고 한다. 9세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교역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도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 그와 같은 오랜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던 것이다.

이처럼 통일기의 제반 문화와 일상생활의 수준은 뚜렷하게 향상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문화 향유층의 저변도 현저히 늘어났다. 그와 같은 실상은 각종의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실물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 왕경과 지방의 도시

신라에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중앙과 지방이 다르다. 중앙인 경주에서는 마립간기에 들어 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로 집중됨에 따라 그때부터 서서히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비왕대인 469년에 경도의 방리명을 정하고 487년 관도를 수리하였다는 기록은 그런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어느 정도 체계적인 가로 구획 등 본격적 도시계획이 실행된 시기는 6세기 중엽 경이다.

반면에 지방의 도시 등장은 이보다 한참 늦어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 9주 5소경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물론 9주 5소경이 완전히 새로운 땅에 설치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중심지들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을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잔적을 찾기가 어렵다. 9주의 주치와 5소경이 소재한 각지에서 거의 일시에 도시 계획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왕경의 도시구획과 경관

경주가 마립간기에 들어 왕경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분지 중심부로 인구가 밀집되어 나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궁궐이 자리 잡은 월성이었다. 왕도의 상징인 이 궁성은 문헌기록에 사로국 초기의 중심지로 거론된 남산 북서록 가까운 곳에 남천을 끼고 독특하게 평면이 반달인 모양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졌다. 이 궁성은 당시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무덤이 자리 잡을 그 북서쪽 묘역을 의식하고 현세 왕의 생활공간으로서 지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의 규모는 바깥 둘레 2,340m, 동서 길이 890m, 남북 너비 260m에 총 면적 193,845m^{2}이다. 이 월성과 더불어 대피 및 방어성으로서 기능한 명활산성(토성)과 남산토성, 도당산토성 등도 왕도의 주변에 지어졌다. 명활산성에는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해 실제로 왕이 10년 이상 기거하기도 하였다.

월성은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마치 반달 혹은 초승달 같아서 반월성이나 신월성新月城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안에서 '재성在城'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나와 이곳이 왕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벽 및 동문지, 외곽지역, 일반 건물터 및 굴립주 건물터, 해자 및 건물터 등을 발굴 조사하는 한편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월성 내부에 대한 지하 물리탐사를 실시한 후 최근에는 내부 발굴을 개시함으로써 왕궁 안팎의 모습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경주 월성 항공사진과 지하 물리탐사 유구배치도

아마도 마립간기의 개시와 더불어 돌과 흙을 이용해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월성에는 애초부터 수혈 해자가 둘러쳐지고 그 외곽을 따라 목책 같은 시설이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5세기 후반 경에 이 수혈 해자는 폐기되고 평면으로 볼 때 가볍게 굽이치는 듯한 북서 성벽을 따라 장방형 평면의 연못형 석축 해자 5개가 설치되었다. 한편 그 너머 성의 북서편에서는 5~7세기의 굴립주 건물터 23동이 확인되어 일찍부터 궁성 부근에 관아 혹은 군사 시설 같은 건물들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월성의 석축 해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세 차례에 걸쳐 축소 개축되었으며, 통일 직후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문무왕 19년(679)에 궁궐을 다시 수리하였고 동궁을 지었으며 궁궐 안팎의 여러 문 이름을 처음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왕경 곳곳에서 '의봉4년개토儀鳳四年皆土'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그 즈음에 왕경의 면모를 일신하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고 추정된다. 이때에는 월성의 석축 해자 위치 북편에 이제 초석을 가진 건물들이 성벽 방향과 나란하게 들어섰고 또 첨성대 남편과 계림 북편에 해당하는 곳에 종묘로 추정되는 건물 등 아주 많은 건물이 들어섰다. 그래서 그 즈음에 왕궁이 현재의 월지(안압지)와 그 서편의 건물군 그리고 동쪽의 동궁을 포함하는 지점까지 포함해서 아주 크게 확대되었다고 추정한다.

월지의 동쪽 및 동북쪽 접속지에서 총 26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 월지 동북편에 남북으로 정연하게 배치된 3동의 대형 건물지는 동궁의 중심부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의 왕경은 이런 왕궁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면서 발전하였을 것이다. 왕경이 일정한 단위들로 구획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구한말의 『증보문헌비

그림 2 확대된 왕궁의 최대 추정 범위

그림 3 경주 월지와 동궁지(사진 가운데 발굴 구역) 원경

고增補文獻備考』에서 경주지역에 신라 때의 정전井田 터가 남아있다고 한 데서도 추정할 수 있었다. 실제 발굴 결과도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도성 안이 대략 동서 및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들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방의 도로로 둘러싸인 각각의 공간은 기록에 나오는 방坊이라는 기본 단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들의 규모는 동일하지 않다. 황룡사지 동편 S1E1지구의 경우 도로의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남북 길이 172.5m, 동서 너비 167.5m인 반면 성동동 및 서부동 일대에서는 남북 길이 150m, 동서 길이 120m 정도이다. 또 방 네 개로 이루어진 황룡사지의 부지에서는 동서 및 남북 모두 약 140m로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해당 방들이 나타내는 시기 자체가 서로 다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별도로 도성의 방리구획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대릉원 일대에서 확인된 방의 중심축 방향이 북천 이북이나 남천과 낭산狼山 일대에서 확인되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전자의 동서도로 및 배수로의 각도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형상인데 이는 경주의 지형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서 그에 따라 자연 배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 도시

그림 4 추정 동궁지의 건물 기초

계획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도성의 방리구획이 개시된 시기는 대개 6세기 중엽경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완성을 본 시기는 8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6세기 중엽경에 월성 동북쪽에 황룡사를 지으면서 그 일대부터 본격적으로 직선적 도시 계획인 방제를 시행하기 시작해 7세기 전반까지 구황동, 인왕동 일대 등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7세기 전반에서 후반에는 황룡사 북편과 서부동 일대로, 그리고 8세기 이후로는 성건동과 동천동 일대로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본다. 문헌 기록에서 지증왕 10년(509) 동시東市를 둔 이래로 효소왕 4년(695)에 서시西市와 남시南市를 개설하였다는 것도 이런 확대의 방향성을 암시한다.

신라 왕경의 방들은 발굴 결과와 인공위성 사진, 지도 등으로 보건대 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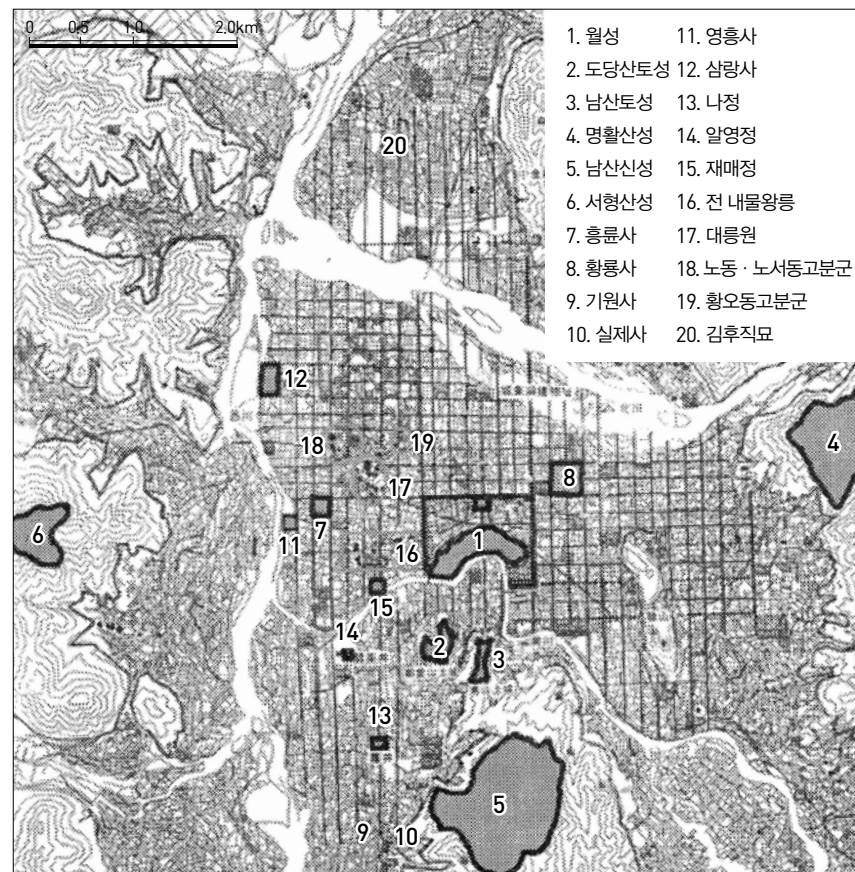
그림 5 신라 도성의 방리구획

전면에 분포함이 확인되며 북쪽으로는 황성동에서 용강동 일대의 북천 북안, 서남쪽으로는 포석정 부근, 동쪽으로는 명활산 부근, 동남쪽으로는 사천왕사지에서 망덕사지 부근까지이다. 이는 당시 당나라나 일본의 방리제가 바둑판처럼 엄격하게 규정된 범위 안의 시가 전역을 격자로 구획하고 또 이런 방들을 여럿 포괄하는 상위 단위들을 지녔던 사실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분포의 특징을 띤 이유는 물론 왕궁이 분지 남쪽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데다가 처음부터 일정한 계획 아래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왕경의 공간적 범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남북 3,075보, 동서 3,018보로 나오며 1,360방 혹은 360방, 그리고 35리 혹은 55리가 있었다고 하고, 또 신라 전성기에 178,936호가 있었다고 한다. 범위로 보아 남북 6km 내외, 동서 5.5km 내에서 도로유구들이 확인되고 있어 현 시가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월성에서 북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북천(일명 알천) 남안에서 확인된 성동동 전랑지가 문무왕대에 왕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시점을 전후한 유적으로서 문헌 기록에 나오는 북궁의 흔적이라면 그 즈음에 왕경의 범위가 일본이나 당처럼 바둑판 형태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이렇게 보려면 지금 그 북쪽이나 월성 이남에서 나타나는 방들은 그 이후 확대된 거주 구역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무왕 21년(681)에 '王欲新京城', 즉 왕이 경성을 새로이 만들려고 했다가 의상대사의 의견에 따라 그만두었다는 기록은 그와 같은 계획 아래 대대적으로 새로이 방리제를 적용하려 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 시내에서 서쪽으로 다소 떨어진 모량리에서 확인된 통일기의 방리구획 흔적은 6부 중 잠탁부에 속한 사람들의 거주 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들도 기록에 등장하는 '신라 전성시대의 1,360방'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방들은 사방으로 구획하는 도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간 왕경 내의 많은 유적에서 도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도로들은 기본적으로 통행용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거주지 분할의 기준, 즉 도시의 공

간을 일정한 단위로 분할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폭 15m 이상의 대형도로, 10m 내외의 중형 도로 그리고 5m 내외의 소형 도로라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황룡사지 옆의 S1E1지구의 경우 방坊의 남편 동서도로를 보면, 폭은 15m 내외이고 중앙 부분은 굵은 자갈로 바닥을 다졌으며 양 측면은 잔자갈이나 모래흙을 사용하였다. 도로면에서 발견된 경계석의 위치로 보아 당시에 도로 내부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로의 양편 가장자리에는 냇돌을 사용해 폭 1.4~1.45m의 배수구를 축조하였다. 반면 북편 동서도로는 폭이 5.5~7.5m 정도였고, 서편 남북도로는 서쪽에 위치한 황룡사와 경계선을 이루며 폭이 12m 내외였으며, 동편 남북도로는 폭이 약 5.5m 내외였다.

이런 도로들을 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교량 유구들도 발굴되었는데 모두 남천에서 확인되었다. 다리 자체는 남아 있지 않았고 그 교각과 부속 시설의 기초 부분들만 남아 있다. 8세기 문헌 기사에 나오는 춘양교(일명 일정교)와 월정교가 대표적이다. 이 다리들은 7세기 말에 확대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왕궁지구 내에 위치해 귀족층 전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교각의 기초를 평면 배 모양으로 만들어 물 흐름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다.

왕경 둘레에는 처음부터 방호용 혹은 대피용 성들이 지어졌다. 마립간기의 산성들은 모두 토성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이 공통되며 경주 분지 주변에서는 동쪽과 남쪽에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고기에 들어가면 명활산성(석성), 서형산성, 남산신성, 북형산성, 고허성 등이 축조되었다. 이들 중 북형산성을 제외하면 모두 석축성으로 산지에 지어진 대형 성곽들이다. 그리고 왕경에서 서쪽으로 다소 멀리 자리 잡은 부산성은 성 안에서 출토되는 토기 등으로 볼 때 늦어도 중고기에 처음 지어졌고, 663년(문무왕 3)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길이가 7.5km에 달하는 대규모 산성으로 이중성二重城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명활산성은 토성의 형태였다가 551년에 석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형산성은 서형산(선도산)의 중복을 두르고 있는 테뫼식 석성이다. 진평왕 15년(593)에 명활산성과 함께 개축되었다고 하므로 그 이전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그림 6 S1E1지구 남편 동서도로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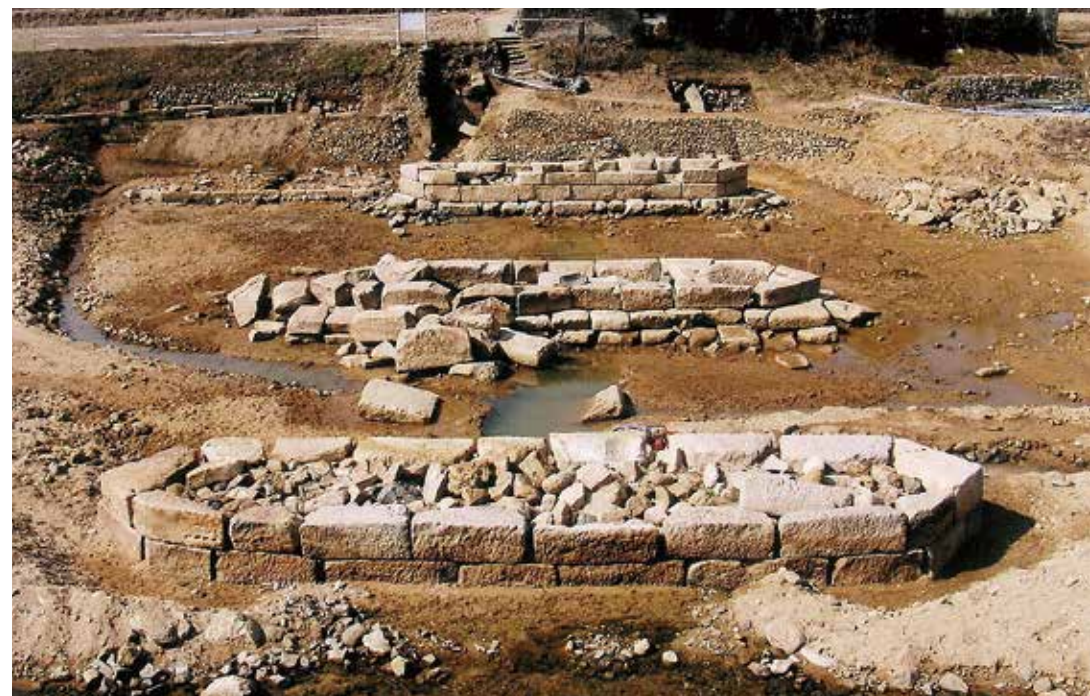
그림 7 경주 춘양교 교각 기초부

그림 8 경주 명활산성 문지 부근 발굴 모습

있다. 이는 진평왕 이전부터 명활산성과 함께 신라도성의 동쪽과 서쪽을 방어하는 성곽체계로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산신성은 남산의 북쪽 봉우리에 포곡식 형태로 쌓은 석성으로 기존의 남산토성을 대신해 축성된 것이다. 이는 월성 혹은 왕경의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한 시설이었다. 축성 시기는 진평왕 13년(591)인데 남산신성비(10점)의 명문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통일기에 들어서는 신대리성, 관문성이 축성되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축성된 성곽이 2개소에 불과한 것은 기왕에 축성한 북형산성, 남산신성, 명활산성, 서형산성 등이 여전히 도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대리성은 관문성의 동쪽 산 정상부에 별도로 축성된 석성이다. 개축의 흔적이 많아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은 동해안과 울산만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동해안으로 침입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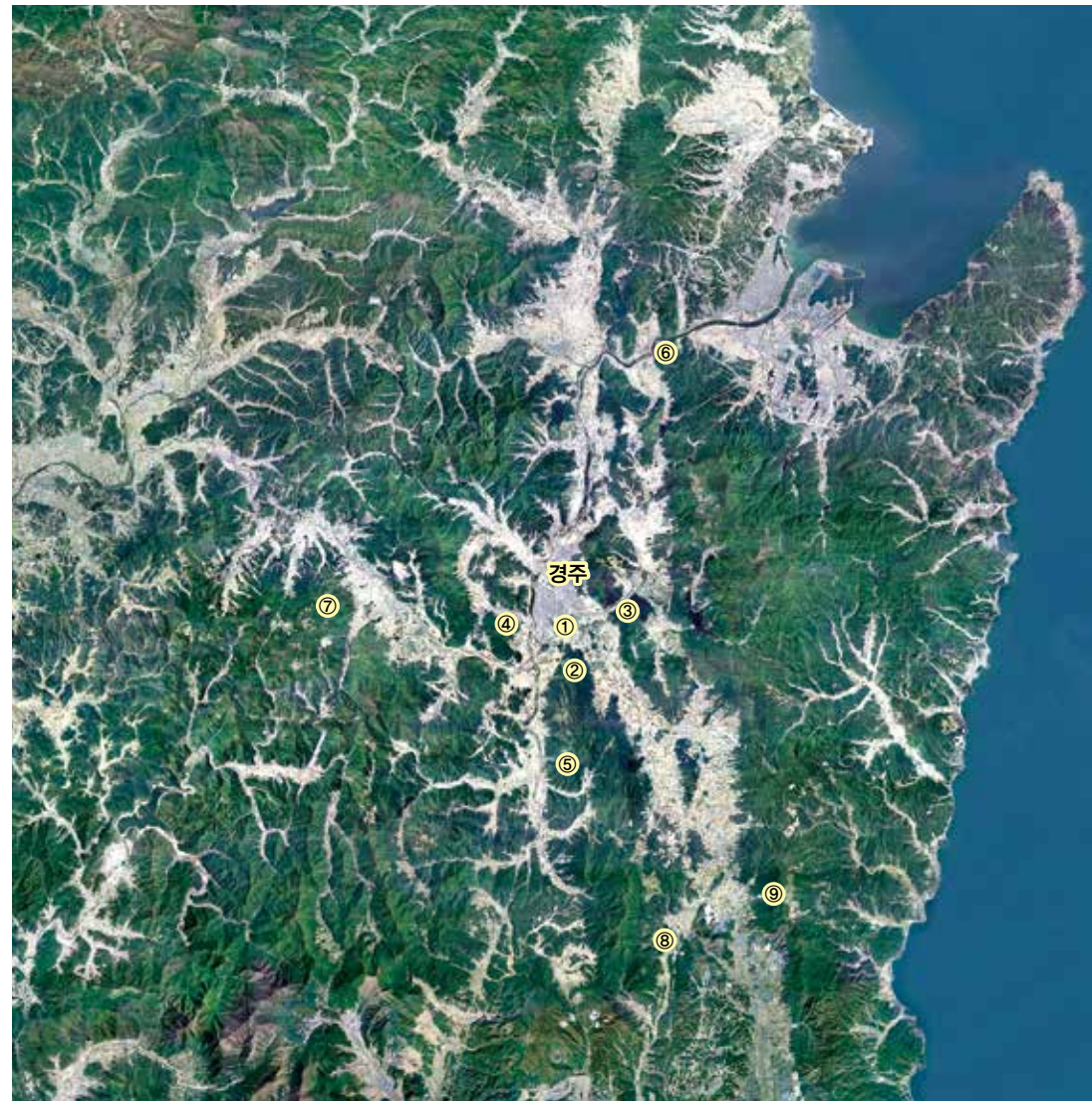
그림 9 왕경 부근 관방 시설(①왕궁, ②남산신성, ③명활산성, ④서형산성, ⑤고허산성, ⑥북형산성, ⑦부산성, ⑧관문성, ⑨신대리성)

본 세력으로부터 도성을 지키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하였다. 관문성보다 이른 7세기 후반 경에 축조된 이 성은 그 기능이 확대되어 관문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대리성의 성벽에서는 명문석이 10개 발견되어 축조에 사용된 척도尺度와 작업 분담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관문성은 성덕왕 21년(722) 10월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되었다. 이

성은 산과 산을 연결해 장성長城의 형태로 쌓아 다른 산성과는 형태상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성은 헌덕왕대에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군이 신라 왕경으로 들어오는 남동쪽을 방어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10 신대리성의 명문석 탁본

그림 11 경주 금장리 밭터 유적 세부

왕경은 인구가 집주하는 도시인만큼 그에다 생활물품을 생산 공급하는 배후지역이 있게 마련이다. 그 지역은 사로국 시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주변 곡간지역이었으며 이 지역들은 이제 왕기王畿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 지역 가운데 왕경에 인접한 지구들에는 수공업 전담 특수 촌락인 성成들이 존재하였다. 그런 성들이 운영한 토기 및 기와 생산 가마의 터들과 밭터 등이 왕경 바깥 동북편의 천북면이나 서북편의 금장리 그리고 동남편의 화곡리 등지에서 발굴되었다.

왕경 안에서 궁궐 지구를 빼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설은 물론 사찰들이었다. 기록에 나오는 황룡사 터와 분황사 터는 전면 발굴되었고, 홍륜

그림 12 경주 황룡사지 전경

그림 13 경주 용강동 원지유적

그림 14 경주 구황동 원지유적

사 터가 일부 조사되었다. 황룡사는 동서, 남북 각각 280여m 범위를 두른 담장 안에 유명한 9층목탑을 전면 가운데에 두고 그 뒤로 세 개의 금당이 나란히 자리 잡은 이른바 1탑3금당식 가람배치임이 밝혀졌다.

그 외에 경주 평지에서는 문헌에 나오는 사절유택四節遊宅이나 금입택金入宅 같은 대저택에 속한 원지苑池들이 발굴되었다. 용강동 원지와 구황동 원지가 대표적이다. 용강동 원지는 왕경의 도시구획 범위 바로 외곽인 북천 북쪽 평지에 위치한다. 남북으로 긴 전체 원지(길이 100m 이상으로 추정)의 반 정도만이 발굴되었다. 확인된 유구로 건물지, 석축열, 호안석축을 가진 인공섬 2개소(이를 포함한 전체 호안석축의 길이는 236m), 입수로, 물받이시설, 호안 내 조경석, 교각시설, 주변 도로, 도랑 등이 있다. 호안석축은 가공한 할석과 천석을 이용해 쌓았으며 곡선과 직선 부분을 섞어 자연미를 최대한 살렸다. 건물과 인공섬 사이에 목교를 설치해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압지와는 다른 점이다. 7세기 말경에 축조되었으며 8세기가 중심연대이다.

구황동 원지유적은 분황사 동쪽의 북천 남안에 위치한다. 연못, 입·배수로, ‘ㄹ’ 자형 수로, 육각형 건물지 등 각종 유구가 확인되었다. 시기는 크게 1차 연못, ‘ㄹ’ 자형 수로, 1차 축대, 육각형 건물지 등이 공존했던 시기와 2차 연못, 2차 축대, 집수정과 소형 배수로가 공존했던 시기로 나누어진다. 1차는 7세기 중반, 2차는 8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연못은 크기가 남북 46.3m, 호안석축 길이 192m로 안압지의 약 1/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내부에는 용강동 원지와 마찬가지로 2개의 인공섬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지방 도시의 구조

신라는 676년 당나라 군대가 철수함에 따라 통일전쟁을 끝내고서 곧이어 지방행정 조직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삼국시대의 신라·가야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벌주(상주), 삽량주(양주), 청주(강주), 백제에 해당하는 지역에 웅천주(웅주), 완산주(전주), 무진주(무주), 고구려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산주(한

그림 15 9주5소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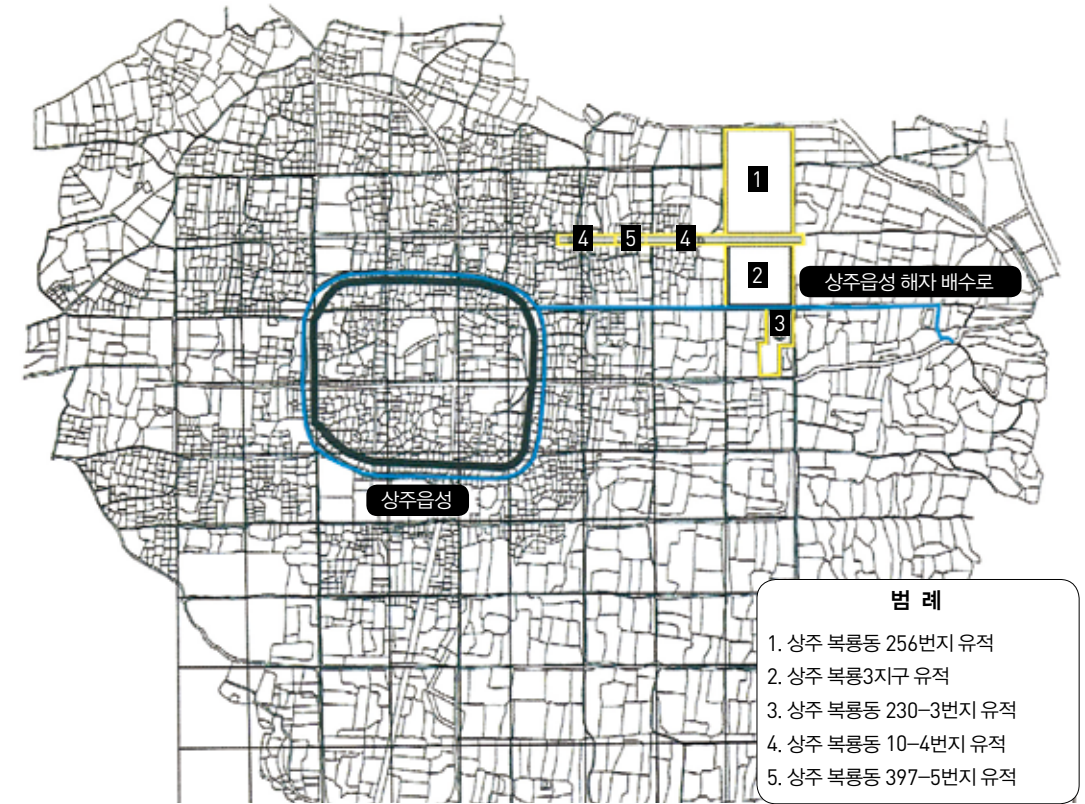
그림 16 사벌주 주치 도시구획 흔적

주), 우수주(삭주), 하서주(명주)로 3주씩 모두 9개 주를 두었고, 정치·문화적으로 중요시된 거점에 중원소경(중원경)·북원소경(북원경)·금관소경(금관경)·서원소경(서원경)·남원소경(남원경) 등 5소경을 배치하였다. 주와 소경의 치소에는 성을 축조하였다.

신라는 지방의 거점 지역들에 대해 왕경처럼 도시 계획을 실시해 방리제를 적용하였다. 인공위성 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서 간취되는 도로 구획 흔적들과 극히 일부 실시된 발굴 조사로 신라 당시에 계획적으로 적용된 도시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사벌주는 687년(신문왕 7) 무렵 그 주치에 방리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치는 현 상주시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이곳 복룡동에서는 통일신라시

대의 도시유적이 발굴되었다. 발굴조사 성과와 지적도 등으로 볼 때 사벌주의 도시구획 체계는 전체 범위를 9등분으로 대구획한 다음, 다시 그 안을 각각 9등분의 소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역의 단위를 '리'로 보고 소구역의 단위를 '방'으로 보면 남북 폭 약 1,440m, 동서 폭 약 1,400m의 평면에 9방×9방으로 구획되어 전체가 9리 81방으로 편제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처럼 지형이 바뀔 정도로 변형이 되기 전의 지도인 1913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이용해 방의 규모와 평면 형태를 보면, 중앙부의 1열에 속한 방들은 동서 약 120m, 남북 약 160m의 종장방형이고, 그 동서의 나머지 행·열 방들은 약 160m×160m로 정방형이다. 즉 동서 폭 120m인 단위구역을 중앙에 두고 그 동쪽과 서쪽으로 각기 한 변 160m인 4구역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상주의 중심부는 방리구획이 시행된 핵심구역과 그 주변부 및 그 배후의 주성인 자산산성이 어우러진 형태의 도시 공간구조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남원소경은 신문왕 5년(685)에 설치되었고, 신문왕 11년(691)에는 남원성을 쌓았다. 그 위치는 현 남원 시가지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향교동, 동충동, 도통동, 왕정동, 죽항동 일대이다. 이곳에는 도로와 구거로 구획된 정연한 격자형 토지구획과 조선시대 남원읍성의 형적이 나타나고 있다.

구획된 범위는 남북으로 약 1.12km, 동서로 약 1.36km로, 단위구획의 한 변 길이는 중앙부의 1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약 160m이다. 즉 중앙부의 1열에 속한 방들은 약 80m(동서)×약 160m(남북)의 종장방형이고, 나머지 방들은 약 160×160m로 정방형이다. 방리제 흔적이 잔존하는 동충동 용성초등학교 일대에 신문왕 11년(691)에 지어진 용성관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방리구획 범위 동쪽 외곽에 헌강왕 원년(875)에 창건되었다고 전해 오는 선원사, 서쪽 외곽에 고려시대 '만복사'가 있다. 또 조선시대 '남원읍성'이 방리구획선을 중심으로 하여 정방형으로 축조되었다. 이처럼 남원소경은 방리제가 시행된 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지역의 중심지로 이용되었고, 방리구획에 따라 격자형으로 설치된 도로는 후세의 읍성 축조 및 도로 조성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왕릉

사로국 시기의 경주지역 무덤 가운데 2세기 중반 이후의 목곽묘로서 탁월한 규모와 부장 양상을 나타내어 왕묘로 볼 만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세기 후반에 경주 서부에 축조된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시내 탑동 목관묘는 규모와 부장 유물이 같은 시기에 영남지방에 축조된 무덤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지만 둘 다 해당 읍락의 거수급 인물의 묘이지 사로국 전체를 대표한 왕의 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립간기에 접어들어 신라의 수도가 된 경주지역의 지배층은 시내로 집결해서 자신들의 무덤으로서 높고 큰 봉분을 가진 고총을 조영하였다. 현재 시내 평지 중심부의 고분군과 금척리고분군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마립간의 왕

그림 17 경주 탑동 목관묘

릉은 시내의 중심부 고총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서쪽 금척리에 따로 군집한 고총군은 6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잠탁부의 무덤으로 여겨지므로 왕릉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시기의 왕인 마립간은 6부 가운데 유력한 부인 탁부喙部와 사탁부沙喙部의 장이 맡았기 때문이다.

시내 중심부에 축조된 무덤들의 군집 양상으로 보면 유력한 부였던 탁부와 사탁부의 무덤은 대릉원 지역과 그 북쪽 노동동 및 노서동에 군집 분포한 무덤들〈그림 18〉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 무덤들 가운데 마립간 시기 왕릉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마립간기 왕릉의 요건은 현재의 발굴 성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간 금제의 산山자형 입식 대관이 출토된 무덤들을 주목하고 이 가운데 일부

그림 18 경주 금관 출토 고분 (① 황남대총북분, ② 천마총, ③ 금관총, ④ 서봉총, ⑤ 금령총)

를 마립간기의 나물왕, 실성왕, 눌지왕, 자비왕, 소지왕, 지증왕의 능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나왔다. 그러나 금관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왕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대형분들 가운데 그간 금관이 나온 무덤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천마총보다 규모가 큰 고분이 9기나 있다.

표 1. 경주의 대형 고총 크기

고분 번호(이름)	지름(m)	고분 번호(이름)	지름(m)
125호(봉황대)	82.3	119호(서분)	53.7
98호(황남대총 남분)	76.0	119호(중분)	48.9
98호(황남대총 북분)	76.0	119호(동분)	42.3
130호(서봉황대)	74.6	99호	51.2
90호(북분)	56.5	105호	51.0
90호(남분)	54.3	155호(천마총)	49.6
106호(전미추왕릉)	56.1	129호(북 서봉총)	46.1
134호(북분)	54.1	97호(서분)	45.5
134호(남분)	44.0	97호(동분)	38.0

무덤의 크기를 왕릉의 제일 기준으로 삼을 때 발굴된 98호분에서 왕릉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를 얻는다. 즉 대형분으로서 쌍분인 무덤은 그 안에 왕릉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역으로 왕비의 능이 왕의 능과 쌍분으로 조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무덤이 반드시 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쌍분인 90호와 134호분이 왕릉을 포함한 고분으로 유력하다. 이외에 단독분으로서 가장 큰 125호분과 130호분은 왕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크기 이외에 왕릉을 판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남성의 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총 주인공의 성별을 추정하는 주요 기준은 착용 귀걸이의 형식이다. 세환이식이면 남성, 태환이식이면 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금관총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의 수습 조사라서 불확실하지만 태환이식을 작용한 것으로 보고된 점과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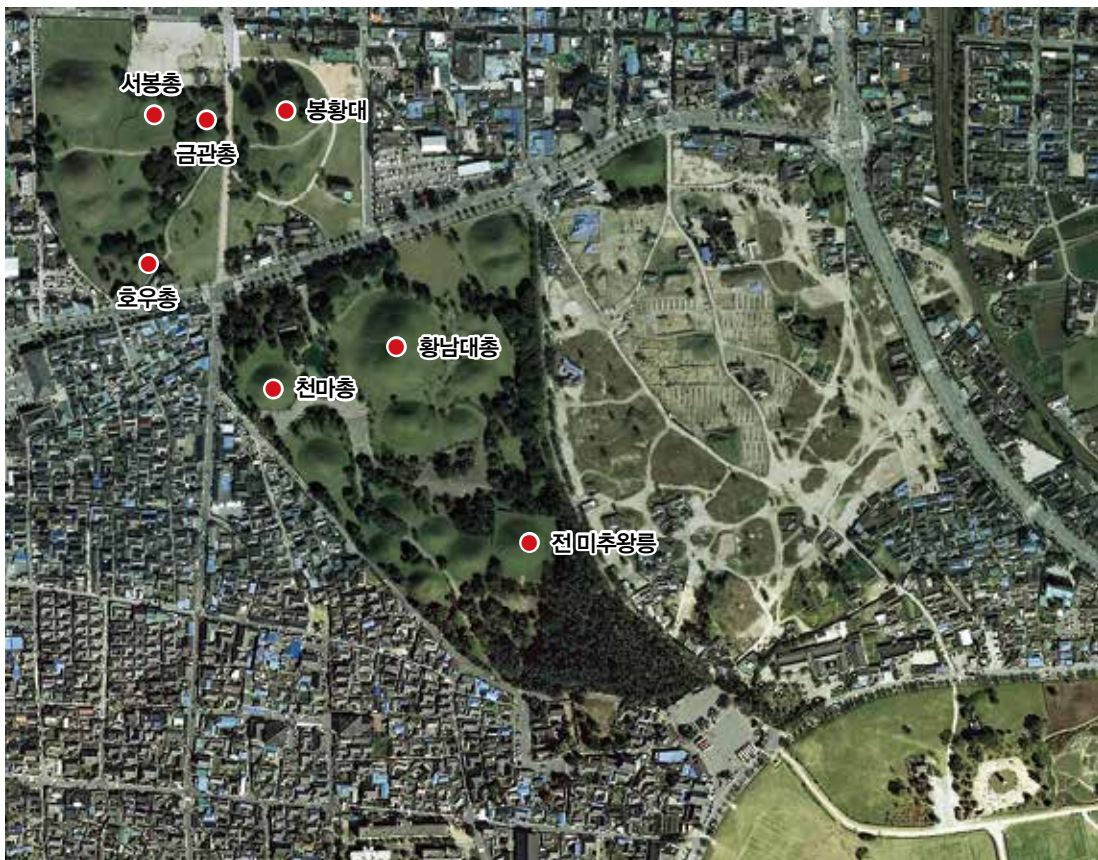
그림 19 대릉원 일대 고분군 분포도

또 지금까지의 발굴 예로 보건대 금관이 생시에 사용한 의례용 관이든 장례전용 관이든 그것이 출토되는 무덤은 왕릉 후보로 볼 수 있다. 다만, 98호(황남대총) 쌍분의 남분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데다가 부인의 무덤인 북분에서 금관이 나온 점을 보건대 왕릉임에 틀림없다고 해야 할 터인데 예외적으로 금관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남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나물왕이나 눌지왕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이외에 실성왕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마립간기 무덤들의 분포에서 왕릉들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다른 무덤들과 더불어 한데 뒤섞여 있다. 즉 같은 부에 속했을 왕족 등 여타 유력자들과 동일한 묘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바로 마립간기의 왕이 초월적 존재가

그림 20 경주 서악동고분군(오른쪽 나무들로 둘러싸인 것이 무열왕릉)

아니라 아직까지 자신의 소속 부를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던 사정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고기에 들어 왕은 소속 부를 대표하는 부장으로서의 위상을 뛰어넘어 6부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대왕을 칭하였다. 또 왕의 장지가 영경사 북쪽 등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의 무덤은 기왕의 경주 시내 평지를 떠나 주변 산지 곳곳으로 옮겨간다. 그런 고분군들의 대표적 예로 중대의 첫 왕인 무열왕의 능 뒤에 일렬로 늘어선 무덤들이 있다.

무열왕릉에 가장 가까운 고분(4호분)은 호석 기준의 추정 지름이 62.9m나 되고 봉분의 평면 형태도 후대의 횡혈식석실분처럼 원형이 아니라 마립간기의 무덤들과 같은 타원형이어서 내부 구조가 적석목곽묘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 위의 3호분, 2호분, 1호분은 각각 지름 50.3m, 46.2m, 46.0m이다. 이들은 규모나 정황으로 보건대 왕릉급 무덤들임에 틀림없다. 4호분이 가장 먼저 축조된 법흥왕릉이고 나머지 3기 중에 진흥왕릉과 진지왕릉이 포함되어 있을

그림 21 경주 무열왕릉 귀부와 이수

그림 22 경주 흥덕왕릉 십이지상 중 말상

것이라 여겨진다.

진평왕의 능과 진덕여왕의 능은 그 위치가 유독 각기 한지부와 사량부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단 평지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선덕여왕의 능은 사천왕사 북쪽 낭산 남록에 있는 단독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고기의 왕릉은 초월적 존재로서 격상된 왕의 위상에 걸맞게 여타 귀족들의 무덤과 따로 떨어져 군을 이루고 조영되다가 각각이 점차 독립해 나가는 모습을 띤다. 이는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측면이다.

중대의 출발점에 선 무열왕의 능은 능비의 이수螭首에 새겨진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는 제액으로 무덤의 주인공과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드문 예이다. 이 능비는 훌륭한 조각 솜씨로 주목되거니와 당나라에서 도입한 능비 문화의 개시를 알리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중대 및 하대의 여러 왕릉으로 전하는 것들은 경주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분지 주변부에 퍼져 분포하고 있다.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18세기 전반에 경주의 씨족에 의해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라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민애왕릉이라 전해지던 왕릉급 무덤은 이 무덤을 축조하면서 그 후면에 생긴 언

그림 23 경주 원성왕릉(괘릉) 앞의 석물들

덕 절토면에다 설치한 한 화장묘가 원화 10년(815)명 장골기를 쓰고 있어 839년에 사망한 민애왕의 능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 확실한 왕릉은 무열왕릉 이외에 역시 능비에 의해 확인이 된 흥덕왕(826~836)의 능과 숭복사 비문에 의해 추정이 되는 원성왕(785~798)의 능(괘릉) 정도이다.

중대 및 하대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12지상이 부조로 조각된 호석을 두르고 난간을 갖추었으며 능 앞에는 석인상과 사자상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왕릉으로서 가장 완비된 형태이다. 왕릉 호석의 출발점은 괴석塊石으로 단을 지어 쌓고 지지석을 기대어 놓은 무열왕릉이다. 그 이후 치석을 한 장방형 돌로 쌓고 역시 다듬은 돌을 기대어 놓은 신문왕릉 같은 형식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판석으로 짜 맞춘 형태로 바뀌고 다시 그에다 십이지를 새기는 식으로 발전했다. 12지상을 새기기 직전에 판석으로 된 호석을 두르고 둘레에 12지 환조 조각상을 따로 배치한 무덤이 있는데 성덕왕(702~737)의 능으로 추정된다. 조각 자체는 능이 만들어지고 다소 시간이 흐른 경덕왕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12지상의 기원은 중국에 있다. 수나라에서 처음 12방위를 나타내는 소(북),

그림 24 경주 신문왕릉

그림 25 경주 출토 십이지명 골호

토끼(동), 말(남), 닭(서) 등 각종 짐승의 얼굴에 사람 몸을 한 형태를 흙으로 빚어 구운 작은 상들을 만들어 무덤 속에 넣어 주던 풍습이 당나라에도 이어졌다. 신라는 이러한 풍습을 받아들였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왕릉의 호석에 12지를 새긴 것이다. 한편 채색 토용이 출토되어 유명한 용강동석실분에는 12지 청동상을 만들어 넣었고, 화곡리화장묘에는 납작한 토제 십이지상을 골호 둘레에 배치하였다. 또 장골기의 뚜껑에 십이지 명문을 새긴다든지 철제 저울추에도 주조하는 등 갖가지 기물에다 다양한 방식으로 12지상을 적용하였다. 이는 당시 신라사회에 일종의 12지 신앙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무덤 호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을 보면 갑옷을 입은 예가 있고 그냥 평복을 입은 예가 있다. 중국에서는 무덤 안에 매납되었던 십이지 토용상이 신라에서는 무덤 밖 호석에 무기를 든 모습으로 배치된 점은 시간 영속성의 기원祈願이라는 십이지상 본래의 의미에 불교의 신장상과 같은 수호 역할의 기원이 부가된 것이다. 왕릉에 배치된 사자상 등 나머지 조각들도 기본적 역할은 왕릉의 수호에 있다. 이와 같이 왕릉 호석의 12지상은 왕릉 조각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외래문화를 수용해 자신만의 것으로 변용한 신라문화의 창조성을 또한 잘 대변한다.

3 종교와 제의

신라시대에는 불교 이외에 도교, 유교가 들어와 있었다. 유교는 사상의 측면이 강해서 종교로서 신앙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도교 또한 체제를 갖춘 구체적 종교로서 기능한 바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편 종교로서의 불교와 그것을 수용하기 이전부터 전승된 종교 전통인 토착종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제의를 다루기로 한다.

토착종교

어떤 사회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설명체계, 즉 세계관 혹은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찍부터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살았으며 나중에 신라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역시 나름의 종교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종교 전통은 초기 신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였으며, 국가사회의 성장과 함께 변화를 겪었다. 외래 종교로서 불교라는 보편 종교가 수용됨에 따라 토착적 종교 전통은 한편으로는 외래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전승의

층위를 달리하면서 변화하였다.

고대 한국 토착종교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룬 것은 샤머니즘의 전통이다. 샤머니즘은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문화 현상을 말한다. 샤먼은 고대 중국에서 무巫라 표기하였다. 샤먼은 탈혼脫魂이나 빙령憑靈 등을 통한 의식의 전환 상태에서 다른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 전문가의 한 형태이다. 샤머니즘은 바로 이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시각과 설명에서 나온 종교문화였다.

사람들은 샤먼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영혼 여행을 통해 다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이들은 인간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은 신라를 포함한 고대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초기국가 단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구사하는 데서 무巫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중시되었다. 왕호를 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차차웅'이라 한 2대 남해왕의 예에서 보듯이 신라의 초기 왕들은 무적 능력의 소유자로 인식되었고 그런 능력의 발휘를 기대하였던 흔적을 보이는 자료들이 많은 점은 그를 뒷받침한다.

신라인의 토착적 종교 관념에 관련해서는 우선 세계의 존재 및 구조에 대한 인식과 그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군신화와 그 이후 만주 및 한반도의 고대신화들을 볼 때 신라인을 포함한 고대 한국인들은 이 세계는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동식물의 자연세계와 신의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인간의 행복은 이런 여러 세계와의 교류와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세계관을 지녔다. 이러한 세계관은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상통한다.

신라인들은 신들의 세계인 천상세계와 원초적 풍요와 재생의 근원이며 죽은 자들의 세계이기도 한 지하세계라는 수직적 세계와 지상 저편의 어떤 곳인 수평적 세계를 상정하는 공간적 세계관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또 소멸과 재생을 반복하는 달과 관련된 여러 상징과 그와 관련된 시간관 또한 지니고 있었다.

신라인들은 여타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았고, 육체가 소멸한 이후에도 영혼은 타계에서 그 존재를 이어감을 믿었다. 또 육체는 물질적 특성을 갖는 육체혼과 육체를 떠나 다른 세계로 가는 자유혼이라는 관념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죽은 자를 처리하는 데 다양한 실천을 하였다.

신라인들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신의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하늘에 대한 관념과 신앙이 중요하였다. 천신을 지고신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대표자인 군주의 권위를 천신과의 관련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때 신라인들은 지고한 하늘의 권능이 지상에서 인간, 특히 시조신을 통해 구현된다고 생각했기에 천신과 시조신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 미분화된 신 관념을 지녔다. 인격적 신성에 대한 관념은 망자 내지 조상에 대한 관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신라인들은 시조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신성성을 부여했다.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사후에도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각 지역의 수호와 연관된 산신들은 신라의 통치체제에서 지역 집단의 편제라는 문제와 맞물려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신라인들은 사회의 생산과 풍요에 관해 여러 신에게 그 책임을 부여했는데, 선사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여성의 풍요성과 물의 생산성에 대한 관념은 여신과 수신水神의 역할로 이어졌다.

신라인들은 이런 관념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교적 의례를 거행하였다. 신라인의 의례체계는 산악제사, 우물제사, 물가제사, 농경의례, 바다제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물제사를 보면 신라인들에게 우물은 왕권과 관련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물가에서 즉위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에 물에 의한 정화의식도 거행되었다. 또 바다에서의 생산활동이나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 풍어와 항해를 관장하는 신에 대한 제사인 바다제사도 활발히 거행되었다.

우물제사와 관련해서는 경주박물관 연결통로 부지에서 확인된 우물이 주목된다. 우물의 깊이는 10m가 넘으며 8.5m 아래에서 약 10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뼈 1구를 비롯하여 개·고양이·소·멧돼지·사슴·고라니·말 등의 동물류, 까마귀·오리·꿩 등의 조류, 고등어·도미·민어 등의 생선류, 뱀 이외

그림 26 경주박물관 연결통로 부지 우물

에 두레박, 인화문토기, 기와가 출토되었다. 특히 '남궁지인南宮之印'이 새겨진 기와는 이 인근 지역이 월성의 남궁이며, 우물제사의 주체가 왕권과 관계될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였다. 각종 동물 뼈와 함께 확인된 어린아이의 뼈는 단순 익사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동물, 토기와 함께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제의

인류의 초기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과 공공의례가 공동체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는 특히 고대국가로 자리를 잡은 이후로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그간 여러 차원에서 거행한 다양한 종교의례와 그것들을 뒷받침해준 종교적 관념들을 체계화하거나 통합해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그런 작업을 진행해 여러 수준의 종교의례를 정치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편제하여 대·중·소사祀 체계를 골자로 한 국가 차원의 사전祀典을 완성하였다.

신라에서도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국가제의의 일률적 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지증왕 때에 일차적으로 사전을 정비하였다. 중고기에 들어와 새로운 지배체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줄 예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또 한 차례 국가 사전을 정비하였다. 이후 신라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중대 말 혜공왕대의 종묘 개편과 하대 초 선덕왕대의 사직단 설치로 대표되는 세 번째 사전 정비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비된 신라 국가제의의 자세한 사항은 『삼국사기』의 제사지에 개략적으로 정리된 것이 남아있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제사지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시조를 포함한 조상제사, 농경의례, 산천제사, 왕경에서의 기복적·민속적 의례들을 왕실과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의로 편제하였다. 이는 이런 종교의례와 그 배경이 되는 종교 관념이 신라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국가 시조에 대한 제사는 상징적 국가 및 현실적 왕실의 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제의로 여겨지고 거행되었다. 신라의 지배세력이 출자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한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었기에 그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국가적 차원의 관념적 시조신에 대한 특별한 의례가 필요했던 것이다.

신라의 시조묘 제사가 행해지던 장소는 나정이었다. 기록 속에서 나정은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가 태어난 장소로 나온다. 나정을 발굴 조사한 결과 사로국 시기 이후 7세기 말까지 세 시기에 걸쳐 설치된 유구들이 중첩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6세기 후반에 설치된 2차 유구는 문무왕대에 축조된 3차 유구인 특이한 팔각건물지로 이어짐이 밝혀졌다. 이 팔각건물지는 화강암을 다듬어 이중기단을 만들었으며 외곽으로 담장이 있고 남쪽의 출입구에는 회랑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시설은 국가의 제사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왕실세력이 공고화되면서 그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며 여타 지배귀족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왕실의 직계혈통에 대한 제사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기 이후 왕실 직계혈통에 대한 제사가 여러 형식으로 시도되다가 통일 직후 당의 종묘제도를 수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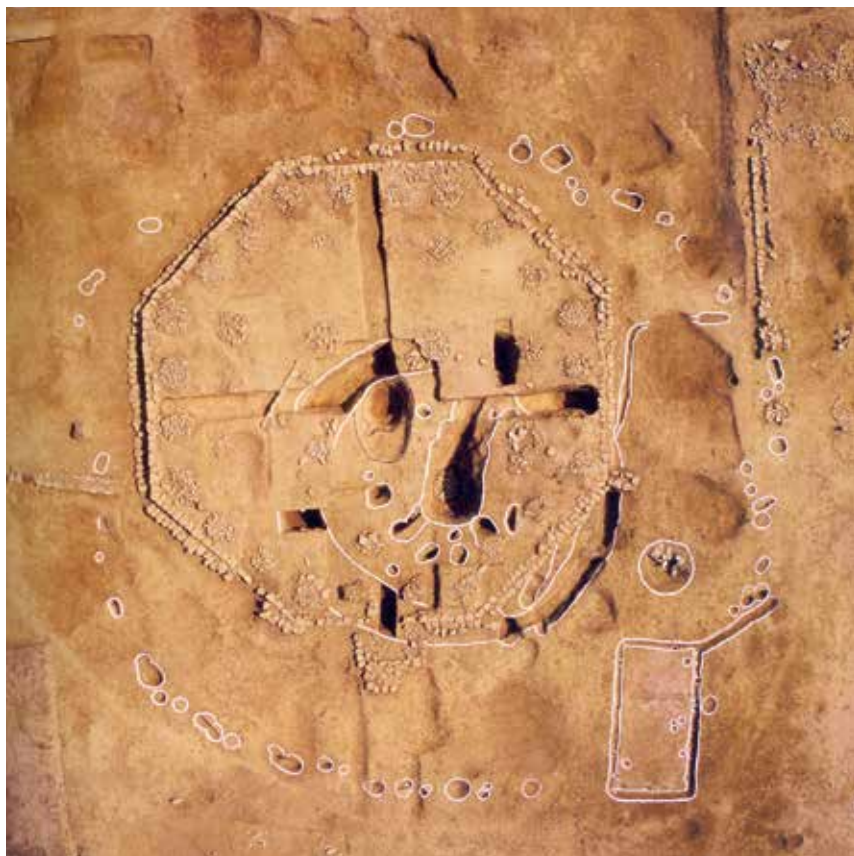
그림 27 경주 나정 발굴 전경

한층 권위적이며 고도의 형식성을 갖춘 종묘제사를 거행하였다.

신라 종묘의 자리는 첨성대 남쪽이자 계림 북편의 황남동123-2번지유적이 유력하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왕경의 중심지인 월성에 근접해 있고 적심 직경이 1m 내외의 대형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정관아 건물과는 다른 건물 배치 및 초석 배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그 위치는 월성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북이 아닌 서북쪽으로 좌측에 해당한다. 북위의 낙양 도성제와 당 장안성의 도성제를 참고로 할 때 태묘, 즉 종묘는 좌측에 위치한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농경국가였던 신라에서 농사의 풍요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존립 요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토착적 농경의례에다 형식적이며 상징

그림 28 경주 첨성대 남쪽 황남동123-2번지 건물지

적인 세련미를 내포한 중국식 농경의례를 가미해 다양한 농경의례들을 거행하였다. 한편 왕경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수호신을 제사하는 명산대천제사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완성해나가면서 등급을 매겨 대·중·소사로 편제하였다. 이는 신라 중앙정부에서 제사를 매개로 각 지역 집단을 그 세력의 대소에 따라 편제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군현제의 정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불교

왕권 중심의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던 삼국은 당시 고도의 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던 불교에 대해 왕실을 중심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국가 발전의 디딤돌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4세기 삼국에 수용된 불교는 인도의 불교

가 중국에 들어가 중국 문화와 교섭하는 가운데 정착된 중국 불교였다. 삼국 불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해되고 수용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 거의 동시에 남북조 불교를 수용하였다. 신라는 이보다 한참 늦어 528년(법흥왕 15)에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의 주도 아래 불교가 공인되었다.

중고기의 불교

법흥왕은 율령을 공포하고 지방제도와 중앙 통치 조직을 개편해 집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념 체계로서 보편종교인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는 이 시기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가 정신의 확립에 기여하고 강화된 왕권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힘이 되었다. 또 불교와 더불어 중국의 제반 문화 현상이 폭넓게 전수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달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불교의 정착으로 정법에 따라 세상을 통일하고 선정을 펼친다는 전륜성왕이 이상적 군주로 여겨지면서 종래에 하늘의 권위를 빌던 성왕 관념을 대신하였다. 그리하여 왕명과 이름도 불교식 이름을 썼다. 법흥왕과 진흥왕은 일시적으로 출가하는 사신捨身을 행하였고, 만년에는 정식 출가를 하기도 하였다. 진흥왕은 영역을 순수할 때 승려를 대동하였으며, 백고좌강회, 팔관회를 열기도 하였다. 진평왕대에는 불교가 신라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중국 유학승인 원광이 활약을 하였고 안함 등을 중국으로 파견해 중국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이때였다.

원광은 남조의 진나라와 수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유교적 도덕을 권장하는 세속오계를 제정해 당시 신라사회에서 요구되던 윤리관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황룡사에서 열린 백고좌법회에 상수上首로서 참여하였다. 백고좌법회는 외적이 침탈하며 화재나 홍수가 일어나는 등의 국난 상황으로부터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100명의 법사를 초청해 반야바라밀을 강론한 행사였다. 원광은 국왕에서 지방의 하층민에 이르는 전 계층의 신라인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자장은 선덕여왕대에 당에 유학해 신라와 당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기여

하였으며 대장경을 가지고 돌아와 신라 불교 교학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는 불교계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 승려들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지켜야 할 계율을 숙지하게 하였다. 자장은 특히 신라가 불보살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신라불국토설을 전개하였다. 왕실의 권위 강화와 외침 저지의 목적으로 건립된 황룡사 구층탑은 이 신라불국토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신라 왕경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자 나라 사람들의 출가가 허용되었다. 또 유학승들이 중국을 오가는 등 직접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찰과 탑이 조성되었다. 불국토 관념에 따라 과거불 시대의 7처 가람터에 절을 건립하는 등 수많은 사찰을 조성하여 왕경의 도처가 불국정토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7처 가람은 흥륜사, 담엄사,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사천왕사로서 신라 왕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기왕의 무교 성소로 알려진 곳에 창건된 절들로서 신라 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위치 또한 도성의 구획과 방위에서 중요한 곳들이었다.

중대의 불교

중대에 들어가면 교학이 융성하면서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원광, 자장 등의 섭론攝論사상과 보덕 등의 일승一乘사상, 혜공 등의 반야공관般若空觀이 다양한 교학을 성숙시킴으로써 종교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졌다. 이런 사상적 추구와 더불어 신앙과 실천의 종교 운동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신라 불교 사상의 정화는 원효에게서 찾을 수 있다. 원효 사상의 제일 큰 특징은 화쟁和諍사상이다. 이는 불교적 논쟁을 화해시킨다는 뜻이다. 원효는 『화엄경소』에서 보편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정치한 사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신라 불교철학을 확립하였다. 또 그는 교학연구와 더불어 중생제도를 강조하였으며, 직접 생산 담당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화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많은 일반민을 불교도로 교화시켰다.

원측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던 구유식과 신유식 사이의 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화쟁적 유식사상을 제시하였다. 그의 유식사상

은 도증과 대현에게 계승되었다. 또 경흥 등 다른 경향의 유식사상가들도 대거 등장함으로써 유식사상은 7세기 후반 신라 불교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유식사상계는 미륵과 아미타를 신앙하는 대현계와 미륵과 지장을 신앙하는 진표계로 크게 나뉘었다.

의상은 화엄사상을 선도하였다. 화엄은 종래의 여러 사상을 종합함으로써 최고의 원만한 가르침[圓敎]을 강조한 사상이다. 그는 중생이 중도의 구도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대로 성불한다는 본래성불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의 화엄사상은 평등한 교단 운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안정의 기틀이 되었다. 제자들이 스승의 강의를 기록해 강의기로 엮어냄으로써 학설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교학 진전에 디딤돌이 되었다. 화엄 교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십대제자이고, 이들의 후예가 전국 곳곳의 요지에 건립한 것이 화엄사, 부석사, 해인사 등 화엄십찰이다.

신라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밀교이다. 중고기에 도입된 초기 밀교는 재난을 없애고 복을 가져오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해결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밀교는 치병을 통해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 『약사경』이 활용되었다. 중대 이후의 중기 밀교는 초기 밀교를 토양으로 삼되 성불이라는 불교의 궁극 목적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신라 밀교는 원광이나 안홍, 밀본 등을 원조로 해서 전개되었으며 이후 호국밀교계와 제병밀교계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성덕왕대 이래로는 추복을 위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탑내 안치가 확산되었다.

7세기 전반에 오면 석불과 사찰이 많이 조성되었다. 이는 절에 시주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사찰에 대한 국가와 왕실 및 귀족들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은 사찰을 유지 운영하는 큰 토대였다. 그리하여 승려들의 수가 많아지고 대중교화가 활발해질수록 국가가 불교 교단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승려들의 출가에 일정한 형식이 마련되었고, 개인이 재화를 시주해서 절을 짓거나 불상 등을 봉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였다.

이런 일을 맡은 기구가 승정기구이다. 6세기 중엽에 국통, 도유나, 대서성 등의 중앙 승관직이 설치되기 시작해 7세기 중엽에는 지방 승관직인 주통·군통이 설치되었고, 불교계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실무 관원이 출현하였다. 785년에 정관이 성립되어 실무 관원을 승려로 충원하면서 비로소 승관제가 정착되었다. 국통은 불교 교단의 상징적 대표자였고, 도유나는 신라사회에 선진 문화를 전달한 기술 담당자였으며, 주통은 지방에 불사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성전은 성전사원의 유지와 전장과 노비의 관리를 수행하였다. 성전사원은 불교계에 대한 통제 기능과 왕실의 원당이라는 봉사 기능을 가진 기구였다.

불교 의례로는 정기적 의례로 매일 행하는 일상적 의례와 매년 일정한 때에 거행하는 연례 의례가 있었다. 전자로는 하루 여섯 번 행하는 예불[六時禮懺]이 있고, 후자로는 강경 법회와 연등회, 팔관회 등이 있었다. 팔관회는 처음에는 전사자를 위로하는 성격이었으나 선덕여왕대 이후로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의례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축제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연등회는 등불을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으로, 전통적 종교 의례와 조상 숭배 행사가 불교 의례의 성격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7세기 중반 즈음에 백제와 신라에서 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성된 데서 보듯이 중대에는 귀족과 일반민이 모두 미륵을 신앙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불교가 대중화되어 일반민들에게까지 수용된 결과였다. 신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자 미타신앙과 관음신앙도 유행하였다. 미타신앙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염송하면 죽은 뒤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내세신앙이다. 중대에는 승려들의 경전 연구 및 고취에 힘입어 아미타신앙이 더욱 성행하면서 사후 추선과 현세 왕생을 중심으로 폭넓게 전개되었다. 관음신앙은 국가의 안녕을 빌고 개인의 현세 이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현실 구제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미타정토 왕생과 연결된 내세적 경향도 지녀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신앙의 하나였다.

하대의 불교

9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사회는 중앙에서 귀족의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 세력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는 변혁을 맞이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신라사회의 지도이념이던 화엄과 유식 중심의 교종 불교는 새롭게 등장한 선종에게 그 지도력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경전에 대한 이해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에 비해 선종은 구경의 목표로 이끌어주는 방편인 문자를 넘어선 선禪의 구체적 실천 수행을 통해 직접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 불교이다. 이는 기존의 교종 체제를 부정하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신라사회의 변화 요구에 상응하는 불교계의 근본적 개혁 요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신라에는 헌덕왕과 흥덕왕대에 도의, 홍척 등이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남종선이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선종은 모든 사람에게 성불의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왕실 불교의 권위를 축소시켰다. 도의는 왕경에서 호응을 얻지 못해 설악산에 은거하고 말았지만 홍척은 왕실의 지원을 받아 실상산문을 개창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남종선을 전해 와서 신라에서 독자의 산문을 개창한 것이 구산선문九山禪門이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성립된 구산선문은 최초의 선종 산문인 가지산문을 비롯하여 실상산문, 사굴산문, 동리산문, 성주산문, 사자산문, 희양산문, 봉림산문, 수미산문의 9개 산문을 말한다. 이 산문들은 신라 말 고려 초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선종의 풍미와 함께 문화도 바뀌었다. 선승들의 차 문화가 왕실이나 진골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선종 사원에서는 철불을 주로 조성하였다. 불상 제작에 필요한 구리가 부족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철을 이용한 때문이었다. 이 철불들 대부분은 비로자나불이었다. 비로자나불은 본래 화엄의 주불인데 선종에서 주조한 것은 그들의 유래가 화엄종과 연관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의 제자들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조사의 승탑과 탑비를 화려하게 제작하고 건립함으로써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문파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선종의 풍미와 함께 선승들에 의해 풍수지리설이 크게 성행하였다. 풍수는 땅의 기를 살펴 땅의 성격을 읽어내고, 땅과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유

그림 29 장흥 보림사 전경

지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선승들은 새롭게 자리 잡은 자신의 산문을 각기 신라 제일의 승지로 자처하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단 세력을 확립하고 교화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지방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구산선문의 각 사찰은 산과 물이 짜임새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풍수지리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하대 선종의 성행은 교종 교단에 큰 자극이 되었다. 화엄 교단은 신라 화엄의 사상 전통을 확인하고 조사들을 추모하며 쓸모없는 해석에 얽매인 교학의 문제점을 자체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조사 숭배 신앙과 결사운동으로 신앙을 정비해 대응하고자 하였다. 한편 하대의 승정은 정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정법전의 승려는 국왕의 측근에서 불교계의 일을 맡는 승관으로서, 사찰에 관련된 토지를 조정하거나 국가나 왕실에서 일으킨 불사의 조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중앙 승관은 국통·도유나랑·대도유나·대서성·소년서성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승관은 주통 9인과 군통 18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라불교의 대외교류

신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불교는 구법승들의 활동에 의해 크게 번성했는데,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포함한 서역과 중국이 주요 구법 대상지였다. 신라의 구법승들은 7세기 전반부터 천축, 즉 인도의 여러 성지를 순례했으며 날란다대학에 유학하기도 했다. 당의 의정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아리야발마, 혜업, 현태, 현각, 혜륜 등 신라 구법승 7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혜초는 밀교경전을 연구하고 금강지-불공으로 이어지는 밀교의 전통을 확립한 고승이었다. 그는 인도 전역과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을 두루 여행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왕오천축국전』 3권을 지었다.

인도에 간 신라 구법승들의 목적은 중국에 수입되지 않은 범본 불전이나 이미 수입되었더라도 해석에 문제가 있는 원본을 구하고 불교 성지를 참배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천축 구법승들은 십중팔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반면 중국에서 구법한 신라승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들 중에도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을 마친 승려가 있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경전 번역이나 교리 해석과 실천을 하는 등으로 중국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에서 구법을 마치고 돌아온 승려들은 대개 신라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으며 왕공귀족과 일반 백성들의 환대와 존경을 받은 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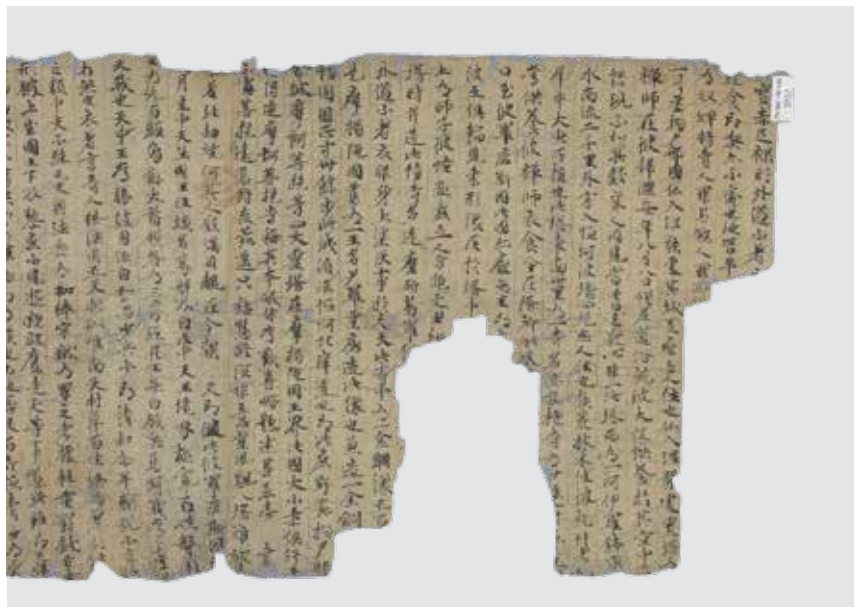
그림 30 혜초, 『왕오천축국전』 앞부분,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구법승은 신라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신라 불교는 전래 초기에 주술적 요소를 많이 가졌으나 불교가 점차 보편적 신앙으로 인식되고 또 불교사상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자 그에 대한 한층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해졌다. 이에 신라 왕실은 정책적으로 구법승을 중국에 보내 선진 불교를 배워오게 하였다. 이 구법승들이 본국에 돌아올 때는 경전, 불상, 불사리 등을 가져와 신라문화의 진전에 기여하였다. 신라와 당 및 일본의 불교는 전적을 통해 상호 교류했고, 이런 불전의 활발한 교류 덕분에 각국의 불교는 국제적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구법승이 들여온 중국의 선진 불교 사상은 신라 종파 불교의 기초가 되었다.

신라 승려의 저술도 당에 소개되었다. 『십문화쟁론』, 『기신론소』, 『화엄경소』와 같은 원효의 저서 상당수가 당나라에 전해져 널리 읽혔다. 신라 승려들은 당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며 선지식을 참문하고 성적을 순례하였는데, 그들이 즐겨 찾아간 중국의 불교 성지로는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여겼던 오대산, 천태종의 본산인 국청사, 혜능의 사리탑이 있는 조계산, 수많은 사찰이 소재해 있던 종남산을 포함한 장안 일대를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신라 구법승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니 일본 불교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 진언종과 천태종의 개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신라는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고구려나 백제와도 불교를 매개로 해서 문화적 교류를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었다. 원효와 의상이 고구려 보덕의 열반학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고, 황룡사 구층탑 건립에는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와서 도와주었다. 신라 조정과 당 및 일본의 외교 관계에도 불교가 응용되어, 불상을 선물로 보내거나 사신이 사원을 참배하기도 하였다. 8세기 신라 불교는 일본 불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적 교류로는 상당수의 일본 승려가 신라로 유학한 사실을 들 수 있는데 신라 승려가 일본으로 간 경우는 대개 전법을 위한 것이었다. 신라 학승들의 여러 저술은 일본에 전해져 유통됨으로써 일본 고대 불교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불교미술

통일신라기의 미술은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 불교미술이다. 회화, 서예 작품도 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 불교미술은 사찰 속에 남아 있다. 통일기 신라의 사찰 수는 대략 160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경주에서 실제 확인된 사찰은 30여개에 지나지 않고 또 남아있는 유물의 숫자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들만을 가지고도 통일신라기 미술의 모습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통일기 신라의 불교미술은 이 시기의 교학불교와 선종이라는 불교의 두 가지 흐름과 관련된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다만, 경주 남산의 불교미술과 불국사·석굴암은 수량도 많고 통일기 신라 미술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특별하므로 각각 따로 서술한다. 한편 불교미술품은 동궁과 월지와 같은 왕실 유적에서 발견된 예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찰에 봉안되었던 각종 불상, 불탑, 사리기를 비롯해, 범종, 금고金鼓와 같은 불교 법구法具, 그리고 석등 등이다.

교학불교의 발전과 불교미술의 개화

왕경

신라의 사원은 처음에는 왕경에서 주로 건립되다가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왕경에는 황룡사, 사천왕사, 봉덕사 등의 성전사원과 분황사, 망덕사, 황복사, 삼랑사, 불국사, 감산사 등 수많은 사원이 있었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처럼, '절들은 별처럼 벌여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처럼 줄지은[寺寺星張 塔塔雁行]' 장관을 연출하였다. 불교신앙이 확산되고 귀족의 원찰 내지는 원탑 건립이 성행하면서 지방에도 많은 사원이 창건되었다.

신라는 통일 후 제일 먼저 사천왕사를 창건했다. 의상법사는 당에서 귀국해 문무왕(661~681)에게 당의 침략소식을 알렸고, 그 대비책으로 679년에 사천왕사를 세웠다.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수해왔다는 명랑明朗은 사천왕사 창건을 제안했다. 사천왕사는 호국 사찰로 창건되었을 뿐 아니라 사원 관리 기구인 성전成典이 설치된 매우 격이 높은 사원이었다.

사천왕사는 신라 최초로 쌍탑이 세워진 사찰이다. 어떤 이유로 이전에는 하나였던 탑을 쌍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를 두고 삼국 통일과 관련된 신라의 독창적 시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도 쌍탑을 조성한 예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일기 신라만의 특별한 경우라고 보지는 않는다. 사천왕사의 쌍탑은 정사각형 기단의 각 면에 계단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체는 탑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목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기 신라는 당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로 '사천왕'을 앞세웠다. 중고기에 세워진 거대한 호국사찰 황룡사가 있었지만, 이제 호국을 위한 새로운 존재로 '사천왕'을 등장시켰던 것이다. 그것도 황룡사, 금광사와 같은 기존 사찰에 도량을 개설하지 않고, 굳이 '사천왕사'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었다. 이 시기에 그만큼 사천왕이 중요했던 것이다. 3년 뒤에 세워진 호국사찰인 감은사 동서 쌍탑의 사리기에도 사천왕상이 있다. 감은사는 호국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신문왕이 세운 사찰이다. 이처럼 통일 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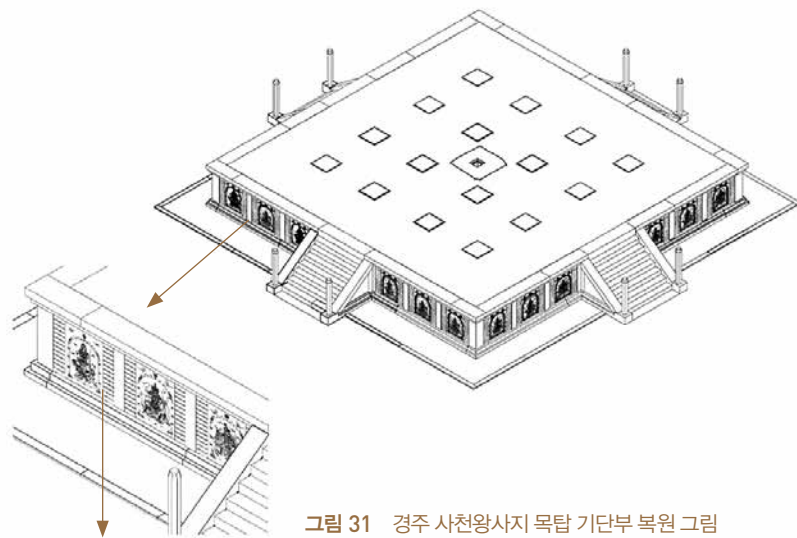
그림 31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부 복원 그림

그림 32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부의 신장상

국과 관련된 사찰에는 사천왕이라는 이름 혹은 그 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호국사찰 사천왕사의 터에 대한 발굴 결과 기대했던 사천왕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왕에 목탑 기단부를 장식한 사천왕상이라고 추정했던 상들이 신장상神將像임이 밝혀졌다. 이 신장상은 갑옷을 착용하고 무기를 지닌 장수의 모습으로 생령좌 위에 걸터앉은 모습인데, 거푸집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비

그림 33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록 부서진 단편이지만 세부적으로 우수한 조형성과 높은 완성도 때문에 석굴암 불상조각과 더불어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대표작품 중 하나로 주목되었다. 특히 『삼국유사』에 나오는 '양지良志'라는 조각가와 관련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 고대 불교조각사의 중요한 연구거리가 되고 있다.

682년에 신문왕(681~692)은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감은사感恩寺에 동·서 삼층석탑을 세웠다. 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규모와 양식이 같은 쌍탑이다. 사천왕사의 쌍탑이 목탑이었다면 감은사의 쌍탑은 이를 돌로 번안한 석탑으로, 남아있는 쌍탑 중 가장 이른 예이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기백을 남김없이 보여주듯 거대하고 우람한 석탑이다. 동·서 두 탑에서 발견된 사리기舍利器 또한 힘과 정교함을 두루 나타내는 신라 공예기술의 백미이다. 그 사리기 외함에는 바로 사천왕상이 있다.

사천왕상은 별도로 만들어 사리기에 부착하였는데, 이 작품은 실물로 전

그림 34 감은사지 동·서탑 사리기

하는 가장 이른 사천왕상이다. 사천왕상의 주 역할은 그 안에 모신 사리의 수호에 있지만, 감은사가 호국사찰인 만큼 호국과도 관련이 있다. 이 예들은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부 상과 달리 한 손에 보탑寶塔을 든 북방 다문천이 있어서, 사천왕상의 도상을 분명하게 갖추었다. 다만, 갑옷으로 무장하고 손에는 보탑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들었지만, 머리에 투구는 쓰지 않았다. 20cm 가량으로 작은 크기의 사천왕상임에도 얼굴 표현, 갑옷의 세세한 부분까지 빈틈없이 솜씨를 발휘하고 있어서 신라 사천왕상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

월지, 즉 안압지 발굴에서 10점의 금동판불이 출토되었다. 이 중 금동삼존판불이 2점, 보살판불이 8점이다. 이 금동판불은 명문은 없지만, 월지의 조성 시기와 주변건물의 완성 연대가 대략 680년인 점, 건물지에서 조로2년(680)명 전塼이 출토된 점 등을 근거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금동삼존판불은 통일기 이전에는 알려진 바 없는 새로운 형식이면서 양식이다. 가운데 앉은 불상은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식 가사에 전법륜인轉法輪印을 결結하였고, 양 옆의 보살상은 허리를 비튼 삼곡三曲 자세가 특징이다. 이처럼 신체표현이 매우 적극적인 금동판불 형식이 돌연 등장하는 데는 중국으로부터

그림 35 월지 출토 금동판불

그림 36 구례 화엄사 서 오층석탑 청동전불 틀

새로 유입된 모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금동판불은 동궁 내불전에 봉안했던 것이다. 광배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일본 옥충주자玉蟲廚子와 같은 주자나 호류지法隆寺 헌납보물 제198호의 예처럼 소형 목제 불감佛龕과 같은 구조물에 부착해 예배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형식의 판불로 구황동 원지苑池에서 출토된 금동불보살좌상이 있고, 동일한 손 모양을 한 화엄사 서 오층석탑의 청동 전불塼佛 틀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다. 이로 보건대 이 판불의 형식이나 불상 손 모양은 이후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다.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함에 봉안되어 있던 금제불입상 역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모형을 신속히 전달받아 제작된 새로운 양식의 작품이다. 이 불입상이 봉안되어 있던 사리함의 뚜껑 안쪽에는 350자에 달하는 긴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기록에 의해 효소왕 1년(692)에 신문왕비와 아들 효소왕이 선왕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탑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706년에는 성덕왕이 신문왕과 신문왕비, 효소왕을 위해 부처 사리, 순금제 미타상, 『무구정광대다라니경』(약칭 『무구정경』) 등을 석탑에 안치하고,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대를 기

그림 37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금제불입상

그림 38 황복사지 삼층석탑

원하였다. 이들 중 특히 금제불입상은 통견식通肩式 가사에 U자형 옷 주름이 가슴부터 무릎아래까지 물결치듯 내려오며, 왼손은 가슴까지 올려 가사 자락을 잡고 있다. 신라의 불입상 중 마치 인도불상처럼 한 손에 가사 자락을 쥔 경우는 아주 드문 예이다.

한편, 명문 중의 『무구정경』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704년 중국의 미타산과 법장이 번역한 경전인데, 번역한지 불과 2년 만에 신라 왕실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시에 새로운 조각 양식이 얼마만큼 신속히 수용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라왕실의 원불願佛이었던 황복사 금제불입상은 사리장엄에 불상을 납입한 최초의 예이다. 당과의 활발한 교섭을 통해 새로운 불교문화의 유입에 적극적이었던 신라 조각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감산사는 성덕왕 18년(719)에 중아찬 김지성이 부모

그림 39 경주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그림 40 감산사 미륵보살입상

의 명복을 빌고 국왕과 왕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한 사찰이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미륵보살상을, 아버지를 위해 아미타불상을 각각 만들었다. 광배 뒤의 조상기造像記에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을 분명하게 적어 놓아 우리나라 불교 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 중 아미타불상은 독특한 옷 주름으로도 유명하다. 경주박물관에 있는 사암으로 만든 불입상도 거의 같은 특징을 지녔다.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넓고 두터운 어깨, 발달한 가슴, 잘록한 허리, 두꺼운 허벅지를 지닌 건장한 체구의 불입상인데, 몸에 밀착된 옷 주름 때문에 신체의 양감이 한층 두드러져 보인다. 더욱 특별한 것은 바로 가사의 주름이다. U자형을 이루며 가슴부터 배 부근까지 내려오다가 양다리에서 Y자형으로 갈라지며 흘러내린다. 이런 옷주름을 통칭 Udyana왕[우전왕優塡王]식'이라 부른다. 이 두 불입상을 기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통일신라 금동불입상이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미륵보살상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 시기의 미륵보살상은 통상 반가사유의 자세가 한층 보편적이었음에도 그것이 아닌 입상의 형태로 조성하였다는 점, 또 미륵보살상임에도 같은 시기 관세음보살의 도상 특징 중 하나인 보관 화불化佛을 지닌 점 등이다.

경주 굴불사터에 있는 사면불상은 커다란 암석의 네 면에 각종 불·보살상을 새겼다. 동쪽에 약사불, 서쪽에 아미타불,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석가모니불, 미륵불로 추정되는 상을 배치하였다. 또 북쪽면의 추정 미륵불 옆에는 선각의 십일면관세음보살상이 있다. 환조, 부조, 선각 등 조각기법도 다양한데다가 각 상도 좌상과 입상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채롭다. 부드럽고 생동감 있는 조각 솜씨는 통일신라 전기 불교조각의 특징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경주 원원사지에 있는 쌍탑은 탑신과 기단에 사천왕상과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 있어 특별하다. 상층기단에는 십이지신상을 새겨놓았는데, 머리는 짐승 모습이지만 몸은 평복을 입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 1층 탑신에는 갑옷을 입

그림 41 경주 굴불사지 사면불상

그림 42 경주 원원사지 서 삼층석탑

그림 43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

그림 44 장항리 석조불입상

고 무기를 든 사천왕상이 있는데 원원사를 '왕경을 향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호국사찰'이라고 한 『삼국유사』의 기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원사탑과 비슷한 시기의 주목할 만한 탑으로는 장항리 서 오층석탑이 있다. 토함산 동남쪽 자락에 있는 절터에 서탑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5층 탑신의 비례가 날렵하고, 1층 탑신에 새긴 금강역사상이 생동감 넘치는 뛰어난 석탑이다. 또 이곳에는 토함산의 석재를 이용해 제작한 불상이 파괴된 채 있어서 일부만 복원해 국립경주박물관 뜰에 세워 놓았다.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삼국의 종이 이미 각각 독자적 형식으로 정착, 발전하였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종은 모두 9점이 확인된다. 국내에 남아있는 5점 가운데 2점은 파손되었으며 나머지 4점은 일본에 건너가 있다. 이 중 상원사종(725년)은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

그림 45 상원사 동종

그림 46 성덕대왕신종

된 종이다. 그 완성도로 미루어보면 이미 그 전에 한국 범종이 완전히 정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상원사종이 제작되고 40여년 뒤에 성덕대왕신종(771년)이 완성되었다. 높이만 3.75m로 가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경덕왕 때에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고 중대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려는 목적에서 계획되었지만, 완성은 혜공왕 7년(771)이 되어서였다. 명문에 따르면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하니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며, 진리의 소리가 천지간에 진동해도 그 메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그런 고로 부처님이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해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神鍾을 달아 진리의 둥근소리[圓音]을 듣게 하였다."고 한다. 크기, 모양, 문양, 음질 등 모든 면에서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종이다.

그림 47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불입상

그림 48 대방광불화엄경사경 변상도

통일기 신라에는 3대 금동불이 있으니, 바로 백률사 금동약사불입상,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이다. 불국사의 두 금동불은 뒤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백률사 금동약사불입상만 살펴본다. 크기가 1.77m인 이 입상은 527년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을 기리기 위한 절인 백률사에 있던 것을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신체의 적절한 비례와 유려한 옷자락을 우수한 조형기법으로 잘 표현한 불상으로 한국 조각사와 복식사에

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신라시대에 제작된 회화는 아쉽게도 754~755년에 제작된 〈대방광불화엄경사경〉 변상도變相圖 1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사경은 조성기에 의하면 경주 황룡사의 승려 연기법사가 발원해 제작한 것이다. 황룡사 연기법사를 화엄사 창건주인 연기법사와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없다. 사경은 실차난타(652~710)가 번역한 『신역 화엄경』 80권 중 1~10권과 43권~50권을 필사한 것인데, 변상도는 이 사경 앞에 붙어 있던 것이다. 그림은 자색 닥종이에 금니와 은니, 그리고 먹으로 그렸다. 표지의 앞뒷면에 있으며, 현재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앞면에는 신장상이, 그 뒷면에는 사자좌에 앉은 비로자나불과 상수보살 등이 그려져 있다. 불·보살의 풍만하고 우아한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부처의 이상 세계를 충실히 묘사한 신라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신라의 회화는 이 변상도 1점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대의 신라 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화들이 제작되었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불화의 형식은 거는 그림보다는 전각 내부 혹은 외벽에 그리는 벽화가 더 유행한 듯하다. 불화의 주제로는 11면관음, 천수관음 등 관음보살도와 미륵보살 및 미륵불화가 많은데, 이는 관음신앙과 미륵신앙이 우세했던 통일신라 불교신앙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지방

통일기 신라 지방 중에서도 영남지방은 문화재의 보물창고라고 할 만큼 유적·유물이 많다. 흥미롭게도 그 가운데 그 북부지역에는 통일 이후에도 중고기 미술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작품들이 제법 남아 있다. 봉화 북지리 마애불과 영주 가흥리의 마애불이 그 대표 예이다. 봉화 북지리 절터의 마애불은 자연암벽을 파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매우 도드라지게 새겼다. 머리와 손이 크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모습은 바로 남산 배동이나 장창골에서 출토된 중고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불상을 만든 시기는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같은 양식의 마애삼존불로 영주시 가흥리 서천 강가 바위 면에 조성한 마애삼존불이 있다.

그림 49 봉화 북지리 마애불

그림 50 군위 삼존석불

그림 51 김천 갈항사 동 삼층석탑

그림 52 갈항사 석불좌상

경북 군위 팔공산 절벽의 군위삼존석불도 과도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존불은 중고기 불상의 특징을 갖추었지만, 좌우 보살입상은 새로 시작된 삼곡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 보살상은 비슷한 양식인데, 보관에 각각 화불과 정병이 새겨져 있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

김천 갈항사의 동·서 삼층석탑과 석불좌상 또한 주목된다. 동탑의 기단에 758년(경덕왕 17)에 언적법사 3남매가 건립하였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어 조성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언적법사 3남매는 훗날 제38대 원성왕이 되는 김경신의 이모와 삼촌이다. 다만, 글자를 새긴 것은 그보다 30년 정도 뒤인 원성왕 대로 추정한다. 둥근 얼굴에 입가에는 미소가 있는 아담한 석불좌상은 탑과 같은 758년 무렵에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산청의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로자나불이다. 이 상은 현재 산청 내원사에 옮겨져 있다. 이 불상의 대좌 중앙 구멍에서 사리호가 발견되었다고 전하는데, 명문에 '영태이년병오永泰二年丙午'가 있

그림 53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그림 54 산청 석남암사지 영태이년명 사리호

그림 55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그림 56 창녕 인양사 조성비

어 766년(혜공왕 2)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기에 현존 최고最古의 비로자나불상으로 인정된다. 산청 단속사는 솔거가 유마거사상을 그린 곳으로 유명하다. 솔거는 신라 최고의 화가로 경덕왕대(742~765)인 8세기 중엽경에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거가 그린 황룡사 노송도가 진짜인줄 알고 새들이 날아들다 부딪혀 떨어지곤 했으며 그는 멀리 이곳 단속사에까지 와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나, 아쉽게도 기록만 전할 뿐 남아있는 작품은 없다.

통일신라 시기 경남 창녕에도 중요한 사찰이 많이 있었다. 이곳에는 술정리 동 삼층석탑과 서 삼층석탑이 있다. 동 삼층석탑은 날렵하면서도 듬직한 느낌을 주는 체감율과 함께 뛰어난 기량이 잘 발휘되어 신라 왕경 밖에서 보기 드문 수작이다. 810년경 건립된 창녕 인양사 조성비는 앞면에 승상僧像이 있고, 옆면과 뒷면에 명문이 있는 특이한 모양이다. 특히 승상은 그 유례가 많지 않아 특별한데, 명문에는 771년 혜공왕 7년 인양사 종을 만든 일로부터 이 비석을 세운 헌덕왕 2년(810)까지 40년 간 일어난 일을 적고 있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 석불좌상은 사찰 경내에, 용선대 석불좌상은 서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산꼭대기에 위치한다. 최근에 각각의 대좌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전자는 혜공왕 8년(772)에 만들어진 미륵상이며, 후자는 성덕왕 21년

그림 57 창녕 관룡사 약사전 석불좌상

그림 58 창녕 용선대 석불좌상

그림 59 창녕 말흘리사지 병향로

그림 60 대구 팔공산 석조여래좌상

(722)에서 성덕왕 30년(731) 사이에 조성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불상과 대좌가 한 벌인가, 그리고 명문이 후대에 추각追刻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편 창녕 말흘리사지에서는 병향로柄香爐, 풍탁, 자물쇠, 문고리장식 등 다량의 금속공예품이 든 세로로 길쭉한 쇠솥이 출토되었다. 땅 속에 묻힌 시점은 고려 이후일 것 같으나 출토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공예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9세기로 들어서면 정확한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진다. 경남 함안 방어산 절벽에 선각으로 새긴 삼존불입상은 801년(애장왕 2)의 명문을 가진 약사삼존이다. 본존은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상임을 알 수 있으며, 좌우 보살은 그 협시인 일광, 월광보살이다. 같은 9세기 불상으로 팔공산 관봉冠峰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머리 위에 넓적한 돌을 올린 모습이 마치 갓을 쓴 것 같아 갓바위 부처라고도 불린다. 불상의 뒷면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이 광배의 역할을 한다. 풍만하지만 근엄한 얼굴 모습, 형식화된 옷주름, 평면적 신체는 8세기 불상과는 구별되는 9세기 불상의 특징이다.

흥미롭게도 통일기 신라의 지방에는 전탑이 많이 건립된다. 특히 안동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칠곡 송림사오층전탑은 통일 초에 지은 것을 고려시대에 중수하였다. 기단은 화강암이지만 탑신은 벽돌로 쌓아 완성한 것이다. 1959년 탑을 해체 수리할 때 2층 탑신에서 거북모양의 석함이 드러났고, 그 안에 사리장엄구가 있었다. 전각형殿閣形 사리기, 유리병, 유리잔이 특별한데, 유리잔의 형태는 마립간기 고분에서 출토되는 서역계 유리기들과 상통한다. 안동 지역의 전탑은 조탑리 오층전탑과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그 대표이다.

그림 61 칠곡 송림사 사리기

그림 62 안동 조탑리 오층석탑

그림 63 대구 동화사 비로자나불좌상

그림 64 군위 인각사 승탑지 출토 유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도 9세기 삼층석탑과 사리호, 그리고 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은 중요한 작품이 있다. 석탑은 863년 경문왕 3년에 건립한 것이며 그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지권인智拳印의 손모양, 화불이 배치된 광배, 7마리 사자상이 자리 잡은 대좌 중대가 특징이다.

이 시기의 불교공예품은 말흘리사지를 비롯해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 이외에 범종, 당간용두 등 다채로운 종류가 있다. 인각사의 승탑지 추정 유구에서는 병향로, 향합, 정병, 원통형 이중합, 금고, 접시, 작은 가릉빈가상 등 금속제품과 중국 월주요 청자대접 등 각종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는 당에서 수입한 물품이 많다.

833년(흥덕왕 8)에 만들었다는 명문을 가진 청주菁州(지금의 진주) 연지사 범종은 16세기 말 정유재란 때 왜군이 약탈해가 현재 일본 후쿠이현[福井縣] 쓰루가시[敦賀市] 죠구진자[常宮神社]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 50여 점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국보(제78호)로 지정되었다. 금고는 쇠로 만든 북으로

그림 65 청주菁州 연지사 범종

그림 66 함통명 금고

그림 67 영주 출토 당간용두

그림 68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그림 69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

절에서 때를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단순한 도구인데, 옆구리에 새긴 '함통육세을유咸通陸歲乙酉' 명문으로 865년(경문왕 5)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금고는 동심원 무늬로 소박하게 장식하였다. 영주 풍기에서 출토된 당간용두는 번幡을 당간 꼭대기에 걸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다. 지금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 넘치는 용의 모습과 입 안쪽으로 도르래를 넣어놓은 구조에서 신라 공예의 미감과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다.

경기지방에는 서울 종로구 장의사지와 안양 중초사지의 당간지주가 유명하다. 장의사지 당간지주는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유일한 당간지주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명문을 통해 절 이름과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당간지주이다. 바깥면 위쪽을 넓게 파 놓은 외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당간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과 홈을 위아래로 마련하였다. 명문에 의해 흥덕왕 1년(826) 8월 28일에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2월

그림 70 연기 비암사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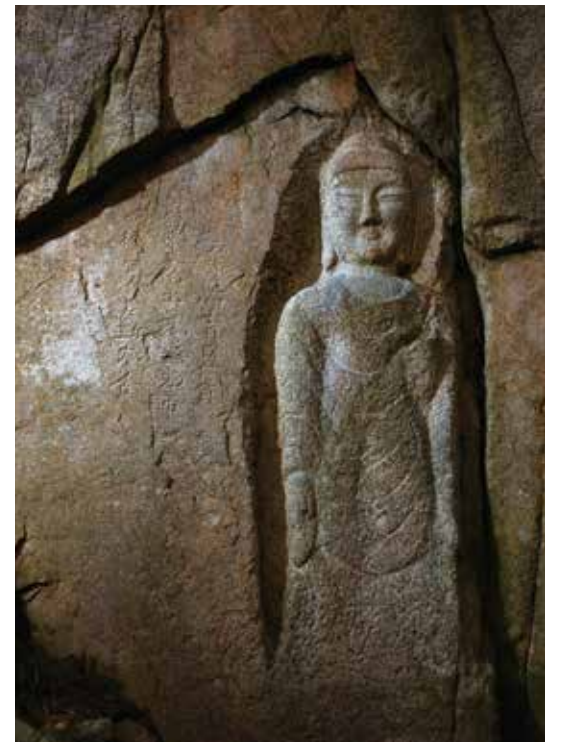
그림 71 홍성 용봉사 마애불입상

30일에 건립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강원지방의 주목할 만한 불상으로는 865년(경문왕 5)에 제작된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이 작품은 대좌까지 모두 철로 만들었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등에 명문이 있어 더욱 중요하다. 명문에는 1500여명에 이르는 지방 민중의 신도 조직이 이 불상을 만들었다고 적어 놓아서 당시 불교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은 등 쪽에서 발견된 명문을 통해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한 노사나불 불상임이 밝혀졌다. 명문을 뒤집어 새긴 점이 특이하고, 이두를 사용하고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추어 배열한 문장 등 여러 분야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호남·호서지방에는 불비상佛碑像을 비롯해 불상, 승탑, 석탑, 석등, 당간지주, 사리장엄구, 동종, 철당간, 철솥, 목조불감 등 매우 다양한 유물이 남아 있다. 우선 680년 전후에 제작된 불비상이 충남 연기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그림 72 구례 화엄사 사사자석탑

그림 73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주목된다. 비석 모양의 돌에 불상과 글을 새겨 놓아 불비상이라 부른다. 연기지역에서 출토된 불비상은 모두 7점이 있다. '아미타' 존명이 새겨진 명문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가 용이했던 연기지역에 새로운 신앙과 도상이 도입된 사실과 신라에 편입된 옛 백제인들의 염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충남 홍성 용봉사에는 불상 옆에 799년(소성왕 1)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는 마애불입상이 있다. 바위에 감실모양을 깎고 그 안에 불상을 새겼는데, 왼손은 올리고 오른손은 내려 몸에 붙인 특이한 손모양이다. 이런 소박한 솜씨는 지방에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남 구례 화엄사의 사사자석탑은 호남지방 석탑의 백미이다. 화엄사 각황전 뒤 언덕, 이른바 효대에 있다. 상층 기단에 사자 네 마리가 3층 탑신을 받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스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공양물을 들고 서 있는 독특한 석탑이다. 하층 기단에는 천인상 12구를, 1층 탑신에는 문짝 옆으로 금강역사상, 사천왕, 보살상을 새겨 놓았다. 마주 보고 있는 각황전 앞 석등은 쌍사자가

그림 74 담양 개선사 석등

그림 75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

받치고 있는 형태이며 높이 6.4m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호서·호남지방에는 석등이 많이 남아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담양 개선사 석등, 그리고 부여 무량사 석등,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그것이다. 특히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사자 두 마리가 서로 가슴을 맞대고 서서 앞발과 주둥이로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데, 갈기 머리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다리 근육의 사실적 표현이 뛰어난 작품이다. 개선사 석등은 화사석에 868년(경문왕 8)과 891년(진성여왕 5)의 명문이 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이 지역의 특이한 유물로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이 있다. 희견보살은 『법화경』에 언급된 고행을 즐겨 익히는 보살이다. 이 상은 양손과 머리로 큰 향로를 받치고 서 있는 보기 드문 조각상인데 같은 절 쌍사자 석등과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그림 76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금속공예품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금동수각향로金銅獸脚香爐, 청주 운천동 범종이 있다. 향로는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 납작한 대야모양 몸체, 4개의 다리로 구성된다. 특징적인 괴수형 다리는 별도로 만든 다음 못으로 부착하였다. 당나라 경산사 터 출토품과 유사하므로 당으로부터의 반입품이거나 혹은 그것의 영향을 받아 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운천동 범종은 맨 위에 한국종의 특징인 용뉴와 음통을 갖추었고, 그 아래로 천인상이 있는 연곽대蓮郭帶, 옷자락을 휘날리며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천인상을 배치하였다.

당간지주는 공주 갑사에 있는 철당간과 석지주, 대통사 옛 터인 반죽동과 미륵사의 당간지주를 꼽을 수 있다. 갑사 철당간은 현재 철통을 24개 연결한 모습인데, 원래는 28개였으나 고종 30년(1893) 벼락을 맞아 4개가 없어졌다고 한다. 철당간과 석지주가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 77 청주 운천동 범종

그림 78 공주 갑사 철당간

불교미술 박물관, 경주 남산

경주 남산은 불국사, 석굴암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지이다. 남산의 골짜기마다 절터가 있고, 그곳에 불상과 탑이 즐비하다.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30여 계곡과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크게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동남산은 경사가 급한 반면, 서남산은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도 길어 대부분의 불교 유적은 이곳에 산재해 있다. 경주 남산의 불적은 7세기를 전후해 조영되기 시작해 9~10세기까지 능선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교유적만 140여개 소에 이르며, 100여구의 불교조각과 수십 기의 불탑이 산재해 있다. 2000년 경주 남산이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하나로 선정된 이유도 이곳이 신라 천년의 역사와 숨결이 남아 있는 보물창고이기 때문이다.

그림 79 경주 남산(북쪽에서)

동남산의 불적

동남산의 대표 작품은 화려한 조각을 자랑하는 탑골 마애사방불이다. 높이 약 9m의 커다란 바위 네 면에 총 20여기의 불교존상을 조각하였다. 바위의 각 면에는 불상과 보살상, 천인상, 공양상, 9층과 7층 목탑, 암·수의 사자상 등 다양한 불교존상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현재 삼층석탑이 복원되어 있는 바위 서쪽으로 평지와 목조 구조물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곳에 절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산 미륵골에는 불상 높이만 2.44m인 불좌상이 있다. 이 불상은 보리사 석불좌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절 이름은 『삼국사기』와 『동경잡기』에 나오지만, 지금의 보리사가 곧 그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 불상은 불신, 광배, 그리고 대좌를 완전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얼굴 역시 훼손된 곳 없이 온전하다. 손모양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까지 내린 항마촉지인이다. 광배는 꽃무늬, 불꽃무늬, 화불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약기를 든 약사불좌상이 얕은 부조로 새겨져 있다. 작품의 상태도 좋지만 얼굴 모습, 대좌 등의 표현에서 솜씨 좋은 조각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남산 철와골 입구에서 발견된 불상의 머리는 높이만 150cm가 넘는 거대한 크기이다. 머리카락을 새기지 않은 소발素髮의 머리 위에 육계가 높다. 긴 눈과 도톰한 입술, 그리고 입술 아래 반달모양의 굵은 새김선이 특징이지만, 귀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미완성으로 보기도 한다.

동남산은 물론 남산 전체를 대표하는 봉화골 칠불암 사면불은 중앙 본존의 높이만 2.66m이다. 동쪽을 향한 넓은 바위 면에 마애삼존상을 새기고, 그 앞에 놓인 거대한 돌기둥 네 면에 1구씩의 불상을 조각하였다. 마애삼존불의 본존상은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 좌우측 협시보살상은 본존을 향해 서 있다. 본존불상은 신라 통일기에 크게 유행한 항마촉지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이 사면불은 이후 전개될 신라 석탑 사방불 양식의 전조라는 점에서 신라 불교조각사에서 의미가 크다.

이 칠불암에서 정상을 향해 더 올라가면 신선암 마애보살상이 있다. 동남향

그림 80 경주 남산 탑골 마애사면불

그림 81 미륵골 불좌상

그림 82 철와골 대불두

그림 83　칠불암 사면불

그림 84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상

의 바위에 얕은 감실을 마련하고, 그 안에 고부조의 보살상을 조각하였다. 보살상은 구름 위 대좌에 걸터앉아 있는데, 왼발을 편안하게 둔 소위 '유희좌遊戱坐'의 모습이다. 경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의 바위 면에 구름을 탄 보살좌상이 조각되어 있어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것 같은 신비감을 준다.

서남산의 불적

서남산에는 동남산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불교조각과 탑이 남아 있다. 남산 서쪽 기슭의 절터에는 창림사 삼층석탑이 서 있다. 이곳 석탑 안에서 다라니경 사경문과 함께 '무구정탑'이 적힌 동판 탑지가 발견되었다. 그로써 이 탑이 무구정탑으로도 불렸다는 것과 이 시기에 유행한 무구정탑 조성과 그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성 시기는 문성왕 17년(855)인데, 탑지의 글씨는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긴 것이다.

윤을골의 'ㄱ'자형 자연암벽에는 모두 3구의 불상이 새겨져 있다. 남향한 'ㅡ'형 암벽에 두 구의 불상을, 서향한 'ㅣ'형 암벽에 한 구의 불상을 배치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불상의 왼쪽 어깨 부근에 "태화을묘구년太和乙卯九年"이라는 명문이 있어 조성연대를 83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3구 모두 조각기법에서 차이가 있어 동시기에 조성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릉골에는 계곡을 따라 불상들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처음 만나는 머리를 잃어버린 불좌상은 왼쪽 어깨와 가슴 아래에 정교하게 조각된 띠 매듭이 특징이다. 좀 더 올라가면 한 장의 그림 같은 삼릉골 선각삼존불입상이 있다. 넓은 자연 암벽에 6구의 불·보살상을 선각으로 조각하였는데, 쳐다보아 왼쪽 면에는 불입상과 공양보살상을, 오른쪽

그림 85　창림사지 삼층석탑

그림 86 창림사 삼층석탑 무구정탑원기

면에는 불좌상과 협시보살입상을 새겼다. 신라에서 선각의 마애불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삼릉골 선각육존불과 함께 경남 함안 방어산마애불(801)을 대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삼릉골에는 석불좌상이 또 1구 있는데, 이것은 당당한 어깨와 가슴, 그리고 하반신이 특징이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이루어진 삼단팔각연화대좌이며, 중대석에는 각 면에 상다리[床足]무늬를 조각하였다. 같은 삼릉골의 정상 근처에 있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약사불좌상은 불상의 몸, 광배, 대좌를 모두 갖추었으며, 전체적으로 손상된 곳 없이 거의 완전하다. 배 앞에 둔 왼손 손바닥을 위로 해 보주를 받들고 있는 약사불좌상이며, 팔각 대좌 중대석의 향로와 공양천인상 조각이 특별한 남산의 대표작이다.

삼릉골의 정상 상선암에는 거대한 자연암벽에 마애불좌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는 불상의 얼굴만 높은 부조로 조각하고 몸은 선으로 표현한 것인데, 통일신라 후기 대형마애불상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유사한 대형불로 높이 8m가 넘는 약수골 마애대불이 있다. 경주 남산에서 가장 큰 불상이나 현재 머리는 없어졌다.

삼릉골과 더불어 서남산을 대표하는 골짜기로 용장골을 들 수 있다. 이곳

그림 87 윤을골 마애불상

그림 88 삼릉골 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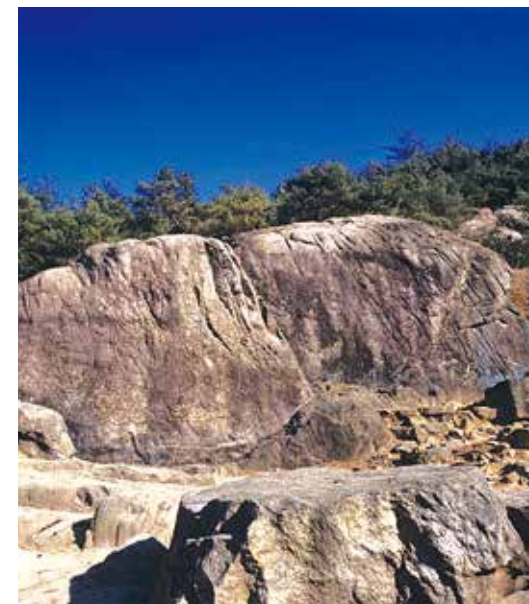
그림 89 삼릉골 선각육존불상

그림 90 삼릉골 석불좌상

그림 91 삼릉골 약사불좌상

에는 용장골 석조여래좌상과 함께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특이하게 생긴 원반 모양의 대좌로 유명한 불좌상이다. 불상의 머리는 없지만, 왼쪽 어깨에 가사를 묶은 띠 매듭이 특징이다. 이 석조불좌상 북쪽 바위 면에는 마애불좌상 1구가 남향으로 새겨져 있다.

열암골의 불좌상은 머리가 없어진 채로 몸통만 남아 있었던 것인데 다행히 2005년에 머리가 발견되었기에 이를 복원해 2007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불상의 몸은 당당하며, 광배와 대좌의 조각이 정교하다. 대좌는 삼단팔각연화대좌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앙련의 상대석과 복련의 하대석만 남아 있고 팔각의 중대석은 잃어버린 것을 최근 새로 추정 복원하였다.

이 열암골 석불좌상에서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애불입상은 넘어진 상태로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4등신의 신체비례를 지녔으며 머리와 상반신은

그림 92 삼릉골 마애불좌상

그림 93 약수골 마애대불

그림 94 용장골 석조여래좌상

그림 95 열암골 석불좌상

고부조로, 하반신은 저부조로 조각하였다. 발아래에는 5개의 꽃잎을 얕게 조각한 앙련 대좌가 있다. 어떤 연유로 넘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면서도 얼굴 부위가 맞은편 바위에 닿을락말락한 상태로 이목구비가 전혀 손상되지 않아 '5cm의 기적'이라고 불리었다.

경주 남산의 암벽면에 새긴 크고 작은 마애불과 거대한 석재를 쪼아 만든 석탑과 석불상은 융성했던 신라의 불교문화를 잘 대변해 준다. 신라 당시의 초파일 같은 때에 각 절이 지금처럼 연등으로 기렸다면 경주시내에서 볼 때 아마도 남산 전체가 화려한 불국토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림 96 열암곡 마애불입상

불국사와 석굴암의 세계

불국사는 경덕왕 10년(751) 재상 김대성이 창건하였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설화는 『삼국유사』 효선 항목에 상세히 적혀 있다. 기록에 의하면 김대성이 '이승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石佛寺(지금의 석굴암)를 세웠으며, 신림, 표훈 두 스님을 청해 각각 거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중요한 조성 동기가 기본적으로 효선, 즉 부모에 대한 효도[孝]와 부처에 대한 선행[善]이었음을 보여준다.

불국사

불국사의 구조는 높은 돌담 위의 부처 세계와 그 아래의 인간 세계로 크게 구분된다.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이다. 이들을 정면에서 보면 계단이지만, 옆에서 보면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보인다. 청운교·백운교는 자하문과 연결되어 있고, 연화교와 칠보교는 극락전으로 향하는 안양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97 경주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그림 98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부처의 세계는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자하문 안의 대웅전 영역은 석가모니불이 교화하는 사바세계를, 안양문 안의 극락전 영역은 아미타불이 거처하는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또 뒤편의 비로전 영역은 비로자나불의 거처인 연화장세계를 상징한다. 불국사 창건 당시부터 이처럼 세 영역으로 나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금동아미타불상으로 판단해보면 적어도 연화장세계와 극락세계는 처음부터 별도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대웅전 영역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불리는 쌍탑이 있다. 이 중 서쪽 석가탑에서는 1966년 해체 보수 과정 중 2층 탑신 사리공에서 사리기를 포함한 각종 유물이 나왔다. 사리공 중앙에는 금동제 사리 외함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합과 완이 겹쳐져 있었다. 은으로 만든 완 안에는 다시 사리가 담긴 녹색 유리병이 있었고, 그 주위에 금동제 사리함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의 유물이 놓여 있었다. 사리 외함 기단부 바닥에는 묵서지편墨書紙片이 있었다. 110장에 이르는 묵서지편은 최근 보존처리를 한 결과 『보협인다라니경』 잔편과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102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1038년) 등 4건의 고문서임을 확인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석가탑은 고려시대에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현

그림 99 불국사 석가탑

그림 100 불국사 다보탑

그림 101 석가탑 사리장엄구

종 15년(1024)과 정종 4년(1038) 두 차례에 걸쳐 해체해 보수하였다는 사실, 석가탑과 다보탑의 원래 이름이 불국사 서석탑과 무구정광탑이었음이 밝혀졌다. 출토품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무구정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으로 본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이 경전을 탑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면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그 죄업이 사라져 오래 살고, 죽어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 누리다 성불成佛하게 된다'는 신앙이 유행하였다.

불국사 서석탑, 곧 석가탑은 감은사지 및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양식을 간결한 구조, 적절한 비례와 규모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후 석탑이 나아갈 길을

열어준 8세기의 훌륭한 작품이다. 현재의 상륜부는 보물 제37호 실상사 삼층석탑을 본떠 복원한 것이다. 이 삼층석탑과 나란히 서있는 무구정광탑, 곧 다보탑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라 석탑이다. 뛰어난 치석 역량으로 석재를 자유자재로 가공해 정교하게 쌓아올린 아름다운 탑이다. 1925년경에 일본인들이 탑을 완전히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단 위에 놓여 있던 돌사자 네 점 가운데 세 점이 사라져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불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거점지였다. 1593년 큰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이 끝나고 1612년부터 대대적 복구가 이루어졌다. 당시 불국사는 연화·칠보교, 청운·백운교, 쌍탑, 그리고 불상 등 극히 일부의 유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잃었다. 당시 화재를 면했던 두 구의 기념비적 금동불상이 바로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좌상과 극락전의 아미타불좌상이다. 신라의 3대 금동불 가운데 드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금동비로자나불상은 진리를 형상화한 것인데,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이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주름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 손 모양은 왼손으로 오른손 검지 끝을 감싸고 있어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 손 모양과는 반대로 표현되었다. 비로자나불상과 쌍둥이처럼 닮은 금동아미타불상은 높이 1.66m의 불상이다. 원만하고 자비로운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눈썹은 반원형이고 콧날이 오뚝하다. 세련되고 사실적인 통일기 신라 불상의 대표작이다.

그림 102 불국사 비로전 비로자나불좌상

그림 103 불국사 극락전 아미타불좌상

석굴암

석굴암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석불사라 불렀다 한다. 처음에는 불국사와 별도의 사찰로 창건되었지만, 현재는 불국사에 소속되어 있다. 토함산 동쪽의 중턱, 해발 565m 지점에 위치한 석굴암의 조각은 통일기 신라 조각을 대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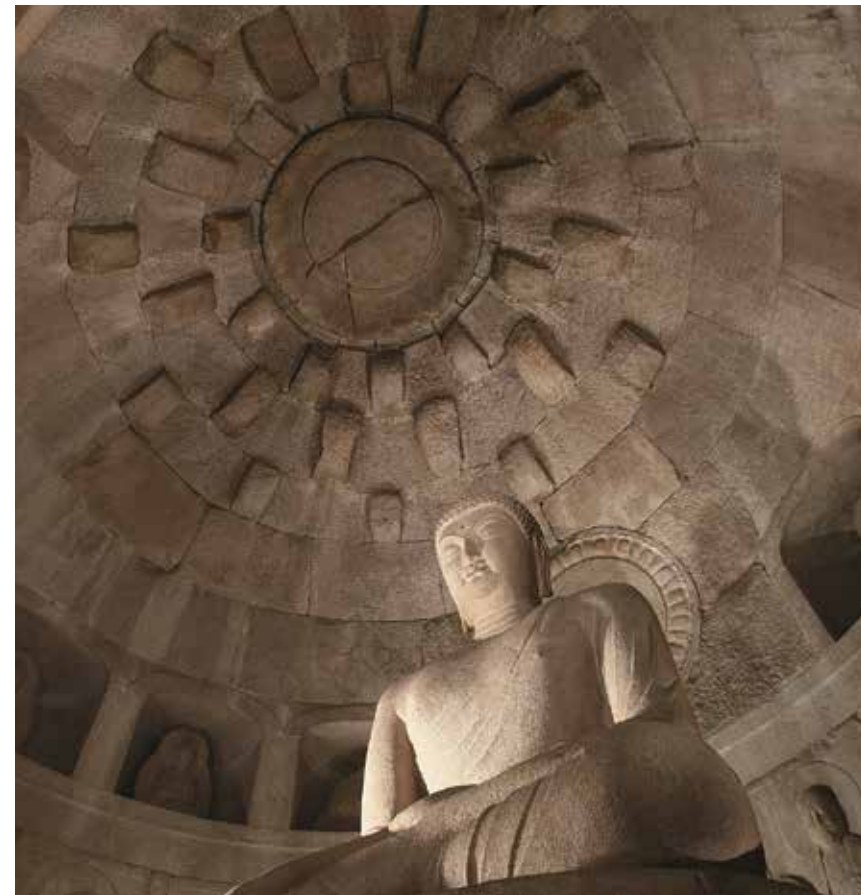
그림 104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돔 천장

면서도 가장 '국제적'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이다. 불교 사상과 신관神觀을 독창적 설계와 뛰어난 솜씨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구현한 빼어난 조형물로 신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일 뿐 아니라 한국 고대 문화와 한국미술사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석굴암은 치밀한 구조, 38구에 달하는 조각 등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 한반도 화강암 바위의 석질은 너무나 단단해서 인도나 중국과 같은 장엄한 석굴을 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에서 석굴사원을 본 누군가가 '석굴의 재현'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라인들은 석굴을 뚫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공석굴이라는 방법을 택하였다. 751년부터 공사 기간만 20여년을 훌쩍 넘긴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공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인공석굴이라는 점도 특별하지만 원형 평면 위에 돔(dome)형의 천정을 갖춘 점은 동아시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이하다. 원형의 주실은 가운데 놓인 본존상 둘레를 도는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독창성은 구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굴암 안에는 불, 보살, 불제자, 신중神衆 등 40구의 존상이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석굴암의 조각은 양식 면에서 중국 성당[盛唐] 시기 불교조각의 영향이 감지되지만, 중국의 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전실의 좌우 벽을 장식하고 있는 8개 부조에는 불교에서 팔부중이라 부르는 천, 용, 야차, 아수라, 간다르바, 가루다, 긴나라, 마후라가의 입상을 새겨 놓았다. 불교 신관에서 이들은 하위 신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석탑에서 주로 기단부에 새겨진 것처럼 석굴암에서도 위계상 가장 바깥쪽에 배치되어 예배공간을 외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실에서 원형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 입구 양쪽에는 금강역사를 입상으로 표현하였다. 금강역사는 간다라에서 유래한 붓다의 수호자로 원래 금강저

그림 105 석굴암 팔부중–좌측면

그림 106 석굴암 금강역사

그림 107 석굴암 사천왕–북, 동

그림 108 석굴암 범천

그림 109 석굴암 제석천

를 든 모습이었으나 중국을 거치면서 높은 상투를 틀고 금강저를 생략하는 등 도상이 많이 변하였다. 석굴암 금강역사는 입을 벌린 아형阿形과 입을 다문 훔형吽形 금강역사가 한 쌍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간결하게 묘사한 인체와 활달한 표정으로 힘이 넘친다.

전실과 원형주실 사이 통로 양쪽 벽에는 사천왕이 2구씩 새겨져 있다. 사천왕은 불교세계관에 의하면 수미산의 중턱을 지키는 천신들로, 그 도상은 인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치면서 갑옷을 걸친 무장형이 되었다. 그 중 북방 다문천은 오른손으로 보탑寶塔을 받들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손에 칼을 들고 있다.

원형주실 입구 좌우의 상은 범천과 제석천이다. 범천은 욕계 위 색계의 하늘나라에 사는 천신인데, 왼손으로 청정한 수행을 상징하는 정병淨甁(kundika)을 들고 있다. 제석천은 욕계에서 아래로부터 두 번째 하늘나라이면서 수미산 정상의 천궁에 사는 천신으로 왼손에 번개를 의미하는 금강저金剛杵(vajra)를 쥐고 있다. 범천과 제석천 옆에는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서 있

그림 110 석굴암 십대제자

다. 문수와 보현은 대승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로 각각 지혜와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각기 경전과 둥근 잔을 들고 있는데, 어느 보살이 문수이고 보현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꽃 위에 서서 본존상을 향해 몸을 살짝 튼 자세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천의 자락의 흐름이 아름다운 작품이다.

범천과 제석천 안쪽 좌우로는 5명씩 모두 10명의 승려 입상이 새겨져 있다. 그 중 다수가 이국적 얼굴에 인도식 복장을 하고, 손잡이 향로와 발우처럼 보이는 용기를 들고 있다. 인물의 수가 10명이라는 점을 들어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중국 용문석굴처럼 조사상을 배열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석굴암 본존상은 원형 주실의 중심에서 조금 뒤로 물러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의 높이만 160cm이며, 그 위의 불좌상은 340cm에 이르러 전체 높이가 5m에 달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앙련과 복련이 팔각 간석으로 연결된 대좌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른손으로

그림 111 석굴암 본존불

땅을 짚고 있는 촉지인을 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만든 조각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비례가 완벽하다. 두광은 보통 불상과는 달리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뒷벽에 붙어 있다. 이 불상의 존명에 대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차별적 인식을 앞세운 특정한 이름을 초월한 궁극적 세계와 존재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체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절제된 표현으로 초월적 존재로서의 붓다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조각하였다.

본존상 바로 뒤 원형주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상이 십일면관음보살상이다. 석굴암 십일면관음은 중생들의 다양한 상황을 살피고 각각에 맞게 구제하는 붓다의 화신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원형주실 둘레 벽 위에 감실 10개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 좌상을 각각 넣어 놓았으나, 현재 감실 2개는 비어 있다. 두광을 중심으로 좌우의 감실에는 각각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마주 보고 있

그림 112 석굴암 십일면관음

그림 113 석굴암 유마거사·문수보살

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관음보살, 금강수보살, 지장보살 등이 조성되어 있다.

석굴암은 중앙 본존불과 주위 권속이 한데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을 자아냄으로써 보는 사람의 온갖 상념을 일거에 거두어 버리는 숭고한 종교적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석굴암은 가히 동아시아 최고수준의 걸작이라고 하겠다.

선종의 확산과 불교미술의 변화

신라 하대에는 중앙의 진골귀족들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육두품 출신들이 새로운 지식인으로 대두하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점차 독립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불교에서는 화엄종 중심, 이론 중심의 교학불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선종이 새로운 실천 불교로서 유행하게 되었다. 선종은 교학불교에 비해 개인적, 민중적, 진보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문자나 경전에 중심을 두지 않았고 참선을 통해 인간 속에 내재하는 본연의 마음을 깨

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선종은 지방 호족과 결합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찰은 주로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위치하였다.

선종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그에 따라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승탑과 탑비를 건립하는 일이 크게 유행하였다. 선종은 예불보다는 참선을 중시하며 불상 조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교리가 상통하는 화엄의 비로자나불상은 조성하였다. 다만, 현재 남은 비로자나불상의 실물은 보림사의 예뿐이다.

영남의 대표적 선종 사찰로는 청도 운문사, 하동 쌍계사, 문경 봉암사, 창원 봉림사가 있다. 이곳에는 탑, 승탑, 비 등이 건립되었으며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어 탑을 비롯해 금석문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운문사 대웅보전 앞의 동·서 쌍탑은 운문사의 대표 유물이다. 상하 2단의 기단에 3층 탑신을 갖추고 있

그림 114 청도 운문사석탑

그림 115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는데, 상층기단에 팔부중상이 선명하나 일부는 일제강점기에 보충한 것이다. 지붕돌 밑면의 5단 받침은 반듯한 직선을 이루어 깔끔한 느낌을 준다.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처럼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전형적 형태에 부조상을 가미한 작품이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는 진감선사 혜소(774~850)의 비가 있다. 진감선사는 입당유학 후 귀국하여 당시 왕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불교 음악인 범패를 도입해 대중화시켰다. 그가 입적하자 헌강왕이 사찰에 '쌍계雙谿'란 이름을 내리고 최치원에게 비문을 짓게 하였다. 최치원이 지은 사산비명 가운데 하나이다.

문경 봉암사는 희양산문의 중심 사찰로 지증대사 도헌(824~882)이 개창하였다. 지증대사 도헌의 승탑은 당시의 일반적 형식인 팔각원당형이며, 그 옆에 탑비를 나란히 세워 그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의 탑비는 진성여왕 7년(893) 무렵 찬술되어 경애왕 원년(924)에 건립되었는데 진감선사비와 함께 최치원 찬술로 유명하다.

창원 봉림사는 봉림산문의 중심 사찰로 진경대사 심희(855~923)가 개창하

그림 116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그림 117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탑비

였다. 그의 승탑과 탑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비석은 경명왕 8년(924)에 세웠으며, 왕이 비문을 직접 지었다. 승탑은 전형적 팔각원당형으로, 비석과 같은 시기에 세운 것으로 본다.

경기·강원지방 선종 사찰 중 주목할 만한 미술을 남긴 사찰로는 원주 흥법사, 양양 진전사와 선림원, 강릉 굴산사, 여주 고달사가 있다. 양양 진전사에 은거한 도의는 신라 하대에 선종을 처음 전한 승려였다. 그는 784년(선덕왕 5) 당에서 선종을 이어받아 821년 귀국하였으나, 당시는 교종만을 중시하던 때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왕경을 떠나 양양 진전사에 은거하여 40년 동안 수도하다가 입적하였다. 그는 염거화상(?~844)에게 법을 전하였고, 이에 따라 진전사에는 두 사람과 관련된 승탑이 있다. 도의선사의 승탑은 평면 사각형의 석탑기단 위에 팔각형의 작은 탑신을 올린 형태로 우리나라 석조 승탑의 첫 출발점이 되며, 세워진 시기는 9세기 중반으로 추정한다. 이후 신라 승탑이 팔각원당형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팔각원당형으로 처음 등장한 승탑은 흥법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염거화상탑이다. 염거화상은 설악산 억성사, 즉 선림원에 머물며 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다 844년 입적하였다. 승탑 안에서 염거화상의 금동탑지가 발견되어 이때 이 탑을 세웠음을 알게 되었다. 승탑의 모양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기단은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차례로 결합하고 하대석에는 사자, 중대석에는 향로와 꽃무늬, 상대석에는 연꽃잎무늬를 장식하였다. 탑신에는 사천왕상과 문을 새겼고, 지붕은 처마 밑에 서까래를 새기고 지붕 위는 기왓골을 내어 기와지붕의 모양을 갖추었다. 여기에 약간 변형을 가한 승탑으로 여주 고달사지 승탑(현원종대사 혜진탑), 선림원지 승탑, 강릉 굴산사지 승탑 등을 꼽을 수 있다.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선림원지에는 홍각선사 승탑을 비롯하여 홍각선사 탑비, 삼층석탑, 석등 등의 유물이 남아있다. 선림원의 홍각선사(814~880) 탑비는 886년(정강왕 1)에 세웠다. 비신은 깨어져 파편만 남아 있다.

파종이 된 선림원종은 인근 오대산 월정사에 옮겨 보관하던 중 한국전쟁 때 절이 불타면서 파손되었다. 종신鐘身 양쪽에 '804년 충북 옥천의 지방호족이 재정 지원하여 경주 영묘사의 승려를 모시고 제작했다'는 내용이 이두로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8세기 통일신라 범종에 비해 그 크기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변화이다.

그림 118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 탑

그림 119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 탑

그림 120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 탑비

그림 121 양양 선림원지 파종(국립춘천박물관 소장)

그림 122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강릉 굴산사는 사굴산문의 중심 사찰로 847년(문성왕 9)에 범일이 창건하였다. 굴산사에는 범일국사(?~889)의 승탑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당간지주도 있다. 이 당간지주는 높이 5.4m로 두 기둥이 1m의 간격을 두고 서 있는데, 거의 가공하지 않은 거대한 자연석이 웅장한 조형미를 연출한다.

호남·호서지방의 선종사찰로는 실상사, 성주사, 월광사, 태안사, 보림사, 쌍봉사가 있다. 신라 말 호서·호남지방에는 여러 선종 산문이 존재하였지만, 남원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증각대사 홍척의 실상산문이 가장 먼저 개창되었다.

실상사에는 동·서 삼층석탑을 비롯해 백장암 삼층석탑, 철불 등 중요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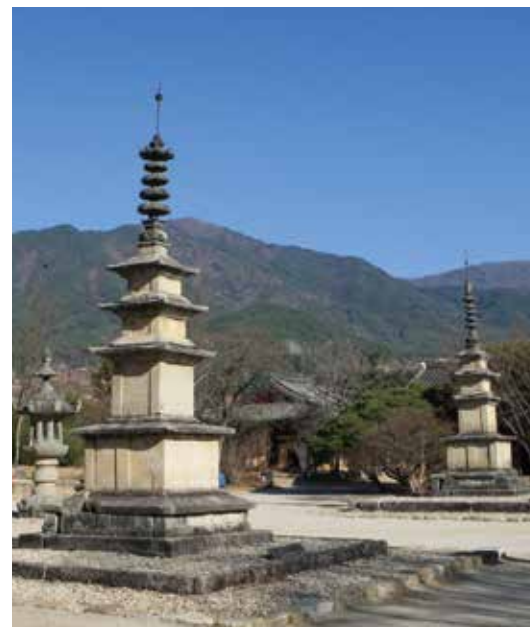
그림 123 남원 실상사 동·서 석탑

그림 124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물이 많이 남아있다. 석탑은 현재 보광전 앞에 동서로 위치한 쌍탑으로 석등과 더불어 실상사의 중요한 유물이다. 특히 이 탑은 상륜부가 거의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백장암의 삼층석탑은 단층 기단에 3층 탑신과 상륜부를 갖춘 점은 다른 석탑과 비슷하지만, 기단이 얕은 단층인 데 비해 1층 탑신이 높고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면서 너비와 높이가 줄지 않는 특이한 구성이다. 탑신에 보살, 신장, 천인과 함께 난간을 조각하였으며, 지붕돌 밑면에까지 연꽃과 삼존상을 표현하였다.

현재 실상사 약사전에 있는 높이가 270cm 가량인 철불좌상은 분할주조기법으로 제작한 대형불상이다. 통일신라 후기에 지방 소재 선종사찰에서 활발하게 조성한 철제 불상의 한 예로서 9세기 불상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선종 최초의 산문인 실상산파를 연 증각대사 홍척의 승탑은 전형적 팔각원당형으로 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이다. 탑비는 몸돌이 없어지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다. 이수 앞면 중앙에는 '응료탑비凝蓼塔碑'라는 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령 성주사지에는 낭혜화상 무염의 탑비와 4기의 탑이 있다. 비문에는 진

골 신분이던 낭혜화상의 가문이 아버지 대에 이르러 6두품으로 떨어진 사실을 전하고 있어 골품제 연구의 자료로 중요하다. 최치원이 글을 짓고 그의 사촌인 최인연이 글씨를 썼으며, 비를 세운 시기는 그 이후로 짐작된다.

가지산문의 장흥 보림사에는 쌍탑과 지권인을 한 철조비로자나불상, 그리고 석등이 있다. 쌍탑은 두 탑 모두 2단 기단에 3층 탑신을 갖춘 전형적 신라 석탑으로, 상륜부가 온전히 남아 있어 가치가 큰 탑이다. 특히 탑 안에서 탑지가 발견되어 더욱 중요하다. 탑지에 따르면 조성 시기는 경문왕 10년(870) 5월

그림 125 실상사 약사전 철불좌상

그림 126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 탑

그림 127 보령 성주사 낭혜화상 탑비

그림 128 장흥 보림사 쌍탑

그림 129 보림사 철불좌상

이며, 경문왕이 선왕인 헌안왕의 왕생을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9세기에는 왕실이 주도해 원당과 원찰을 건립하는 일이 성행하였는데, 이 탑도 그 한 예임을 알 수 있다. 대적광전에 있는 철불좌상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비로자나불이다. 왼팔 뒷쪽에 신라 헌안왕 2년(858) 무주·장사(지금의 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이 발원해 불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다.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 체징은 당에서 귀국한 후 헌안왕 3년(859) 왕의 청으로 보림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77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왕은 그에게 '보조선사'라는 시호와 '창성'이란 탑의 이름을 내렸다. 비석 건립 시기는 884년(헌강왕 10)이며, 사리탑은 당시에 유행한 전형적 팔각원당형이다.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도윤(?~868)은 입당유학 후 귀국하여 화순에 쌍봉사를 짓고 머물다 71세로 입적하였다. 철감선사의 승탑은 신라 하대의 승탑 중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전형적 팔각원당형이며, 건립 시기

그림 130 보림사 보조선사 승탑·탑비

그림 131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탑비

는 선사가 입적한 868년(경문왕 8) 즈음으로 추정된다. 탑비는 비신이 없어진 채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다. 머릿돌 앞면 중앙에 '쌍봉산고철감선사비명'이란 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5

유학과 문학

유학

유학은 인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그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유학은 우리의 전근대사회에서 오래도록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유학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생성되어 발전을 거듭한 유학이 언제, 어떤 과정을 밟아 우리 사회에 수용된 것인지는 뚜렷하지가 않다. 막연하게 한자 전래와 더불어 고조선 혹은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설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띤 유학에 대해 이른 시기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까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체적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대국가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시점인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학 수용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봄이 온당하다.

삼국 가운데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었다 할 신라에서 유학을 받아들일 정치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한 된 것은 4세기 후반 무렵부터로 보이지만 당시 그것을 받아들였음을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유학의 수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6세기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신라사에서 유학 수용의 시점은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때라고 함이 타당하다.

6세기는 공동체성이 강한 부체제적 질서를 벗어나 이제 막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진입하던 시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유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될 만한 기반이 갖추어졌고, 그것이 수용되자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유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지극히 얕고 부분적인 데에 그쳤지만 내부적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급속하게 높아지고 풍부해졌다. 발전의 주요 계기는 법흥왕 7년(520)의 율령 반포와 15년(528)의 불교 공인이었다.

율령은 겉으로는 마치 법가사상을 실현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학의 인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제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에 대한 귀족관료들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국가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법흥왕이 성문법으로서 처음 반포한 율령 속에 그런 의식과 목적이 깃들어 있었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스럽지가 않다. 524년 작성된 울진봉평비의 핵심이 노인법奴人法이라는 율령과 관련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그 말미에 『논어』에서 따왔음직한 '획죄어천獲罪於天'이란 구절이 보임은 그 점을 시사한다.

한편 불교의 공인은 유학 수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실례이다. 어려운 불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한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문을 익히노라면 저절로 그 밑바탕에 흐르는 유학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신라의 유학은 불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속에서 발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방증해 주는 사례가 535년 작성된 〈울주천전리서석〉의 을묘명乙卯銘이다. 여기에는 안급이라는 승려가 사미승과 거지벌촌居智伐村의 여러 선비[衆士]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 선비들이란 곧 안급의 문도들로서 그에게서 문

자와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을 총칭한 표현이겠다. 승려가 당시 새로운 사상인 유학을 주도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진흥왕이 신라 최초의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어린 진흥왕을 보좌해 정무를 맡고 있었던 이사부의 건의로 『국사』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를 실제로 추진한 인물은 이사부가 추천한 거칠부였다. 거칠부는 어린 시절 출가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역사서 편찬을 책임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거칠부는 역사서 편찬을 위해 널리 문사를 모집하였는데 이때 승려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실제 『국사』를 편찬하려 한 데는 군신들의 선악을 기록해 후대에 포폄褒貶을 나타내어 보이려는 지극히 유학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를 감당할 만한 문사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들을 가르친 사람은 대부분 승려였다. 얼마 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재들을 양성할 목적에서 조직화한 화랑도를 가르칠 교사로 승려가 그 구성의 일원이 되었다.

유학은 불교가 된 공인된 이후 그 우산 아래에서 급속히 확대 발전하였다. 그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진흥왕29년(568)에 작성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이다. 두 비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세워졌으나 그 내용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진흥왕이 변경 지방을 순행하면서 많은 신료와 함께 2명의 승려를 대동하였는데 그 승려들이 첫머리에 기재된 사실이 특히 주목된다. 비문 전반부의 기사紀事 내용은 대부분 『서경書經』에서 따온 것으로서 왕도정치의 이상을 표방한 것이다. 그와 같은 유교 경전의 내용을 갖고 진흥왕 곁에서 왕도정치의 구현을 보필한 것은 승려들이었다. 당시 불교와 유학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로 공존하였던 것이다.

유학은 불교의 발전과 동반해 점차 성장일로를 걸었다. 불교가 전륜성왕 의식, 석가족 신앙 등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유학이 차지하는 역할도 저절로 늘어났다. 관료조직 정비는 유학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귀족관료 가운데 유학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진평왕대에 병부령을 역임한 적이 있는 김후직金后稷은 전형적인 유학식 이름이다. 그는 이름에 걸맞게 진평왕의 잘못을 『서경』에 보이는 내용을 빌려 줄곧 직언하였고 죽어서까지 진평왕이 잘못을 깨우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유학이 이미 정치와 깊이 밀착된 사정의 일단을 반영한다. 약간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김춘추나 김유신도 모두 유학식의 이름이다. 그들이 추구한 행태로 미루어 유학이 점점 대세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실상과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 강수强首의 사례이다. 강수는 임나가라, 즉 대가야 출신으로 그의 조상은 신라에 투항해 곧장 중원지역으로 사민되었다. 강수가 장성해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무렵 그의 아버지가 불교와 유학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세외교世外教인 불교 대신 현실적인 유학을 선택하였다. 이미 7세기 전반 무렵에는 유학이 불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모는 고승 원광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원광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도학道學과 유학을 깊이 습득하고 있었다. 589년 25세 되던 해에 남조의 진陳으로 유학을 가서 출가하였다. 원광은 유학을 먼저 배워 마침내 승려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어린 시절 유학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음을 뜻한다. 600년 귀국하면서 진평왕으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았거니와 바로 얼마 뒤 귀산과 추항이란 젊은이가 찾아와 종신토록 지켜야 할 가르침을 요청하였다. 이때 작성해서 준 세속오계世俗五戒 속에도 유학적 인식이 그대로 들어 있다. 거기에는 '살생유택殺生有擇' 같은 불교적 요소도 있으나 충효와 신의를 강조한 유교적 덕목이 주류였다. 이 세속오계는 오직 그들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라 이후 신라인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덕목으로 뿌리내렸다. 당시 사회가 분화되면서 충효와 함께 의리가 밑바탕으로부터 요구되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적절한 사상 체계가 곧 유학이었다. 6~7세기를 거치면서 바탕부터 바뀌어 나가던 사회질서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침을 유학이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급속하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

612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 보듯이 두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시경』, 『서경』, 『예기』, 『춘추』를 익히려 한 사실은 당시 유교 경전 전반이 널리 읽히고 있었던 실상을 반영한다. 즉 유학이 사회 규범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무렵 각종 국가 의례와 교육을 관장한 예부禮部가 두어진 점도 바로 그런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학의 급성장은 자연히 기존 전통을 고수하려는 쪽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647년 일어난 비담의 난은 사실상 불교 중심의 지배체제를 고수하려는 일파와 그와는 달리 유학을 지향한 일파 사이의 정치적 대결이었다. 결국 후자가 승리함으로써 장차 신라의 나아갈 방향은 결정되었다. 이를 주도한 김춘추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를 위해 기존의 인재 양성 기구인 화랑도 조직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 기구로서 국학의 수용과 정착에 관심을 크게 기울였다.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는 불교 대신 유학이 대세였고 그를 실현하는 새로운 인재가 관료가 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문학

현재의 한국말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글이 사용되기 전에는 당연히 말로 된 이야기 문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비문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그나마 전해진 이야기들도 아주 후대에 이르러서야 문자로 정착되었다. 신라 문학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역사상 최초의 정형시인 향가문학, 후대에 정착된 설화문학, 그리고 한문학의 세 장르로 나눌 수 있다.

최초의 정형시인 향가문학

향가는 6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창작된 신라와 고려 초의 시가 작품이다. 신라 3대 유리왕(서기 1세기) 때 지금은 가사가 전하지 않는 도솔가兜率歌가 있었다. 이 노래를 '궁중악의 시작'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향가문학이 시작되어 통일신라의 7, 8세기에 이르러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덕택에 우리나라는 세계 문학사에서 10세기 이전 자국어로 표현된

문학작품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든다. 향가문학은 우리나라 시가문학사상 최초의 정형시로, 장형인 10구체(10행)와 8구체(8행), 단형인 4구체(4행)가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이 작품들은 모두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기에 역사적, 서사문학적 가치도 높다.

향가는 향찰문자로 한자의 음音(소리)과 훈訓(뜻)을 빌려 표현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말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였기에 우리의 시요, 우리의 노래다. 다만, 우리의 고대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 해독은 쉽지 않다. 우리말을 글로 적은 가장 오래된 표기법은 15세기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향가 해독을 할 때에는 그래도 향가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글인 15세기 중세국어로 복원해보고자 노력한다.

신라 때에 위홍과 대구화상이 향가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고 하나 지금 전하지 않아 신라향가는 현재 『삼국유사』에 14수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또 고려 초에 균여대사가 불교 포교를 위해 지은 〈보현십원가〉 11수가 『균여전』에 실려 전하고 있다.

향가 작품들은 주제에 따라 1) 왕궁의 향가, 2) 기도하는 삶, 3) 인생은 덧없어, 4) 길을 가다가, 5) 서라벌의 사랑노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하는 향가 작품들을 세기 및 왕대와 추정 작가의 부류 별로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향가문학은 일반적으로 왕에서 노인과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전 신라인의 창작이라 하나 작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가 작품의 이름은 기록으로 전해진 것보다는 학자들이 붙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일러둔다.

표 2. 삼국유사 소재 향가

향가 명	세기	왕	추정 작가 혹은 성격
서동요 (薯童謠)	6세기	진평왕 (600년경)	서동 백제무왕, 전승가요
혜성가 (彗星歌)	6세기	진평왕 (600년경)	융천사
풍요 (風謠)	7세기	선덕여왕 (632~646)	양지, 전승가요, 노동요

향가 명	세기	왕	추정 작가 혹은 성격
원왕생가 (願往生歌)	7세기	문무왕 (661~680)	광덕 혹은 그의 처, 전승가요
죽지랑가 (모죽지랑가 : 慕竹旨郎歌)	7세기	효소왕 (692~701)	득오
헌화가 (獻花歌)	8세기	성덕왕 (702~736)	이름 모르는 노인
원가 (怨歌, 737)	8세기	효성왕 (737~741)	신충
도솔가 (兜率歌, 760)	8세기	경덕왕 (742~765)	월명사
제망매가 (祭亡妹歌)	8세기	경덕왕 (742~765)	월명사
안민가 (安民歌, 765)	8세기	경덕왕 (742~765)	충담사
기파랑가 (찬기파랑가 : 讚耆婆郎歌)	8세기	경덕왕 (742~765)	충담사
천수대비가 (도천수대비가 : 禱千手大悲歌)	8세기	경덕왕 (742~765)	아이(5세) 혹은 희명부인, 전승가요
우적가 (遇賊歌)	8세기	경덕왕 (742~765)	영재
처용가 (處容歌, 879)	9세기	헌강왕 (875~886)	처용
보현십원가 (普賢十願歌)	10세기	신라 신덕왕 6년 ~ 고려 광종 24 (917~973)	균여대사

아래에서는 처용가를 대표로 뽑아 그 배경과 내용을 서술하기로 한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울주군 동해변에 놀러갔다가 바닷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동해 용왕의 변괴로 구름과 안개가 끼고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었다. 이에 일관日官의 뜻에 따라 용왕을 위해 절을 지어주기로 하자 비로소 날이 개었다. 그리고 동해 용왕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춤을 추고 임금의 덕을 칭송하였다. 떠날 때 한 아들을 남겨 왕을 따라가 국정을 돕게 했는데 그가 처용이다. 왕이 처용을 왕경에 머무르게 하려고 벼슬을 주고 미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처용이 어느 서라벌 밝은 달밤에 늦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누군가 아내를 탐해 함께 자고 있었다. 처용이 보고는 "서라벌 밝은 달에/밤들도록 노니다가/들어와 자리 보니/가로리(다리가) 넷이구나/둘은 내해엇고(내 아내의 다리이고)/둘은 뉘해엇고(누구의 다리인가)?/본디 나의 것이지마는/빼앗겼으니 어찌하릿고?"라고 즉각 항의하지 않고 물러나 이런 노래와 춤을 추어 그를 물리쳤으니, 이 향가는 무가巫歌의 일종이다. 즉 〈처용가〉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해 음란한 노래로 볼 것이 아니며, 역신疫神(질병의 신)이 아내와 동침함은 아내가 병에 걸렸음을 의미하고 처용이 이를 보고 노래를 불러 역신을 물리쳤음을 말하기에 이 노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술적 무가로 해석함이 좋다. 그리고 이 노래를 그런 무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구절은 처용이 초탈의 경지를 이르렀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역신들은 처용의 모습만 보면 도망하였으므로 그는 역신을 쫓는 상징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때 부른 8구체 향가를 처용가라 하며 역신을 쫓는 데 추는 춤을 처용무라 한다. 처용가와 함께 처용무는 고려, 조선시대에까지도 이어져 그 탈과 그림이 남아 전한다. 그리고 처용의 어원은 용왕의 아들이 이 땅에 남아 머물었으니, 인간 세상에 머문[處] 용龍으로 '處龍(처용)'이었으나 사람이기에 얼굴 '容(용)'자로 바꾸어 '處容(처용)'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설화문학

신라의 설화는 천년 신라가 꾼 긴 꿈의 여정이다. 설화는 역사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은유를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따라서 설화는 역사보다 더 진실하다고도 말한다. 역사의 부침 속에서 일어나는 승리와 패배의 현실을 넘어 삶의 깊이에 대한 울림이 그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번져 나오기 때문이다. 신화와 전설과 민담과 같은 옛이야기의 세계는 역사의 속살이라 할 수도 있다. 역사가 삶의 실재하는 양이라면 설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깊이이다. 이야기는 지금 있는 세계를 넘어 있어야 할 피안의 세계를 그리기도 한다. 『삼국유사』 등에 실린 이야기로서 신라를 가장 신라답게 만든 특별한 설화들은 크게 보아 네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

첫째, 신라가 세 여왕이 다스린 적이 있던 나라였다는 점이다. 같은 시대의 백제, 고구려에서나 후대 왕조에서 여왕을 배출한 적이 없다. 신라는 이처럼

독특한 정치사를 가진 나라였기에 적지 않은 설화가 그와 관련이 있다. 둘째, 신라는 두두리豆豆里 도깨비를 숭상한 나라였다는 점이다. 두두리는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신이다. 신라 초기 사로국의 왕들, 즉 거서간 박혁거세, 이사금 석탈해, 김씨 왕들의 시조인 김알지는 철기문화를 이끈 영웅들이다. 셋째, 신라는 다른 문화권의 종교를 수용하면서 항상 고유신앙과 부딪히는 가운데 그를 자기화한 나라라는 점이다. 특히 불교가 고유신앙과 마찰하면서 정착되는 과정이 이야기의 세계 속에 전개되고 있다. 넷째, 신라는 기층민의 사회적 역량과 위치를 존중한 나라라는 점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여왕을 사랑한 지귀志鬼〉와 〈진성여대왕 거타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신라의 설화 가운데서 선덕여왕의 지기삼사知幾三事, 즉 미리 안 세 가지 사실 이야기는 여왕이 지도자와 인간으로서 지녔던 신이한 능력을 전하고 있다.

첫째는 향기 없는 모란꽃 이야기이다.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자주색·흰색의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의 그림과 그 씨 석 되를 함께 보내 왔다. 왕은 그 꽃 그림을 보고 모란꽃이 향기가 없음을 예언하였는데, 이듬해에 핀 그 모란은 과연 향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선덕여왕은 꽃을 그린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그 꽃에 향이 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여왕은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풍자한 당나라 임금의 속내를 간파해낸 것이다. 당태종과 신라여왕이라는 두 통치자 사이에서 빚어지는 암묵적 긴장과 갈등이 이 이야기에서 묻어난다.

둘째는 몰래 침략한 적군을 미리 알아 섬멸한 이야기이다. 영묘사라는 절의 옥문지玉門池에 겨울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울어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니 왕은 정병을 여근곡女根谷에 보내어 적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군사가 서교西郊에 가니 과연 여근곡이 있고 백제군 5백여 명이 매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섬멸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모란꽃 이야기가 선덕여왕의 심미적 예지를 보여주었다면 이 여근곡 이야기는 위기를 관리하는 여왕의 통찰력과 실천적 행동력을 보여준다. 또 우리 고유신앙과 음양오행 이론의 체계를 통달한 여왕의 자질이 두드러진다. 노란 개구리는 병사의 형상이며 옥문은 여자의 상징으로 음陰이고, 백색은 서쪽을 가리키므로 백제군이 서방에 매복했음을 알았던 것이다.

셋째는 왕이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안 이야기이다. 왕은 생전에 자신이 죽을 날을 예언하며 도리천忉利天에 장사 지내 달라고 일렀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가 물으니 낭산狼山 남쪽이라고만 답하였다. 왕은 과연 예언한 날에 세상을 떠났고 신하들은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10년 뒤 문무왕이 무덤 아래쪽에 사천왕사를 세웠다.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 하였으니 그제야 예언이 적중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림 133〉. 이 이야기는 선덕여왕이 무엇보다 불경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보면 선덕여왕은 유사 이래 첫 여성 왕으로서 여러 종교 사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의상대사와 부석사에 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와 송나라 때 『송고승전』에 실려 전한다. 당나라의 선묘낭자는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 기숙하려고 들어간 하숙집의 딸이었다. 선묘낭자는 의상에게 간절한 사랑을 호소하지만 의상은 돌아보지 않고 수도에만 정진하였다. 더 이상 의상의 마음을 돌릴

그림 132 경주 여근곡

그림 133 경주 사천왕사지와 선덕여왕릉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묘는 자신도 불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멀리서나마 의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의상이 한마디 이별의 언사도 없이 귀국길에 오를 때 선묘는 단장의 슬픔을 뒤로 하고 한 마리 용이 되어 뱃길을 보호하였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불제자의 길로 승화시킨 선묘는 의상을 보호하는 수호용이 되어 함께 신라로 들어왔다. 귀국 뒤 부석사를 창건하고자 한 의상은 토착신앙의 저항 앞에 속수무책이 된다. 『송고승전』은 신라의 토착신앙을 믿는 이단의 신도 500여명이 대항하였다고 전한다. 이때 선묘낭자는 다시 흔들리는 돌, 즉 부석浮石이 되어 토착신앙을 추종하는 신도들에게로 굴러 내려 이들을 물리쳤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절의 이름이 부석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문학

영남의 진한지역은 위만조선 말에 일부 북방 지식인과 중국계 유망민이 들어와 살면서 한문자를 알기 시작하였고, 한사군 시기에 이런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신라의 한문은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중국과 독자적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고구려 및 백제와 대등한 경쟁적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다. 사실 6세기 이전 신라 문자자료 가운데는 한문 문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글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6세기 초, 중반에 걸쳐 세워진 금석문 자료의 문장은 우리말 지명·인명·관직명 등을 음차로 표기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열거한 정도였다. 통일 이전에는 승려 지식인이 주축이 되어 왕의 행차, 왕에게 올린 공문서, 왕실 중심의 역사, 대중국 외교문서 등 현실 정치에 없을 수 없는 일부 실용 한문을 작성하는 데 치중하였다. 따라서 시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신라는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유교를 불교와 다른 새로운 지도이념의 하나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당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당나라 구경九經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유학에 대한 이해의 폭과 수준을 근본적으로 갱신하였다. 그리고 『문선』을 국학의 정식 교과로 채택해 교육하고 『문관사림』을 들여와 공부함으로써 마침내 통일 국가의 규모에 걸맞은 수준 높은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었다.

통일 이후의 문장 작성은 이제 더 이상 승려 계층에 머물지 않았다. 당나라 국자감에 유학하거나 신라 국학에 입학해 오경五經, 구경 같은 유가 경전을 공부한 지식인과 『문선』, 『문관사림』 같은 시문선집을 학습한 문필가가 등장하였고, 이들이 마침내 승려 계층을 대신해서 외교문서를 비롯한 국가적 주요 글쓰기의 전면에 나섰다. 외교문서 작성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강수, 숙위학생 출신으로 당나라를 7차례나 드나든 김인문金仁問, 구경을 풀이해 후학을 가르치고 「풍왕서諷王書」(일명 「화왕계花王戒」)를 지은 설총薛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신라 국학 소경少卿 직함을 가지고 있던 김△△는 〈문무왕릉비〉(681)를 짓고, 한림랑翰林郎 김필오金弼奧는 〈성덕대왕신종명〉(771)을 지었다. 특히 〈감산사미륵보살조상기〉,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기〉, 〈성덕대왕신종명〉 등은 당시 산문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감산사 조상기는 중아찬 김지성金志誠이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산사란 절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 미륵상을(719), 아버지를 위해 아미타상을(720) 조성한 다음 그 광배에다 기록해 놓은 글이다. 글을 지은 이는 나마奈麻 총聰이라고 하였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요 문장가이기도 한 설총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두 글은 모두 지극한 도의 본질에 대한 서론적 전제, 조성 주체였던 김지성의 생애 일반, 구체적 발원의 대상과 내용 등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글 속에 동원한 지식이 불교는 물론 노장과 유학의 내용을 두루 망라하였고, '지도至道(지극한 도)', '삼신三身(법신 응신 화신)', '진종眞宗(진리의 가르침)', '영반榮班(높은 벼슬)' 같은 추상적 개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으며, 앞뒤 어구가 2구씩 짝을 이루도록 가다듬어 수준 높은 문장미를 구현하였다.

그림 134 감산사 아미타여래조상기

성덕대왕신종은 일명 봉덕사종 혹은 에밀레종이라고 한다. 성덕대왕의 공덕을 기리고 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려는 목적에서 주조하였다. 그의 아들 경덕왕(742~764) 때 기획하여 혜공왕 7년(771)에 완성하였다. 〈성덕대왕신종명〉은 바로 이 종의 외면에 새긴 문장으로, 서문序文이 약 630자, 명문銘文이 200자, 도합 830자 정도이다. 서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4자 6자 어구를 중심으로 앞뒤 어구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가다듬은 전형적 사륙변려문이다. 명문은 4언 50구로 구성된 시 형식인데, 중간에 몇 차례 운자를 교체하는 환운법換韻法을 구사하였다. 전문에 걸쳐 생경하거나 어색한 어휘가 보이지 않고, 경전이나 명문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익숙하고 세련된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였으며, 고사를 활용한 용사用事의 범위가 넓고 비유적 표현 방식이 거침이 없다. 누가 보아도 당대 최고의 명문장임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한시는 승려들의 게송과 일부 서정시가 중심이었으며, 학자나 관료는 부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승려들의 시도 혜초, 의상 같은 주요 작가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은 작품이란 점에 아직은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신라 하대에 오면 중국 문단의 사정에 정통하고 창작 역량을 동시에 갖춘 빈공급제자들이 대거 귀국해 활동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근체시를 문단의 주류 양식으로 확산시키고, 문장에서까지 기존의 문풍을 일신시켰다. 그 가운데 최치원은 글의 양에 있어서나 문체의 다양함, 문장의 격식과 표현 수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신라 말기에 축적된 이런 창작 경험과 작품 수준은 다음 왕조인 고려로 고스란히 전수되어 고려 전기 문벌귀족의 문학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림 135 성덕대왕신종명문 비천상과 명문 실측도

6 음악

고대에는 예악을 중시하였기에 음악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날과 달리 아주 컸다. 신라사회는 왕과 귀족, 승려와 평민 등으로 이루어진 계층사회였으므로 각 계층이 향유한 음악과 춤에는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었을 것이다. 평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노래와 춤을 추었을 것이며, 왕과 귀족들은 그들의 고급문화와 어울리는 음악과 춤을 향유했을 것이다.

평민들의 음악

평민들의 음악은 그들의 노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농업이든 어업이든 일은 혼자해도 되는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집단의 노동력이 동시에 집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요'는 필수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축조한 4~5세기 신라인들은 흙을 나를 때 힘의 결집을 위해 노동요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석탑을 조성한 7~10세기 신라인들도 무거운 석재를 운반할 때 힘찬 구령과 함께 노동요를 불렀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632~647) 때 조각가 양지良志 스님이 영묘사靈廟寺에서 장륙상丈六像을 만들 때 성 안의 남녀가 진흙을 나르면서 '풍요風謠'를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노동요의 대표적 예이다. 당시의 노래 선율이 오늘날 전하지는 않지만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로 구성된 짧은 사설로 봤을 때 선율과 리듬은 민요처럼 간결하고 쉬운 구조였을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즉 '동요'로 퍼트리기도 했으니 대표적 동요가 '서동요'이다. 백제 무왕은 어렸을 때 마를 캐어 팔아서 생계를 잇는 서동이었는데, 그가 신라 진평왕(579~632)의 셋째 공주가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금성으로 와서 동요를 지어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가 바로 '서동요'이다. 그 가사는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가서 서동이를 밤이면 안고 가네"이다.

노래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하다. 선화공주가 서동과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노래 덕에 선화공주가 서동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 '서동요'의 작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5~7세기 때 신라사회에서 불린 동요임은 분명하다.

승려들의 음악활동과 불교음악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5세기이며, 공인된 것은 6세기 초이다. 불교의 전래는 신라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음악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때 승려들이 주역을 담당하였다.

경문왕 때 4명의 화랑이 강원도 통천지역을 유람할 때 임금을 보필해 나라가 잘 다스려지도록 하려는 포부에서 노래 3곡의 작사를 하였다. 그러고는 여기에 곡을 붙이기 위해 대구화상에게 보냈다. 대구화상은 그들이 지은 노래 3수에 곡을 붙였다. 제1곡이 현금포곡玄琴抱曲, 제2곡이 대도곡大道曲, 제3곡이 문군곡問群曲이다.

현금포곡은 현금, 즉 거문고를 끌어안아 품는다는 뜻이므로 거문고 관련

악곡으로 짐작된다. 대도곡의 '대도'는 큰 길이란 뜻인데, 신라 때 여러 제사 중에 '사대도제四大道祭'가 있었으니 이 제례에 사용한 음악인지도 모른다. 문군곡은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세 곡은 노래 선율과 가사가 전하지 않지만, 경문왕이 세 곡의 연주를 듣고 흡족해 했다고 하니 대구화상의 실력이 왕실에서 인정받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9세기 신라사회에서 음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자가 사찰의 승려였음을 보여준다.

왕과 귀족들의 음악생활

신라 하대에 들어와 9세기에 헌덕왕과 헌강왕은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직접 '금'을 연주했다. 현악기는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이다. 그런 현악기를 신라의 왕들이 직접 연주한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 왕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이때 현악기 '금'은 원래 고로 불리었다. 거문고나 가얏고 계통의 현악기에 대한 범칭이 바로 '고'이며, 이 '고'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금琴'으로 이해된다. 이 신라왕들이 연주한 악기가 6세기 가야에서 들어온 가야금일 수도 있으나, 9세기 초에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정창원[쇼소인]에 전해지는 '신라금新羅琴[시라기고토]'일 가능성도 있다.

이 고는 5세기 신라 토우 12점에 보이는 악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림로 30호묘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에서 신라 토우의 인물이 '고'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연주자 무릎에 악기를 올리되 악기의 중앙이 연주자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악기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토우에 표현된 이 악기는 신라에 가야금이 유입되기 이전에 고유의 '고'가 있었음을 말하는 증거로 삼을 만하다. 고유의 현악기 고가 있었던 상태에서 가야금이 신라에 수용되었으며, 삼국통일 후에는 고구려의 거문고도 들어온 것이다.

신라왕들은 신하들과 잔치를 하다가 흥이 고조되면 직접 악기를 연주한 이외에도 전문 악인들의 연주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신문왕은 689년에 신촌新村에 행차해 잔치를 베풀고 음악과 춤을 연행하게 하였다. 이때 연행한 곡은 모두 일

그림 136 경주 계림로 30호묘 출토 토우장식장경호

그림 137 토우장식장경호의 고[琴]

곱 곡이었다. 곡명은 하신열무, 사내무 등 끝에 무舞자가 붙은 것으로 보건대 모두 춤곡으로 여겨진다. 각 곡목의 연행 구성원을 보면, 음악 감독을 제외하고는 가·무·악의 구성원은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이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소규모의 편성이다. 이처럼 연행의 규모가 작은 것은 주연이 행해진 장소인 신촌이 궁성이 있는 서라벌이 아니라 타지였기 때문일 수 있다.

807년(애장왕 8) 2월에 애장왕이 월성의 숭례전에 앉아 음악 연주를 관람했는데, 먼저 사내금思內琴을 연행한 뒤에 대금무碓琴舞를 연행했다. 이때 사내금의 구성원은 신촌에서 연행한 구성원의 2배 정도였다. 왕실에서 신하들을 위한 잔치는 주로 월성의 숭례전과 임해전에서 펼쳐졌기에 별도의 공연장은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대금무는 5세기 자비마립간대의 최고 음악가임과 동시에 신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평가할 수 있는 백결百結의 대악碓樂, 즉 방아악이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백결은 가세가 빈곤해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하도 누덕누덕해서 당시 사람들이 '백결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즉 진짜 이름은 아니다. 그는 세모를 맞아 방아 찧을 곡식이 없어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현악기 '고琴'를 쳐서 방아소리를 연주하였다. 이것이 후세에 대악이란 이름으로 전해진 것이다.

신라의 음악책인 『악본』

『악본樂本』은 김대문金大問이 지은 음악 관련 책이다. 김대문은 704년(성덕왕 3) 한산주 도독을 역임한 인물로 『악본』 외에도 『화랑세기花郞世記』 등 여러 책을 저술하였다. 신라는 당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예기』를 접했을 터인데, 『예기』의 악기樂記에는 악樂에 대한 정의와 음音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 『악본』은 '악樂의 근본을 적은 책'이란 뜻으로 악의 정의부터 소리의 종류 및 성격, 나아가 신라 악기의 종류와 유래, 또는 악기별 악조樂調와 악곡 수에 대한 설명을 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악조란 악곡의 음악적 구조를 뜻하는데 신라인들은 악기마다 악조를 다르게

사용했다. 『삼국사기』 잡지의 악조를 보면 가야금과 거문고·향비파·삼죽의 악조가 각기 달랐다. 특히 현악기가 다르다. 관악기는 제작 과정에서 관의 음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악조가 동일하다. 그러나 현악기는 사용할 때마다 음정 조절이 가능하다. 현악기는 연주자가 원하는 선법의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악기마다 악조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시대 현악기의 악조가 악기별로 다른 점은 합주보다 독주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악기

신라의 악기는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으로 그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고고학 자료는 유물로 전하는 '유물 악기'와 유물의 도상에 새겨져 전하는 '도상 악기'로 구분된다.

문헌에 기록된 현악기로는 삼현三絃, 즉 거문고, 가얏고, 향비파가 있다. 일본 정창원에 실물 악기인 '신라금'과 이 악기를 넣는 케이스인 '신라금궤'가 보존 전승되고 있다. 도상 악기로는 공후가 보인다.

거문고와 가야금은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기이다. 거문고는 고구려에서 유래하였고, 통일 후 신라로 전해졌다. 만파식적과 함께 월성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고 국보로 삼았다. 경덕왕(742~765) 때 사람 옥보고는 한때 경주 남산 금오산의 금송정에서 거문고를 연주했으며, 지리산 운상원으로 들어가 50년 동안 익히고 스스로 새로운 곡 30곡을 지은 신라의 거문고 명인이었다.

가야금은 우륵과 그의 제자 이문이 신라에 투항하면서 신라로 전래되었다. 원래 대가야 가실왕이 악사 우륵于勒으로 하여금 중국의 악기를 보고 12현의 악기를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관련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제작 당시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신라금'은 실물이 일본 정창원 북쪽 창고에 보관되어 전한다. 이 '신라고'는 길이 158.0cm이며, 폭 30.0cm로서 오늘날 가야금이나 거문고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림 138 일본 쇼소인 소장 신라금

그림 139 각종 유물에 표현된 비파 (①감은사 서탑 사리내함, ②상원사종 유곽, ③신라토우, ④상주 석각 천인상, ⑤봉암사 지증대사 부도)

비파는 오늘날 기타(guitar)처럼 안고 타는 현악기이다. 신라 때는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감은사 사리함에 표현된 비파는 악기 머리 부분이 새머리처럼 장식되었고, 상원사종의 유곽에 조각된 비파는 4현의 조이개가 있으면서 목이 곧다. 반면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와 상주 석각 천인상의 비파는 현 조이개 부분이 기역자('ㄱ') 형태로 꺾였다. 비파는 연주자가 현을 탈 때 손가락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밥주걱 같은 발撥로 연주하기도 했다.

비파는 중국에서도 서역에서 유래한 악기로 전한다. 신라 비파의 경우 4~5세기 신라 토우에 이미 존재하므로 중국의 비파와는 구별된다. 원래 비파는 2현의 단순한 악기였는데, 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 비파의 영향을 받은 후 4현으로 확대되어 목이 곧은 것과 굽은 것 등 다양한 비파가 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후는 서양의 하프처럼 생긴 악기이다. 725년 상원사 범종의 중대에 새겨져 있다. 이 악기의 기원도 서역으로 보고 있다. 이 악기의 주악상은 석탑과 부도에도 등장한다. 통일 초기에 신라에 출현해 고려 초기까지 연주된 후 명맥이 끊어진 현악기이다.

신라 관악기를 대표하는 것은 '삼죽三竹'이다. 크기에 따라 대금大笒·중금中

그림 140 상원사종의 공후 탁본

그림 141 상원사종의 생 탁본

그림 142 경주 월성해자 출토 당삼채 훈

그림 143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의 피리

笒·소금小笒으로 나뉜다. 이것들은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다. 삼죽 외에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악기로는 생笙과 소簫, 종적의 피리 및 단소류, 나발螺鉢 그리고 훈塤이 있다.

생은 오늘날에는 생황이라 부른다. 여러 개의 관을 음통에 꽂고 그에 긴 관을 연결해 취구로 삼아 부는 관악기이다. 상원사 범종의 중대와 하대에 등장하며 기와의 암막새와 수막새에도 나타난다. 이 악기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연주되는 현존 관악기이다.

종적은 세로로 잡고 부는 관악기이다. 문헌에는 신라 악기로 '가笳'라는 것만 전한다. 5세기 신라 토우와 7~8세기 암막새 등 고고학 자료에 보이는 종적류의 악기는 관이 좁고 길이가 짧은 '피리'도 있고, 약간 굵고 길이도 긴 '단소短簫'류의 악기도 있다.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그림 143>에도 피리가 나타난다.

훈은 서양 악기 오카리나와 같은 관악기로서, 흙으로 공처럼 둥글게 만들고 입김을 불어 넣는 취구와 다양한 음정을 소리 내는 여러 개의 지공이 뚫려 있는 구조이다. 경주 월성해자에서 지름 약 3.7cm의 당삼채唐三彩 훈이 발굴되었는데, 형태가 원숭이 얼굴처럼 생겼다. 이는 신라 때 이미 당나라의 악기가 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타악기는 박판拍板과 대고大鼓뿐이다. 그러나 고고학

그림 144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의 박판

그림 145 감은사 서탑 사리함의 요고

자료로 범종梵鐘과 금고金鼓 같은 실물 악기가 전하며, 창녕 화왕산성에서 8세기의 북 1점이, 경기도 이성산성에서 역시 8세기의 요고腰鼓 1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 도상 악기로 바라 혹은 요발鐃鈸도 있다.

박판은 오늘날 '박拍'이라 칭하며, 종묘 제례악 같은 관현합주에서 연주를 시작할 때 '탁!'하고 한 번 치고, 끝날 때 "탁! 탁! 탁!"하고 세 번 치는 타악기이다. 박을 치는 주악상은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의 조각이 가장 사실적이다.

일반적으로 북은 나무로 된 북통에다 짐승 가죽 북면을 덮어서 만드는데, 범종이나 금고처럼 금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잔존하지 않는다. 북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현재까지는 '요고'와 작은 북만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되었다. 대고는 큰 북을 뜻하는데, 『삼국사기』의 "태종 무열왕 2년(655) 월성 안에 고루鼓樓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큰 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신라 때의 대고는 전하지 않는다.

요고란 허리에 매고 치는 북이다. 요고가 도상으로 등장하는 유물로는 682년 경주 감은사 서탑 사리함 등이 있다.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요고 실물 1점이 출토되었는데, 한쪽이 약간 결실되었다. 목재로서 긴 쪽의 길이가 43.0cm이며, 지름은 17.0cm이다. 오늘날 장고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은 것이 차이점이다.

작은 북의 예로는 창녕 화왕산성 연지에서 출토된 느릅나무로 만든 북이 있는데 높이 51.2cm이다. 앞뒤로 어디에 매다는 데 쓰인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바라 혹은 요발이라는 악기는 서양의 심벌즈처럼 생긴 타악기이다. 감은사 서탑의 사리함에 처음 등장한다. 통일신라시대 바라는 도상으로만 전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실물의 바라가 큰 것과 작은 것 등 다양해진다. 이 악기는 요즘 대취타에 사용되며, 사찰에서 바라춤의 무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146 하남 이성산성 출토 요고

그림 147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 북

그림 148 감은사지 서탑 사리함의 바라

7 과학과 기술

천문과 역법

신라의 천문학을 논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나는 신라 왕궁 월성의 서북쪽 노지에 우뚝 서 있는 첨성대瞻星臺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수록된 30건의 일식 기록이다.

천문

첨성대는 그 말뜻이 별을 바라보는 대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천문관측 시설물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으로 정상부에 놓인 우물 정자형 사각틀과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둥그스름한 선을 이루는 상방하원上方下圓 형태의 곡선형 조형미(윗지름 2.85m, 밑지름 4.93m, 높이 9.10m) 때문에 신라인의 하늘 이상을 잘 담아낸 우수한 조형물로 주목받았다.

불국토 신앙이 강했던 신라인만큼, 31층으로 쌓아올린 벽돌 모양 돌 층수에 착안해서 아래위 땅과 하늘까지 합하면 33층이 되니 불교의 수미산 도리천을 형상화한 의례적 상징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였다. 멀리서 보면 정자형 우

물이 하늘을 향해 우주목처럼 우뚝 솟은 모습은 그곳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려 한 신라인의 하늘 신앙이 낳은 결과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첨성대라는 말뜻 때문에 천문대설이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정자형 상부가 매우 좁음에도 천문의기를 올려 천문관측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상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금석문 어디에도 신라인이 첨성대를 활용해 남긴 천문관측 기록이나 천문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적 천문관측대로서보다는 의례적 상징물로 보는 시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첨성대의 축조 시기를 『삼국유사』가 선덕여왕(632~647)대라고 언급한 이래

그림 149 첨성대 전경

633년설(『세종실록지리지』)과 647년설(『증보문헌비고』)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고려 말과 조선조에 들어 천문관측대 인식이 확장되면서 선덕여왕의 즉위년과 몰년을 축조 시기로 비정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일식기록의 경우, 『삼국사기』에 수록된 67건의 일식 기사 중에서 신라의 것은 통일신라까지 합해 모두 30건이다. 30건 중에서 무려 19건(63%)이 신라 건국 4년(혁거세왕 4년, BC54) 4월 1일부터 제12대 첨해왕 10년(256) 10월 1일까지의 초기 신라, 즉 사로국 시기에 몰려 있다. 그 가운데서도 1, 2대왕 70년간에 전체의 30%(9건)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통일기 제38대 원성왕 3년(787) 8월 1일에 일식기록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물경 53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 통일신라 동안 기록된 일식사건 11건은 모두가 삼국을 통일하고 100년이 지나면서 정쟁으로 사회 불안이 점증되는 하대 155년 동안에 발생한 기록들이다.

이와 같이 신라 건국 초기인 1, 2대왕 70년간에 전체의 30%가 기록되고 또 신라 초기 310년간에 전체의 63%가 기록된 상황 그리고 이후 첨성대를 짓고 당나라의 천문역법을 수용해 상당한 천문학 발전을 이루었을 중고기 및 중대 사이의 530년간(257~787)에는 일식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상황 등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 일식기록은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라 초기가 대체로 중국의 후한대 전후에 해당하므로 『한서』와 『후한서』, 『위서』, 『진서』 등에 기록된 중국의 일식기록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삼국의 일식 사건이 어떻게 관측, 기록되고 전승되어 『삼국사기』 편찬 시에 수록되었느냐 하는 역법학적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일식 관측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 일이다. 그러나 관측은 실상 경험적이어서 용이성이 있는 반면에 예측은 정밀과학이어서 관측 역법학의 발달을 필요로 하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또 관측한 일식의 날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역일曆日에 관한 역법제도와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별자리 관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별자리를 관측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그 관측한 내용을 기록해 후대로 전승시키는 일이 한층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천문도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역법

신라에 전문적 역법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문학의 핵심 주제가 되는 역일제도와 역법 문제는 좀 더 일반적인 시간학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역법의 존재 혹은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태음태양력의 대표적 지표가 되는 윤달의 사용 여부를 검토해보면 삼국통일 직후인 신문왕 9년(689)에 처음으로 윤달 기록이 확인된다. 이는 그보다 15년 전인 문무왕 14년(674) 정월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대나마 덕복이 역술을 배워 전하였다는 기록을 뒷받침한다. 이때의 역술은 구체적으로 당 초에 반포된 인덕력麟德曆을 말한다. 이 인덕력에 의거함으로써 신라는 비로소 신문왕대에 윤달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윤달 기록이 처음 나온 이후 3년 뒤인 효소왕 원년(692) 8월에는 고승 도증이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천문도天文圖를 바쳤다고 해서, 천문과 역법의 제도가 이 무렵부터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천문역법 제도를 다루는 전문기관은 여전히 설립되지 않았다. 8세기 초인 성덕왕 17년(718)에야 비로소 천문역법을 다루는 기관인 누각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구성이 천문박사 1인과 누각박사가 6인이어서 관측과 역법의 천문학보다는 일상의 시간학 방면에 초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문헌기록과 별도로 당대의 금석문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윤달이 들어간 간지역일干支曆日 금석문은 9세기 중반 46대 문성왕이 세운 〈창림사무구정탑지〉(855)가 유일하다. 여기에 적용된 역법은 선명력宣明曆이어서 신라 하대에 선명력이 사용된 분명한 전거이다. 이는 『삼국사기』에서 성덕왕 연간에 누각전이 설치된 이후 윤달 기록이 많아지는 흐름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는 자체의 역법을 마련하지 않았고 통일신라의 문무왕대에 비로소 당나라의 인덕력을 수용하였으며, 성덕왕대에는 누각전을 설치해 누각박사와 천문박사를 두고서 천문역법 제도를 관장하게 하였고, 신라 하대에는 당말 선명력을 도입해 사용하였다.

통일신라 이전에 역법이 사용된 시점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신라의 역일제도와 시간학 문제를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신라의 국가제사인 시조묘 및 신궁 제사의 시기를 검토해 보면 신왕의 즉위 다음해인 유년 2월이 제사 시기로 주로 활용되었다. 정월보다 2월 기원례의 빈도가 매우 높다 이는 신라인들에게 1년 세수로서의 기원紀元이 2월이 아니었을까 상정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연월 기록이 아니라 연월일 세 요소까지 기록된 자료를 찾아보면 일식과 천변 기록을 제외하고는 건국 이후 600년 가까이 지난 법흥왕(514~540)대까지 겨우 2건의 기록만이 확인된다. 이 두 건도 첨해왕과 지증왕의 홍거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진흥왕 33년(572) 10월 20일 팔관연회를 외사外寺에서 개설하였다는 기록이 사실상의 첫 연월일 기록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초기기록에서 일식과 천변 기사만 유독 초하루 간지일까지 정밀히 표기된 점은 『삼국사기』 찬자가 중국 측 기록을 참조했다고 보는 이외에는 합당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금석문의 연월일 기록은 『삼국사기』보다는 이른 시기로 나타난다. 포항 냉수리비(503)에서 "계미년(지증왕 4, 503년) 9월 25일"이 보이고 울진봉평비(524)에서 "갑진년(법흥왕 11, 524) 정월 15일" 기록이 보이는 것은 6세기에 들어선 지증왕과 법흥왕 및 진흥왕대에는 이미 간지년과 월일로 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신라 금석문 역일 자료에서 크게 주목할 점은 진흥왕의 〈황초령순수비〉와 〈마운령순수비〉의 역일이다. 이를 검토해보면 진흥왕 연간에 책봉과 조공이라는 공식외교관계를 맺은 북제의 천보력天保曆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 남조 진陳나라가 사용했던 양梁나라의 대명력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마운령순수비〉의 역일은 북주력과는 분명히 다르고 북제 천보력과 일치하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는 기왕에 알려진 문무왕대의 인덕력보다 이른 시기 역법의 존재를 일러준다.

진흥왕 순수비 이후 간지역일 자료로는 먼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진덕여왕 5년(651, 당고종 영휘永徽 2년) 정월 초하루에 조원전에서 행한 하정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정월正月 삭일朔日"이 기록된 첫 자료이다. 다음 문무왕대와 신문왕대 그리고 효소왕대의 기록들이 있다. 한편 금석문 가운데 경주 〈황복사금동사리함기〉에 "중종 신룡神龍 2년 병오년(706, 성덕왕 5) 5월 30일

(임신) … "이라는 간지역일 자료가 전한다. 여기서의 역일은 5월이 대월大月이어서 당시 사용되던 인덕력과 일치한다.

반면 경기도 안성에서 출토된 〈영태2년명납석사리장치기〉의 "대종 영태 2년(766, 혜공왕 2) 병오년 3월 30일(을유)"이라는 역일은 3월이 역시 대월로 확인되므로 당시의 행용력인 오기력五紀曆(763~783)과 일치한다. 영태2년명 금석문은 8세기 중후반 신라에서 오기력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애장왕 2년(801, 당덕종 정원貞元 17) 하5월 임술삭에 당연히 일식日食이어야 하나 불식不食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는 당의 정원력正元曆(784~806) 사용시기이다. 이 정원력과 역일이 일치한다. 이 기록을 신라가 독자적 일식 예측을 한 중요한 전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신라는 중국력을 반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역서에 일식 예보가 붙어 있어서 그를 근거로 일식을 기다렸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산청 〈단속사신행선사비〉(813)의 역일 자료는 당의 관상력觀象曆(807~821)과 일치하며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까지 갖추었다. 이로 미루어 신라의 관상력 사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안양 〈중초사당간석주기〉(827)의 역일 자료는 당시의 현행력인 당말의 선명력(822~892, 71년간)과 일치한다.

끝으로 〈성주사낭혜화상탑비〉(890) 등 최치원이 찬한 여러 비문에서 인도의 달력인 범력梵曆 방식이 사용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효와 경흥 및 승장의 『금광명경』 주소서注疏書 일문逸文 자료를 보면 이미 7~8세기에서부터 흑월과 백월로 구성된 범력의 역일법이 불교 재일과 택일 등과 관련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도량형

도량형은 길이[尺度], 부피[量], 무게[衡] 또는 이를 재고 다는 기구들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도량형의 정비와 통일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조세 수입, 상품 유통, 토목 건축 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길이

우리나라의 도량형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도량형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졌다. 『한서』 「율력지」에 따르면, 12율의 기본음인 황종관의 길이를 기준으로 도량형의 단위를 체계화하였다. 검은 기장알을 이용해 황종관을 90등분하고 그 1등분을 1분分, 10분을 1촌寸, 10촌을 1척尺, 10척을 1장丈, 10장을 1인引으로 하였다. 분, 촌, 척, 장, 인의 다섯 개 기본 단위를 오도五度라고 했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모두 10진법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제도를 수용한 신라에서도 척과 촌을 중심으로 이 단위들을 널리 사용하였다. 장은 장육상의 예(1장 6척)처럼 종·절벽·석탑·불상 등의 높이나 쌓인 눈·땅 등의 깊이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다만, 인과 분을 사용한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보步는 성·둑의 길이, 도시나 마을의 규모나 둘레, 건물의 규모, 포의 길이 등을 표시하는 데 두루 쓰였다. 신라에서는 처음부터 6척이 1보였고, 당나라에서 624년에 1보를 5척으로 바꾼 뒤에도 여전히 1보는 계속 6척이었다. 그리고 사용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심尋도 길이 단위로 쓰였다. 심은 원래 양손을 좌우로 벌려 양손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후에 길이를 재는 단위로 쓰였다. 1심은 대개 8척이었는데, 비단의 길이와 둑의 길이를 표시하는 데 쓰였다.

한편 베나 비단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단端, 필匹, 필疋을 사용하였다. 필匹, 필疋 등은 일정한 면적의 포백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였지만, 길이의 단위로 사용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이미 필匹과 필疋이 40척으로 통용되었다. 신라에서도 필匹과 필疋은 구분되지 않고 같은 길이의 단위로 통용되었고, 그 절반 길이인 단段도 능綾·견絹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2척 또는 1척 5촌의 길이를 가리키는 주肘, 둘레를 가리키는 단위로 8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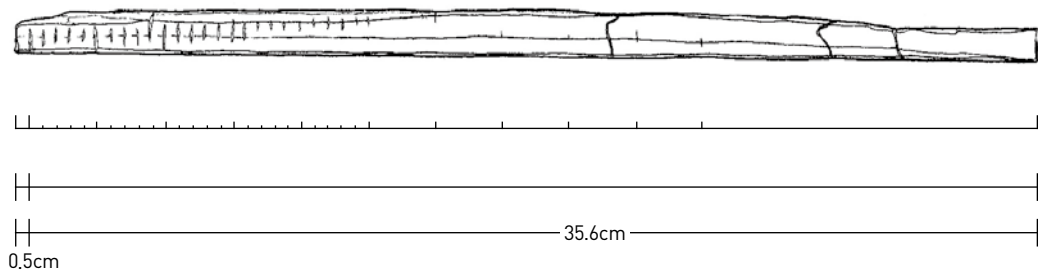
그림 150 이성산성 C지구 출토 35.6cm 척도

정도의 길이로 쓰인 위圍, 군대의 하루 행군 거리로 30리里를 가리키는 사舍 등의 길이 단위가 사용되었다.

신라가 처음에 어떤 척도를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 한나라 때에 정비된 척도제도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한척漢尺을 받아들여 사용한 것 같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유물이 경기도 하남 이성산성 C지구에서 출토된 자이다〈그림 150〉.

이 자의 전체 길이는 36.1cm이지만 첫 눈금은 끝에서 0.5cm 간격을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35.6cm이다. 이 35.6cm는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구간은 5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고, 각 눈금은 다시 5개의 눈금으로 세분되어 있다. 둘째 구간은 5개의 마디로만 나뉘어져 있으며, 셋째 구간은 마디나 눈금 같은 특별한 표시는 없다. 이 자의 한 눈금은 0.47cm, 한 마디는 2.37cm, 10마디로 구분된 둘째 구간까지는 23.7cm이다. 6세기 중반에 이성산성에서 사용된 이 자로써 삼국시대 신라에서 23.7cm 길이의 한척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이런 한척과 함께 고구려척도 사용한 듯하다. 고구려척은 고구려의 독자적 척도로 29.7cm 당대척의 1.2배인 35.6cm인데, 이 길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성산성 출토 자의 전체 길이와 같다. 아마도 고구려척은 한척의 1.5배 길이로 새로이 마련된 척도였던 것 같다. 신라에서는 이 고구려척을 수용해 도시구획이나 양전 등에 사용하였다. 신라 왕경은 6세기 이래 단계

그림 151 이성산성 C지구 저수지 출토 자[29.8cm] 측면(위), 정면(아래)

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왕경의 방리구획과 크기, 도로 너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1방의 규모를 동서 약 162m[고구려척 450척], 남북 약 144m[고구려척 400척]로 보려는 주장처럼 신라 왕경의 구획이 고구려척으로 계산할 때 완수完數로 떨어진다는 점은 당시 신라에서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애초에 한척을 수용해 사용하였고, 나중에 고구려척을 수용해 도시계획, 양전 등에 이용했다. 고구려척을 받아들인 후에도 한척은 신체를 측정하는 등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7세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나라로부터 당대척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나라에서는 고조 무덕武德 8년(624)에 24.7cm 길이인 남조척을 당소척으로, 그 1.2배인 29.7cm의 척도를 당대척으로 정하였다. 이 당대척을 신라가 수용한 것이다.

신라에서 당대척 길이의 척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유물은 역시 하남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29.8cm의 자이다. 이성산성 C지구 저수지 제4문화층에서 출토된 자로, 촌寸 눈금만 새겨진 29.8cm 길이이다. 이 자의 연대는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아래 층위에서 앞서 언급한 고구려척이 출토되었다.

신라에서 당대척을 수용한 시기는 문무왕 5년(665)인 듯하다. 기록에 따르면 기왕에는 견포 10심을 한 필로 하였는데 이 해에 그것을 고쳐 길이 7보, 너비 2척을 한 필로 삼았다고 한다. 1심은 8척이므로 10심=80척이고, 1보는 6척

이므로 7보=42척이다. 이러한 포백척의 변화는 새로운 척도제의 운용과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 당나라의 척도가 도입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당대척을 받아들인 신라는 멸망할 때까지 이를 영조척으로 널리 사용하였다. 722년(성덕왕 21)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된 신대리성에 새겨놓은 명문의 축성 담당거리와 895년(진성왕 9)에 만들어진 해인사 길상탑의 높이와 그에 관한 〈해인사묘길상탑기〉로부터도 그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에서는 7세기 이후 신체를 측정하는 용도로 한척이 계속 사용되었고, 7세기 중엽 수용된 29.4~29.8cm 정도의 당대척이 영조척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국시대에 도시구획이나 양전 등에 사용되었던 고구려척이 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고려 전기의 기준척이 약 31~31.5cm이고 고려 전기와 신라 때 1결의 면적과 산정 방식이 같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라의 양전척은 고구려척보다는 당대척 길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7세기 중엽 이후 신라에서 영조척과 양전척으로 사용된 것은 당대척 길이의 척도였다고 할 수 있다.

부피

『한서』 율력지에 따르면, 도량형 부피 단위의 기본은 약龠, 홉合, 승升, 두斗, 곡斛이었다. 이 단위들 간의 관계는 2약을 1홉으로 하고, 10홉=1승, 10승=1두, 10두=1곡의 10진법으로 규정되었다. 한나라 이후 약은 쓰이지 않게 되었고, 어느 시기엔가 홉 아래에 홉의 10분의 1인 작勺이 생겼다. 그리고 석石은 본래 무게의 단위로 120근斤을 가리켰으나, 곡을 대신해 같은 부피의 단위로 쓰이게 되었다. 송나라 때에 10두=1석, 5두=1곡이라 하여 석과 곡이 구분되었다.

신라에서 쓰인 부피 단위로 기록에 보이는 것은 合[홉], 升[되], 刀[되], 斗[말], 斛[섬], 石[섬], 碩[섬], 苫[섬] 등이 있다. 合[홉]은 기록에 보이는 가장 작은 부피 단위이나, 아마도 홉 아래에 작勺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升[되]은 '두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부피'라고 하는데, 〈정창원좌파리가반부속신라문서〉에는 '되'를 뜻하는 한자로 '刀'를 쓰고 있다. 중국 양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신라 나름의 부피 단위인 되, 말 등이 사용되었고, 合[홉]·升[되]·斗[말]·石[섬] 등

중국의 단위 명칭을 수용한 뒤에도 이 용어들이 계속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말[斗]보다 큰 부피의 단위로는 石[섬], 斛[곡], 碩[섬], 苫[섬] 등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것은 石[섬]이었다. 755년(경덕왕 14) 효자 향덕에게 조租 300곡斛을 내려주었는데, 선덕왕 때에 효자 성각에게 '향덕의 고사古事에 따라' 조 300석을 상으로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곡과 석은 같은 부피 단위임을 알 수 있다. 碩은 石과 발음으로나 부피로나 완전히 같다.

섬[苫]은 원래 음은 '점'이고 뜻은 '(돗)자리'로서 짚으로 만든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신라에서는 곡물을 헤아리는 단위인 '섬'을 나타내는 한자로 쓰였고 이때의 음은 '섬'이다. 한 섬은 두 가마니이고 한 가마니가 다섯 말이므로, 한 섬은 10말, 즉 1석이 된다. 따라서 9세기 말에 쓰인 苫은 石, 斛, 碩과 같은 부피 단위이다. 이 苫을 제외하면, 금석문과 고문서에서는 섬을 뜻하는 石, 斛, 碩 가운데 오직 石만 쓰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부피의 단위는 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1석이 몇 두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좌파리가반신라문서〉이다. 8세기 무렵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관리들에게 지급한 월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8세기 무렵에는 1석=20두가 신라의 공식적 양제 체계였다. 그러나 신라가 처음 양제를 제도화했을 때에는 척도 제도와 함께 중국의 제도를 수용했다. 따라서 신라의 1석은 처음에는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1석=10두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의 1석=10두제는 8세기 이전 어느 시기에 1석=20두로 바뀌었다. 1석의 용량이 두 배로 증가한 시기는 7세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백제·고구려의 멸망으로 신라의 영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력도 향상되었으며, 당척의 수용과 양제의 영향을 받아 1석의 용량이 대형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9세기 말에 신라의 1석은 15두로 바뀌었다. 896년(진성왕 10) 최치원이 지은 「숭복사비」에 "값으로 치른 벼가 모두 이천 섬[酬稻穀 合二千苫]"이라 한 데 대해 고려 후기의 문인 최해(1287~1340)가 해설한 기록에 따르면 苫은 石과 같은 부피 단위인데 곧 15두라고 해석한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1석=20두에서 1석=15두로 바뀐 것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 1승의 용량이 이

전의 약 200ml에서 약 350ml로 확대되자 1석을 20두에서 15두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중국 한나라 때 1승의 부피는 약 200ml였고 8세기 초 신라의 1승 부피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약 200ml였다. 그런데 신라 하대에 이르러 1승의 부피는 약 350ml로 증대되었다. 이는 경주 월지(안압지)에서 출토된 토기 2점의 용적과 토기에 각각 새겨진 '사두오도四斗五刀'와 '십석입옹十石入瓮'이라는 명문을 비교해서 추산한 결과이다. 4斗 5刀(升), 즉 45승이 새겨진 토기의 용적을 구연부 끝까지 계산하면 약 16l=16,000ml이고, 이 부피로 환산하면 1승은 약 355ml이다. 구연부 끝까지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1승의 부피는 355ml보다는 조금 작을 것이다. 또 10석이라고 새겨진 토기의 부피는 520.8l=520,800ml이므로, 1석=15두로 계

그림 152 경주 월지(안압지) 출토 '십석입옹'명 토기

산하면 1斗는 3,472ml, 1승은 347.2ml이다. 따라서 1승의 부피는 347ml~355ml로 대략 350ml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무게

중국 한나라 때 무게 단위는 수銖·양兩·근斤·균鈞·석石의 5단위이다. 수는 기장 100알의 무게이고, 양은 24수, 근은 16량, 균은 30근, 석은 4균이다. 이 가운데 석은 점차 부피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당나라 때에는 초기에 만들어 쓴 동전인 개원통보의 무게가 2수 4루累이므로 그 10개의 합을 1량으로 정하였고, 그 뒤로 양 아래에 1량=10전錢인 전이 생기면서 다시 아래로 10진법 단위의 '양–전–푼分–리厘'가 체계화되었다. 즉 10푼=1전, 10리=1푼이다.

신라에서는 근, 양, 푼 등이 주된 무게 단위로 쓰였다. 근은 (황)동의 무게를, 양은 금,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데 각각 사용되었다. 양의 1/100 무게인 푼은 금, 철, 수은 등의 무게를 표기하는 데 쓰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근과 양이 신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무게 단위였다.

명문이나 저울추 등의 무게를 토대로 볼 때, 중국 한나라 때 1근의 무게는 약 248g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척도나 부피와 마찬가지로 무게 또한 시기가 지나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1근의 무게가 500g 내외로 늘어났다. 수나라·당나라 때에는 더욱 더 증가해서 1근이 600g을 넘었다.

신라 때 1근의 중량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저울추 같은 유물은 남아 있지 않아 대략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771년(혜공왕 7)에 완성된 성덕대왕신종에는 구리[銅] 12만근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1997년에 측정한 종의 무게는 약 18,900kg이었다. 이 무게를 근거로 환산한 1근의 무게는 약 157.5g이다. 이 무게는 한나라 1근의 무게와 비교해도 너무 적다. 12만근이라는 기록은 실제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의 무게가 아니라 종을 주조할 때 사용했던 구리의 전체 무게를 가리키고, 종의 주조 과정에서 구리는 어느 정도 감소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 때 1근의 무게를 고려할 때, 8세기 신라에서 1근의 무게는 약 200g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 의약

의약은 의醫와 약藥이 결합된 말이다. '의'는 병을 치료하는 행위 또는 기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약'이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체를 뜻한다. 현재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의술과 약 두 가지 모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고기까지의 의약

신라 초기 의약에서는 재래의 주술적 방법과 민간 경험방 등이 전해져 이용되었다. 최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왕족들도 질병에 걸리면 우선 무의巫醫가 치료를 전담하였다. 고대 무의는 축문을 외우는 동시에 간단한 약물을 사용하였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쑥과 마늘은 무의가 사용했던 약물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이 약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민간의 경험방과 결합해서 신라 약물학의 기초를 이루었을 것이다. 568년에 건립된 〈마운령순수비〉의 비문에 나오는 약사藥師는 약재의 관리와 본초학적 경험방을 관리하는 의료관료가 늦어도 진흥왕대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무의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이는 눌지왕(또는 미추왕)의 왕녀 치병 설화에서 무의의 치료가 효험이 없자 아도(또는 묵호자), 즉 불교 법사의 힘으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불교가 널리 전파됨에 따라 승려가 의약에서 주역을 맡으면서 어느 절의 승의僧醫가 더 효험이 있는지 경쟁이 벌어졌다. 선덕여왕이 병에 걸리자 관례처럼 흥륜사의 승려가 왔지만 그보다 새로이 등장한 밀교의 승의인 밀본법사의 치유력이 더 뛰어났다는 설화는 무의를 대체해 상류층의 질병 치료를 담당했던 승려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에서 무의가 갖는 권위와 역할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무격巫覡은 시대가 내려가면서 서민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신라산 처방

신라 고유의 처방으로는 위령선방과 신라법사방에 남아있는 처방들을 들 수 있다. 이 처방들은 삼국통일 후 당 의약의 본격적 영향을 받기 이전 신라 의학의 고유한 모습을 보여준다.

당나라 정원貞元(785~805) 연간에 주군소라는 이가 지은 『위령선전』에는 당시 신라 유학승이 일러준 위령선초로 중병을 낫게 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그 약초의 신라식 이름, 즉 향명鄕名만 알고 있었다. 이는 바로 그가 당나라식 의학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로써 위령선은 비록 8세기 신라 유학승을 통해 당나라 의학계에 보고되었지만 신라에서 전래된 고유의 전통의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984년 일본의 단바노 야스요리[丹波康頼]가 편찬한 『의심방』에는 『신라법사방』에서 채록한 처방이 4개 남아 있다. 『신라법사방』이 만들어진 시기는 경덕왕(742~764) 무렵인 8세기 중반이 상한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배속에 병적으로 덩어리가 생겨 아픈 병, 즉 적취積聚를 치료하는 처방이 실려 있다. 비록 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방서라 하더라도 그에는 신라 전래의 오래된 비방들이 채록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전하는 신라산 처방들은 모두 중국 의학과는 다른 계통이었다. 특히 위령선의 사례는 약물의 명칭과 그 용법이 중국과는 아주 달랐으므로 고유성이 강한 신라 의약의 세계가 존재하였음을 일러주는 것이다.

신라 통일전쟁기 의약과 통일 후 의료의 여러 측면

7세기 중엽 신라가 주도했던 통일전쟁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나라뿐 아니라 고구려 군대에 있던 말갈군과 당군 내에 있던 돌궐(현재 터키)군, 회흘(위구르)군, 그리고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까지 참여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군대가 한반도에 집결해 장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풍토병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당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온 당나라 군의들로부터 중국 의학의 실체를 접할 수 있었다.

군사의학의 한 단면은 662년 평양성을 포위한 당군의 소정방에게 김유신이 전달한 의약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식량 등 이외에 두발頭髮 30냥, 우황牛黃 19냥을 전하였다. 또 문무왕 12년 8월에 신라가 당에 표문을 올리면서 보냈던 것은 은과 동 이외에 침針, 우황, 금金 등이었다. 이 가운데 두발, 우황 그리고 침과 금은 약용이었을 것이다. 김유신군이 엄동설한 속에 두발을 어렵게 소정방군에 전달했던 사실에서 역으로 두발이 치료제로 쓰였던 식중독, 피부병, 성병, 겨울철 동상 등 각종 질병이 7세기 중엽 당나라 군대 내에서 자주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통해열제인 신라의 우황은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해서 통일 후 주요 대당 교역품목이 되었다. 지혈제로는 자석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669년(문무왕 9) 4월에 신라는 당나라의 요구에 따라 자석 두 상자를 보냈다. 이는 나당연합작전 시기에 신라산 자석이 지닌 약효의 우수성을 경험한 당나라가 당시 토번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특별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자석은 쇠붙이에 상해 내장이 나왔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한 발열 같은 여러 증상에 약재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처방일지라도 모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군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통일 이후 신라는 692년 당나라의 의질령醫疾令에 입각해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을 설립하였으며, 각종 의료 행정 또한 정비하였다. 의료에 관한 당시의 국가적 주요 관심사항은 첫째, 주로 국왕을 위시한 귀족의 건강이었다. 국왕과 귀족들은 각종 의료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았다. 둘째, 군대나 역역 부대와 같이 대규모 집단 생활자들의 건강이었다. 이들에게도 관료 의사들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집단이기에 그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도 있었다. 이는 이전 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이다.

신라 중대에 이르면, 의학 교육을 담당했던 의박사와 침박사, 그리고 국왕을 위시한 귀족들의 건강을 담당했던 관의官醫 등 다양한 직종의 의료관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의 의료 행정을 전담해 이끌어간 계층이었다. 의료관료의 선발은 국가가 설립한 의학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술이 뛰어난 자는 특

채의 형식으로 공적 의료 체제에 편입시켰다. 신라 의학에서 가르친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학교육에서 침술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의학'에서 배출된 관료 의사들은 교육받은 대로 당 의학에 입각해 치료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료의 대표적 모습은 822년(헌덕왕 14) 왕의 아우 충공이 병이 났을 때 파견되었던 의사의 처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용치탕龍齒湯이라는 것을 처방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치료법이 당나라 의학서에 다수 게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당에서 행해진 치료법이 신라에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신라 통일기 관료가 처방했던 의약의 또 다른 모습은 처방전 목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월성 해자 출토 목간은 모두 20여점으로 그 중심연대는 6~7세기이다. 그런데 167번 목간에는 약재명이 적혀 있다. 이 처방에서 주목되는 점은 주로 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해당 약재가 독성이 매우 강한데도 분량이 아주 많다는 점이다. 이는 탕약이 아니라 환약을 만드는 처방으로서 신라 약전에서 관의가 국왕의 성 기능 향상을 위해 조제하였던 환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안압지에서 발굴된 목간들은 중심 시기가 8세기로서 그 가운데 198번 목간에는 4면 가득 약재명이 적혀 있다. 이 목간의 성격은 의서를 학습할 때 관련 처방을 발췌한 학습용 목간이거나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접수한 후 그에 따라 약을 조제한 목간으로 추정한다. 이 목간의 처방은 당나라 『외대비요』의 처방과 유사하다. 이 목간에서도 들어가는 약재의 분량이 매우 많은 점으로 보건대 환약으로 대량 조제하는 처방전이었다고 파악된다.

헌덕왕대의 충공이 복용했던 용치탕은 포유동물의 치아 화석인 용치를 주재료로 하는 것이다. 신라에서 약재 수입이 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신라산 약재로서 중국과 일본 문헌에 소개된 위령선 이외에도 인삼, 우황을 비롯해 갖가지가 있었다. 특히 대일 무역에서 약재는 중요한 품목이었다. 752년(경덕왕 11)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은 동대사 본존인 비로자나불의 개안회에 참석하는 임무를 띠었는데, 7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었다. 이들과 일

본 귀족 간의 구매문서인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에는 구체적 교역품목이 보인다. 그 가운데 약재는 사향麝香, 인삼, 대황大黃, 우황牛黃, 감초甘草 등등이 있었다. 사향과 감초 등은 서역이나 중국산 약재이다. 신라가 약재 중계무역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756년 6월 21일 일본 성무천황의 49재시에 왕비가 돌아간 왕이 사용하던 애용품 및 왕실 물건을 동대사에 헌납하였다. 이 가운데 헌납 약물에 관한 기록이 〈종종약장〉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총 60종의 한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향 등 16가지는 신라에서 수입한 약이었다. 특히 자설紫雪과 금석능金石陵은 황금을 2냥 또는 100냥씩이나 첨가하는 조제약이었다. 이로 보건대 신라는 당에서 약재를 수입해 자국에 풍부한 금을 첨가한 고급 완성약을 조제해 일본에 고가로 수출했다고 여겨진다.

신라 통일기에 이루어진 의약적 성취는 고려에 이어졌다. 신라 설총의 후손 설경성 가문이 고려시대의 대표적 의가醫家 집안이 되었던 것처럼, 신라계 출신 의사들은 고려 사회에서 한국 중세의약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신라 통일기에 시작된 중세적 의료의 특징은 19세기에 서양문물이 들어올 때까지 한국 중세사회에서 기본 구조로서 작동하였다.

물품 제작 기술

물품 제작에 적용하는 기술로는 금속 착색기술, 도금기술, 유리공예와 보석가공 기술, 나전과 납태 또는 건칠기술, 직조와 염색기술, 가죽 가공기술 등이 있다. 이런 기술의 대부분은 신라인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들이다.

금金의 제련과 가공 기술

신라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황금의 왕국"을 떠올리듯이 신라고분에서는 다양한 금제품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소재인 금을 광석에서 채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로 얻은 자연금 분말에는 주

그림 153 경주 보문동합장분 출토 태환이식

그림 154 경주 보문동합장분 출토 태환이식 누금기법 세부

성분인 금 외에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불순물들이 남아있는 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다시 정련을 해야 하는데 그 기술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금분말을 납[鉛]과 함께 가열해 금(Au)-납(Pb) 용융합금을 만들고 다시 골분[骨灰]으로 분리해 순수한 금을 얻는 회취법灰吹法이다. 다른 하나는 순도가 낮은 상태의 금분말을 수은과 혼합한 다음 열을 가해 수은은 날려버리는 혼홍법混汞法이다. 신라인들은 이 가운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적절히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이 얻어지면 대부분 금판과 금선을 기본 재료로 해서 자르고 굽히고 뚫고 붙였다. 이런 기술들보다 고도의 제작기술에 속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금 알갱이[金粒]를 붙이는 누금기술이다. 누금기술은 근래에 자연과학적 조사, 분석에 의해 대체로 땜과 용접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땜은 금 땜이나 금 아말감법을 이용하였고 용접은 바탕인 금판과 금 알갱이 또는 금세선金細線 양쪽을 융점 이하의 온도로 적절히 가열해서 눌러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땜에 사용된 재료인 금납金鑞은 용융온도를 낮추기 위해 은(Ag)의 함량을 2~5%, 구리를 2% 첨가해 융점을 100℃~50℃ 정도로 낮춘 것을 사용했던 것 같다. 하지만, 위의 방법 중 신라 장인이 어떤 것을 주로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철의 단조 및 주조 기술

신라시대에는 이미 제철기술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다.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서기전 1세기의 단조용 공방지와 더불어 주조와 단조가 가능한 여러 용도의 3세기 노爐가 모두 20여 기 발견되었다. 신라시대 철기 제작 작업을 위한 복합 단지였던 셈이다. 또 무덤에는 서기전 1세기부터 괭이의 용도로 쓰였으리라 추정되는 주조철부들이 본격적으로 부장된다. 이렇게 일찍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축적한 신라는 통일신라시대의 하대에 이르면 주철 기법으로 대형 불상을 만들었다. 하대의 창의적 장인들은 전성기인 중대에 거대한 성덕대왕신종 주조에 성공했던 조상들의 경험을 이어받아 당대 최대의 대형철불 주성에 성공하였다. 바로 통일신라 말기(858년)에 제작된 보림사 비로자나불 좌상이 그것이다.

높이가 273.5cm나 되는 이 철불의 제작기법〈그림 155~159〉을 보면 (1) 먼저 목심을 설치하고 (2) 그 위에 점토를 붙여 철불과 같은 모양의 모형을 제작한다. (3) 이 소조 모형 표면에 한지韓紙를 붙이거나 활석가루 등을 얇게 발라 바깥 틀이 잘 떨어지도록 분리층을 만든다. 다음, 고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거푸집용 흙을 바르고 그 위에 모래를 섞은 점토 반죽을 올린 후 다시 짚이나 겨를 섞은 점토 반죽을 쌓아 올려 바깥 틀을 만든다. 틀이 완성되면 이 틀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떠낸다. (4) 소조 모형의 표면을 일정한 두께만큼 깎아낸다. 이때 깎아낸 깊이가 철불의 두께가 되는데 대체로 5cm 정도이다. (5) 안틀 바깥쪽에 바

그림 155 목심 설치와 소조상 제작

그림 156 거푸집 바깥틀 제작

그림 157 소조상을 깎아 안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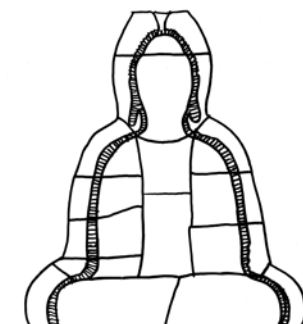
그림 158 거푸집 조립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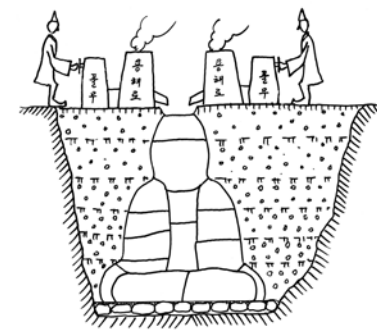
그림 159 주조 작업

깥 틀 부분들을 조립한다. 이 때 두 틀의 사이에 금속제 받침을 삽입하거나 대형 쇠못으로 고정해 틀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거푸집 주변으로는 용탕을 주입하는 탕구湯口가 만들어지는데 주물의 크기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설치한다. (6) 주조 작업을 하고 거푸집을 제거한 후 주조 결함을 보완하고 거친 표면을 정리한다. 별도로 주조된 나발, 손을 조립하고 전체를 금박을 붙이는 방법으로 도금을 해서 완성한다.

옻칠 기술

칠漆은 각종 바탕재 표면에 발라서 광택을 내거나 색으로 장엄을 하고 썩거나 녹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신라시대 도료는 천연에서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옻칠이며 동백기름과 납蠟, 송지松脂와 같은 수액樹液, 안료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옻칠 기술은 선사시대부터 전래되어 왔던 토착 기술이 바탕이 되어 삼한 시기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앞시기와는 달리 한층 발달된 칠 기법이 등장하였다. 즉 생칠은 정제해 사용하며 목심 위에 직물을 먼저 바르고 칠을 한다거나 칠에 각종 첨가물을 섞어 바탕칠[下塗]로 썼다. 그 위에 바르는 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해 도포했다. 이처럼 칠기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뿌리를 내려 생산량도 급증하자, 조정에서는 칠전漆典이라는 관서를 설치해 칠 기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격화를 실시하였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만든 대 오리를 감아서 모양을 만든 후 칠을 한 권태捲胎와 대나무 바탕에 칠을 한 남태藍胎 칠기와 같이 가볍고 단단한 칠기가 제작되었다. 칠기법도 규격화되어 목심에 직물심을 바르고 바탕칠을 두 차례 한 다음 정제한 옻칠로 투명칠 또는 주칠을 몇 차례 했다. 바탕칠은 생칠에 토분土粉과 골분을 혼합했다. 골분은 소뼈를 고온의 환원염으로 구워 분말로 만든 것인데 칠도막에 탄력을 줘 칠기의 내구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안압지 출토 화형칠기가 이 기법으로 제작된 대표 예이다.

이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칠기 제작기법 중 하나는 금속 공예품 위에 옻칠

그림 160 경주 월지(안압지) 출토 목제은평탈화형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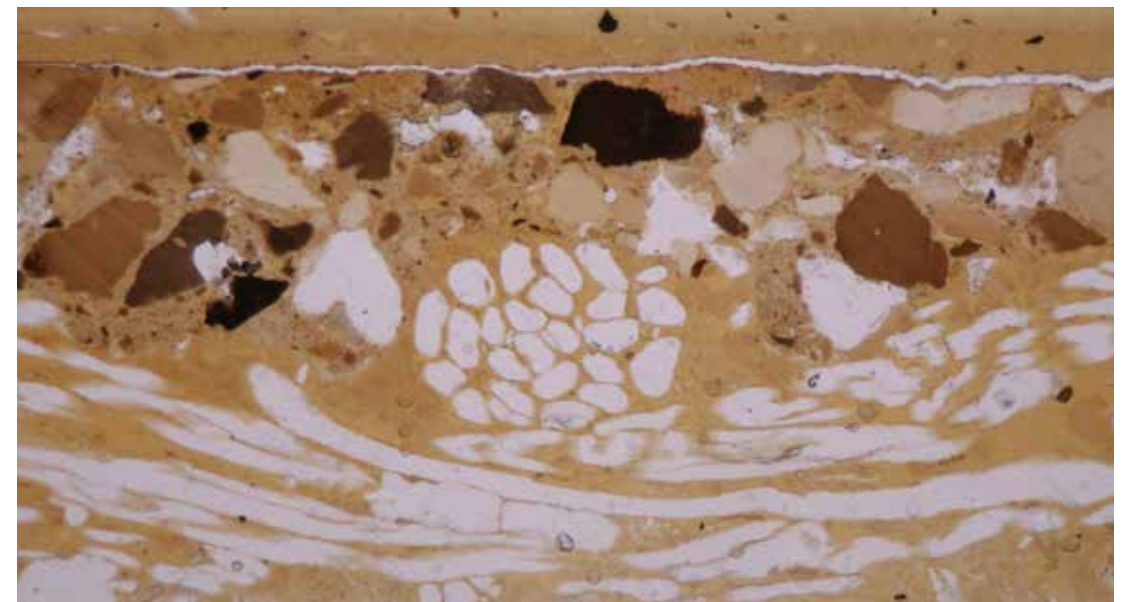
그림 161 옻칠 층 현미경사진(×100)

을 하는 평탈平脫기법이다. 예를 들어 동경의 경우 장식이 가해지는 뒷면에 우선 금은제의 다양한 장식을 올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옻칠을 발라 채우는 기법이다. 이로 인해 금속공예품의 화려함이 한층 더해지고 차가운 재질의 금속을 따뜻한 질감으로 변모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한편 경주 황남동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황칠"을 담은 토기 용기가 발견되었다. 황칠이란 옻나무와는 다른 황칠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정제한 것인데 칠하면 황금빛이 나 고급도료로 사용되었다. 이 유물의 발견으로 황칠을 새로운 천연도료로 활용한 장인이 신라인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황칠은 조선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후 사라졌다.

제지와 염색 기술

우리나라에 종이가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 초기로 생각되지만 어떤 종이가 처음 생산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불명확한 점이 많다. 현존하는 지류문화재 중 대표적인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일 것이다.

守衛住持讀誦書寫
供養為護一切諸衆生
故於後時令彼衆
生悉得聞知不墮地
獄及諸惡趣我等為
報如來大慈咸共守護
令廣流通尊重恭敬
如佛无異不令此法而
有壞滅佛言善哉
善哉汝等乃能堅
固守護住持如是陁
羅尼法時諸大衆聞
佛說已歡喜奉行
無垢淨光大陁羅尼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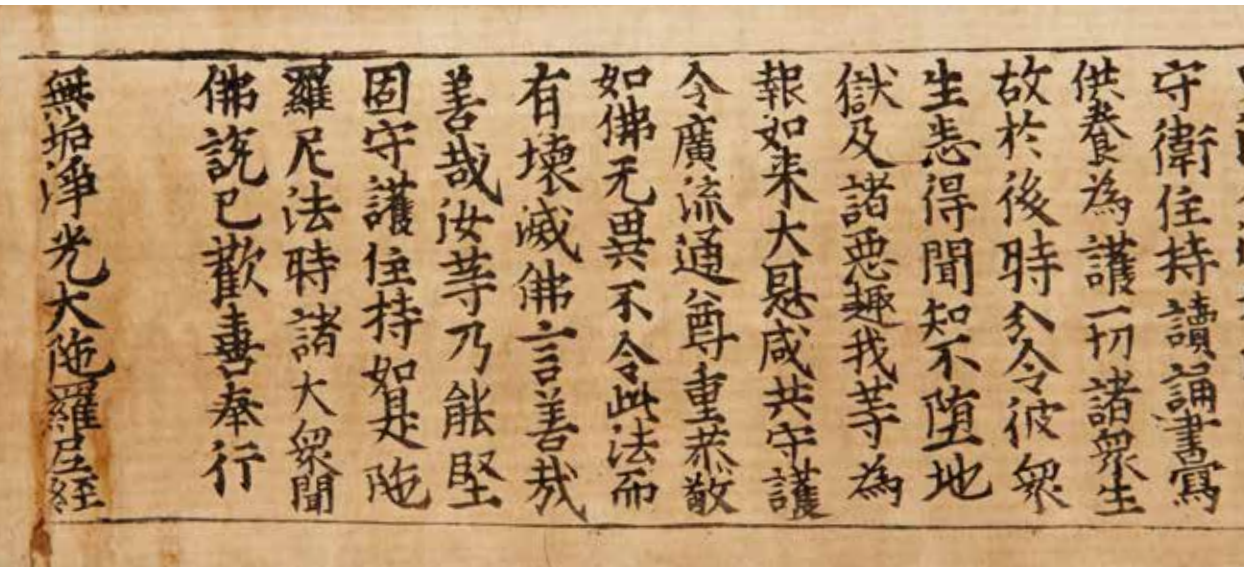
그림 162 무구정광대다라니경(부분)

〈다라니경〉은 폭 6.7cm에 전체 길이 약 6.2m의 긴 두루마리인데, 약 54cm 길이의 닥종이 12장을 이어 만들었다. 닥종이 제작 방법을 보면, 우선 양질의 닥 껍질을 공들여 가공해 고운 섬유로 만든 다음 물에 잘 풀어서 대발로 떠내었다. 다음, 황벽黃蘗 등으로 염색을 한 후 다시 종이를 다듬잇돌에 올려놓고 홍두깨로 두드리는 도침擣砧작업을 통해 얇고 질긴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종이를 목판 위에 올려놓고 불경을 찍어 내었다. 다라니경에 쓰인 종이는 지질도 비할 데 없이 훌륭한 데다 도침이라는 기술을 적용해 두들겨 밀도를 높임으로써 그렇지 않은 종이보다 얇지만 두 배나 강하게 되었다. 또 황벽으로 염색해 방충 효과를 높인 결과 천 삼백여년을 석가탑의 사리공 속에서 버텨 내었고,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인쇄본이 되었다.

〈화엄경〉은 붓으로 직접 쓴 필사본으로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寫經이다. 길이 14m, 폭 29.2cm로서 백지 30장을 연결해 두루마리 형식으로 완성하였다. 종이는 일반 닥종이보다 얇지만(두께 약 0.04mm) 도침을 해서 서너 배나 질기고 탄력도 뛰어난 상태였다. 특히 경전 말미에 있는 발문跋文을 통해 당시 제지 기술과 사경 제작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그림 163〉. 즉 종이 원료인 닥[楮] 뿌리에 향수를 뿌려 키웠으며 경을 쓰는 필사筆師나 경심을 만드는 장인, 화사畵師 등 관계된 장인들 모두에게 보살계를 받게 하였다. 또 이들이 대소변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먹고 마시면 향수로 목욕하게 한 후에 작업을 계속하게 했을 정도로 불사에 지극한 정성을 들였다. 여기에 최고의 재료를 구한 후 그 가운데서 선별을 해서 종이를 만들었고 도침이라는 지질 강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고 수준의 한지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 표지의 자색, 즉 보라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제의 색이자 색중의 색으로 신비스럽고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다. 표지의 자색을 어떻게 염색했는지는 현재 불분명하지만 자색을 내기 위한 전통염색법은 몇 가지가 알려져 있다. 우선 지치[紫草]의 뿌리를 말려 가루로 낸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매염제로 회분灰分을 첨가해 물들이는 방법이다. 진한 색을 내기 위해서는 수십 회 반복해야만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소방蘇芳을 철분 매염제로 착색해도 화엄경 표지와 비슷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63 화엄경 축과 발문跋文

그림 164 화엄경 표지(부분)

하지만, 종이에 염색을 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종이를 물에 넣으면 닥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풀어져 종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염색 또한 한두 번 반복한다고 해서 색이 짙게 물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자색으로 염색하는 일은 특히 어렵다.

신라의 종이는 모두 닥종이인데 중국에서 주로 생산된 마지麻紙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신라의 닥종이는 껍질을 두드려서 만든 하얗고 반질반질한 종이로 당나라와 일본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신라의 제지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목판인쇄술

신라에서 목판인쇄는 처음에는 그 결과물을 불탑에 공양물로서 넣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목판인쇄는 곧 교육 기본 자료의 생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목판인쇄는 고려시기에 들어 기념비적 거질의 대장경 인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목판인쇄술의 전제 조건이 되는 종이와 먹의 사용은 실물과 기록으로 볼 때 이미 6~7세기에 폭넓게 실시되었음이 확실하다. 경주 월성해자에서 발견된 7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19.0cm의 4면 목간에는 경전을 필사하려고 종이 12근을 매입할 때의 과정을 이두로 기록한 내용이 나온다. 이것도 종이 사용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신라시대의 종이 유물로서 확인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백지묵서 다라니(화엄사 석탑), 다라니경(나원리 석탑)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은 제지의 원료가 닥나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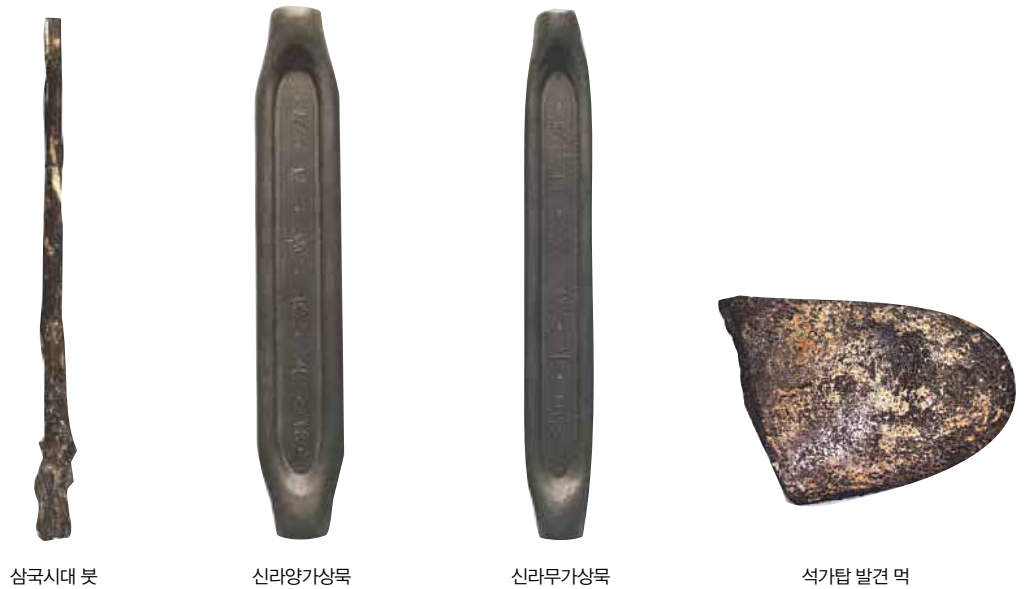
그림 165 신라의 문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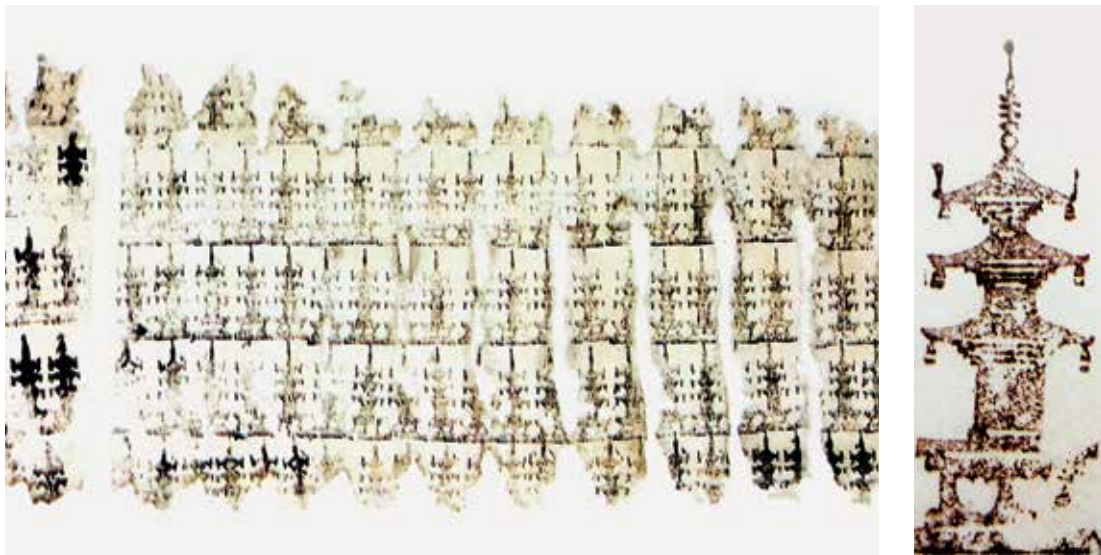
그림 166 탑인(좌)과 확대한 탑인(우)

고 도침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종교적 목적으로 만든 종이가 아닌 예로는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 촌락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촌 별로 인구수, 성별, 경작지면적, 재배작물 등에 대한 수치의 증감을 기록하였다.

문방구의 하나로 인쇄에 필수적인 먹은 그을음과 아교, 향료를 섞어 굳게 한 것이다. 신라의 실물 먹으로는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길이 약 26cm의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이 있고, 일본 교토 동대사東大寺에 소장된 '신라유가상묵新羅柳家上墨', 그리고 석가탑에서 발견된 크기 5.4×4.1cm인 통일신라 시기의 먹이 있다.

목판인쇄술의 태동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초기인쇄는 인장과 같이 작은 면에 새겨진 정보를 종이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점차 넓은 면적에다 정보를 많이 담아내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종이에다 넓은 인쇄판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은 힘을 균일하게 줄 수 없으므로 판 자체를 뒤집어 놓고 먹을 바른 후 그에다 종이를 대고 문질러내는 방식, 즉 목판인쇄술이 나온 것이다. 그 중간 과정에서 부처나 탑의 형상을 새긴 도장을 종이에 반복적으로 찍는 방식이 있었는데 화엄사 서 오층석탑 출토 백지묵서다라니경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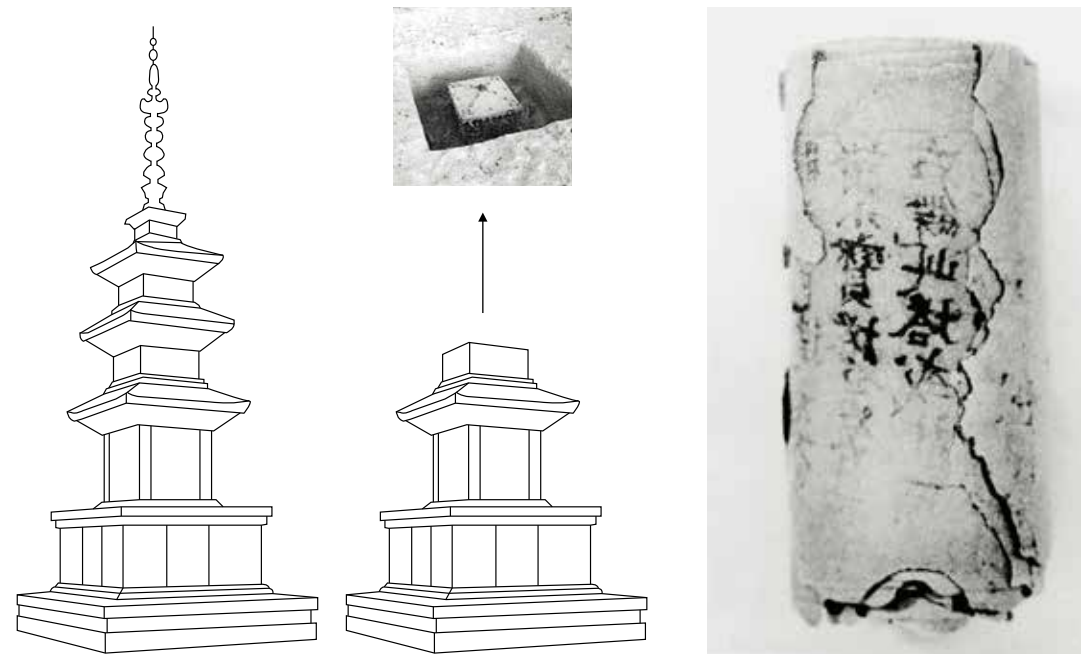
그림 167 석가탑 제2층 탑신부 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 위치와 보존처리 전 상태

이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내용을 필사한 것으로 탑의 형상을 목판에 새겨 반복적으로 찍어 놓았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내용에 나오듯이 77개나 99개 등의 탑을 만들어 직접 납입하는 대신에 그 수만큼 종이에 찍어 넣은 것이다.

이 탑인은 5단씩 22줄로 찍혀 있는데 탑인 1개의 크기는 높이 5.3cm, 기단부 폭 2cm로 기단과 상륜부가 있는 삼층탑의 형상에 각 층의 옥개석 좌우에는 풍경까지 새겨져 있다.

신라의 목판인쇄술을 대표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했을 때 제2층 탑신부에 봉안된 금동사리외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에 사리공 금동사리함 기단부 바닥에서 『보협인다라니경』과 석탑 중수문서 3건이 나왔다. 이 문서들은 탑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1024년(현종 15)의 탑 중수에 대한 기록과 1038년(정종 4)에 다시 필사한 기록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무구정광탑을 세운 연혁과 사리를 꺼내고 다시 안장한

일, 준비 과정 및 보시와 지출한 내용, 지진 피해를 입어 1038년에 중수를 한 과정, 보시자 명단 등이다. 이 문서들의 해독 결과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에 관한 배경적 증거 기록이 되었다.

이 무구정광탑, 즉 다보탑의 중수 문서들이 석가탑에 납입된 과정에 대해서는 1036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두 탑을 1038년에 중수하면서 이미 그 전인 1024년에 있었던 무구정광탑의 중수기록이 석가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한편 중수기에는 탑을 742년(경덕왕 즉위년)에 짓기 시작해서 혜공왕대에 완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742년경에 다보탑에 납탑되었다가 중수할 때 석가탑으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닥나무 종이에 목판으로 인쇄한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다. 크기는 세로 6.5~6.7cm에 매장 52.9~55.7cm(제12장은 44.0cm) 길이의 종이 12장을 이어 붙였다. 총 길이는 641.9cm가 되며, 직경 0.29cm의 가는 나무 축에 종이를 말았고 축의 양 끝은 붉게 칠해져 있다. 인쇄된 면의 판식은 아래 위 단변 길이 5.3~5.5cm인 변란 내에 해서체로 각행 6~9자, 전체 681행이 배열되어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종이 색은 다색茶色이다. 이는 백색이었던 것이 오래되어 그리된 것이 아니라 미리 종이를 황벽을 이용해 염색한 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난 색으로 여겨진다. 황벽으로 염색한 종이는 황벽에 포함된 알카로이드 성분이 벌레를 죽이고 향내가 나며 종이 수명을 연장하고 먹의 번짐을 막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종이의 밀도는 보통 닥나무 종이의 밀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치수이다. 이는 제작 시에 종이를 다듬잇돌에 놓고 나무방망이로 다듬질해서 반드럽게 만드는 도침가공을 하였음을 일러준다. 또 광택이 있음을 볼 때 마연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생지生紙가 아닌 숙지熟紙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황벽염색과 도침가공은 종이를 만드는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 덕분에 신라는 먹을 칠한 목판으로 인출할 때 먹이 퍼지지 않고 또 그에 종이를 대고 문질러낼 때도 손상 없이 고르게 찍히는 인쇄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다.

본문에 쓰인 글자의 서체는 그 필법의 측면에서 결구結構가 부정형이고 장법章法이 불균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필법은 6세기 초 및 말의 〈울진봉평리신라비〉(524)와 〈남산신성비〉(591) 등에서 볼 수 있는 신라의 전통 서법자료들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필법의 양식이 706년 경주 황복사탑의 사리함 명문과 서로 닮았다. 이는 간행의 시기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종이나 형태 등 물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밖에 본문에 쓰인 글자나 내용에 의한 방법도 있다. 인쇄된 글자를 보면 중국 당대의 무측천武則天 시기인 690년~704년에 만들어 사용한 새 글자, 즉 무주제자武周制字 중 '증證, 지地, 수授, 초初'의 4자가 10곳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전은 704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전은 발견된 이후 목판인쇄술의 기원에 관련해 한·중·일 학계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은 770년경에 간행된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근본, 자심인, 상륜, 육도의 4종 다라니를 각각 새긴 후 날인 방식으로 찍어 납입한 것이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본문에 쓰인 무주제자에 근거해 당나라에서 판각되었으며 신라의 승려나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가지고 와 불국사를 조성할 때 석가탑에 납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물 종이의 분석을 통해 신라 전통의 종이 재료와 가공방법임이 밝혀졌고 서체 또한 황복사탑 금동사리함의 글씨 등과 같은 계통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에서 만든 재료와 신라인에 의한 서체와 판각 기술이 합쳐져 742년 이전에 간행된 목판인쇄물로서 현존하는 인쇄물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8 생활문화

복식

복식 관련 유물

복식을 바로 보여주는 유물은 용강동석실분에서 출토된 28점의 채색 토용이다. 이 무덤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서 토용들은 전체적으로 중고기에 도입된 당 복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또 여성상은 기록대로 중대 초에 당 의관제를 받아들인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토용의 크기와 복식은 위계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토용은 복두가 큰 데다 자주색 옷을 입은 모습이고 소매가 넓고 포의 길이가 길고, 아래 끝부분, 즉 도련에 별도의 장식천인 란襴이라는 것이 더해져 있어 가장 높은 신분인 진골에 속한 자임을 드러낸다.

이 토용들은 지금은 거의 모두 색깔이 바래고 제일 큰 토용에만 잘 남아 있지만 원래는 모두 중고기 복제 규정에 정해진 위계에 따라 자주색[紫], 다홍색[緋], 푸른색[靑], 노란색[黃]으로 구분되는 색을 나타내도록 옷에 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상의 경우에는 당대에 유행한 전형적 복식을 갖추고 있고

①

③

②

④

그림 168 경주 용강동석실분 토용

머리 모양도 마립간기 토우나 황성동석실분에서 보는 재래의 뒷머리 묶음이 아닌 반발 형태라서 크게 보아 당나라 양식이다.

다음으로, 당나라식 대장식구를 들 수 있다. 당식 대장식구는 축약된 띠고리[鉸具]와 띠끝장식[鉈尾], 네모난 띠꾸미개[巡方],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네모난 띠꾸미개[丸鞆]로 구성된다. 이는 중국에서도 출토 사례가 많지만 주변국에서도 이를 모방해 만든 예가 적지 않다. 중국 내 출토품들을 보면 이런 대장식구는 당이 건국될 무렵 이미 제작되었다. 따라서 당식 대장식구는 7세기 중반 즈음부터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경주 장군로 1호분 출토품은 정형화된 단계의 당식 대장식구로서 띠에 고정하기 위한 못이 금제이므로 고급품에 속한다.

흥덕왕 복식 금령

유물 이외에 통일신라의 복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바로 흥덕왕대의 복식 금령禁令이다. 『삼국사기』 잡지 색복色服조에는 흥덕왕이 9년(834)에 당시 사

그림 169 경주 장군로 1호분 동제 대장식구(금제 못)

회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진귀한 외래품만을 선호하는 등 사치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사치 규제령을 시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진골로부터 6두품, 5두품, 4두품, 평인에 이르기까지의 골품별로 복식뿐만 아니라 수레 및 마구와 그릇 등 용품 그리고 집 및 그 부속품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수입품을 비롯한 갖가지 품목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복식에 대해서는 골품별 및 남녀별로 갖가지 규제 사항을 열거하였다. 이는 거꾸로 당시 사람들이 그런 품목을 즐겨 착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통해 당시 복식을 구성했던 여러 요소를 알 수 있고 각각의 다양한 재질까지도 엿볼 수 있다.

진골로서 현직에 있는 자가 머리에 쓰는 복두는 소재의 제한을 두지 않되, 겉옷, 반비半臂, 바지에는 최고급 소재인 계수금라罽繡錦羅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반비는 속옷 위에 입는 반소매 정도의 등걸이형 복식이다. 계수금라는 신라의 옷감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직물인데 '계'는 양털로 짜거나 거기에 명주실 등을 섞어 짠 라사(raxa) 계통의 모직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은 각종 빛깔의 비단실을 섞어 짠 가장 정교하게 화려한 비단이고 '라'는 무늬를 넣은 얇고 질 좋은 비단을 뜻한다.

복두와 더불어 관복의 주요 부품에 속하는 것이 허리띠와 가죽 목신[靴]이다. 진골로서 현직에 있는 자는 장식물로 무늬를 조각한 백옥을 허리띠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자색가죽으로 만든 목신의 사용을 금하였다. 목신의 목 부분을 졸라매는 띠에는 은은한 무늬를 가진 백옥을 못 쓰게 하였다. 버선은 무늬 있는 비단 이외에는 마음대로 쓰게 하였고, 목 없는 신발[履]은 가죽, 실, 삼[麻]을 마음대로 쓰게 허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베의 새[升]는 단위 너비 당 올 수까지 제한하였다. 진골 현직 남성의 경우는 26새인데 아주 가는 실로 촘촘하게 짠 고급 베였다고 추정된다.

진골 여성의 경우 진골 현직 남성과 공통되는 요소도 있으나 속옷, 목도리, 빗, 비녀, 관[冠]은 여성의 복식 요소이다. 빗에는 슬슬전瑟瑟鈿과 대모玳瑁의 사용을 금했다. 전자는 아마도 지금의 타시켄트 지방 산 에메랄드를 자개 모양으로 장식한 것을 말하는 듯하며 후자는 열대지방 바다거북의 등껍데기이다. '관'은 여성의 머리에 쓴 쓰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진골뿐만 아니라 6두품, 5두품, 4두품, 평인에 이르기까지의 남녀 복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해 복식의 재질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두의 경우 진골은 여러 재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6두품은 세라繐羅·시絁·견絹·포布, 5두품은 라·시·견포, 4두품은 사紗·시·견·포, 평인은 견·포를 쓰게 했다. '세라'는 매우 얇게 짠 무늬비단을 가리키며 '시'는 무늬 없는 고급 비단, '견'은 매우 얇되 성글게 짠 비단, '포'는 비단이 아닌 일반 베를 가리킨다.

둘째, 요대의 장식품이다. 진골 이외에 6두품은 오서烏犀·유鍮·철·동을, 5두품은 철을, 4두품은 철·동을 장식품으로 쓰게 했다. '오서'란 검은 코뿔소의 뿔로 수입품이다. 유는 동과 아연을 합금한 황동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재료는 철이나 동에 비해 고급이었다.

셋째, 목신이다. 6두품 이하는 검은 순록가죽에 자색으로 염색하고 물결무늬를 베푼 특정 가죽목신을 신지 못하게 했다. 이는 신라 관인이 너도나도 선호했기에 그리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진골 가운데 현직자는 자색만 아니라면 검은 순록가죽목신에 물결무늬가 베풀어진 것도 신을 수 있었다. 목신 장식 띠에도 규제가 있었다. 6두품은 오서·유·철·동을, 5두품은 유·철·동을, 4두품과 평인은 철·동을 각각 쓸 수 있었다.

음식문화

곡물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논농사를 하면서 농경사회에 본격 진입하였다. 그러다가 사로국이 성립하는 원삼국시대에는 조, 기장, 피 등의 잡곡이 주로 재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기후가 한랭해져 전체적으로 벼 생산이 줄어든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한서』에 의하면 진한은 예로부터 토질이 비옥해 오곡이 잘 자란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오곡은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말한다. 그러나 『삼국지』 변한조의 기록을 보면 '토지가 비옥해 오곡과 벼 재배에 적당'하다고 해서 오곡과 벼를 따로 기술하고 있어 삼국시대의 오곡이란 벼를 제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진한대의 경우에도 벼를 제외한 조, 기장, 콩, 보리, 마를 오곡이라 했다. 이 가운데 조와 기장의 재배가 으뜸이었다.

조와 기장 이외의 주요 작물로 콩과 보리가 있다. 『삼국지』 동이전 등에 따르면 보리는 파종한 후 제사를 지낼 만큼 중요한 곡물이었다. 다른 작물에 비해 경작기간이 짧고 가뭄을 잘 견디며 늦어도 6월까지는 추수가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콩과 함께 밭농사의 주요 작물이 되었던 것이다. 콩은 발달된 경작기술이 없어도 쉽게 재배할 수 있었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경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대사회에서 주식으로 이용되었다. 콩은 보리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중요 곡물이었다.

이 시기 곡물을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부산 기장 가동의 4~5세기 취락 유적이 있다. 이 유적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벼 이외에 밀, 기장, 팥 등의 곡물과 더불어 복숭아, 참외, 박 등과 가래, 밤, 산딸기 등이 나왔다.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4~6세기이다. 4세기 초 이후로 철기 제작기술이 크게 발전되면서 농기구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벼농사를 위한 수리관개 시설의 축조나 정비 기록이 4세기 이후에 보인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저수지의 축조는 법흥왕 23년(536)에 작성된 영천 청제의 비문에서 확인된다. 청제 축조에는 7천명이 동원되었는데 25명씩 280개 분단으로 조직되었다.

6세기 이후로는 벼농사 관련 기록이 증가한다. 이는 신라 중고기 이전 주요 곡물인 조, 보리, 콩 등의 잡곡을 대신해 벼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7세기의 이야기로 의상에게 귀의하기 위해 태백산까지 가는 진정법사를 위해 그의 어머니가 집안의 쌀자루를 모두 털어 쌀 일곱 되로 밥을 지어 떠나는 자식의 요깃거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늦어도 통일신라 이후에는 일반 백성도 쌀을 어느 정도 소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주식으로 쌀을 먹는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가서야 가능했다.

밥상 위에 올랐던 반찬들

신라시대의 상차림은 밥과 반찬들로 구성되었을 터인데 오늘날과 같이 국이나 찌개도 먹었을까? 최치원의 『계원필경』에 '헛되게 밥만 먹으니 국에 맛을 조화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최치원은 '화갱和羹'을 천하를 경륜할 만한 재상에 비유하였다. 이 글은 그가 당나라에 머물 때에 남긴 것이므로 신라에 국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국과 함께 연관지어 보아야 할 식사도구가 바로 숟가락이다.

숟가락은 현대 한국의 음식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이다. 숟가락을 주된 식사도구로 쓰는 나라는 동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도 한국이 유일하다. 이 숟가락은 밥을 떠먹는 데도 쓰지만 국이나 탕

그림 170 경주 월지 출토 청동 숟가락

을 먹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숟가락의 존재는 국과 특히 찌개 같은 탕 종류의 음식이 중요한 식단이었음을 말해준다. 숟가락은 한국 청동기시대부터 뼈로 만든 것이 쓰였다. 곡물과 야채 등을 섞은 죽 형태의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숟가락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물기가 많고 따뜻한 음식이 많아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기 힘들고 젓가락만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나무 숟가락처럼 삼국시대의 숟가락은 상차림이 주식과 부식으로 분리된 후 국 혹은 탕을 먹기 위한 도구였을 것이다.

국을 제외하고 밥상 위에 올라간 반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국유사』에 무진주에서 왕경으로 찾아온 안길에게 문무왕의 동생 거득공이 '오십미具饌至五十味'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다. '오십미'에 대해서는 반찬이 50가지라는 견해와 다섯 개의 상[俎]에 차려낸 오미五味라는 의견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를 통해 7세기 중엽 신라 왕경에 거주한 귀족의 화려한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육류는 사냥이나 축산으로 공급되었다.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짐승으로는 멧돼지, 사슴, 노루, 토끼, 꿩, 야생오리 등이 있다. 특히 한반도의 선사시대 이래 많은 유적지에서 멧돼지와 사슴, 노루의 뼈가 출토되고 있다. 『삼국사기』 김후직 열전에는 진평왕이 매나 개를 풀어 멧돼지, 토끼 등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야생조류 가운데서는 꿩이 가장 많이 애용되었다. 무열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는 하루 식사로 술 6말, 쌀 6말, 수꿩 10마리를 소비했다고 한다. 이런 기록은 지배층의 풍족한 식생활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식생활에서도 꿩이 육류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5~6세기 경산의 임당고분에 부장된 항아리 안에서 꿩의 유체가 다수 출토된 바 있다. 현대 한국말에서 꼭 적합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꿩 대신 닭'이라고 말하는 것도 옛적부터 꿩이 이처럼 많이 이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축산은 육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육된 가축으로는 소, 돼지, 닭, 개가 있다. 무덤에서 출토된 개와 말의 뼈가 이를 보여준다. 이 외에 사

육했던 가축으로 거위, 흑염소와 염소, 그리고 양이 『일본서기』에 보인다. 『신당서』 신라조에서는 재상의 집에 소, 말, 돼지가 많다고 하였다.

숟가락 사용과 더불어 현대 한국 음식문화를 특징짓는 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풍부한 야채 식단이다. 특히 봄나물로 대표되는 산나물은 늦어도 신석기시대 이래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 특유의 반찬으로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거의 없다. 산지와 구릉이 많은 지형에 적응한 양상을 나타낸다. 야채류로는 상추, 버섯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성덕왕 3년(704)에 공주에서 금지金芝, 상주에서 서지瑞芝를 진상하였다 한다.

『삼국사기』 신문왕대에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보낸 납채 예물에 발효식품 및 가공식품과 관련된 품목이 있어 주목된다. 예물은 쌀·술·기름·간장·꿀·장·포·식해 135 수레와 벼[租] 150 수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먹을거리가 예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서』에는 신라의 혼례에서 빈부에 따라 음식과 술이 차이가 난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에 보이는 장醬·시豉·포脯·해醢는 발효식품 내지 가공식품이다. 8세기 무렵 일본의 문헌에는 콩으로 된 발효식품 가운데 콩과 곡물의 누룩인 장醬과 콩의 낱알이 발효된 시豉가 나온다. 전자는 오늘날의 된장, 후자는 청국장과 유사했던 발효식품인 것 같다. 해醢 역시 발효식품으로 오늘날의 젓갈이나 식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脯는 고기를 말린 가공식품이다.

음식문화의 일면을 알려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제사 음식의 잔적이다. 경주국립박물관의 8~9세기 통일신라시대 우물에서 인골과 다량의 동물 뼈가 수습되었다. 짐승으로는 고양이, 개, 소, 말, 멧돼지, 토끼, 쥐, 두더지, 사슴과 참새, 오리, 꿩 등의 조류 이외에 개구리, 뱀 그리고 붕어, 잉어 같은 민물고기와 상어, 대구, 숭어, 농어, 방어, 돔, 민어, 고등어, 가오리, 광어, 복어 등 바다고기의 잔적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신라 영역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을 신에게 제사지내기 위해 제물로 쓴 것이다. 이와 함께 복숭아씨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또 4~6세기 신라고분에는 닭, 꿩과 같은 육류 외에도 고둥, 백합, 재첩, 바지락, 전복 등의 패류와 상어, 복어 등 여러 종류의 생선뼈, 그리고 복숭아, 참외, 밤과 같은 과실류 등 다양한 음식물이 토기에 담긴 채로 부장되었다.

제사 및 각종 의례와 관련된 음식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유리왕 때에 길쌈으로 승부를 내어 진 쪽에서 벌로 술과 음식을 차려내었다고 한다. 당나라 시인들이 '신라주新羅酒'를 노래한 것으로 보아 신라의 술은 그 명성이 중국에까지 자자했던 것 같다. 이 술과 함께 중요한 것은 떡이다. 오늘날에도 제사상에 반드시 떡이 올라가는데 특히 쌀을 이용한 떡은 의례음식으로서 비중이 크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8월 15일자에서는 당의 법화원에서 신라 사람들이 수제비와 떡을 장만하고 8월 보름 명절을 지냈다는 구절이 나온다.

특별한 음식으로 차茶를 들 수 있다. 차는 일상적 음료이기도 하지만 제사용 혹은 공양용으로도 쓰였다. 『삼국사기』에는 흥덕왕 3년(828) 당에 사신으로 다녀온 대렴이 차의 씨앗을 가지고 왔으므로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고 한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매우 성행한 것 같다. 차의 보급은 불교와 관련이 깊다. 중국에서는 후한 말기부터 찻잎의 효용이 알려졌고 동진시대에 불교와 함께 널리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먹을거리로 과일을 들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복숭아, 오얏(자두), 살구, 밤, 대추를 다섯 가지 과일[五果]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복숭아와 오얏이 일찍부터 과수로 재배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삼국유사』에는 복숭아나무 및 밤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한다. 한편 중국에서 신라의 잣을 '해송자海松子'라고 칭찬하고 진공품으로 많이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정창원 문서에도 신라의 잣을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시대에는 약용으로 쓰였을 법한 음료가 바로 인삼차이다. 『삼국사기』 성덕왕 22년(723)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과하마 1필, 우황과 인삼, 해표피, 금은 등을 보냈다고 한다. 또 738년(효성왕 3)에는 왕이 당나라 사신 형도에게 황금 30량과 포 50필, 인삼 100근을 주었다. 734년 당나라에 인삼 200근 이상을 수출하였다고 하며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관리생활을 할 때 자신의 상관에게 인삼을 따로 선물하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통일신라 이후 인삼이 당과의 주요 교역 물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삼은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탕으로 만들어 약용으로 하였거나 차로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신분제사회였던 신라에서 음식문화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 왕족·귀족층의 식단은 쌀밥과 국, 식해나 젓갈, 육류와 어류 등의 구이와 포 및 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음식은 시녀가 여러 개의 상에 차려 내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백성들은 장이나 소금에 절인 채소 반찬이나 나물을 주로 먹고 어류나 육류는 소량으로 보충했을 것이다. 〈쌍계사진감선사탑비〉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사람인 진감선사가 집안에 한 말의 여유 곡식도 없고 한 자의 땅도 없었으나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서 생선을 팔아 부모에게 콩죽을 드렸다고 한다. 또 자신은 도토리와 콩을 섞은 범벅에 나물 반찬 두어 가지를 먹었는데 귀인들이 가끔 찾아와도 달리 다른 반찬은 없었다고 한다. 이 글은 승려라는 특수한 위치와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서 일반 백성들의 간소한 상차림을 엿볼 수 있다.

주생활

신라 사람들의 주거 생활을 역사의 시초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기록은 없으며 또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의 조사 수준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韓조에서는 '거처로 초옥토실草屋土室을 짓는데 형태가 높은 무덤[冢]과 같으며 그 문은 위에 있다. 온 가족이 집안에 함께 살며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하였고, 변진弁辰조에서는 '집을 짓는데 가로로 목재를 쌓아 감옥과 비슷한 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기록들에 나오는 집의 전체적 구조와 각 부위의 세부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가옥 구조를 대체로 이은 마립간기 집 모양 토기[家形注子]의 구조를 참고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 기록의 '冢'을 그냥 무덤이라고 해석하면 그 집은 땅을 파 들어간 구조, 즉 움집이고 그런 수혈주거가 대략 3세기 중반 당시 집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冢'은 높은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따라서 초옥이 초가지

봉 집을 뜻한다고 본다면 그런 지상 흙집의 외형이 중국 사람들의 눈에 높은 무덤처럼 보였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 시기의 집들은 땅을 아주 얕게 파내어 정지하거나 그냥 맨땅에다 집을 세운 지상식 구조였다. 한편, 문이 위쪽에 있다는 표현은 수혈주거의 출입구를 나타낸 것으로 집의 구조가 지상식인 이상 이는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즉 한쪽 벽의 위쪽에 난 출입구에 사다리를 대고 집에 드나드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런 기본 구조는 마립간기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진 듯하니 그것은 집 모양 토기가 잘 보여준다.

그간 영남지방의 무덤 유적에서 실제로 출토되거나 출토되었다고 추정되는 집 모양 토기들에 표현된 가옥 각부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지붕이 모두 초가지붕인 점, 내부가 벽 부분 한 층과 지붕 바로 밑 부분 한 층(다락)의 두 층으로 이루어진 점, 한쪽 벽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표현들이 사실성이 아주 강하고, 실제 각부를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고 앞 시기의 주거지 발굴 성과를 참고로 해서 집 구조를 복원해 볼 수 있다.

집의 구조는 초가이다. 그 내부는 출입구가 붙은 이층의 다락과 지붕을 바로 지탱하는 내력벽耐力壁으로 둘러쳐져 밀폐된 아래층의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문헌 기록의 '토실'은 출입문 없이 내력벽만으로 둘러친 이런 생활공간의 모습을 표현한 용어로 여겨진다. 물론 그 벽은 순전히 흙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그 뼈대로서 벽기둥들을 중심으로 한 벽체 가구架構가 존재하고 그 일부가 귀틀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로로 목재를 쌓는다는 표현이 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벽체는 기둥[主柱]과 중깃[壁柱]을 촘촘히 세워 가구를 짠 다음 억새 같은 초본류를 이긴 진흙으로 안팎을 메워 마무리한 구조로 지붕을 직접 떠받치는 내력벽 역할을 한다. 이 내력벽은 지상화한 집 구조에서 움집에 못지않은 열관리를 해내기 위한 고안이다. 실내는 격벽이 없는 단실 구조이다. 부뚜막과 벽체 한 쪽을 따라 붙은 외줄 고래식 온돌은 초기철기시대부터 나타나는 취사 및 난방 시설로서 집의 핵심 요소이다. 고래 끝에는 배연을 위한 굴뚝이 설치되었다.

그림 171 마립간기의 집 모양 토기

지붕은 한쪽이 원추형의 모임지붕이거나 우진각 지붕이고 다른 한쪽은 맞배지붕을 벽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게 만든 구조이다. 이는 선사시대의 모임지붕 움집에 낮은 출입구를 달아낸 구조에서 발전한 형태로 추정된다. 내력벽 또한 청동기시대의 움집부터 확인되는 벽주가 발전한 결과이다. 맞배지붕 쪽에 갖추어진 출입 시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출입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독특한 중층 구조 및 출입문과 직결되는 가구재는 실내로 뻗은 중도리와 높은 마룻대공이다. 중도리는 실내의 네 기둥이 받쳤는데 지붕가구를 지탱하는 부재인 동시에 다락의 외곽 틀이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높은 마룻대공

그림 172 집 구조와 각부의 명칭

은 다락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다락 앞쪽 바닥에 있는 출입문으로 실내로 드나드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건축 요소였다. 이런 다락은 세대별 작업장이면서 또한 가재도구 및 개별 가호의 식량 보관 장소였을 것이다.

이처럼 살림집을 굳이 중층으로 짓고 다락에 출입문을 둔 이유는 위해危害동물로부터 사람과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한 고안일 수도 있고, 서력기원 전후한 시기에 취락이 충적평야에 진출했을 때 마침 도래한 상대적 고해면기高海面期의 높아진 강 수위에 적응하기 위한 방책일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집 구조, 특히 다락 출입문을 일반화하는 데 걸리는 점은 기장 가동 취락 유적에서 출입구가 부뚜막 반대편 지상에 난 듯한 사례들도 보인다는 사실이다.

마립간기 신라 사람들의 취락 생활은 가동 마을유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마을은 주변을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에 자리 잡았는데 주변 산지에서 밤나무, 느릅나무 등 풍부한 목재를 구할 수 있었으며 마을 앞을 흐르는 내 주변의 비옥한 농토에서는 농사를 활발하게 지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해로 이어지는 그 내를 따라 주변 지역과 교역과 교류도 쉽게 하였을 것이다.

이 유적에서는 전체적으로 평면 말각방형의 집터를 가진 지상식 살림집들만 모여 있는 지점과 원두막 모양의 고상창고高床倉庫들만 모여 있는 지점이 명

그림 173 부산 기장 가동 취락 유적의 부뚜막과 출입구 흔적

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 이외에 토기 생산을 위한 가마의 터, 우물 터 등이 확인되었다. 살림집은 한 시기에 대략 30~40채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창고는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곡물이나 여러 종류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다. 그 숫자가 워낙 많은 점은 이 마을이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에서 하나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창고들에 공물 등을 모아 두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신라에서 기와집은 대개 중고기에 들어서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 기와집은 한참 동안은 절이나 궁궐 등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9세기 말 헌강왕대에는 도성 안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가옥의 처마와 담들이 서로 연접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서면 왕경의 일반 집 가운데도 기와지붕을 이은 집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통일신라 시기 왕경의 주거 모습은 『삼국사기』 잡지 옥사조의 흥덕왕 금령을 뒤집어 봄으로써 추정해낼 수 있다. 당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내린 조

치가 곧 금령이라고 한다면 그 금지 내용 자체가 9세기 초까지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령에서는 진골, 6두품, 5두품 등 신분에 따라 금하는 가옥 각부의 세부가 정해져 있다. 또 각 신분 사이의 금지 내용은 제일 높은 신분인 진골에 대해 금한 부분에다 하위로 갈수록 항목을 누층적으로 더해 가는 식이었다. 그러므로 진골에 대한 금지 내용에다 그 아래 신분층의 금지사항을 더해보면 당시 귀족층의 주생활이 지녔던 다양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진골의 경우 집[室]은 길이와 너비가 24자(약 7.2m)를 넘지 못하며, 막새기와를 덮지 못하고 겹처마를 시설하지 못하며, 우물천장·중보重栿·공아栱牙·숫개[獸頭]는 설치할 수 있되 현어懸魚를 조각하지 못하고, 백랍·구리로 장식하는 것은 허용하되 금·은·유석·오채五彩로는 장식하지 못하였다. 가운데 계단과 이중계단은 허용하되 계단돌은 갈지 못하고, 삼중계단을 설치하지 못하며, 담장은 들보와 마룻도리를 시설하지 못하고, 석회를 바르지 못하였다. 발[簾]의 가장자리 테는 견絹과 시絁는 허용하되 금錦·계수罽繡·야초라野草羅를 금했고, 병풍은 자수를 놓은 것을 금했으며, 침상은 비단 보료 사용과 자단·침향·회양목 장식은 허용하되 대모玳瑁·침향沉香으로는 장식하지 못했다. 한편 집의 문으로는 겹문과 사방문을 허용하였다.

여기서 '실'은 규정대로라면 하나의 방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건물 한 동棟으로 보기에는 작다.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 세 칸 건물이되 각 칸의 너비가 7자 정도인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보는 목조 건축의 지붕 가구에서 들보를 이중으로 놓는 것을 말하며, 공아는 원시적 형태의 공포栱包를 뜻하는 듯하다. 숫개는 지붕마루에 얹는 짐승머리 모양의 장식 기와를 말한다. 현어는 지붕의 박공판이 용마루에서 마주치는 합각의 정상 부분에 늘어뜨리는 물고기 모양의 장식 철물로서 팔작지붕에 매달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백랍은 납과 주석의 합금이며 오채란 다섯 가지 색깔의 단청을 뜻한다. 목재로는 느릅나무를 흔히 쓴 듯하다.

이처럼 문헌 기록으로 통일신라 시기 기와집의 세부를 자세히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전체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 장골기의 외함을 기와집 모양으로 점토로써 만들어 구워낸 유물〈그림 175〉은 통일기 귀족의 집 모

그림 174 사로국 시기~마립간기 집의 복원 모형

그림 175 통일신라 시기 기와집 모양 장골기 외함

습을 상상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팔작지붕의 기와집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발굴로 통일신라시대 주생활의 세부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황룡사지 동편일대(신라 왕경S1E1지구 유적)는 동서, 남북으로 달리는 가로들로 일정하게 구획된 왕경의 한 방坊 안에서 각 가호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방의 규모는 도로의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남북 172.5m, 동서 167.5m이다. 내부 공간은 다시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보통 5~8기 정도의 건물과 우물 등을 가진 18개 가호로 나누어졌다. 18개 가호 중 담장과 건물이 제대로 잔존한 것들은 남편과 서편에 주로 위치한다. 각 가호의 규모를 보면, 남쪽과 서쪽의 모서리에 위치한 가호를 빼면 남쪽에 위치한 가호들의 터는 대체로 남북 30m 내외, 동서 20m 내외로서 남북 장축의 평면 장방형이고, 서편에 위치한 가옥들은 동서가 약 30m이고, 남북이 20m 정도인 동서 장축의 평면 장방형이다.

그 가운데 제2가호를 예로 보면 남북이 동서보다 긴 평면 구조를 띠며, 면적은 704m^2이다. 모두 기와지붕을 가졌으리라 추정되는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남쪽 담장 정중앙에 설치된 문지에 대응하는 북쪽 담장 한 가운데에 규모가 큰 남향의 제5건물이 위치한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7채가 각각 동편과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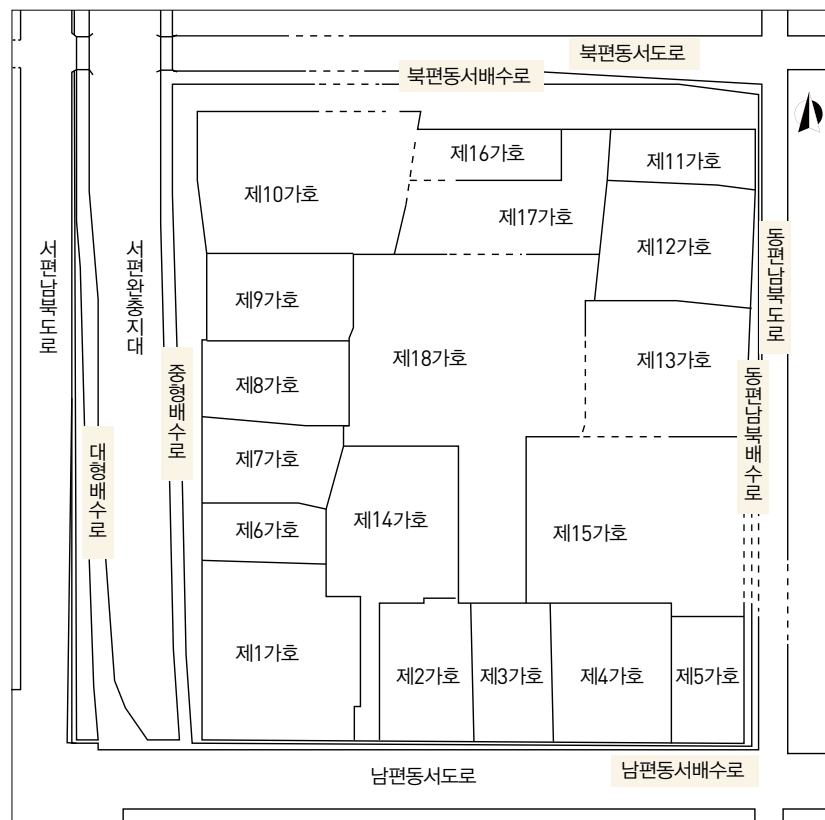
그림 176 신라왕경 S1E1유적 유구배치도

편의 담장 가까이에 3채씩 동향 혹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제1건물만이 제5건물의 남쪽에 근접해 있다. 가호 북편의 제5건물은 면적이 37.45m²로서, 다른 건물들보다 2배에서 4배 이상으로 넓다. 규모와 위치로 볼 때 제2가호의 중심 건물로 판단된다. 제7건물에서는 곡물 저장이 가능한 대호편이 출토되어 창고지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왕경에는 중앙 집중적 상수도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수는 가호마다 갖춘 우물로 얻었다. 때로 한 가호에서 여러 기의 우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각 가호의 의례용 우물이었을 것이다.

지방 도시의 거주 형태는 사벌주 주치의 일부 구역인 상주 복룡동 일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적심건물지와 일반주거지, 우물 등으로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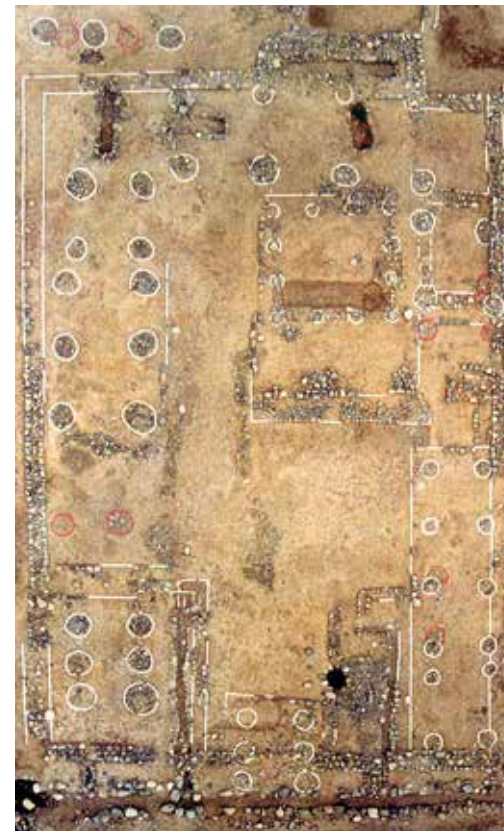
그림 177 S1E1유적 제2가호 발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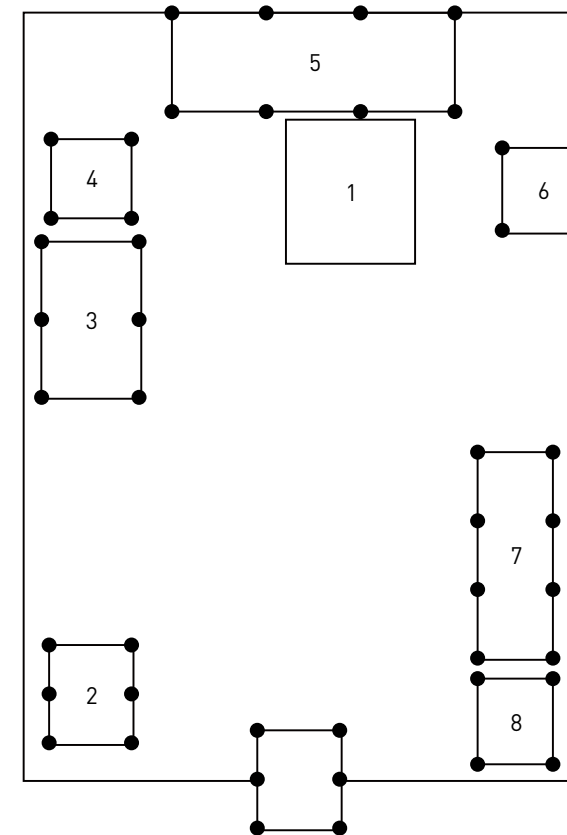
그림 178 S1E1유적 제2가호 건물배치

볼 수 있겠다. 적심건물지는 중심 방향이 대부분 동서축의 정남향 또는 남북축의 정동향으로 방리구획선과 일치한다. 개개 적심은 보통 직경 1m, 깊이 30cm이며 건물지의 장축 길이가 10m 이상으로 대형 건물지로 추정되며, 정면 3칸인 것〈그림 179〉과 1·2칸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정면 1·2칸인 건물은 넓은 주칸거리, 서로 대칭된 건물 배치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몇 동의 건물이 하나의 단위 공간을 구성하도록 배치된 공공의 특수 건물지로 추정된다. 반면에 정면 3칸인 건물지는 공공시설이 위치한 공간의 좌·우측에 분산 배치되었고 서로 직각이나 또는 평행하게 밀집 배치되어 하나의 단위 공간을 구성하며 'ㄷ'자형의 가옥 배치 형태를 띤다. 이런 건물지는 툇칸을 갖추고 있어 일반 주거 건물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그림 179 상주 복룡동256번지유적 적심건물지

그림 180 상주 복룡동230-3번지유적 일반 주거지

일반 주거지는 얕게 판 수혈의 평면 형태가 방형이거나 장방형 또는 타원형과 같은 정형성이 있고, 내부에 부뚜막, 외줄 고래와 같은 취사 및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그림 180〉. 부뚜막은 점토와 돌, 기와 등을 이용해 만든 솥을 거는 부분과 그 언저리 시설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는 마립간기의 시설과 동일하지만, 고래를 보온성이 더 강한 돌로써 구축한 점이 발전된 면이라 할 수 있다.

우물은 모두 석조이며, 지상 부분은 파괴되어 잔존하지 않고 지하 부분만 확인된다. 석축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원형과 방형이다. 단면 형태는 통형과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상광하협형 上廣下狹形이 대부분이다. 바닥은 대부분 사력층을 정지하고 가공된 목재를 이용해 '井' 형태로 최하단 시설을 만들었으며 벽석은 전체적 안정과 균형을 위해 하부에 상부보다 크기가 큰 석재를 사용하였다.

그림 181 상주 복룡동256번지유적 우물

9 농경과 물품 생산

농경

통일신라시대는 전통적 농경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신라는 6세기 무렵부터 저수지를 축조하여 농경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쟁기를 포함한 철제 농기구를 전국적 규모에서 보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이제는 그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그 대신에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시기에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유적은 대부분 왕실이나 국가와 관련이 깊은 장소이다. 이 시기의 농기구에서 보이는 커다란 특징으로는 볏 달린 보습의 보편적 사용, 주조괭이의 대형화, 유경식 호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출토된 철제 농기구로는 보습과 볏, U자형 쇠날, 두날따비, 쇠스랑, 살포, 호미, 낫 등이 있으나,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볏 달린 쟁기이다. 쟁기날인 보습[犁]은 삼국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으나 보습으로 간 흙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볏[鐴]이 붙은 것은 이 시기부터 출현한다. 쟁기에서 볏은 흙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깊이갈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며 그 덕에 논에서의 이어짓기와 밭에서의 돌려짓기도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보습은 서울 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고구려식 삼각형 보습을 계승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

이런 농기구를 통해 당시 논농사는 이전보다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 발전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문헌 기록에 나오듯 통일기에는 주로 씨를 뿌리는 3~5월경에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피해가 극심하였다. 신라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리시설의 증축과 보수를 실시하였다. 이미 중고기 이래로 새로운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로 하

그림 182 용인 언남리유적 출토 보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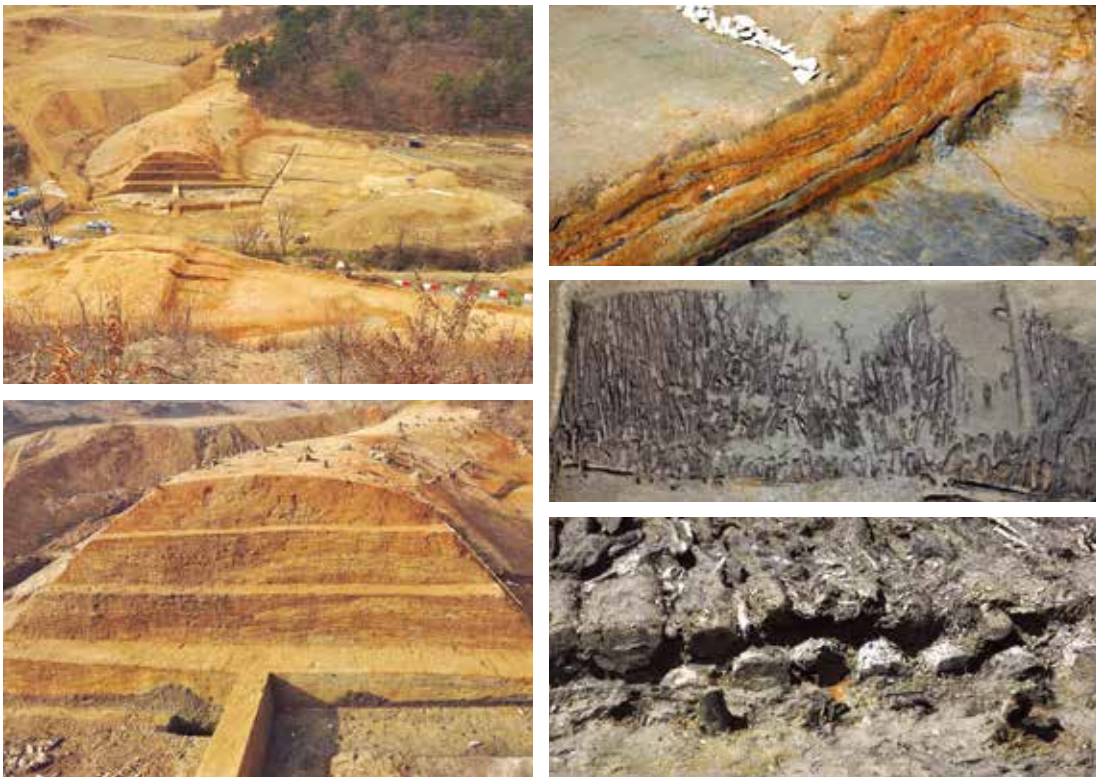
그림 183 수리 관련 유적 발굴 모습(좌 : 울산 약사리제방, 우 : 상주 공검지)

천이나 계곡의 물 흐름을 조절하여 경작지를 넓혔으며 8~9세기 무렵에는 제방의 증축과 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천 청제의 경우도 중고기에 축조된 제방을 8세기 말 무렵 수축한 사실이 영천 청제비 정원명貞元銘에 나온다. 또 청제비의 정원명에는 798년(정원14)에 수통水樋에 해당하는 상배굴리上排掘里라는 시설 명칭이 등장하는데 저수지에서 농경지로 배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일 것이다.

통일신라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수취하는 농작물은 조[粟], 쌀, 콩[大豆]이 중심이었다. 관리들에게 주는 녹봉은 쌀이었지만 민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려주는 곡물은 조였다. 수전 농업이 발전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한전旱田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반 민들은 조나 콩 등을 주식으로 삼았다.

물품생산유적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시기의 토기 생산 기술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가마 구조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해간 점이다. 통일신라시대 토기 가마의 소성부 바닥에서 확인되는 유단식有段式 구조는 그 중의 하나이다. 경주 물천리, 김천 대성리, 용인 동백지구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이런 단은 가마 바닥면의 수평을 유지해 기물을 안정적으로 재기 위한 목적의 구조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5세기 이후 사용된 화구 형태인 적석화구積石火口도 소성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흙으로 구축한 화구를 폐쇄하고 허무느라고 가마 본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구조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가마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각종 소성용 가마 도구가 발달하는 점도 토기 생산의 다양화와 관련이 된다. 경주 손곡동유적에서는 다양한 도침陶枕, 즉 토기받침이 출토되어 당시에 정선된 고급품질 토기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기와는 대략 6세기에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국통일 후에 본격적으로 지어진 관청 건물과 금입택 등 기와 수요층의 확대로 생산이 크게 촉진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기와 가마 유적은 경주지역의 하구리, 금장리, 손곡동, 망성리 등 유적을 비롯해 보령 천방, 익산 미륵사지, 청양 본의리, 상주 청리, 안동 정하동, 울산 곡리 등 전국에서 확인된다. 대부분 반지하식인 가마의 구조에서는 생산의 효율성과 관련된 어떤 변화나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환경의

그림 184 경주 화곡리 토기 생산유구와 출토유물

그림 185 경주 화곡리유적 출토 문양전

그림 186 경주 동천동유적 출토 거푸집

그림 187 경주 황남동376번지유적 출토 목간

변화 속에서도 그 수요층이 근본적으로 한정되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경주 화곡리유적의 예처럼 기와와 토기를 한 가마에서 동시에 생산한 이른바 와도瓦陶 겸업요가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8세기 이후의 대규모 유적인 경주 금장리유적에서도 가마 내부에 기와와 토기가 함께 쌓여 있었고, 미륵사지유적에서도 가마 내외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토기편과 기와편이 함께 출토된 바 있다.

통일신라의 왕경에서 필요한 생활 물품들, 그 가운데 궁정과 관청 그리고 일반인이 필요로 한 토기와 기와 같은 것을 생산한 취락들은 경주 시내 중심부를 둘러싼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마립간기 이래로 단속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조업을 한 토기 생산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즉 이를테면 경주시 동북쪽 외곽에 해당하는 천북면 손곡리와 물천리 같은 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대를 이어 도심 주민들을 위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서남쪽의 망성리 등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체계의 완비는 경주가 왕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

통일신라의 금속기 생산유적으로는 경주 동천동유적, 황남동376번지유적 정도를 들 수 있다. 동천동유적은 북천의 북쪽에 위치하며 도로, 대규모 건물지와 함께 청동공방지가 조사되었다. 공방지는 석렬로 구획된 세 칸 건물지 가운데 중앙 2칸에서 확인되었다. 내부에 위치하는 지름 3m의 장방형 가마는 적갈색 용범이 다량으로 출토된 점을 보아 용범제작용 가마터로 판단된다. 이곳에서는 청동용해로 4기와 제련로 1기가 조사되었다. 주변에서 유리용범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유리도 생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황남동376번지유적에서는 수혈유구, 우물, 적심 건물지, 목주열과 목책, 집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통일신라 관청에서 관리하는 창고의 부속시설이거나 제사용 공헌물을 보관하던 시설의 부속유구일 수도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 창고를 뜻하는 글자인 椋(경)자가 나오는데 이는 공방을 관리하던 관서의 물품보관창고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생산시설에서 출토된 유리슬래그와 유리도가니는 분석 결과 납유리임이 밝혀졌다. 함께 출토된 석제추는 창고의 곡물의 무게를 달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품

통일신라기의 토기 문화는 두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7세기 말부터 8세기 말까지는 인화문이 크게 유행하였다. 인화문은 앞 시기에 이미 등장했지만 그때는 간단하게 한 종류의 문양만 특정 부위에 찍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그릇 전체에 빼곡히 문양을 채워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준다. 대개 긴 판 모양 도장에 여러 개의 무늬를 새겨 한 번에 찍는다. 그리하여 8세기는 인화문토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토기의 종류로는 각종 고배류는 보이지 않고 합과 대부병臺附甁이 유행한다. 합은 구연이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대표적 유적은 676년에 완공된 월지이다. 이곳에서는 신라의 궁원유적답게 상류층이 사용하던 토기가 많

그림 188 경주 월지 출토 인화문토기

이 출토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화장이 발달하면서 인화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뼈항아리가 많이 쓰였다.

다음은 9세기 초부터 통일신라 말까지의 토기문화이다. 이 시기는 인화문 장식이 급격하게 감소해 무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화문은 주름무늬병 같은 일부 토기에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전 시기까지 크게 유행하던 다양한 인화문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에 주름무늬병과 편병 등 각종 병류가 크게 유행하고 목에 물결무늬를 새긴 큰 항아리도 각 유적에서 확인된다. 소형의 주름무늬병은 표면에 세로 방향의 띠를 붙이거나, 점선, 실선을 촘촘하게 찍어 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면이 편평한 편병은 수레 같은 것에 병을 실을 때 더 촘촘히 세울 수 있어 일반 항아리보다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시기의 토기는 월지나 황룡사지, 미륵사지를 비롯해 보령 진죽리, 시흥 방산동, 영암 구림리와 같은 지방의 토기 요지에서도 많이 출토된다. 또 통일신라 말에는 후삼국의 각축과 사회혼란에 따라 각지에 성곽 등이 축조되었기에 그런 곳에서도 토기가 많이 출토된다. 장도 청해진유적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월주요계 청자완이 월지를 비롯한 여러 생활유적에서 출토된다. 신라에서는 7세기에 이미 녹유를 입힌 토기를 만들었고, 고온으로 토기를 구울 수 있는 기술도 갖추고 있었다. 그에다 9세기 중반에 중국자기를 다량으로 접하였기 때문에 통일신라기의 말에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은 구비되었다. 따라서 자기 제작은 고려시대에 들어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통일신라 말에 제작했을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신라의 기와에서는 삼국통일을 전후해 큰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그간 제작되지 않던 암막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수막새에서는 중판형 연화문이 나타나고 연잎 가운데에 자엽이 생기며 주연부를 구슬무늬로 장식하게 된다. 이전 시기의 단판형 연화문 수막새에 비해 훨씬 화려한 모양으로 변한 것이다. 또 와당에는 쌍조문, 기린문, 사자문, 가릉빈가문 등 각종 특수문도 나타나고 보상화문, 넝쿨문, 포도문 등 다양한 문양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9세기 이후가 되면 와당 문양에 길고 가는 꽃잎형태를 한 국화형이 많이 보이면서 대체

그림 189 경주 출토 각종 기와

그림 190 월지 출토 보상화문전(조로2년명)

그림 191 조로2년명문 전돌 세부

로 이전의 화려했던 문양이 단순해지고 활기를 잃는다.

일반 수키와는 도입 초기에는 토기 제작방법처럼 점토 띠를 쌓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점차 원통 틀을 이용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통일 이전에는 무단식의 수키와가 많고 통일 이후에는 유단식이 유행한다. 암키와는 대개 긴 대나무쪽과 같은 판을 엮어 만든 통쪽 와통을 이용하다가 원통틀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두드림 판은 크기가 짧은 것[短板]에서 긴 것[長板]으로 변화한다. 단판은 길이가 10cm 이하로 적어도 세 번 이상 두드려야 완성된다. 반면 중판은 길이가 12~17cm로 두 번 두드려서, 장판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다. 대략 통일기에 들어 단판에서 중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변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돌은 지금의 보도블록과 같이 바닥에 깔거나 벽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무 문양이 없는 전돌도 있으나 윗면과 측면에 화려한 무늬를 장식하거나 녹유를 바른 것도 있다. 녹유전은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흥륜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법당 내부 또는 건물 주변에 깔아서 장식한 것 같다. 전돌의 무늬는 매우 섬세하고 세련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월지에서 출토된 보상화무늬 전돌이다. 윗면의 중앙에 여덟 잎으로 된 커다란 보상화를 배치하고 네 모서리에는 단엽의 꽃잎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측면에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마리의 사슴을 배치하고 여백에 능숙한 솜씨로 당초무늬를 가득 채웠다. 또 다른 측면에는 "조로 2년(680) 한지벌부 출신인 소사 벼슬의 군약이 3월 3일에 만들었다(調露二年 漢只伐部君若小舍 三月三日作康)"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월지 주변 건물의 공사 시기, 6부가 나누어 건축자재를 납품했던 정황, 당시 벼슬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 누각문 전돌, 용문 전돌, 수렵문 전돌, 부처와 탑이 표현된 전돌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측면에 문양을 넣었다. 측면에 문양이 있는 것은 바닥에 까는 게 아니라 탑이나 건축물의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탑을 장식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이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녹유소조상이다. 일제시대 철도 공사 과정에서 일부가 수습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었다. 그간 사천왕상 전돌로 알려졌는데 2006년부터 이루어진 사천왕

그림 192 월지 출토 재갈

그림 193 창녕 화왕산성 출토 호등

사지 재발굴로 전돌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전돌은 사천왕사 동서탑의 기단부 바깥을 장식한 것으로 세 개가 한 조로 탑의 한 면에 계단을 중심으로 2조씩, 여섯 개를 배치하였다. 세 개의 상은 모두 무장한 인물이 악귀를 깔고 앉은 형태로 표정에서부터 복장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런 각 신장상은 인물의 시선과 형상, 악귀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통일신라 불교 조각의 뛰어난 수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당시에 활동했던 양지 스님의 작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일 후 유적에서는 무기가 출토되는 사례는 현격히 줄어든 대신 농공구가 간간이 출토된다. 이 농기구도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출토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용인 언남리유적의 수혈 속에서 보습, 볏, 쇠솥, 자물쇠, 재갈 등 여러 종류의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철기제작소 혹은 보관처일 가능성이 있다. 또 경주 동천동 770번지 우물에서는 보습과 초두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마구 중에는 재갈과 등자의 특징이 현저하다. 재갈은 주로 표비鑣轡인데, 함銜의 측면에 직교하여 고리가 하나 더 붙은 이중외환二重外環이 특징이다. 재갈멈치는 S자형을 띠며 철제뿐만 아니라 금동제, 청동제로 제작되기도 한다. 고삐쇠[引手]는 삼국시대부터 확인되는 2줄 꼬기 기법이 채용된 예와 당대唐代의 표비에서 확인되는 원환圓環이 채용된 두 계열이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 표비의 대표적 사례로 전 경주 탑리, 창녕 화왕산성, 광양 마로산성,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 용인 언남리 출토품을 들 수 있다.

등자는 발의 앞부분을 감싼 호등壺鐙이 주로 확인된다. 삼국시대의 호등은 기본 형태를 나무로 만든 후 주요 부분만 철판으로 보강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체를 철제로 제작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신라시대 철제 호등은 안장과 등자를 좀 더 쉽게 연결하도록 가죽이 통과하는 구멍 방향을 바꾸거나 발을 딛는 부분을 호구 앞쪽으로 더 돌출시켜 넓히는 등 기능적으로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경주 천관사지, 경산 임당 저습지 I지구, 창녕 화왕산성, 광양 마로산성, 익산 미륵사, 전 황해도 평산 출토품 등이 있다.

10

대외 문물교류

무역항

통일신라의 외교는 다원적이었고 그에 수반해 외국과의 교역이나 교류가 활발했다. 그 결과 왕도 경주에는 다양한 문화와 물품이 전해져 신라문화의 국제성을 꽃피웠다. 흥덕왕의 금령조에 기록된 사치풍조의 배경에는 활발한 대외 교류가 자리하고 있었다. 신라에 대한 외국인의 견문기나 역사서의 기록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그대로 검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면모는 드러나고 있다. 왕경이었던 경주, 지방의 대형 사찰과 행정 중심지에서 당으로부터 수입한 자기 같은 물품이 출토되고 있고 상인들이 드나들었을 무역항 가운데 일부가 발굴된 바 있다.

완도(장도) 청해진유적은 9세기에 장보고가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거점으로 설치해서 활약한 곳이다. 일찍이 중국으로 건너가 무관으로 근무하던 장보고는 828년에 신라로 귀국했다. 그가 흥덕왕에게 해적 퇴치와 국제무역을 통한 신라 조정의 재정난 타개 방안을 건의하자 흥덕왕은 그를 청해진대사로 임명하고 1만 명의 군사를 주면서 청해(완도)에 머물도록 했다. 청해진은 서해와 남해를 잇는

그림 194 완도 청해진유적 조사 모습

그림 195 청해진유적 출토 신라토기(좌)와 해무리굽 청자(우)

연안해로 상에 위치한다. 바로 그 해로는 오래전부터 동북아시아 삼국을 연결하는 루트였고, 특히 일본의 대당무역선이 통과하는 항로였다.

현재까지 청해진 본영이 설치된 장도와 상황산 아래의 법화사지가 발굴되었다. 장도는 장좌리 마을 180m 앞에 있는 4만여 평 넓이의 작은 섬이다.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청해진 세력이 머무른 본영이었다. 유적으로는 섬 바닷가에 방어용 목책이 있고, 내성과 외성 등 성곽의 흔적 일부가 남아 있다. 목책은 장도 남쪽과 북서쪽 해안 방어를 위해 세운 말뚝으로, 해안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바다 속에 통나무 1천여개가 40~80cm 정도의 간격으로 둥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일면편병, 사면편병, 소형 주름무늬병, 중국 월주요 청자편, 그리고 암막새 기와와 수막새 기와, 토기 등이다. 이 유물들 가운데 토기는 익산의 미륵사지와 보령 진죽리 토기 가마터, 경주 월지, 울릉도 천부동 고분군 등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으며, 통일신라 하대의 전형적 토기형태이다. 구덩이 속에서 제사유물로 추정되는 철반과 철제솥, 청동병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청동 저

그림 196 울산 반구동유적 목책열

울추와 화살촉, 도검, 철제 허리띠, 마구 등은 청해진이 무역기지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및 군사 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울산 반구동유적은 신라 조정이 직접 경영한 외항 관련 시설로 추정된다. 발굴 구역 안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목책과 우물 이외에 삼국시대의 건물지와 고려시대 이후의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2열 목책의 전체 길이는 약 250m이고, 목책열 사이의 간격은 4m 정도이다. 그리고 망루 시설이 1구간에서 3개, 4구간에서 1개 조사되었다. 망루에 사용된 기둥은 지름 45~70cm 내외의 원목이고 남아 있는 기둥의 길이는 130cm 내외이다. 1m 깊이의 주혈을 파고 목주를 설치하였으며 주혈바닥에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았다. 목책은 대개 토성이나 석성에 비해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구동유적에서 조사된 목책은 구조의 견고함이나 구릉을 감싸고 배치된 양태로 볼 때 장기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로 보면 장도 청해진의 목주열처럼 방어 및 접안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유적에서 발견된 외래문물

이 시기의 몇몇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의 대외관계를 반영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당시 문화의 흐름 자체가 당에서 신라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기에 유물 또한 그런 점을 잘 나타낸다. 즉 신라에서는 주로 당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신라의 유물은 일본에서 출토되거나 그곳에 보존되어 있다.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 인화문토기가 일본 열도 곳곳에서 출토된다. 7세기 말에서 8세기 전반대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는 후쿠오카현에서는 다자이후[大宰府], 고로칸[鴻臚館], 후쿠오카성지[福岡城址] 등 주로 일본 정권의 관공서 터에서 출토되었다. 기나이[畿內]에서도 이 시기의 신라토기가 주로 궁전이나 관아와 관련된 유구에서 출토된다. 나라현 아스카촌[明日香村] 이시가미[石神]유적에서는 장경호편이 출토된 바 있다. 8세기 이후 도성유적 출토된 예로는 헤이조쿄[平城京] 출토품이 있다. 오사카시 사천왕사 쇼쿠도[食堂]유적 출토 인화문장경호는

사원에서 출토된 사례이다. 오사카부 다이[大井]유적이나 나라현 아스카촌 니시다치바나[西橘]유적과 같은 생산유적에서 출토되는 인화문토기는 관영공방에서 신라인이 활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런데 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앞 시기에 비해 도성, 관아, 사원에서의 출토 사례는 감소한다. 당시 일본과 신라의 외교관계가 쇠퇴하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는 676년 기벌포전투에서 당군을 패퇴시키며 대당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국교는 약 35년간 단절되었다. 갈등 봉합에 먼저 나선 것은 당이었다. 당 고종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신문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그대로 이어받게 했다. 한편 신라는 신문왕대에 들어 오랜 전쟁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피폐해진 국내의 제반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곧바로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그 뒤 효소왕대에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고 성덕왕대에 이르러 국내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마침내 당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었다. 성덕왕은 재위 36년간 당에 사신을 46회나 파견할 정도로 대당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혜공왕 이후 신라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두 나라는 여전히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진전시켰다.

이와 같은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당의 새로운 제도뿐만 아니라 물품들도 신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라는 당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현실에 맞춰 변용하였다.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 시가지 곳곳에서는 당으로부터 수입한 완제품이 출토되기도 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신라양식으로 발전시킨 물품도 흔히 발견된다.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자기이다. 월지, 왕경유적, 황룡사지, 천관사지 등 왕경에서 다량 출토될 뿐만 아니라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광양 마로산성, 장도 청해진유적 등 지방 곳곳의 절터와 행정 중심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중국자기는 통상 고급 생활용기로 사용되었지만 장골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경주 배리 출토 장골기는 월주요 양이부호와 완이 조합된 사례이고, 조양동 출토 장골기는 당삼채 삼족호에 신라 동제 접시가 뚜껑으로 덮인 사례이다.

금속기로는 동경과 불교공예품이 있다. 통일신라유적에서 거울의 출토 사례는 많지 않다. 경주 천북면 동산리 출토 해수포도문경海獸葡萄文鏡 1점, 서화쌍조문경瑞花雙鳥文鏡 2점이 주목된다. 이 2점의 동경은 당으로부터 수입하였거나 그것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해수포도문경은 당을 대표하는 거울 형식이며 통일신라 유적 가운데는 경주 분황사 건물지, 왕경유적, 광양 마로산성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특히 마로산성 출토품은 방형이며 중국 월주요 및 형주요 자기와 공반되었다. 반면 서화쌍조문경의 계보는 당의 거울에서 찾을 수 있으나 신

그림 197 신라에서 출토된 중국청자와 당삼채(①배리, ②석장동, ③조양동, ④경주 나정, ⑤경주 구황동 왕경유적)

그림 198 군위 인각사 승탑지 출토 공예품(병향로, 향합, 정병)

라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는 거울 형식이다.

통일신라 금속공예 문화의 정수는 사리장엄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공예품과 월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왕실 생활용품이다. 불교공예품의 일부는 당으로부터 완제품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창녕 말흘리 퇴장유적의 병향로, 군위 인각사 승탑지 일괄유물 속 병향로, 정병, 향합 등 동제품이 그 사례이다. 말흘리 병향로는 가장 널리 보이는 형식이지만 노신 내부에 탈부착시킬 수 있는 내로內爐까지 갖추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인각사 출토품은 중국 신회선사의 묘탑(756)에서 발견된 공양품과 매우 유사하며 공반된 해무리굽 청자와 함께 완제품이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의 물품 이외에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 일부 있다. 완제품이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칠곡 송림사 전탑 사리장엄구로 쓰인 유리완과 월지 출토 유리배 정도이다. 그밖에는 서역인의 모습을 한 각종

그림 199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①구정동방형분 모서리 기둥 인물상, ②국립경주박물관 페르시아문양석 세부, ③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장엄구용 유리기, ④월지 출토 유리기)

석조 조각상과 다양한 문양 요소가 있을 뿐이다. 괘릉과 흥덕왕릉의 문인과 무인상 조각, 구정동방형분 모서리 기둥에 조각된 인물상 등은 외국인의 풍모를 보여준다. 이것들은 신라 조정에 외국인이 출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당을 비롯한 중국 제 왕조에 스며든 서역인 조각상의 이미지가 전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양 가운데는 보상화무늬 이외에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석재에 조각되었듯이 나무 아래에 배치된 좌우대칭의 공작무늬 등이 있다. 이 무늬 역시 서역과의 직접 교류의 결과이기보다는 중국을 매개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다분하다.